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

KWWMC2012

2012.7.23(월)-27(금)

빌리그래함센터/윗튼대학/시카고


프랭클린 그래함 / 명예대회장

한인세계선교대회에 고령의 아버님을 대신하여 축하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과 아름다운 인연이 많습니다. 아버님은 13세부터 3년간 평양에서 여학교를 다녔고, 아버님은 서울에서 세차레나 200만 이상의 열렬한 전도집회를 인도했고, 북한에도 네차레나 방문하였습니다. KWMC 선교운동은 태동기부터 아버님의 협력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대회도 주님의 크신 축복이 계실 줄 믿습니다. - 프랭클린 그래함.


토마스 왕 / 명예대회장, Great Commission Center

KWMC의 전세계를 향한 선교사역이 이제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넘치시는 축복이 금번 제7차 대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0여년간 한인세계선교대회 마다 주강사로 초청받은 나는 한국교회의 복음적 신앙과 선교적 열정에 진실로 감동하였으며, 세계복음화 미완성과업 성취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진군하는 "백투예루살렘"에 함께하는 비전을 봅니다. 금번 선교대회는 이를 위한 재무장의 귀한 기회입니다.


로렌 케닝햄 / 명예대회장

제가 섬기는 YWAM에 한인 선교사들과 젊은이들이 많이 동참하여 헌신함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크게 쓰시고 계십니다. 지난 대회에 와서 한인교회들의 선교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금번 차세대 영어권 대회와 특별히 성인이 된 선교사자녀대회를 통해 다문화권에 준비된 젊은이들에게 놀라운 지상명령 성취의 비전이 면면히 이어지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방지얼 / 명예대회장, 초창기 중국 선교사

어언 20년이 훌쩍 넘었군요. 금년은 벌써 7차가 되었군요. 이번에는 더 큰 성회로서 선교 한국을 과시하는 대회가 됨으로 우리 국내외 한인 교회 모두에게 기쁨이 되며 이 일을 분부하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감지하게도 됩니다 보내는 교회,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 또 헌신하고자 하는 젊은이들께 크나큰 격려가 되어지는 대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큰사명을 충실이 감당하는 국내외 우리 한인교회가 되는데 큰 기여를 바랍니다.


차헌호 / 명예대회장, 웨슬리세계선교회

선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선교동역자님들, 선교사님들과 평신도 사역자, 21세기를 책임질 자랑스러운 젊은 후보생 모두를 정중히 초청합니다. 천태만상으로 얼룩져가는 마지막 때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을 위한 새로운 결단과 방법을 모색하여 시대적 사명을 이루도록 결속하는 세계선교올림픽에 최고 대회장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꼭 만나고 싶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박희민 / 명예대회장, 재미한인기독교재단

예수님은 선교의 총사령관, 성령님은 선교의 주체이십니다. 지상명령인 세계선교는 모든 교회의 최우선 과업입니다. 불은 탈 때만 불이 되고, 종은 울릴 때만 종이 되듯이 교회는 선교할 때만 참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한국교회와 코리안 디아스포라교회들이 충성되어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인류구원의 위대한 계획이 실현되는 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을 초대하고 환영합니다.



장영신 / 공동대회장, 퀸즈장로교회

이 선교대회를 성사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첫 선교사로 지구촌에 오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주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목숨 바쳐 선교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동역자님들이 오순절 성령감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룩한 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만우 / 공동대회장, 필라제일장로교회

88 올림픽 때 한국을 방문한 아랍 신문기자는 차기 이슬람화 대상국은 한국이라는 글을 썼다. 서울에서 열렸던 한국 이슬람 전래 50주년 기념식에서, 2020년까지 한국의 이슬람화를 선언했다. 이슬람의 세계화와 세계의 이슬람화 목표를 한국에 적용하고 있다. 인천에 이슬람 센터가 세워질 예정이다. 금번 선교대회를 통해, 한국교회에 경각심과 선교적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한다.



이승계 / 공동대회장, 체리힐한인교회

선교의 대 주재이신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 추수기가 바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샅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함이니라"(요 4:35-36).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 있기를 힘써 "권능을 받고" 총력을 다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르려" 온 세상 온 민족, 온 나라를 향해 총진군합시다.



서상정 / 공동대회장,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하나님께서 KWMC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6차에 걸친 한인세계선교 대회를 통해서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7차 한인세계선교 대회야말로 주님이 속히 오시도록 준비하는 선교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추수를 위해 일터에서 일하던 모든 추수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더욱 영적 무장을 새롭게 하고 더욱 날카로운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추수에 박차를 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남 / 공동대회장, 세계등대교회

우리는 다가올 7년 대 환란을 눈앞에 두고 있는 긴박한 마지막 추수 수확의 종말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땅끝선교는 불가불 맞물려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야말로 중차대한 땅끝선교의 최종적 선교전략을 종합 재점검하는 동시에 임박한 환란대비와 예수님 재림을 준비시키는 영적무장의 최상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알고 깨어 준비합시다!"



나광삼 / 공동대회장, 큰무리교회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쓰시고 또 지극히 사랑하시는 증거로서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행사가 KWMC에서 4년마다 주최하는 한인세계선교대회인줄 믿습니다. 가히 한인세계선교올림픽이라 불려도 손색함 없는 큰 역사입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선교사 자녀 500여명 및 차세대 GKYM과 함께하므로 더욱 보람되고 비전있는 시도임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이번 선교대회에 열매를 받으시고 더 큰 비전 주시옵소서."



김남수 / 공동대회장, 414창운동 제창, 프라미스교회

한민족 디아스포라 7백만의 선교동력화를 위해 지난 30여년간 KWMC를 성령의 강만도구로 사용하신 우리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제7차 선교대회를 통해서 감수성이 예민하고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가장 높은 전세계 4세부터 14세까지의 연령층을 복음으로 구출 하지는 취지의 4/14원도우 선교운동이 본대회에 참가하는 1000여명이상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 전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승중 / 공동대회장, 샌디에고예수마음교회

금세기 그 유래를 찾을수없는 한국교회의 성장과 선교의 열정은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입니다. 오늘날은 이 장엄한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확인, 재무장해야하는 시점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교의 원형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에 거교회적으로 선교에너지를 집약해야합니다. 금년의 선교대회는 21세기 한국교회의 세계선교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념비적인 대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임한수 / 공동대회장, 큰빛교회

KWMC 선교운동은 명실공히 성령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운동이 되었고 특별히 금년은 한국 선교를 대표하는 KWMA와 한인선교사들을 대표하는 KWMF, 그리고 디아스포라 청년선교운동을 주도하는 GKYM이 함께 하는 입체적 선교운동의 장을 열어 미전도종족과 북한 선교에 집중하며 마지막 과제를 이루고자 하는 총체적인 선교운동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될 것 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을 모두 초청합니다.



한기홍 / 공동대회장, 은혜한인교회

금번 7차 대회를 허락하신, 선교를 명령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점점 선교의 문이 닫혀져 가는 작금의 현실속에서 어떻게 세계선교를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나누며 해답도 얻게될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2차 MK대회와 GKYM청년선교대회가 함께 열려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세계선교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며 기쁨으로 모든 선교 동역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성혜연찬 / 공동대회장, 주 예수교회

북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의 선교사명은 독특합니다. 7천만 한민족의 10%인 7백만 해외동포가 150여국에 세계 제2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회는 모국의 한국교회와 더불어 세계선교의 동반자로서 서로 함께 협력해야만 하며 주변의 다민족을 향한 선교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금번 대회가 북미주 한인 민교회의 세계선교 역할에 역사적 발전의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이상진 / 공동대회장, 타코마중앙장로교회

1988년, 1차 대회 때 전체 한인선교사는 불과 300여명, 세계 53번째 파송국이었습니다. 당시 선교사 130명이 참석, 선교지 의상을 입고 국기를 들고 등단했을 때 함께 한 참석자 모두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2000년까지 1만명을 파송하게 해 달라고 우리의 비전을 주님앞에 간절히 올려 드렸습니다. 20여년이 지난 오늘, 1만 6천이 넘는 선교사들이 178개국에 나가서 복음의 추수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강준원 / 공동준비위원장 단장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KWMC가 세계선교대회를 시작한지 30여년 세월이 헛되지 않아 그동안 많은 사역들을 이루었습니다. 금번 대회는 선교사대회, 선교사자녀대회, 차세대 GKYM 대회, 어린이대회를 통해 세계선교전략에 획기적인 열매를 가져올 것입니다. 북미주 4,000여 교회와 함께 이 선교운동을 이끌어 오신 전/현직 의장단들과 실무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강승삼 / KWAM 회장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1950년 6.25사변 이후 한국은 폐허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상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 중 경제규모가 10위에 이르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1300만 그리스도인, 54,000여개의 기독교회, 3,500여 한인디아스포라 교회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섭리의 역사 가운데 한인선임선교사들과 한국, 미주 교회의 선교지도자들, 그리고 차세대 역군들이 일곱 번째로 모이는 금번 선교대회는 기대와 책임을 다시금 다짐해야 할 기회입니다.



한정국 / KWMA 사무총장

1988년은 한국선교에 잊을 수 없는 해입니다. 시카고에서 모인 한인선교지도자들의 꿈이 2000년까지 1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선교사가 600명에 불과했을 때 꾸었던 그 시카고의 꿈이 2000년의 한 해 전 1999년에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2030년 전까지 전 세계선교대상자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Target 2030의 비전이요, 한인선교대회의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최광규 / KWMF 대표회장, 도미니카 선교사

21세기 세계선교에 우리 한인선교사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사명을 일으키기위해 시작된 KWMC 대회는 해를 거듭하면서 한인선교사역을 촉진하는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2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한인교회 세계선교사역은 전세계교회의 주목을 받게되었고 그 책임또한 막중해졌음을 실감합니다.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한인교회와 선교사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본대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상진 / 공동대회장, 타코마중앙장로교회

1988년, 1차 대회 때 전체 한인선교사는 불과 300여명, 세계 53번째 파송국이었습니다. 당시 선교사 130명이 참석, 선교지 의상을 입고 국기를 들고 등단했을 때 함께 한 참석자 모두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2000년까지 1만명을 파송하게 해 달라고 우리의 비전을 주님앞에 간절히 올려 드렸습니다. 20여년이 지난 오늘, 1만 6천이 넘는 선교사들이 178개국에 나가서 복음의 추수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한도수 / KWMF 사무총장, 브라질 선교사

1988년부터 4년마다 시카고 빌리그래함센터에서 열리는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선교올림픽이요, 선교축제며, 선교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대회는 규모로 보나, 여러면에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하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인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북미주 한인교회가 새롭게 부흥, 수많은 선교헌신자들을 배출하며 한국교회가 새롭게 갱신되어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강경철 / CTS 기독교TV 회장

할렐루야!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여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 7백만 한인디아스포라와 7,000여 한인디아스포라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깨닫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는 선교대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보내는 선교사와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 모두가 이번 대회를 통해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 부르신 그 곳에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영혼 구원에 힘쓰시길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박신욱 / 미주복음방송 사장

1988년 대한민국은 올림픽을 기점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1998년은 시카고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열렸던, 더 중요한 해였습니다. 이를 통해 북미주 교회들을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었으며 수많은 선교 헌신자들이 나왔습니다. 금번 7차대회를 통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남은 과업완수를 위하여 연합하는 움이 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광태 / 시카고한인선교협의회 회장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사도들을 향한 주님의 대명령은 오늘도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긴급 대명령입니다. 금번 7차 한인세계선교대회와 GKYM 선교대회를 통하여 우리 한민족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번 이 거룩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세계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카고 교계는 본 대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정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김혜택 / GKYM대회장, KWMC미전도종족운동본부장

성령님은 180여개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2세 청년들을 가장 적합한 선교자원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이미 타문화 경험이 있고, 탁월한 언어능력을 갖추었으며, 이민 1세들의 믿음과 기도, 헌신과 순종을 물려 받은 이들은 3,300 미전도종족을 마무리 할 위대한 복음의 도구입니다. 역사적으로 선교운동의 주인공은 청년이었습니다. GKYM 청년선교축제는 예수그리스도의 꿈인 세계복음화를 완수할 추수의 일꾼을 세우는 선교운동입니다.



이동열 / GKYM사무총장, KWMC청년선교운동본부장

잃어버린 30년!!! 한국교회가 청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다음 세대를 향한 투자가 인색해지기 시작하면서 서방교회와도 같이 몸의 척추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GKYM(세계청년선교축제)과 함께 하는 7차 KWMC(한인세계선교대회)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1세대와 다음세대가 주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미래 선교의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제 씨앗을 뿌립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강은혜 / WMK(World Missionary Kids) 대표

KWMC를 통해 시작한 선교사자녀대회가 벌써 4년이 흘러 2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역사를 저희들의 부모님을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자의가 아닌 부모님의 결정으로 선교의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사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번 전세계 흩어진 선교사 자녀들이 모여, 선교의 삶과 비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고석희 / 사무총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지구촌 복음화의 미완성과업(Unfinished Task of Global Evangelization)에 대한 긴박성을 절감하는 범세계 교회들과 선교운동들이 강권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세기를 『천국추수의 최종년대』(The Final Era of the Harvest for the Kingdom of God)로 상정하고 도처에서 총력매진하는 현시점에 열리는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12)는 지구촌 완전복음화를 위한 위대한 비전과 열망, 그리고 선교적 대각성과 총동원을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성명』(The Vision Statement of God)이라고 확신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는 세계선교의 대사명(Great Commission)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마 22:39)는 인류애의 대계명(Great Commandment)을 분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2012년초 현재 무려 169개국에 23,331명에 이르는 위대한 한인선교사들이 오대양 육대주에 달려나가 생명과 생애를 그 땅에 관유처럼 쏟아 붓고 있으며, 선교사 자녀도 무려 15,913명이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한인선교사 파송현황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1979년-93명, 1982년-323명, 1986년-511명, 1989년-1,178명, 1990년-1,645명, 1996년-4,402명, 2002년-10,422명, 2006년-14,896명, 2007년-17,697명, 2008년-19,413명, 2009년-20,445명, 2010년-22,041명, 2011년-23,331명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루어 세계 제2위의 선교사 파송국가로 부상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장엄한 행렬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성령의 역사입니까!

오대양 육대주, 열풍이 몰아치는 사하라사막에서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시베리아설원까지, 산악과 평야, 도시와 촌락, 오지와 섬들 그리고 감옥과 유형지에서, 혹은 백척간두의 두만강변에서 험악한 세월을 가슴으로 헤치며 구령의 열정으로 그 심장을 불태우며,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며, 생명을 포기하며, 고난을 찬미하며, 『매를 맞으며 자기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으며』(고후 11:23-27)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와 영광의 확장을 위해 승리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성령에 이끌리어 달려가는 저 위대한 복음의 전령들! 저 고독한 믿음의 영웅들! 오늘도 불멸의 선교행진을 하나님의 책과 박동하는 자기 심장에 기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곧 지구촌완전복음화 그 위대한 역사창조의 새벽을 응시하는 저 불타는 여명의 눈동자들이여! 오! 그대들은 어찌 이다지도 멋지게 휘몰아치며 소용돌이치며 도도히 흘러갈 수 있단 말인가! 천고(千古)의 강물처럼, 천년을 굽이쳐 흘러가는 저 유장한 강물처럼 그렇게!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12)는 정녕 이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1천2백명의 선교사, 5백명의 선교사 자녀를 비롯하여, 목회자, 신학자, 평신도 그리고 GKYM의 차세대 대학생, 청소년 등 6천여명의 선교동반자들이 한마당에 모여 만남의 감격, 사랑의 교제, 비전의 융합, 기도의 연합, 사명의 재무장, 전인치유, 영적회복, 성령의 재충만, 정보와 전략의 상호 교류 그리고 한국교회 선교역량의 촉진(Catalyzing), 동원(Mobilizing), 번식(Multiplying)을 도모하는 역사적인 동반자협력 선교의 대광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건한 사랑의 고백과 또한 상실된 영혼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불길처럼 타오를 오순절적 성령폭발의 현장, 그 위대한 선교축제의 대광장에서 저 높은하늘 보좌로부터 들려올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모두 기다리며 삼가 선교동지 여러분을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초청하는 바입니다.

KWMC2012 한인세계선교대회 횃튼공약

이 공약은 2012년 KWMC가 소집한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한 6,000여명의 한인 선교지도자들의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한 공약이다.

우리는 1988년 이곳 역사 깊은 횃튼대학 캠퍼스에서 시작한 한인세계선교대회를 매 4년마다 계속하여 왔다.

2012년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격동하는 지구촌! 긴박한 땅끝선교!"라는 주제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되었다.

대회 주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다.

무엇이 이 역사적 기독교 교육의 요람 횃튼대학에서 끊임없이 한인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도록 우리를 이끄는가? 1860년 설립된 이곳 횃튼대학은 지난 150여년 동안 세계의 모든 대학 중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하나님 나라 선교 교육의 요람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크고 강력한 선교 세력이 되도록 강권하고 있는가?

오늘의 모든 지구촌에는 인류를 멸망케 하려는 사단의 세력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묻고 대답한대로 오늘 이 시대의 격동하는 세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선교 확대의 긴급성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닷새 동안 새벽 일곱시부터 밤 열 시까지 100여 명의 영역별 선교 전문가들로부터 주제강연과 선교전략 포럼, 선택강좌, 그리고 영적 능력의 회복과 재헌신을 위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 대한 헌신의 공약을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사도적 선교 원리

오늘 이 시대는 지구촌 인류를 멸망케 하려는 사단의 세력에 포위되어 있다. 복음과 선교에 대한 적대세력들은 한없이 강대해져 가고 더욱 더 공격적이 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에 이르는 현대선교는 계속해서 성경적 기초를 상실하고, 사도적 선교 원리를 저버리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선교의 성경적 기초와 사도적 원리를 회복하고 강권하신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선교의 성경적 기초와 사도적 원리는 무엇인가?

1.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선교: 사도들의 선교는 부한 자를 위한 선교가 아니었다. 사도시대의 선교는 예수께서 하시던 대로 가난한 자를 위한 천국 복음 전파였다. 사도들은 가난한 자를 찾아 나섰고 그들을 사랑하였으며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았다.

2. 약한 자를 위한 선교: 사도들의 선교는 힘 있고 건강한 자들을 위한 선교가 아니었다. 사도들의 선교는 예수께서 하시던 대로 힘없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선교였다.

3.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한 선교: 사도들의 선교는 예수께서 하시던 대로 억압받는 자와 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선교였다.

4. 정처 없는 나그네를 위한 선교: 사도들의 선교는 예수께서 하시던 대로 나라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나라 잃은 디아스포라를 위한 선교였다.

5. 죄인을 위한 선교: 사도들의 선교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눅 5:32)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였다.

6. 종말론적 선교: 사도들의 선교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말론적 선교였다.

7. 순교적 선교: 사도적 선교는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들 모두가 순교한 순교적 선교였다.

우리의 고백

우리는 위의 일곱 가지 사도적 선교원리가 신약성경의 사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선교의 성경적 기초이며 사도적 선교원리임을 믿으며, 이 원리에서 벗어난 모든 오도된 선교의 길에서 사도적 원리로 돌아설 것을 다시 서약한다.

우리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2,000년 선교 역사 속에서 인간이 저지른 허다한 과오와 실패를 발견한다. 우리는 선교 역사에 나타난 세상 권력, 그리고 우상종교와의 타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교를 정복적 선교로 전락시킨 과오와 범죄를 발견한다. 프로테스탄트 선교 200년 역사 역시, 서구 식민주의 세력에 동참하며 복음 전파보다 서구 문명 이식에 주력한 죄를 고백한다. 또한 우리는 비복음적 선교 세력의 세속화 운동이 세계선교를 주도하도록 한 현대선교의 과오와 범죄를 고백한다.

우리는 오늘의 서구 교회의 몰락과 쇠잔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인간의 육신적 쾌락과 한없는 재물에 대한 탐욕의 나락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에 빠진 죄의 결과임을 고백한다.

비서구 세계 선교세력의 기수가 된 우리 한국 선교세력은 이처럼 오도된 서구 교회의 선교역사의 과오와의 단절을 선언 한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도전

우리 민족은 나라 잃은 백성이었다. 우리는 지금도 국토 분단과 민족 분열의 아픈 역사 속에 사는 민족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힘없고 약한 우리 민족에게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강력한 교회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 교회를 그 시초부터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나라 밖으로 뻗어나가 복음을 전하는 외향적인 선교적 교회로 만드셨다.

우리 민족은 지금, 하나님 나라 선교운동의 최전방에서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강함과 많음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져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지 말자.

우리는 선교의 탈서구화 시대를 넘어섰다. 이제는 선교의 세계화의 시대이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하려는 오만을 버리자. 동과 서, 그리고 남과 북의 지구촌 전체의 모든 선교세력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선교 동반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우리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하여 이 세계를 향한 사단의 음모를 인식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 사단의 세력을 극복할 확신을 얻었다.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역하는 우리 모든 한인 선교사들이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재능과 지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헌신할 것을 서약한다.

KWMC 2012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조직

명예대회장	빌리 그레함 토마스 왕 존 파이퍼 릭 워렌 조동진 차현희 임동선 김만우 박희민 최일식 나운태 고인호 유효명
공동대회장	김남수 김만우 나광삼 배현찬 서삼정 이상남 이상진 이승계 이승중 임현수 장영춘 한기홍
사무총장	고석희 서기 조일구 부서기 유승원 회계 이상진 부회계 지용주 감사 박은우 부감사 안영섭
공동준비위원장 강준원/단장	김수태 김재열 김혜택 노정각 문석호 박신일 박형은 박헌성 백상만 송민호 송성자 송영일 안영섭 안창의 유승원 이영섭 이용걸 이재호 장동찬 전덕영 조일구 제석호 지용주 최낙신 최은중 호성기 한재홍
공동총무단 박은우/단장	김동선 김성민 김성택 김진환 김충직 김풍운 서경재 서영오 송상철 오벤자민 윤덕곤 윤상돈 윤정용 이문연 이지용 이형석 임철성 장춘원 조원태
시카고KWMC	회장 김광태 부회장 장춘원 총무 강민수 서기 이승훈 회계 한준일

주강사



존 파이퍼 / 세기의 설교가, 탁월한 저술가

"기독교 회락주의자", "탁월한 기쁨의신학자"로 예수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는 순수하고 강력한 복음선 포를 통해 이시대최고의 설교가라는 평을 듣는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삶을 허비 하지말라", "말씀으로 승리하라" 등 영혼을 격동케하는 많은 저서로 한국교회에도 널리 알려졌다. 윗튼대학, 풀러신학교를 나와 독일 뮌히히대학에서 신학박사를 하고 지난 32년동안 미네아폴리스의 베들레헴침례교회에서 목회사역을 하고있다.



로렌 커닝햄 / 명예대회장, YWAM 총재, 열방대학 총장

로렌 커닝햄은 YWAM 선교회를 1960년 창설, 현재 130개국 650여 지역에서 11,000여명의 자원선교사들이 활약하는 세계최대의 초교파선교단체로 성장시켰다. YWAM의 현 총재이며 열방대학의 총장이다. 로렌 커닝햄은 40년 이상 열방을 대상으로 한 제자화사역을 통해 얻은 개인적인 경험들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성경적인 예와 가르침을 보여줄 것이다. 마태복음 28:19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실질적인 적용을 통해 도전할 것이다. 대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간단한 공식을 예수님의 모델을 사용하여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제시할 것이다.



딕 버드슨 / 로잔운동 총재

1974년 빌리 그레함의 주도로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고, 1988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현대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산실로 오늘날 선교신학과 선교전략이 모두 배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로잔대회. 그 22년 후 지난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던 기념비적 제3차 로잔대회의 의장직을 수행했고 현 로잔운동 총재인 그는 1980년부터 Asian Access에서 아시아 지역 선교사로 사역하였고 현재 동 단체의 회장직도 맡고 있다. 윗튼, 고든컨웰, 하버드대에서 수학했다.



빌리 그레함 / 빌리 그레함센터 총재

빌리 그레함 목사의 뜻을 이어 윗튼대학 캠퍼스에 위치한 빌리그레함센터 현 소장으로서 지난 25년간 전세계에서 복음전도자로, 강연자로, 목회자로 사역해 온 그는 미교회지역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품고있다. 풀러신학교 등을 나와 고든컨웰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음악인과 연기자로서 전문적 활동을 하기도 했다. 복음주의 연합 교회의 전도 및 기도 사역 책임자로서도 사역했으며, 저서로는 만약 세상이 믿게 된다면(That the World May Believe)이 있다.



폴 애쉬얼만 / CCC 부총재

1,000개의 언어로 번역, 236개국에서 6억번 이상 상영된 '예수영화'를 창안하고 지난 30여년간 디렉터로 섬겨온 폴 애쉬얼만 박사는 1966년 C.C.C.에 헌신하여 현재 부총재로 사역하고 있다. 미전도종족에 관한 최고의 전략가 중 하나인 그는 「Finishing the Task Movement」를 통해 전세계 639개 미전도종족을 향한 최전방 개척선교를 펼치며 국제오랄네트워크를 통해 성경이 없는 3천여 언어를 위한 성경녹음사역을 추진중이며 로잔운동 락그룹의 의장직을 맡기도 했다.



오정현 /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원장

숭실대영문과, 총신대학원, 탈봇신학대학원, 칼빈신학대학원, 하버드대학교 수학을 거쳐 남아공 포체프 스트룸대학교에서 신학박사를 받았고 남가주 사랑의교회를 세워 폭발적성장과 함께 가장 건강한 이민교회로 평가 받은뒤 한국 사랑의교회 2대목사로 부임하여 국제제자훈련원 원장, 한중국제교류재단 대표, 연변과학기술 대학, 한국신학연구정보원, 아시아언어문화연구소, 청년목회자연합등의 이사장, KOSTA국제이사 등으로 활약하며 대표적인 한국기독교 차세대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다.



서삼정 /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공동대회장

「예수 믿는 맛」 시리즈로 펴낸 「영성이 살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난다」 등 그의 저서에서 보듯 서삼정 목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깊은 영성목회를 통해 지난 36년간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를 섬기면서 미국 동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시켰고 능력있는 설교가로 세계적인 부흥집회 및 영성세미나를 인도하였고 또한 영감넘치는 시편으로 엮은 시집 「조약돌」을 세상에 선보인 아름다운 감성의 사역자다. 미주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세계복음화협의회 미주총재 등을 역임했다.



채수열 / 한신대학교총장, 한국기독교학회회장

한신대와 연합신학대학원을 거쳐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신학박사(선교학)를 받고 함부르크대학 선교이카데미 연구실장을 역임, 귀국후 한국신학연구소장, 국제인권센터소장, 한신대학교총장 재임중이며 지구온난화 사막화와 기후변화, 오존층파괴, 인구폭발, 산성비, 핵겨울, 기아 질병등에 대한 지구재생 프로젝트인 유엔지구환경회의의 한국대표로 활약하며 한국구약학회, 한국신약학회, 한국선교학회등 13개 학회와 전국 40여 신학대학 및 기독교대학의 학자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학회의 회장이다.



장영근 / 퀸즈장로교회, KWMC의장

1973년 뉴욕에서 퀸즈장로교회를 개척, 3,500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시켰으며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를 통해 수많은 주의 종을 배출했고 미주크리스천신문을 통해 활발한 문서선교사역을 펼치는 가운데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를 매년 개최하여 한인디아스포라목회자들의 자질향상과 협력관계를 증진하는일에 힘쓰다가 성역 50년을 마감하고 금년에 은퇴한 뒤에도 뉴욕, 토론토, 캄보디아에 있는 3개신학교와 미주크리스찬신문등 왕성한 활동중이며 다수의 저서가있다.



나광삼 / 큰무리교회, KWMC 의장, 요셉운동

이민목회 30여년의 광야길에서 큰무리교회의 위대한 성장을 일궈낸 나광삼 목사는 한국과 북미주를 점철하는 연중 25회 이상의 부흥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또한 「21세기 요셉운동」을 창설, 청소년 신앙부흥운동을 10여년 넘게 전개하며 애굽의 이질문명 속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세상과 자신을 극복했던 요셉을 본받아 주 안에서 강한 자아각성과 신앙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이민사역을 펼치고 있다. 워싱턴개혁장로회 신학교 이사장으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마크 앤더슨 / 콜투올(Call2all) 총재

"전세계에 5백만개 교회개척을 통해 10억명을 전도하자!"는 CCC창립자 빌 브라이트박사의 비전을 활성화하고자 2004년 말에 65명의 기독교지도자들에 의해 조직된 GPN(Global Pastors Network)이 3년후 Call2all이란 이름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선교지도자 위주의 운동에서 선교단체, 목회자, 평신도, 사업가, 교육자, 예술가, 의료진, 미디어, 가정사역등 각 분야별 네트워크를 갖는 광범위한 전도전략운동으로 발전, 세계각처 40여회선교대회를 통해 불길처럼 확산되고있다.



타드 존슨 / 고든 컨웰신학교 교수

고든 컨웰 신학교에서 세계기독교학과 부교수로, 또 세계기독교센터(CSGC)의 디렉터로 있는 그는 데이빗 바렛 박사와 함께 「세계기독교대백과사전」을 편찬, 모든 전세계 모든 종족, 언어, 나라, 도시의 기독교와 타종교 현황의 전체 통계의 연구 권위자로 이 자료는 ABC, BBC, AP통신, 뉴욕타임즈 등에서 널리 활용 및 인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로잔운동에서 새로운 전략, 미전도종족선교, 세계종교에 대한 「글로벌 컨버세이션」을 통해 활발히 동참하고 있다.



조동진 / 조동진선교학연구소 소장

한국교회 세계선교운동의 위대한 선도자이다. 1963년 『국제선교신학원』 (ISM)을설립,1973년 『동서선교연구개발원』 (EWC)으로확장, 동년에 『아시아선교협의회』 (AMA)창립주도, 1974년 제1회 로잔대회 강사로 선교구조 쇄신을 역설, 1980년 『마울의집』 을 세워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였고 1989년 이래 20회 이상 북한을 방문, 김일성 주석과 세차레 단독회담 후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신학교에서 강의했다. 근년에는 『조동진선교학연구소』 와 『세계선교박물관』 을 설립, 후학양성에 힘쓰신다.



강승삼 / KWMA 회장

10만에 육박하는 한국교회 및 각 교단, 선교단체들이 초교파적으로 연대한 막강한 선교운동네트워크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회장으로 한국교회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강승삼 목사는 젊은 날에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헌신, 12년간을 교회개척, 신학교 설립, 현지지도자 양성 등에 힘썼다. 총신대학원, 컬럼비아국제대학을 나와 트리니티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선교분과위원, 아세아복음주의협의회 선교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웅섭 / 아제르바이잔 포유사장

마울선교회에서 2000년 파송받은 아제르바이잔의 최웅섭 선교사는 지난 2004년부터 아제르바이잔 주 정부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수익금을 개척교회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 차세대 목회자 양성 등을 위해 사용하고자 포유장학재단을 설립하였고 기업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에서 선교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해 온 결실을 장학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목사로 포유국제 NGO 재단 이사장, 포유장학재단 이사장, 포유글로벌테크 CEO다.



이상남 / 세계등대교회, KWMC의장

목회자로, 부흥사로, 주와 동행하는 예수제자양성을 위한 왕의복음선교훈련원(The King's Gospel Institute) 사역으로, 70여개국에서 선교사영성집회를 수없이 인도하며 성령폭발을 목도해 온 이상남 목사는 목회 도중 자아가 깨어지는 영적대변혁을 경험한 후, 종말론적 성화의 복음메시지를 외치고 있다. 1983년 개척한 세계등대교회를 선교의 사명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 왕의 복음, 주와 동행하는 생활, 재림과 휴거, 인생의 본질과 급선무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한기홍 / 은혜한인교회, GMI대표, KWMC의장

59개국에 271명(81% 자체 파송) 선교사를 파송했고 백만여명의 원주민을 품은 8천여개의 현지교회를 개척해 내었으며 15개 신학교를 세운 G.M.I. 선교운동은 한기홍 목사가 섬기는 은혜한인교회를 모체로 하며 이는 초창기부터 세계선교를 최우선 목회과제로 세우고 교회 재정 50%를 선교에 투자한 아름다운 열매다. 새 성전의 이름을 '비전센터'라 명명하고 성도 1만명이 모여 지구촌의 3,500 미전도종족을 위한 세계복음화 중보기도운동의 불길을 일으키는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남수 / 프라미스교회, KWMC 의장

강력한 선교적 목회를 통해 뉴욕지역 최대교회로 성장시킨 그는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예민한 지구촌 4세-14세 어린이와 그가족을 상대로 하는 집중교육선교운동을 전개, 선교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전환을 시도한 4/14윈도우운동의 제창자로 매년 제3세계교회지도자들을 초청, 4/14윈도우 글로벌서밋을 개최하며 이운동에 전력투구하고있다. 주요전술로는 파워하우스를 통한 지역사회 섬김사역, 뮤지컬 'His Life' 공연을 통한 문화사역, 축구와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 사역, 영어학습을 통한 교육사역등이다.



이승중 / 예수마음교회, KWMC 의장, 어깨동무

이민교회의 정체성을 선교적 시각으로 통찰, 5천년 민족사에 세계선교의 여울목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분복이라 믿는 그는 사역보다 먼저 사람이라는 고백을 품고 이민교회 차세대 인물양성을 위한 「어깨동무 사역원」을 설립, 7백만 한인디아스포라의 청년동원에 힘쓰며 몽골국제대학교(MIU) 대표이사, '아름다운 운동주', 노스필드파운데이션, GMIT & Pan Pacific Film Festival 대표, KCNK(북한을위한 한국교회연대) 이사장등으로 활약하며 목양심서, 선비크리스찬, 글로벌퍼펙티브등의 저서가 있다.



임현수 / 큰빛교회, GAP, GKYM, KWMC의장

큰빛교회를 캐나다 최대교회로 성장시킨 그는 대성한 목회를 기반으로 모든 역량을 지구촌 복음화에 투입하는 가운데 특히 동족인 북한선교 그리고 미전도종족선교 등 최전방 개척선교에 대한 각별한 비전과 열정을 불태우는 종으로 북한만 해도 양로원, 어린이집, 학교, 주유소, 빵공장 등 방대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젊은날 10년 이상 CCC 및 GCTC 훈련간사로 봉사했고 현재 GAP(세계선교협력회) 총재이며 한인



이현춘 / 주예수교회, KWMC 의장

연세대 신학과 및 연합신학대학원 신학석사 후 도미, 듀북신학교, 보스턴대학을 나와 루이지애나 대학교에서 철학박사(기독교사회윤리)학위를 했으며 원칙이 있는 분명한 목회 철학과,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균형잡힌 신앙지도로, 말씀 중심의 제자 훈련 및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회 선교 사역에 집중하는 목회관으로 주 예수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그는 이민교회의 지역사회봉사에도 힘써 노숙자급식선교, Elder Homes, 다문화 음악축제, 커뮤니티 교회개방등 이민교회의 다문화권선교에도 힘쓰고 있다.



김혜택 / 뉴욕총신교회, GAP, GKYM 대표

타문화권경험, 탁월한 언어능력, 개방된 세계화의식등 가장효율적인 선교자원으로 동원이 가능한 7백만 한인디아스포라의 선교동력화를 목표로 GKYM운동을 주도하는 그는 미동부지역의 3천여 청년대학생이 동원된 GKYM Fest Rochester를 매년 연말에 개최하며 역사적인 SVM 대학생 해외선교자원운동의 부활을 열망하고 있다. 교회의 역량을 선교에 전력투구하는 총체적 선교목회의 불타는 열정으로 매년 5백명의 단기선교팀을 훈련시켜 중앙아시아등지에 파송, 수많은 교회개척활동도 펼치고 있다.



호성기 / 필라만디옥교회, PGM 대표

조지아 임마누엘대학교, 프린스턴신학대학원, 영국 런던국제선교신학원에서 수학하고 필라만디옥교회를 미주 동부의 대표적인 선교적 교회로 성장시킨 그는 디아스포라선교, Here and Now선교, 평신도전문인선교, 교회중심선교 등 4대 핵심가치를 추구하는 PGM(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전문인선교회 국제대표와 KIMNET 세계선교동원 네트워크의 회장으로 활약하며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쏟고 있는 강력한 영적 지도자이다.



정인수 /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연세대 정법대, 미시간주립대학원(커뮤니케이션전공), 프린스턴신학교 목회학전공, 예일대학 신학대학원 실천신학전공등을 수학한 정인수 목사는 그의 저서 교회를 혁신하는 리더쉽, 영혼을 혁신하는 목회리더쉽등에서 보여주듯 교회개혁의 지도력개발에 혼신의 열정을 기울인 결과 진리의 반석위해 우뚝선 대형교회를 만들었으며, 미주차세대목회자 비전세미나를 개최하여 건강한교회 일꾼세우기, 혁신의 리더쉽, 팀사역과 네트워크, 가정공동체 사역과 셀목회, 예배의 갱신등을 강조, 차세대지도력 양성에 힘쓰고있다.



조계환 / 부천갈보리교회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대표의장이며 제5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04) 공동대회장인 서삼정 목사는 「조약돌」 등의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하며 영성운동가로 「영성이 살아야 예수믿는 맛이 난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믿는 맛이 난다」 등의 저서를 펴내기도 하였다. 현재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에서 담임목회자로 시무하고 있다.



고기홍 / 서울평강교회 담임, 학교법인햇불학원 재단이사

3대에 걸친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 친할아버지는 양평장로교회에서, 외할아버지는 왕십리교회에서 장로로서 섬겼고 특히 외할아버지인 최인태 장로는 왕십리교회 설립의 핵심 멤버 중 하나였다. 서울평강교회 담임인 고기홍 목사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겸임교수, 기독교 선교재단 햇불회 이사, 학교법인 햇불학원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나와 트리니티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받았다.



이여백 / 주사랑선교교회, KWMA법인이사, 합동중앙부총회장

KWMA 법인이사이며 예장합동중앙 부총회장인 이여백 목사는 선교 예찬론자다.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을 맞아 필리핀에서 개최한 마닐라포럼의 대회장을 맡으면서도 이름도 없이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늘 배우고 섬겨야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이목사는 교사로의 길을 접고 대조동여의도신학, 백석대학원과, 합동중앙편목을 거쳐 연세대와 총신신교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해왔다 총신대학교 신교대학원(Th. M)을 나왔으며 주사랑교회를 담임으로 섬기고 있다.



한정국 / 필리안디옥교회, PGM 대표

1985년 남서울교회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 인도네시아기독교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제발전론을 강의하면서 IVF, CCC와 동역하며 대학생 사역을 하였고 순다족속을 향한 선교를 펼치며 종족개념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이후 싱가포르 타문화권선교훈련원장으로, 그리고 한국 1회 OMF대표로 미전도종족 선교운동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일조했다. 현재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으로 한국선교단체와 교단, 교회의 연합과 선교활성화에 혼신의 열정으로 전력투구하고 있다.



황성주 / 꿈이 있는 교회, 사랑의 봉사단 대표

의사, 교수, 경영자, 저술가, 사진작가, 목회자로 창조적 삶을 꽃피우는 대표적 멀티 플레이어인 황성주 박사는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독일 프리덴바일러 암전문병원을 거쳤으며 자연면역요법을 한국에 최초로 도입, 수만 명의 암환자치료를 시행하는 동시에 암환자 치료식으로 개발한 '황성주생식'은 한국인의 건강한 삶에 기여를 해 왔다. 사랑의클리닉 원장, 이름 생명과학연구원장, 국제사랑의 봉사단, 꿈의 학교, 꿈이 있는 교회 등의 사역을 통해 열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이땅에 펼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장도원 / 포에버 21 회장

1981년 미국으로 이민했으며 84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처음 옷 가게를 차렸다. 이민 초기, 사업 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마다 않고 닦치는 대로 했다. 장씨는 "건물 관리원과 주유소 주유원, 커피숍 종업원 일을 한번에 하기도 했다"고 술회했다. 어렵게 시작한 옷가게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승부를 걸었는데, 이게 적중했다. 창업 첫째 3만5,000달러에 불과했던 매출을 이듬해 70만달러로 끌어올렸다. 이후 사업이 번창해 현재 전세계 48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장순호 / 방글라데시선교사, KWMF증경회장

지난 30년간 사신을 넘는 위험과 풍토병을 극복하며 열정적으로 사역중인 그는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25세에 회심, 음성나환자교회를 담임하였고 1987년 방글라데시 개발협회(KDAB)를 설립, 지역교회, 교육, 음악, 의료, 나환자재활, 호스텔, 농군학교, 시범농장, 협동조합, 직업훈련, 스포츠, 지역개발, 정신포교 등을 통한 선교모형을 정착발전시킨 공로로 한국기독교 선교대상, 언더우드 선교상 등을 수상하였다.



강대홍 / 태국선교사, KWMF 공동회장

이 시대 마지막 선교주자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선교의 건강성이 중요한 과제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는 1987년 태국선교사로 파송, 1989년 건강한 현장사역팀 모델을 세워 현재 20여가정이 팀사역을 하며, 그의 2001년 아시아신학연구소, 2005년 방콕선교포럼을 설립하였다. 태국목회자훈련원설립, 방콕국제학교 협력설립 등을 이루었으며 국내사역 중에는 GMS필드구조를 현장중심으로 세우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극범 / 프랑스선교사, KWMF 공동회장

장로회신학대학, 임마누엘신학원(영국) 틴데일신학원(네델란드)등에서 수학하고 1987년이래 파리장로교회를 26년간 섬겨오며 디아스포라교회를 기반으로 전교인선교비전일체화를 통한 불어권선교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급격히 이슬람화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불어권 27개 국가들을 향한 선교사역체인 MAFF27를 설립하고 전략연구, 교회협력, 선교사지원, 선교단체간 네트워크, 단기선교 등을 활발히 진행해 가고 있다.



한도수 / 브라질선교사, KWMF 사무총장

한국 토종 선교단체로 90여 개국에 40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바울선교회 초대 파송선교사로서 선교사훈련원이 거의 전무했던 80년대, 필리핀에 선교사훈련원을 세워 한국선교사의 약점인 언어 및 타문화권 적응훈련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고 여러 현지선교활성화에 주력해 왔다. 바울선교회 국제본부장직을 역임했으며 현재 브라질 남부신학교 대학원장, 바울선교회 이사로 사역하고 있다.



조상중 / 글로벌호프대표, KWMF 증경회장

미주한인교회선교운동의 첫열매인 그는 젊은날 필리핀 선교사로 현지교회의 지도력개발과 선교동원운동에 힘써 중동및 동남아권 선교사들을 발굴하였고 그후 에딘버러100주년기념 동경세계선교전략회의 준비위원장으로 섬겼으며 세계적 선교전략가 고 팔트 윈터 박사의 지명으로 선교단체국제네트워크 대표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있다. 또한 GP선교회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글로벌호프의 대표로 활약 중이다.



강성일 / 중남미선교전략연구소장, KWMF공동회장

1983년, 장로교(통합) 선교사로 브라질에 파송되어 30여년간 현지협력선교의 모델을 이루어 낸 그는 아 마존지역에서 교회 개척 및 현지교단 목회자를 양성하는 동시에 그들을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파송하면 서 현지교회에 선교적 각성을 이루며 미래의 선교 방법과 모델을 제시해 왔다. 현재 30여년간 헌신해 온 중남미지역 선교발전을 위해 개설한 "중남미 선교전략 연구소"를 통해 소외된 이 지역에 선교비전을 제 시하고 있다.



최광규 / 도미니카선교사, KWMF 대표회장

1988년 도미니카 한인 1호 선교사로 파송받아 지난 24년 동안 10곳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동안 양육하 며 훈련시킨 제자들을 사역자로 파송하여 함께 동역하고 있다. 최근 도미니카교회 리더십과 함께 기도연 합사역인 도미니카기독교군대를 창설하였다. 도미니카기독교총연합회 실행이사, 도미니카국가기도위원회 코디네이터, 도미니카세계선교연맹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KWMF 대표회장으로 본 대회를 섬기고 있다.



황태권 / GMS선교훈련원 원장

1981년 필리핀에 파송, 필리핀국립대학(UP)에서 필리핀 문화를 전공하여 철학박사학위를 받았고, 필리 핀 빈민촌에 개척교회들을 세웠고, 필리핀 야간신학교(Penuel School)와 아시아 선교연구소를 설립하 였다. 그는 신학교에서 20년간 제자를 양육하여 교수요원을 키웠다. 현재는 GMS 선교훈련원장으로 헌 신하며 2007년 이래 훈련 시킨 700명여명 선교사들이 세계도처의 타문화권에서 사역하고 있다. 본대회 한국 지부장이다.

선교보고 선교사



정순영
캄보디아 선교사



오선택
키르기스스탄 선교사



이승일
필리핀 선교사



이요셉
T국 선교사



이태현
가나 선교사



김영섭
요르단 선교사



김태숙
인도 선교사



이시은
캄보디아 선교사



장종일
우크라이나 선교사



정훈재
호주 선교사



김철기
브라질 선교사



정금태
파라과이 선교사



이사라
멕시코 선교사



서준석
아이티 선교사



박헌남
필리핀 선교사



정태권
이스라엘 선교사

KWMC2012 대회일정						
	7/23(월)	7/24(화)	7/25(수)	7/26(목)	7/27(금)	
07:00 AM	전시장 오픈 09:00 등록 10:00 식사 4:30-07:30 개회예배 06:00-07:30 사회 고석희 개회선언 김만우 선교사환영사 차현희 선교사답례사 최광규 차세대MK격려사 이승종 차세대답례사 이동열 MK답례사 강은혜 축사 존 파이퍼 방지일 조동진 강승삼 설교 론 엘리슨 7:00-7:30 휴식	새벽기도회				
08:00 AM		나광삼 기독교 담시다 이필섭/군선교	고기홍 예수님의 유언 서준석/도미니카	호성기 평신도전문인 선교동력화 박현남/캘리포니아	조예환 너는 생각하라 정태권/이스라엘	
09:00 AM		아침식사 / 전시장 (목) 북한을 위한 금식				
09:20 AM		경배와 찬양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찬양팀				
10:00 AM		성경강해				
10:40 AM		오정현 복음적 여성회복의 교회관	한기홍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모델	정인수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적 리더쉽	이여백 여성과 선교	
11:20 AM		주제강연 I				
12:00 PM		더그 버드살 제3차 로잔대회와 세계복음화의 미래	타드 존슨 전세계 기독교 동향	마크 앤더슨 Call2All을 통한 선교운동	이승종 사람 세우는 선교	
01:40 PM		주제강연 II				폐회/파송예배
02:20 PM		폴 애실맨 미완성과업 미전도종족선교	김남수 4/14 Window운동과 선교패러다임 전환	조동진 사도적 DNA를 회복하라!	KWMC/GKYM연합 설교 장영춘 성찬집례 방지일	
03:00 PM	주제강연 III					
03:30 PM	김혜택 선교의 미완성과업과 한국교회의 선교적 갱신	임현수 한반도 통일전망과 북한선교전략	배현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사회봉사			
04:30 PM	점심식사 / 전시장					
05:00 PM	주제강연 IV					
06:00 PM	한정국 한국선교의 어제오늘내일 그리고 한국형선교모델	황성주 킹덤드림 - 변혁선교 (Transform Mission)	최웅섭 비즈니스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07:30 PM	주제강연 V	선교전략 패널토의	주제강연 V			
08:00 PM	장도원 평신도선교참여전략	KWMF 현장성 중심 선교 아젠다	강승삼 급변하는 상황에서의 한국세계선교의 미래			
09:00 PM	휴식 / 전시장					
10:00 PM	선택강좌 I					
11:00 PM	휴식 / 전시장					
12:00 AM	선택강좌 II					
13:00 PM	저녁식사 / 전시장					
14:00 PM	경배와 찬양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찬양팀					
15:00 PM	저녁선교대회					
16:00 PM	오정현 한민족선교를 위한 여호와 이레	존 파이퍼 I Have Other Sheep that Are Not Part of This Fold	서삼정 부흥의 불 Revival Fire	로렌 커닝햄 나를 보내소서!		
17:00 PM	정순영/캄보디아 오선택/키르기스스탄 이시은/캄보디아 하귀호/GMS	이요한/T국 이태현/가나 김영섭/요르단 정희수/UMC	허영희/프랑스 장종일/우크라이나 정훈채/호주 김재규/대신	박명하/온두라스 정금태/파라과이 이사라/멕시코 여성삼/기성		



개회예배

- 사회/ 고석희 목사 KWMC 사무총장
- 개회선언/ 김만우 목사 공동대회장
- 선교사 환영사/ 차현희 목사 명예대회장
- 선교사 답례사/ 최광규 선교사 KWMC 대표회장
- 차세대 및 MK 환영사/ 이승중 목사 공동대회장
- 차세대 답례사/ 이동열 선교사 GKYM 사무총장
- MK 답례사/ 강은혜 교수 WMK 대표
- 기도/ 이상진 장로(한) 고유진 전도사(영)
- 찬양/ 남가주권사합창단 지휘/ 박성훈
- 개회설교/ 론 앨리슨 목사 빌리그래함센터 소장
- 통역/ 임찬혁 목사 빌리그래함센터
- 축사/ 존 파이버 목사 Desiring God Ministries
- 축사/ 방지일 목사 명예대회장
- 축사/ 조동진 목사 조동진선교학연구소장
- 축사/ 강승삼 목사 KWMA 회장
- 축하특순/ 시카고햄시바위십댄스팀
- 축도/ 최복규 목사 대신증경회장

저녁선교대회

- 사회/ 조일구 목사 KWMC 부의장
- 기도/ 조진모 목사 KWMC 부의장
- 선교보고/ 정순영 선교사 캄보디아
- 선교보고/ 오선택 선교사 키르기스스탄
- 선교보고/ 이시은 선교사 캄보디아
- 선교사격려사/ 하귀호 목사 GMS이사장
- 특송/ 시카고목사부부합창단
- 봉헌기도/ 김영진 목사 KWMC 부의장
- 성경봉독/ 백승철 목사 KWMC 부의장
- 찬양/ 시카고연합성가대 지휘/ 송규식
- 설교/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 특순/ 최경선 여사 메트로폴리탄성악가
- 축도/ 고세진 목사 사랑의교회

개회선언

[개회예배] 개회선언

공동대회장 **김만우**



선교사 환영사

[개회예배] 선교사 환영사

명예대회장 **차현희**



할렐루야!

갈릴리 선교의 후계자인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선교의 오순절인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신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을 선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인세계선교의 모체와 장자인 "KWMC"는 세계선교의 주역으로 계속 시대적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선교의 지체인 사랑하는 선교사 및 사역자 여러분 모두를 뜨겁게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각처에서 종신 선교사로 또는 성육신적 선교사가 된 것을 경하드리며 다시금 환영합니다.

선교의 중심인 복음전파만이 천국건설의 첩경임을 확신하는 선교사역을 경하드리며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신 선교사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끝으로 바라기는 마음껏 대화하세요.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세요. 선교정보를 주고 받으세요. 교제하세요. 재충전을 받으세요. 도전을 주고 받으세요. 영성을 회복하여 영적전쟁에서 꼭 승리하세요. 특별히 온 선교사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기도드리며 본대회의 최고 대회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 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 답례사

[개회예배] 선교사 답례사

KWMF(한인세계선교사회) 대표회장 **최광규**



경애하는 선교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7차 대회를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본 대회에 초청해주시고 기도와 재정으로 지원해주신 파송교회와 파송교단선교부및 선교단체 관계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대회를 준비한 KWMC사무총장님이하 모든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님의 위로와 보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4년마다 시카고에서 열리는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세계교회속에서 유일하게 5천여개의 북미주한인교회와 6만여개의 한국교회가 하나가되어 선교의 명제앞에 회집하는 선교대회입니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해서 한국선교가 세계선교의 중요한 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7차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한번 세계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중요한 사명과 위치를 확인하고 각자의 부르심앞에 다시한번 헌신하는 기회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경애하는 선교 동역자님 가정과 섬기시는 사역지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차세대/MK 격려사

[개회예배] 차세대/MK 격려사

공동대회장 **이승종**



"하나님의 역사를 책임지는 인물" - 누구나 한번밖에 살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역사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책임진 여러분들입니다. 새벽이슬같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글로벌 시대 선두주자들입니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통쾌한 축복과 만남, 배움과 선교의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방을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품기를 축원합니다.

차세대 답례사

[개회예배] 차세대 답례사

GKYM 사무총장 **이동열**



잃어버린 30년!!! 한국교회가 청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다음 세대를 향한 투자가 인색해지기 시작하면서 서방교회와도 같이 몸의 척추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GKYM(세계청년선교 축제)과 함께 하는 7차 KWMC(한인세계선교대회)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1세대와 다음세대가 주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미래 선교의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제 씨앗을 뿌립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MK 답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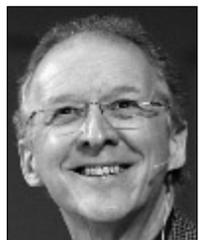
[개회예배] MK 답례사

WMK(World Missionary Kids) 대표 **강은혜**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통해 시작한 선교사자녀대회가 벌써 4년이 흘러 2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 역사를 저희들의 부모님을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그 자녀들이 이제는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책임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자의가 아닌 부모님의 결정으로 선교의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사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4년이 흘러 또 한번 전세계 흩어진 선교사 자녀들이 모여, 이제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의 삶과 비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축사



존 파이프
Desiring God



방지일
명예대회장



조동진
조동진선교학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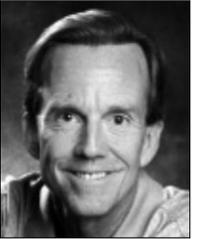


강승삼
KWMA 회장

성공적 선교를 위한 필수요건은 무엇인가

[개회예배] 개회설교

빌리그래함센터 소장 **론 앨리슨**



빌리 그래함 목사의 뜻을 이어 유타주 캠퍼스에 위치한 빌리그래함센터 현 소장으로서 지난 25년간 전 세계에서 복음전도자로, 강연자로, 목회자로 사역해 온 그는 미교회지역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품고있다. 풀러신학교 등을 나와 고든콘웰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음악인과 연기자로서 전문적 활동을 하기도 했다. 복음주의 언약 교회의 전도 및 기도 사역 책임자로서도 사역했으며, 저서로는 만약 세상이 믿게 된다면(That the World May Believe)이 있다.

[히브리서 12:1-3]

선교사로, 혹은 전도자로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사실 우리를 놀라게 한다. 지식도 아니요, 훈련도 아니다. 그것은 인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적인 사역의 핵심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에 대하여 인내하여야만 한다.

1. 사역하는 중에 오는 고통에 대하여
2. 죄에 대하여
3. 세상으로 부터 오는 교묘한 유혹들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을 통하여 인내하여야 한다.

1. 개인적인 경건의 삶
2. 진정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
3. 성령충만

통역 : 임찬혁 목사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캄보디아 선교사 정순영



충신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신평로교회 교육전도사 및 시무전도사로 9년 사역하다 1999년 부산신평로교회 주후원으로 GMS 캄보디아선교사로 파송, 현재 캄보디아 가난한 아이들의 어머니요, 선생으로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처음에 빈민가로 들어가 열악한 환경의 어린이들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2001년 호산나유치원을 시작하고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확대, 캄보디아 문교부 공식인정을 받은 기독교 학교로서 캄보디아 교육사역에 앞장서가고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키르기스스탄 선교사 오선택



1991년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에 파송, 21년간 이슬람권 교회개척사역과 현지인 지도자 훈련을 하였고 키르기스스탄의 모슬렘 대상으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훈련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며 이슬람사역훈련원을 통해 이슬람권사역자들을 위한 현장훈련과 연장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침례교해외선교회(FMB) 소속으로 침례신학대학원에서 M.Div, Th.M.(선교학) 수여, 필리핀 아시아침례신학대학원(ABGTS)에서 신학박사(Th.D, 조직신학) 수여하였고 키르기스 연합신학교 학장을 역임하였고 중앙아시아 침례신학교 교수(조직신학)이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캄보디아 선교사 이시은



진광전원교회와 대신세계선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사역하던 이시은 선교사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2002년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사 격려사]

GMS 이사장 하귀호



하귀호 목사는 전 세계에서 미국 남침례회 선교부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단 선교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 : Global Mission Society) 7대 이사장이며 인천 만민교회를 섬기고 있다.

한민족 선교를 위한 여호와이레

[저녁선교대회 설교]

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송실대영문과, 충신대학원, 탈봇신학대학원, 칼빈신학대학원, 하버드대학교 수학을 거쳐 남아공 포체프스트룸대학교에서 신학박사를 받았고 남가주 사랑의교회를 세워 폭발적성장과 함께 가장 건강한 이민교회로 평가 받은뒤 한국 사랑의교회 2대목사로 부임하여 국제제자훈련원 원장, 한중국제교류재단 대표,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신학연구정보원, 아시아언어문화연구소, 청년목회자연합등의 이사장, KOSTA국제이사등으로 활약하며 대표적인 한국기독교 차세대지도자로 주목 받고 있다.

[창세기 22:7-18]



새벽기도회

사회/ 안영섭 목사 KWMC 부의장
기도/ 김동선 목사 KWMC 부의장
선교도전/ 이필섭 장로 군선교, AMCF 회장
특순/ 김경수 첼로 3중주
설교/ 나광삼 목사 KWMC 공동대회장

성경강해

강사/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담임

주제강연

주제강연 I 강사/ 더그 버드살 박사 로잔운동총재
주제강연 II 강사/ 폴 애실맨 박사 CCC 부총재
주제강연 III 강사/ 김혜택 목사 GKYM 대표
주제강연 IV 강사/ 한정국 선교사 KWMA 사무총장
주제강연 V 강사/ 장도원 장로 포에버21 사장

저녁선교대회

사회/ 박형은 목사 KWMC 부의장
기도/ 김성택 목사 KWMC 부의장
선교보고/ 이요한 선교사 T국
선교보고/ 이태현 선교사 가나
선교보고/ 김영섭 선교사 요르단
특순/ 최경선 여사 메트로폴리탄성악가
선교사 격려사/ 정희수 감독 UMC 감독
봉헌기도/ 송만호 목사 KWMC 부의장
성경봉독/ 이찬우 목사 KWMC 부의장
찬양/ 선교사연합성가대 지휘/ 송규식
설교/ 존 파이퍼 목사 Desiring God Ministries
통역/ 전병철 목사
"한인세계선교대회" 지휘/ 송규식
축도/ 강준원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기죽지 맙시다!

[새벽기도회 설교]

21세기 요셉운동, 큰무리교회 담임, KWMC 공동의장 **나광삼**

이민목회 30여년의 광야길에서 큰무리교회의 위대한 성장을 일궈낸 나광삼 목사는 한국과 북미주를 점철하는 연중 25회 이상의 부흥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또한 「21세기 요셉운동」을 창설, 청소년 신앙부흥운동을 10여년 넘게 전개하며 애굽의 이질문명 속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세상과 자신을 극복했던 요셉을 본받아 주 안에서 강한 자아각성과 신앙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이민사역을 펼치고 있다. 워싱턴개혁장로회 신학교 이사장으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사무엘상 17:45-49]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기죽으면 안된다.
세상에는 우리를 기죽이는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최고의 보배 예수그리스도를
질그릇인 나에게 담고 있는데
세상 것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기죽으면 안된다.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형통한 복을 받은 우리들이 기죽으면 안된다.
배운기술 모자라고 명예권력 없어도
가진재물 없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은
기죽지 말고 믿음생활하고,
기죽지 말고 사명감당하고,
기죽지 말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선교해야 한다.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AMCF(세계기독교군인연합회) **이필섭**

세계 기독교인들의 연합체로 1851년 영국에서 태동돼 한국에서는 1956년 시작된 세계기독교군인연합회(AMCF) 역사상 최초로 비서구권인으로서 회장이 된 이필섭 장로(대한민국 육군대장, 합참의장 역임) 전역 후, 한국을 넘어, 세계의 군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복음적 여성회복의 교회관

[성경강해]

사랑의교회 담임 **오정현**

송실대영문과, 총신대학원, 탈봇신학대학원, 칼빈신학대학원, 하버드대학교 수학을 거쳐 남아공 포체프스트룸대학교에서 신학박사를 받았고 남가주 사랑의교회를 세워 폭발적성장과 함께 가장 건강한 이민교회로 평가 받은 뒤 한국 사랑의교회 2대목사로 부임하여 국제제자훈련원 원장, 한중국제교류재단 대표,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신학연구정보원, 아시아언어문화연구소, 청년목회자연합회의 이사장, KOSTA국제이사등으로 활약하며 대표적인 한국기독교 차세대지도자로 주목 받고 있다.



제3차 로잔대회와 세계복음화의 미래

[주제강연 I]

로잔운동 총재 **더그 버드살**

1974년 빌리 그레함의 주도로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고, 1988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현대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산실로 오늘날 선교신학과 선교전략이 모두 배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로잔대회. 그 22년 후 지난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던 기념비적 제3차 로잔대회의 의장직을 수행했고 현 로잔운동 총재인 그는 1980년부터 Asian Access에서 아시아 지역 선교사로 사역하였고 현재 동 단체의 회장직도 맡고 있다. 윗튼, 고든컨웰, 하버드대에서 수학했다.



미완성과업, 미전도종족선교

[주제강연 II]

CCC 부총재, 예수영화 창안자 **폴 애실먼**

1,000개의 언어로 번역, 236개국에서 6억번 이상 상영된 '예수영화'를 창안하고 지난 30여년간 디렉터로 섬겨온 폴 애실먼 박사는 1966년 C.C.C.에 헌신하여 현재 부총재로 사역하고 있다. 미전도종족에 관한 최고의 전략가 중 하나인 그는 「Finishing the Task Movement」를 통해 전세계 639개 미전도종족을 향한 최전방 개척선교를 펼치며 국제오랄네트워크를 통해 성경이 없는 3천여 언어를 위한 성경녹음사역을 추진중이며 로잔운동 락그룹의 의장직을 맡기도 했다.



전세계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신자도 없는 미전도종족에 대한 강의다. 현재 선교사 사역하고 있지 않은 4만 종족의 리스트가 배포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이 어느 지역, 어느 종족이 복음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으며 그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선교의 미완성과업과 한국교회의 선교적 갱신

[주제강연 III]

뉴욕총신교회 담임, GAP, GKYM 대표 **김혜택**

타문화권 경험, 탁월한 언어능력, 개방된 세계화의식 등 가장 효율적인 선교자원으로 동원이 가능한 7백만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선교동력화를 목표로 GKYM 운동을 주도하는 그는 미동부지역의 3천여 청년대학생이 동원된 GKYM Fest Rochester를 매년 연말에 개최하며 역사적인 SVM 대학생 해외선교자원운동의 부활을 열망하고 있다. 교회의 역량을 선교에 전력투구하는 총체적 선교목회의 불타는 열정으로 매년 5백명의 단기선교팀을 훈련시켜 중앙아시아 등지에 파송, 수많은 교회에 적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국선교의 어제 오늘 내일 그리고 한국형선교모델

[주제강연 IV]

KWMA 사무총장 **한정국**

1985년 남서울교회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 인도네시아 기독교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제발전론을 강의하면서 IVF, CCC와 동역하며 대학생 사역을 하였고 순다족속을 향한 선교를 펼치며 종족개념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이후 싱가포르 타문화권선교훈련원장으로, 그리고 한국 1회 OMF대표로 미전도종족선교운동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일조했다. 현재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으로 한국선교단체와 교단, 교회의 연합과 선교활성화에 헌신의 열정으로 전력투구하고 있다.



한국선교의 본격적인 성장은 1990년부터 오늘에 이른다. 1990년은 한국 선교사 파송 1000명의 시대였다. 2012년에 이른 지금 약 25,00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냈으니, 22년 만에 2500% 성장하였고 이는 기독교 역사에 전무한 기록이다.

1. [어제] 한국선교는 개신교 선교역사(윌리엄 케리 인도 도착 1792년을 원년으로 함) 220년을 1/10로 압축해 놓은 22년의 압축성장 모델이다.
2. [오늘] 한국선교는 계속 발전하면서도, 한국교회의 부진 속에 위험한 내일을 맞고 있다. 그러나 선교만큼은 분열도 없이 계속 성장하면서 질적 성숙의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 경 미국 선교사 파송수를 앞지를 전망이다. 그러나 질적 승부가 더욱 요구되는 바 전략선교를 계속 개발 중이다.
3. [내일] 한국 선교사의 증가는 정점을 맞을 예정인데 2030년 경으로 추산한다. 한국선교의 세계적인 동반 사역이 증가하며 그 네트워크 속에 한국선교가 자리잡고 기여할 것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은 자신학으로서 한국신학 그리고 자선교학으로서 한국선교학이 필요하다.
4. [자신학, 자선교학] 세계한인교회는 너무나 귀한 사례로서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벤치마킹 모델이다. 북미주교회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교회와 한국선교가 이와 유사하기에 한국신학과 한국선교학의 개발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 교회에게 도전을 주는 모델이 될 전망이다.
5. [한국형 선교모델] 2010년 KWMA는 약 2000만원을 투자 1년여 리서치를 통해, '한국 개신교 125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행적'을 찾아 나섰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형 선교모델을 찾았던 바, 이는 한국신학 및 한국선교학의 주요 콘텐츠를 이루고 있다. 한인 선교사는 이 한국형 선교모델을 선교지에서 나눌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서구형 선교모델과 함께 귀한 참고 모델이 되어, 선교현지형 모델을 찾아가는데 귀한 도구가 될 것이다.

평신도선교참여전략

[주제강연 V]

포에버21 회장 **장도원**

.1981년 미국으로 이민했으며 84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처음 옷 가게를 차렸다. 이민 초기, 사업 밑천을 마련하기 위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마다 않고 닦치는 대로 했다. 장씨는 "건물 관리원과 주유소 주유원, 커피숍 종업원 일을 한번에 하기도 했다"고 술회했다. 어렵게 시작한 옷가게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승부를 걸었는데, 이게 적중했다. 창업 첫해 3만5,000달러에 불과했던 매출을 이듬해 70만달러로 끌어올렸다. 이후 사업이 번창해 현재 전세계 48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T국 선교사 **이요한**

1996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전략지인 T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요한 선교사는 문서사역(T국어 찬송가 제작과 출판), 훈련사역(영성 훈련원, 신학교사역), 어린이사역과 현지인모임사역등을 해왔다. 1956년생으로 대진교단(예장) 목사이며 터키 선교사(DMS)이다. 미국 Grace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선교학 박사(D.Miss)를 받았고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안양대학교를 졸업했다. 아내인 이한나(인희) 선교사와 모두 대학을 졸업한 아들 다윗(창호), 딸 에스더(영은)이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가나 선교사 **이태현**

1997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한울교회 파송으로 서아프리카 가나 미전도종족(다곰바족)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는 이태현 선교사는 GMS (Global Mission Society:총회세계선교회) 소속으로 GMS West Africa (NGO) 대표로 사역중이다. 가족으로 김용희 선교사와 자녀로 이성민, 이성봉이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요르단 선교사 **김영섭**

바울선교회 소속으로 1991년 파송을 받은 요르단의 김영섭 선교사는 현재 중동선교협의회 회장으로 차세대 아랍 지도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사 격려사]

UMC 감독 **정희수**

정희수 목사는 미연합감리회(UMC) 중북부 지역총회에서(North Central Jurisdiction Conference)에서 최초의 비백인계 감독으로 선출되어 UMC 한인감독 2세대를 열어가고 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Pacific School of Religion(GTU)에서 석사를 위스컨신주립대학교(메디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남대학교 종교철학부에서 협동교수로 일했으며 서대문감리교회 전도사, 희망한인연합감리교회 전도사, 성야고보연합감리교회 담임, 메디슨병원 원목, 강남대학교 종교철학과 협동교수, 위스컨신 연회 감리사등을 역임하였다.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저녁선교대회 설교]

Desiring God Ministries **존 파이퍼**

"기독교 희락주의자", "탁월한 기쁨의신학자"로 예수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는 순수하고 강력한 복음선포를 통해 이시대 최고의 설교가라는 평을 듣는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삶을 허비 하지말라", "말씀으로 승리하라"등 영혼을 격동케하는 많은저서로 한국교회에도 널리 알려졌다. 쾰른대학, 풀러신학교를 나와 독일 뮌헨대학에서 신학박사를 하고 지난 32년동안 미네아폴리스의 베들레헴침례교회에서 목회사역을 하고있다.



I Have Other Sheep that are Not Part of This Fold



새벽기도회

사회/ 제석호 목사 KWMC 부의장
 기도/ 이문연 목사 KWMC 부의장
 선교도전/ 서준석 선교사 하이티
 특순/ 샤론장 바이올리니스트
 설교/ 고기홍 목사 평강교회 담임

성경강해

강사/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주제강연

주제강연 I 강사/ 타드 존슨 박사 고든컨웰신학교 교수
 주제강연 II 강사/ 김남수 목사 프라미스교회 담임
 주제강연 III 강사/ 임현수 목사 큰빛교회 담임, GAP 대표
 주제강연 IV 강사/ 황성주 박사 꿈이있는교회 담임
 선교전략 패널/ KWMF-사회: 한도수
 패널: 강성일, 강대홍, 이극범, 최광규, 장순호, 조용중, 황태연

저녁선교대회

사회/ 김광태 목사 시카고선교협의회 회장
 기도/ 장충원 목사 KWMC 부의장
 선교보고/ 허영희 선교사 프랑스
 선교보고/ 장종일 선교사 우크라이나
 선교보고/ 정훈채 선교사 호주
 선교사 격려사/ 김재규 목사 예정대선교이사
 특순/ 이종미 흥진호 복음성가
 봉헌기도/ 정영건 목사 KWMC 부의장
 성경봉독/ 유남수 목사 KWMC 부의장
 찬양/ 선교사연합성가대 지휘/ 송규식
 설교/ 서삼정 목사 공동대회장,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한인세계선교대회" 지휘/ 송규식
 축도/ 안성기 목사 KWMC 중경의장

예수님의 유언

[새벽기도회 설교]

평강교회 담임 **고기홍**

서울평강교회 담임인 고기홍 목사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겸임교수, 기독교 선교재단 햇불회 이사, 학교법인 햇불학원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A. 유언

1. 약속

1) 재림과 천국의 소망 (요 14:1-31)

2)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

① 요14:16-20

② 포도나무 비유 (요15:26)

③ 예수님보다 더 나은 보혜사 (요16:7-14)

④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자 (요14:12)

3) 기도응답

① 요16:23-24

② 요14:13-14

③ 요15:16

2. 부탁

1)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라

① 요14:15

② 요14:21

③ 요15:10

B.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선교

① 마28:19-20

② 행1:8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도미니카 선교사 **서준석**

서준석 선교사는 2003년 7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파송(상동교회 소속)으로 2007년 10월까지 도미니카공화국 산 따야고 한인교회 목사로 섬겼으며 현재 종교법인 HARILA MISSION, INC. 대표이며 IGLESIA CRISTIANA HARILA MISSION, INC. 목사이다. 이웃나라 아이티의 재난 이후 아이티를 위한 선교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다. 아내 채해진 선교사와 함께 자녀 서은결, 서찬규, 서은빈을 두고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 모델교회

[성경강해]

은혜한인교회 담임, GMI 대표, KWMC 공동의장 **한기홍**

59개국에 271명(81% 자체 파송) 선교사를 파송했고 백만여명의 원주민을 품은 8천여개의 현지교회를 개척해 내었으며 15개 신학교를 세운 G.M.I. 선교운동은 한기홍 목사가 섬기는 은혜한인교회를 모체로 하며 이는 초창기부터 세계선교를 최우선 목회과제로 세우고 교회 재정 50%를 선교에 투자한 아름다운 열매다. 새 성전의 이름을 '비전센터'라 명명하고 성도 1만명이 모여 지구촌의 3,500 미전도종족을 위한 세계복음화 중보기도운동의 불길을 일으키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도행전 11, 13장]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9-20) 성령을 주신 목적도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선교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 선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충족 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1. 이방인 중심으로 이방인 전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 스테반 순교이후의 큰 환난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세계 곳곳으로 흩어 세계 선교의 밑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헬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잘 믿는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행 11:20-21).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 증거 하는 일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면 사랑하는 사람이 순교하는 것을 보시면서 까지 그 일을 바탕으로 하여 복음증거의 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불러 이곳에서 가르치며 성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안디옥교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교회 (행11장)

2. 열정의 기도와 충만한 말씀 사역으로 성령의 역사가 활발한 교회

1)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행13:3) 기도는 선교 전략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라는 말씀은 안디옥교회의 영적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 주의 손이 함께 하며 소문나고 주께 붙어 있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수다한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행11:21-22)

3)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행11:23-24)

3. 선교 명령에 순종한 교회

'선교'는 우리와 언어와 문화와 풍토가 다른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선교의 비전을 주십시오. (예) 멜본 쿠드버트가 편집한 <지역교회와 선교>: 담임목사가 선교의 비전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을 주고 있는데 담임 목회자는 "지 역교회가 세계 선교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촉매자입니다."(멜본 쿠드버트 외 2004: 19) (예) 민들레꽃씨, 은혜교회 상징. 가라꼬, 은혜교회 명언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습니다.

4. 세계 선교를 위해 희생한 교회 - 희생적 선교

베푸는 교회 -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글라우디오 황제는 AD 41-44년에 재위한 왕. 그 무력 AD 43-48년까지 5년 동안 흉년이 들어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 교회는 선교사를 내어놓았습니다. -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 (예) 은혜 교회의 선교비전과 은혜교회의 성장- 희생적 헌신50%-75% 재정투자.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전세계 기독교 동향

[주제강연 I]

고든컨웰신학교 교수 **타드 존슨**



고든 컨웰 신학교에서 세계기독교학과 부교수로, 또 세계기독교센터(CSGC)의 디렉터로 있는 그는 데이빗 바렛 박사와 함께 「세계기독교대백과사전」을 편찬, 모든 전세계 모든 종족, 언어, 나라, 도시의 기독교와 타종교 현황의 전체 통계의 연구 권위자로 이 자료는 ABC, BBC, AP통신, 뉴욕타임즈 등에서 널리 활용 및 인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로잔운동에서 새로운 전략, 미전도종족선교, 세계종교에 대한 「글로벌 컨버세이션」을 통해 활발히 동참하고 있다.

4/14 Window 운동과 선교패러다임 전환

[주제강연 II]

프라미스교회 담임, 4/14운동 **김남수**



강력한 선교적 목회를 통해 뉴욕지역 최대교회로 성장시킨 그는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예민한 지구촌 4세-14세 어린이와 그가족을 상대로 하는 집중교육선교운동을 전개, 선교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전환을 시도한 4/14윈도우운동의 제창자로 매년 제3세계교회지도자들을 초청, 4/14윈도우 글로벌서밋을 개최하며 이운동에 전력투구하고있다. 주요전술로는 파워 하우스를 통한 지역사회 섬김사역, 뮤지컬 'His Life' 공연을 통한 문화사역, 축구와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 사역, 영어학습을 통한 교육사역등이다.

4/14이란 무엇인가?

'4/14 윈도우'는 4-14 세까지의 세계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복음운동이다. 나이는 4-14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0-18세까지의 모든 연령을 포함한다. 4/14 운동은 어린이 선교를 통하여 향후 10, 20, 50, 100 후를 내다보는 사역으로 이를 세계교계와 목회자, 선교사들에게 중요성을 알리고 일깨우는 운동으로써 10/40의 지리적 개념의 한계를 4/14의 연령적 개념으로 전환한 복음주의 선교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4/14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4/14 윈도우' 사역의 시발은 순복음뉴욕교회 (프라미스교회)의 오천여 성도가 지난 10년 동안 남미 혼두라스를 중심으로 약 만여 명의 어린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학교를 지어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사역을 진행하여 오던 중, 김남수 목사와 '루이스 부시' (Luis Bush) 박사의 만남으로 기폭제가 되었다. 부시 박사는 1차 로잔대회(1974년) 이후, 20여 년간 진행되어 온 '10/40 윈도우'의 한계를 인지하고 대안, 후속사역을 기도하며 준비하던 중, 하나님의 섭리아래 김남수 목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세계와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대안은 오직 어린이를 양육하는 것밖에 없음을 동의하여 이전의 지리적 개념의 10/40를 포괄적 연령적 개념인 4/14 으로 전환하여 함께 진행해 나가기로 동의하게 되었다. '4/14 윈도우'라는 용어는 '루이스 부시' 박사의 선교적 개념 '10/40 윈도우'와 어감을 맞춰 창안된 선교적 개념의 용어다. 지난 2009년 9월, 4/14의 출범, 선포식을 1 차 대회로 프라미스교회에서 가져 360여명의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 4/14 윈도우 사역의 중요성과 급박성을 알리게 되었고, 2010년에는 90여 개국의 800여명의 교단, 선교단체, 비영리단체 등과 선교사 목회자들

에게 4/14을 알리고 그 비전을 나누었으며, 2011년에는 싱가포르에서 대회를 가지고 약 700여명의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와 방법론을 연구하고 현재까지 급속도로 전 세계에 4/14 윈도우의 이념과 사역이 펼쳐지며 특히 빈곤지역의 교육과 의료, 그리고 복음의 기회를 박탈당한 어린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펼치고 있다.

4/14이 왜 핵심전술이어야 하는가?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이슬람과 카톨릭 등이 어린이들을 핵심적 포교 및 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시행하여 파급 및 성장을 도모한 것을 볼 때, 기독교의 미래가 압박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직 어린이선교만이 해답이며 장래의 비전을 얻을 수 있는 대안으로써 현재 '4/14 윈도우' 운동이 들불(Wild Fire)처럼 대륙마다 불길이 퍼져가고 있다.

4/14 없이 세계 선교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4/14 없이 세계 선교는 시간적 물질적 투자에 비하여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 어른들을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들을 선교하여 가르치고 제자를 만들어 사역을 감당케 하다보면 시간적 제약이 빨리 다가온다. 그러나 복음의 흡수율이 높고 순수한 어린이들을 전도하며 전도도 빠를 뿐 아니라 이들의 신앙이 자라 사역을 감당하면 적어도 성인의 2, 3배는 더 사역을 감당케 되고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어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전파를 할 수 있게 된다.

4/14의 현재까지의 사역내용은 무엇인가?

사역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첫째는, 지난 해 여름 중미 니카라과, 엘살바돌, 과테말라, 혼두라스 등 4개국에 축구선교를 통한 대규모 복음전도대회를 개최하고, 둘째로 아프리카 2개국 에디오피아와 탄자니아에 '히즈라이프' (His Life) 뮤지컬 공연을 통한 복음을 전하며 각각 10만여 명씩 2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시를 하고 이들 중 약 80%가 예수를 영접했다.

둘째는, 지난 3년 동안 중남미의 전체 및 인도, 아시아, 한국, 아프리카, 북미, 유럽 등지에서 약 100여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 세미나마다 적게는 이, 삼백 명, 많게는 오육천 명의 지도자, 목회자 등에게 4/14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중남미와 아프리카 유럽에 축구와 히즈라이프 사역으로 다가간다.

한반도 통일전망과 북한선교전략

[주제강연 III]

큰빛교회 담임, GAP, GKYM, KWMC 공동의장 **임현수**

큰빛교회를 캐나다 최대교회로 성장시킨 그는 대성한 목회를 기반으로 모든 역량을 지구촌 복음화에 투입하는 가운데 특히 동족인 북한선교 그리고 미전도종족선교 등 최전방 개척선교에 대한 각별한 비전과 열정을 불태우는 종으로 북한만 해도 양로원, 어린이집, 학교, 주유소, 빵공장 등 방대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젊은날 10년 이상 CCC 및 GCTC 훈련간사로 봉사했고 현재 GAP(세계선교협력회) 총재이며 한인디아스포라 청년선교운동인 GKYM을 태동시켜 요원의 불길처럼 확산시키고있다.



킹덤드림 - 변혁선교 (Transform Mission)

[주제강연 IV]

꿈이있는교회 담임, 사랑의봉사단 대표 **황성주**

의사, 교수, 경영자, 저술가, 사진작가, 목회자로 창조적 삶을 꽃피우는 대표적 멀티 플레이어인 황성주 박사는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독일 프리덴바일러 암전문병원을 거쳤으며 자연면역요법을 한국에 최초로 도입, 수만 명의 암환자치료를 시행하는 동시에 암환자 치료식으로 개발한 '황성주생식'은 한국인의 건강한 삶에 기여를 해 왔다. 사랑의클리닉 원장, 이름 생명과학연구원장, 국제사랑의 봉사단, 꿈의 학교, 꿈이 있는 교회 등의 사역을 통해 열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이땅에 펼치는 일에 힘쓰고 있다.



패널토의 - "현장성 중심 선교 아젠다"

[선교전략 패널토의]

글로벌호프 대표, KWMF 중경의장 **조용중**

미주한인교회선교운동의 첫열매인 그는 젊은날 필리핀 선교사로 현지교회의 지도력개발과 선교동원운동에 힘써 중동 및 동남아권 선교사들을 발굴하였고 그후 에딘버러100주년기념 동경세계선교전략회의 준비위원장으로 섬겼으며 세계적 선교전략가 고 랄프 윈터 박사의 지명으로 선교단체국제네트워크 대표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있다. 또한 GP선교회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글로벌호프의 대표로 활약중이다.



[선교전략 패널토의]

GMS 선교훈련원장 **황태연**

1981년 필리핀에 파송, 필리핀국립대학(UP)에서 필리핀 문화를 전공하여 철학박사학위를 받았고, 필리핀 빈민촌에 개척교회들을 세웠고, 필리핀 아간신학교(Penuel School)와 아시아 선교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그는 신학교에서 20년간 제자를 양육하여 교수요원을 키웠다. 현재는 GMS 선교훈련원장으로 헌신하며 2007년 이래 훈련시킨 700명여명 선교사들이 세계도처의 타문화권에서 사역하고 있다. 본대회 한국 지부장이다.



[선교전략 패널토의]

도미니카 선교사, KWMF 대표회장 **최광규**

1988년 도미니카 한인 1호 선교사로 파송받아 지난 24년 동안 10곳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동안 양육하며 훈련시킨 제자들을 사역자로 파송하여 함께 동역하고 있다. 최근 도미니카교회 리더십과 함께 기도연합사역인 도미니카기독교군대를 창설하였다. 도미니카기독교총연합회 실행사, 도미니카국가기도위원회 코디네이터, 도미니카세계선교연맹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KWMF 대표회장으로 본대회를 섬기고 있다.



[선교전략 패널토의]

태국 선교사, KWMF 공동회장 **강대흥**

이 시대 마지막 선교주자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선교의 건강성이 중요한 과제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는 1987년 태국선교사로 파송, 1989년 건강한 현장사역팀 모델을 세워 현재 20여가정이 팀사역을 하며, 그외 2001년 아시아신학연구소, 2005년 방콕선교포럼을 설립하였다. 태국목회자훈련원설립, 방콕국제학교 협력설립 등을 이루었으며 국내사역 중에는 GMS필드구조를 현장중심으로 세우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다.



[선교전략 패널토의]

중남미선교전략연구소장, KWMF 공동회장 **강성일**

1983년, 장로교(통합) 선교사로 브라질에 파송되어 30여년간 현지협력선교의 모델을 이루어 낸 그는 아마존지역에서 교회 개척 및 현지교단 목회자를 양성하는 동시에 그들을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파송하면서 현지교회에 선교적 각성을 이루며 미래의 선교 방법과 모델을 제시해 왔다. 현재 30여년간 헌신해 온 중남미지역 선교발전을 위해 개설한 "중남미 선교전략 연구소"를 통해 소외된 이 지역에 선교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선교전략 패널토의]

프랑스 선교사, KWMF 공동회장 **이극범**

장로회신학대학, 임마누엘신학원(영국) 틴데일신학원(네델란드) 등에서 수학하고 1987년이래 파리장로교회를 26년간 섬겨오며 디아스포라교회를 기반으로 전교인선교비전일체화를 통한 불어권선교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급격히 이슬람화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불어권 27개 국가들을 향한 선교사역체인 MAFF27를 설립하고 전략연구, 교회협력, 선교사지원, 선교단체간 네트워킹, 단기선교 등을 활발히 진행해 가고 있다.



[선교전략 패널토의]

브라질 선교사, KWMF 사무총장 **한도수**

한국 토종 선교단체로 90여 개국에 40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바울선교회 초대 파송선교사로서 선교사훈련원이 거의 전무했던 80년대, 필리핀에 선교사훈련원을 세워 한국선교사의 약점인 언어 및 타문화권 적응훈련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고 여러 현지선교활성화에 주력해 왔다. 바울선교회 국제본부장직을 역임했으며 현재 브라질 남부신학교대학원장, 바울선교회 이사로 사역하고 있다.



[선교전략 패널토의]

방글라데시 선교사, KWMF 중경의장 **장순호**

지난 30년간 사선을 넘는 위험과 풍토병을 극복하며 열정적으로 사역중인 그는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25세에 회심, 음성나환자교회를 담임하였고 1987년 방글라데시개발협회(KDAB)를 설립, 지역교회, 교육, 음악, 의료, 나환자재활, 호스텔, 농군학교, 시범농장, 협동조합, 직업훈련, 스포츠, 지역개발, 정신교육 등을 통한 선교모델을 정착발전시킨 공로로 한국기독교 선교대상, 언더우드 선교상 등을 수상하였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프랑스 선교사 **허영희**

기감에서 1991년 모로코로 파송받아 사역하여 왔으나 몇년 전 경찰들에 의해 여권과 거주증을 요구받고 추방당하여 현재 프랑스에서 불어과 사역을 하고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우크라이나 선교사 **장종일**

우크라이나에서 시각장애인 재활훈련과 개안수술 주선으로 장애인 전문사역을 펴고 있는 장종일 선교사는 1990년 필리핀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여 1997년 미국을 거쳐 2002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다. 미국 웨스트 미시간대학에서 시각장애인지재활치료에 대해 공부하고 자격증과 학위 취득 후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 받아 시각장애인 재활선교를 펴왔다. 이미 필리핀 선교사 시절부터 개안 수술을 주선해 필리핀 바기오 지역에서만 주민 1백여 명에게 백내장 수술을 받도록 도운 바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시각장애인 사역을 펴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 병원과 치료협정을 맺고 활발히 사역중이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호주 선교사 **정훈채**

고신총회 선교부 파송 선교사로서 2001년 호주 원주민(Aboriginaes) 선교를 위해 파송되어서 현재 3기 사역을 하고 있는 정훈채 목사는 파송 받은 이래 호주 유일의 원주민 신학교(AEF Bible College of WA)에서 강의 및 행정을 섬겨왔으며 2009년에 신학교 본관 건물을 완공하였다. 그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 명의 원주민 형제들과 교재하며 멘토링을 통하여 현지인 목회자를 세워가고 있다. 이와 같이 정 선교사는 현지 동족 복음화는 동족인의 손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건 강한 선교를 지향하고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사 격려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중경 총회장 **김재규**

성수교회 담임으로 38년간 섬기고 현재 선교목사로 있는 김재규 목사는 KWMA 실행사, AFC 이사, TWR 이사 FIM 이사, 월드비전 운영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예장대신 중경 총회장이다. 안양대및 신대원(BA. & M.Div), Columbia Internatational University(.MA.M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Miss), NewYork Theological Seminary (D.Min)를 졸업하였다.



부흥의 불 (Revival Fire)

[저녁선교대회 설교]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 KWMC 공동의장 **서삼정**

「예수 믿는 맛」 시리즈로 펴낸 「영성이 살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난다」 등 그의 저서에서 보듯 서삼정 목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깊은 영성목회를 통해 지난 36년간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를 섬기면서 미국 동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시켰고 능력 있는 설교가로 세계적인 부흥집회 및 영성세미나를 인도하였고 또한 영감넘치는 시편으로 엮은 시집 「조약돌」을 세상에 선보인 아름다운 감성의 사역자다. 미주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세계복음화협의회 미주총재 등을 역임했다.



[느헤미야 8:5-10]

지금 우리는 격변하는 시대에
긴박한 땅 끝 선교를 위해 모였다.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 부흥의 불이 임해야 한다.
오늘까지 일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부흥의 불이 임할 때 시작되었고 전개되었다.
이것이 성경과 교회사에 기록된 구원의 역사요
선교의 역사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다.
목회지에서나 선교지에서나
강력한 부흥의 불이 붙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부흥의 불이 임하면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생긴다.
첫째는 인생이 달라진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진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
무능한 자가 지혜자가 되고 약한자가 강한자가 된다.
존재적인 혁명이 일어난다.

둘째는 일이 달라진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신다.
길이 열리고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일의 혁명이 일어난다.

셋째는 상황이 달라진다.
어려운 상황이 축복으로 바뀌고,
패배의 상황이 승리로 바뀐다.

궁핍한 상황이 풍요로 바뀐다.
개인적인 상황도 국가적인 상황도 달라진다.
환경의 혁명이 일어난다.

부흥의 불이 임하면 된다.
부흥의 불이 임하면 못할 것이 없게 된다.
부흥의 불은 어떻게 임하는가?

첫째는 위기의식을 느낄 때 부흥의 불이 임한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위기를 만났을 때가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부흥의 불이 임할 위기의 때이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릴때
부흥의 불을 주셨다.
당신이 아직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만은 아니라고 하면서 검어쥐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
오늘밤 그것을 주님께 내어 드리면
부흥의 불이 임할 것이다.

셋째는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때, 예배 드릴때
부흥의 불이 임한다.
오늘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부흥의 불이 임하기를 믿고 기대하자.
하나님이 우선이다. 목회보다 선교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만족하게 해 드리면
부흥의 불을 주신다.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자.



새벽기도회

사회/ **지용주 목사** KWMC 부의장
기도/ **석동기 목사** KWMC 부의장
선교도전/ **박헌남 선교사** 필리핀
설교/ **호성기 목사** 필라안디옥교회 담임 / PGM 대표

성경강해

강사/ **정인수 목사**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담임

주제강연

주제강연 I 강사/ **마크 앤더슨 박사** Call2All 총재
주제강연 II 강사/ **조동진 박사** 조동진선교학연구소 소장
주제강연 III 강사/ **배현찬 목사** 주 예수교회 담임
주제강연 IV 강사/ **최웅섭 선교사** 불의나라 회장
주제강연 V 강사/ **강승삼 목사** KWMA 회장

저녁선교대회

사회/ **유승원 목사** KWMC 부의장
기도/ **장동일 목사** KWMC 부의장
선교보고/ **박명하 선교사** 온두라스
선교보고/ **정금태 선교사** 파라과이
선교보고/ **이사라 선교사** 멕시코
선교사 격려사/ **여성삼 목사** 기성선교위원장
특순/ **김애자 여사** 피아니스트
봉헌기도/ **송창현 목사** KWMC 부의장
성경봉독/ **명치호 목사** KWMC 부의장
축사/ **여성삼 목사** 기성해선위원장
찬양/ **선교사연합성가대** 지휘/ 송규식
설교/ **로렌 커닝햄 목사** YWAM 총재
통역/ **전병철 목사**
화답송/ **이은혜 선생**
"한인세계선교대회" 지휘/ 송규식
축도/ **백상만** KWMC 부의장

평신도 전문인 선교동력화

[새벽기도회 설교]

필리핀 선교사 박헌남

조지아 임마누엘대학교, 프린스턴신학대학원, 영국 런던국제선교신학원에서 수학하고 필리핀 선교회를 미주 동부의 대표적인 선교적 교회로 성장시킨 그는 디아스포라선교, Here and Now선교, 평신도전문인선교, 교회중심선교 등 4대 핵심 가치를 추구하는 PGM(Professionals for Global Missions) 세계전문인선교회 국제대표와 KIMNET 세계선교동원네트워크의 회장으로 활약하며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을 위해 헌신의 열정을 쏟고 있는 강력한 영적 지도자이다.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필리핀 선교사 박헌남

1995년 필리핀선교사로 파송받은 박헌남 선교사는 2002년부터 필리핀에 크리스천 청소년들을 이 땅의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기독교사관학교를(International Christian Leadership Academy) 설립하여 차세대를 키우는 사역에 힘쓰고 있다. 사랑이 열매 맺는 교회 담임목사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적 리더십

[성경강해]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담임 정인수

연세대 정법대, 미시간주립대학원(커뮤니케이션전공), 프린스턴신학교 목회학전공, 예일대학 신학대학원 실천신학전공 등을 수학한 정인수 목사는 그의 저서 교회를 혁신하는 리더십, 영혼을 혁신하는 목회리더십등에서 보여주듯 교회개혁의 지도력개발에 헌신의 열정을 기울인 결과 진리의 반석위해 우뚝선 대형교회를 만들었으며, 미주차세대목회자 비전세미나를 개최하여 건강교회 일꾼세우기, 혁신의 리더십, 팀사역과 네트워크, 가정공동체 사역과 셀목회, 예배의 갱신등을 강조, 차세대지도력 양성에 힘쓰고있다.



[사도행전 27:18-26]

사도행전 본문은 바울의 선교 사역 중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역경의 시간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 후송되는 죄인의 신분으로 항해에 나선다. 그는 항해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바다의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이 광풍 가운데 바울은 용기와 희망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바울은 그 광풍의 위기 가운데 몇가지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그 리더십의 모습은 모든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 사명자들에게 중요한 리더십의 원리를 보여 주고 있다.

1.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행 27:23).

선교적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는 위기와 역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어진다

2. 광풍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소명, 선교와 관련된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고지 받는다 (행 27:24).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도 그가 반드시 걸어야 로마에서 복음 전파라는 선교적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있다

3. 그는 광풍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있다 (행 27:25).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고히 신뢰한다.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믿음의 뜻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선교적 리더십이다.

Call2All을 통한 선교운동

[주제강연 I]

Call2All 총재 마크 앤더슨

"전세계에 5백만개 교회개혁을 통해 10억명을 전도하자!"는 CCC창립자 빌 브라이트박사의 비전을 활성화하고자 2004년 말에 65명의 기독교지도자들에 의해 조직된 GPN(Global Pastors Network)이 3년후 Call2All이란 이름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선교지도자 위주의 운동에서 선교단체, 목회자, 평신도, 사업가, 교육자, 예술가, 의료진, 미디어, 가정사역등 각 분야별 네트워크를 갖는 광범위한 전도전략운동으로 발전, 세계각처 40여회선교대회를 통해 불길처럼 확산되고있다.



사도적 DNA를 회복하라!

[주제강연 II]

조동진선교학연구소 소장 **조동진**



한국교회 세계선교운동의 위대한 선도자이다. 1963년『국제선교신학원』(ISM)을 설립, 1973년『동서선교연구개발원』(EWC)으로 확장, 동년에『아시아선교협의회』(AMA) 창립 주도, 1974년 제1회 로잔대회 강사로 선교구조 쇄신을 역설, 1980년『바울의집』을 세워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였고 1989년 이래 20회 이상 북한을 방문, 김일성 주석과 세차례 단독 회담 후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신학교에서 강의했다. 근년에는『조동진선교학연구소』와『세계선교박물관』을 설립, 후학 양성에 힘쓰신다.

프로로그

사도와 속사도시대 선교의 DNA:

DNA of Apostolic Mission (AD 30 -313)

- a. 선교가 곧 순교로 이어지던 박해 속에서의 선교
- b. 약하고 억압받는 피압박 민족들로부터 강하고 부강한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 국가를 향한 선교
- c. 민족과 민족, 문화와 문화를 누비고 다니는 타민족 문화권을 향한 순회선교
- d. 선교의 중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종말론적 선교

황제의 선교시대의 DNA:

DNA of Emperor's Mission: (AD 313 -550)

- a. 콘스탄틴 이후 절대 군주 황제의 권위에 의하여 강제된 선교
- b. 황제의 무력에 의한 정복자적 선교
- c. 이방 종교사상과 타협하는 혼합주의적 선교
- d. 선교의 중심: 연속적인 신학적 논쟁

교황시대의 중세 가톨릭 선교의 DNA:

DNA of the Pop's Medieval Roman Catholic Mission (AD 550 - 1600)

- a. 교황의 통치 권력을 세계로 팽창시킨 강압적 선교
- b. 교황과 황제가 합세하고 경쟁하던 십자군에 의한 이방 세계 정복의 선교
- c. 교황이 세속 권력을 장악하던 신성 로마제국 권력주의 선교
- d. 선교의 중심: 국가 권력과 종교와 황금문명이 혼합된 선교 (특징: Glory; Gold; God were mixed together)

종교개혁시대의 선교 DNA:

DNA of Mission in Reformation Era (1600 - 1750)

- a. 성경이 모든 민족의 방언으로 읽히게 하는 선교
- b. 교회를 라틴 문화권 종교에서 모든 민족 문화 속의 교회로 해방시키는 선교
- c.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 중심의 선교
- d. 선교의 중심: 성경 권위의 회복

식민주의 시대의 선교 DNA:

DNA of Mission in Colonial Age (AD 1750 - 1960)

- a. 서구 기독교 국가의 아시아, 아프리카 침략과 식민정책 하의 식민지에서의 선교
- b. 서구화가 곧 선교로 인식되던 선교
- c. 지배와 착취와 선교가 혼재(混在)하던 시대
- d. 식민지 지배 민족의 노예교회 같은 지배자의 종속 교회 시대
- e. 선교의 중심: 교회가 서구화와 문명 이식(移植)이 중심이었다. (특색: Colony; Commerce; Christianity were mixed together)

비 기독교 국가의 선교의 새 세력이 주도하는 시대의 21세기 선교의 DNA:

DNA of New Mission Forces from Non-Christendom (AD 2000 -)

- a. 비서구세계 기독교 인구가 서구세계 기독교 인구보다 3배나 많아지면서 기독교가 서구 종교가 아닌 세계 종교로서의 기독교로 변한 시대의 선교
- b. 서구 선교세력이 쇠퇴하면서 비서구세계 선교사의 수가 서구 교사의 수를 능가하기 시작했고 서구 주도의 선교가 비서구 선교 세력이 주도하는 선교의 시대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I. 기독교 한국 전래의 기원

A. 네스토리안 기독교의 한국 전래 (AD 8세기 ~ 9세기)

네스토리안 기독교는 AD 313년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 이후 일어나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교세력이었다. AD 413년 성령강림절에 에베소에 모인 제4회 종교회의에서 안디옥파 감독인 콘스탄티노플 메시아교회 주교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 신모설(神母說)을 강조하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의 아들(人子)이 아니라는 단성설(單性說)을 주장하는 알렉산드리아 감독 키릴로스(Cytil)의 주장에 반대하였다, 그는 마리아는 신의 어머니(神母)가 아니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神子)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人子)라는 이성설(二性說)을 주장하다가 '마리아 신모설'과 '예수의 인성(人性)을 부인하는 단성론자(單性論者)인 알렉산드리아 감독 키릴로스(Cyril)가 데오도시우스 황제 주변 권력자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1,080 파운드의 황금과 77,760 테나리온의 금화를 뇌물로 주고 음모를 꾸며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어 콘스탄티노플 메시아교회 주교 자리에서 쫓겨나 페르시아로 추방되었다. 네스토리우스는 페르시아에서 네스토리안 학파를 만들어 페르시아를 거점으로 하는 동방선교를 시작했다.

AD 5세기에서 7세기에 이르는 200년에 걸친 네스토리안 선교는 사막과 고원의 물 한 방울 없는 거친 죽음의 땅을 지난 검은 바람을 뚫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만년설을 관통한 실크로드 거친 땅 중앙아시아의 투르크 족들의 나라,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키스탄을 거쳐 AD 635년에는 중국대륙 당나라 수도 장안(長安), 오늘의 시안(西安)까지 이르렀다.

네스토리안 기독교는 경교(景教)라는 이름으로 당나라 태조의 후대를 받으려 중국 대륙에서 급격히 퍼져나갔다. 네스토리안 기독교는 그 후 200년 동안 중국대륙 전역에서 강력하게 퍼져나갔다.

당나라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던 신라의 불교 승려들은 당나라 장안까지 가서 수행하면서 경교, 곧 네스토리안 교회와 접촉하고 경교를 신라의 수도 서라벌, 오늘의 경주에 전파함으로써 네스토리안 기독교는 한반도의 동쪽 끝까지 전해졌다.

신라 말기와 고려 초기의 네스토리안 기독교의 한국 전래를 증명하는 유물들이 1956년 경주 불국사에서 발굴된 바 있다. 발굴된 것은 24.5 x 24 x 9cm의 돌 십자가와 5.8 x 5.6 x 2.4 x 3.2cm의 철제십자가이다. 이 유물들은 현재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B. 로마 가톨릭교회의 한국 전래 (AD 1790)

로마 가톨릭교회의 한국 전래도 중국대륙을 통해 이루어졌다. AD 1794년 한국에 밀입국한 선교사는 중국인 신부 주문모(周文謨)였다. 주문모 신부는 프랑스 파리의 외방선교회 소속 신부였다.

이승훈(李承勳)이 1798년 조선 사신으로 청나라 수도 연경(燕京)에 갔을 때 연경 남천주당에서 Louis de Gramount 신부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한국 천주교 최초의 세례교인이 되었다. 1798년 1월 첫 주일의 일이었다.

한국에는 주문모 신부가 입국하기 전부터 천주교는 온갖 조정의 박해 속에서도 왕실 내명부와 고위 관직자들에게 널리 퍼져가고 있었다. 1701년에 일어난 신해박해(辛亥迫害), 1705년의 을묘박해(乙卯迫害), 1707년의 정사박해(丁巳迫害), 1801년의 신유박해(辛酉迫害)까지 10년 동안 조정의 심한 박해는 1,000여명의 순교자를 남겼다.

숨어 다니던 주문모 신부는 1801년 3월 자수하여 그 해 5월 '새남터'에서 효시 사형으로 순교하였다. 주문모 신부의 사형이 집행된 곳은 서소문 밖의 공식 처형장이었다. 대부분의 천주교 순교자들이 이곳에서 처형되었다. 로마 교황청은 1984년 한국 천주교 순교자 1,000명 중 103명을 성인(聖人)의 반열에 올렸다.

C.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한국 전래 (AD 1872년 ~ 1885년)

한국 교회사를 기록하는 대부분의 선교역사 학자들은 1884년 9월 20일 제물포에 입항한 미국 의료선교사 Horace Newton Allen과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에 도착한 미국 장로교 선교사 Horace Grant Underwood, 그리고 미국 감리교 선교사 Henry Gerhard Appenzeller를 한국인을 위한 프로테스탄트 첫 선교사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 계명대학교 교수였던 J, H, Grayson은 한글 성경 번역 100주년을 기념하는 연구 발표에서 한국인을 위한 첫 선교사는 John Ross(羅約翰)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John Ross가 1872년 2월 27일 스코틀랜드연합장로교회 중국 선교사로 임명되었으며, 그 해 8월 23일 중국 동북부 요령성 영구(營口)에 도착하여 중국인과 조선인을 위한 선교에 착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John Ross는 1872년 가을부터 영구와 우장(牛莊)과 고려문(高麗門)에서 중국인과 조선인들에게 신약성경 쪽복음서를 팔며 자연스럽게 조선 사람을 위한 선교에 집중하게 되었다. John Ross는 쪽복음서를 가져 받아가는 중국인들과는 달리 조선인들은 돈을 내고 사가는 것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조선인들은 중국인들보다 훨씬 잘 생겼고 (handsomer than Chinese) 그 모습과 행동이 서양인과 많이 닮았다. (in feature, and bearing there is much closer resemblance to the Western)"고 그의 고려문 방문 선교보고서에 기록하였다.

John Ross는 1874년 두 번째 고려문 방문에서 조선말을 배우기 위한 한글 선생을 물색했다. 그는 이 한글 선생이 성경번역을 위한 동역자가 될 만큼 학식과 인격이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John Ross는 고려문을 방문한 의주 청년 이용찬을 만나 그를 어학 선생으로 초청하고 「조선어입문(Corean Primer)」이라는 한글과 영문으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 성경번역의 기초로 삼았다. 그때가 1874년이었다.

John Ross는 계속해서 의주 청년 이성하, 백홍준, 김진기, 이익세, 서상륜, 서경조 등을 성경번역 동역자로 영접하였다. 그들은 모두 1875년부터 1877년 사이에 John Ross 목사와 그의 동역자 MacIntyre목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한국인 첫 세례교인이 되었다.

John Ross는 이용찬 등 여러 한국인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마가복음,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번역하고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번역을 마쳐서 한국 신약성경을 「예수 성교전서(聖敎全書)」라는 이름으로 출판했다. John Ross는 이렇게 한글 성경 번역을 마치면서 "한국인 학자의

도움으로 중국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하였음: My mode of translation from the commencement has been to get a translation from Chinese by Corean scholar" 이라고 기록함으로 한국 동역자들과 함께 번역한 것임을 분명히 밝힘으로 'Ross 번역'으로 알려진 최초의 한글 성경이 이용찬 등 한국인 동역자들과의 공동번역임을 증명하고 있다.

John Ross는 한국인을 위한 첫 교회가 순전히 한국인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위에서 인용한 보고서 "The Christian Dawn in Korea"의 끝부분에서 밝히고 있다. 그는 자신과 한국인 동역자들과의 동역으로 이루어진 압록강변 서간도 일곱 고을에서 75명의 조선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일과 계속해서 100여 명의 세례교인으로 이루어진 집안(輯安)현의 이양자(李養子)교회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에게 세례를 받은 서상륜, 서경조, 백홍준 등이 압록강을 건너 의주와 황해도 소래에 교회를 설립하고 서상륜이 이어서 한국의 수도 서울에 교회를 세울 때 미국에서 온 선교사 Horace Underwood가 자신을 초청하여 서울을 방문한 사실만은 담담하게 기록하였다.

II. 초기 한국 교회의 특성

한국 민족은 기독교를 스스로 자기 민족의 종교로 삼았다. 그렇다. 한국 민족은 그 시초부터 스스로 심고(self-planting), 스스로 가꾸어 (self-cultivating), 그 풍성한 결실을 스스로 추수(self-harvesting)하는 교회였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민족 자생적(自生的, Spontaneous) 교회였음을 증명한다.

A. 자생적 한국 교회에 대한 역사적 증언들

1. 한국인은 값을 지불하고 성경을 받아들였다.

1868년에 간행된 스코틀랜드 선교보고서에 의하면, 1863년부터 스코틀랜드성서공회 대표로 있던 Alexander Williamson이 1866년부터 1868년까지 3년 동안 중국과 한국의 국경지대를 순회하면서 한국과 중국 국경지대인 압록강 건너편 120km 지점에 있는 고려문에서 중국어 한문성경 쪽복음서를 중국인들에게 나누어 줄 때 중국인들이 가져 받아가는

것과는 달리 조선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내고 사서 열심히 읽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John Ross가 1872년 고려문을 방문하기 6년 전에 한국인들이 복음서를 값을 내고 구입하여 열심히 읽음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자기 마음에 심기 시작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증명된다.

2. 한국인들은 한국 최초의 성경인 John Ross 번역 신약성경의 공동번역자였다.

현재까지 Ross version으로 알려져 있는 한국 최초의 신약성서 「예수성교전서」에 대하여, John Ross는 그의 보고서 "Corean New Testament"에서 그 성경이 중국어와 한문에 속달된 한국 동역자 이용찬과 서상륜과의 공동번역임을 밝히고 있다. John Ross는 한글 성경이 중국 성경 최신번역에서 한국인 번역자들에 의하여 한글 번역되었으며, 그 또 다른 동역자 MacIntyre에 의하여 Greek어와 King James version 영어 성경 대조로 교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번역된 원고의 인쇄를 위하여 한글 목활자(木活字)를 만들고 그 인쇄를 담당한 사람 역시 김진기, 김청송 등 그의 성경 발간을 위한 한국 동역자들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한국을 위한 첫 성경인 「예수성교전서」가 한국인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한다.

3. 한국인이 최초의 자민족 성경 반포자였다

쪽복음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신약 27권과 완역된 「예수성교전서」 등 수백만 권의 쪽복음 성경책을 중국 동북 삼성과 평안도, 황해도를 거쳐 수도 서울에 이르는 한반도 전역에 전파한 것 역시 서구 선교사들이 아니라 서상륜, 김청송,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서경조 등 한국인 매서인(賣書人, Gospel Seller)들이었다.

이로서 초기 한국 교회는 한국인 스스로 받아서, 스스로 심고, 스스로 뿌렸음을 역사가 증명한다.

4. 최초의 한국인 수세자들은 자발적으로 신도가 된 자생적 기도교인들이었다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용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서상륜, 김청송 등 여섯 사람이었다. 서간도 출신인 김청송을 제외한 다섯 사람은 모두 평안도 의주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스스로 John Ross와 MacIntyre를 찾아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에 기고한 John Ross의 보고서에 나오는 "Corea is now thoroughly open to colportage or track distribution from new change; for the only Corean members connected with Protestant church are six men, all more or less scholarly, baptized there in Moukden." 이라는 기록은 첫 한국인 수세자 여섯 사람은 모두 전도지를 뿌리고 쪽복음서를 판매하던 매서인 출신임을 입증한다.

5. 최초의 한국인 교회는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 스스로 세운 자생적 교회였다.

1882년, 매서인 김청송은 그의 고향인 서간도 집안현에 들어가 전도하여 100여 명의 결신자를 얻고 봉천으로 John Ross를 찾아가 서간도 집안현의 일곱 고을 신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한다.

집안현을 방문한 John Ross는 1883년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동안 집안현의 일곱 고을 신도들 중 75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들은 힘을 합하여 1884년 정월에 집안현의 한 고을인 이양자에 역사상 최초의 한인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1885년 4월 미국 최초의 목사 선교사 Horace Underwood가 인천 제물포에 상륙하기도 전에 이미 한국인 첫 교회가 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집안현에 설립되었음을 뜻한다.

한국의 첫 교회가 압록강 건너 중국 땅 서간도 집안현에 먼저 세워진 역사적 원인은 무엇인가?

복음서 매서인들은 성경이 압록강 건너 조국땅에 반포되게 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전도인들이 압록강을 건너 직접 전도활동을 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 이유는

조선왕조 말기인 1866년부터 왕실의 정치적 실권자인 흥선 대원군의 쇄국정책 때문에 서학(西學), 즉 서양 종교가 법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John Ross가 10년 넘게 중국 땅에서 한국인을 위한 선교에 주력하면서 몇 번이나 압록강을 건널 방법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옛 고구려 수도 집안현에 최초의 한국인교회를 설립한 1884년 1월 이후, 한국 첫 세례교인 여섯 사람은 어떤 위험이라도 무릅쓰고라도 조국 강토에 교회를 세우야 한다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했다. 한국의 수도 서울에 교회를 세우기로 결심한 사람은 의주 청년 서상륜이었다. 1883년부터 이 목적을 위해 준비하면서 John Ross에게 훈련을 받았다.

John Ross와 중국 교회, 그리고 한국인 신도들의 기도와 축복을 받으며 떠난 서상륜은 압록강변 국경에서 체포되어 투옥되어 죽음의 위험을 겪었으나 성령의 초월적 능력으로 탈옥하였고 의주에서 식구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서울로 잠입하였다.

그는 숨겨가지고 온 수십 권의 복음서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13명의 새 신도를 얻었다. 서상륜은 John Ross에게 편지를 보내어 서울에 와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간청하였다. 1884년 5월 22일, 한미수호조약이 체결되어 법적으로는 서양인들의 입국이 가능해졌지만, 실정은 그렇지 못했다. 1885년 개종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자 다시 John Ross를 초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서상륜은 마지못해 서울에 와있던 미국 선교사 Underwood에게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간청한다. 그리하여 1886년 7월 21일 주일에 Underwood의 집에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노도사(盧道士)라는 사람이 비밀리에 세계를 받았다. 국내 첫 수세자인 노도사의 이름이 13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목사가 신도에게 세례를 베풀 때는 반드시 그 이름을 확인하고 세례명부에 기록하는 것이 법이다. John Ross는 그에게 세례를 받은 한국인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여 역사에 남겼다. 그러나 Underwood는 자기에게 세

례를 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

어찌되었든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땅에서 John Ross에게 세례를 받은 서상륜은 서울에 첫 교회 설립을 주도하였다.

John Ross는 겨우 1887년 가을에야 Underwood의 초청으로 서울에 왔다. 그날은 14명의 세례교인을 가진 한국 땅 최초의 교회인 서울교회가 두 사람의 장로를 장립하는 날이었다.

1885년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송천동에서는 서상륜의 동생 서경조가 전도하여 20여 명의 신도를 얻어 소래(松川)교회를 설립하였다. 시간적으로는 황해도의 소래교회가 한국 땅의 최초의 교회였다고 보아야 한다.

III. 초기 한국 교회와 사도적 DNA

A. 한국 교회는 사도적 DNA를 수태하여 탄생했다

DNA란 무엇인가? DNA란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들과 바이러스의 기능과 발전의 유전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디옥시리보 핵산(Deoxyribonucleic Acid)의 약자이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모든 유전인자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를 생산한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를 생산한다. 이와 같이 사도적 DNA를 잉태한 교회는 사도적 교회를 생산한다.

사도적 선교의 유전으로서의 DNA 유기체와 바이러스는 어떤 것들인가?

- 1) 사도적 선교의 DNA의 첫째는 극한 핍박과 박해로 흩어진 무리들(oppressed and scattered peoples)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공동체이다.
- 2) 사도적 선교의 DNA의 두 번째는 나라 잃은 민족으로 거처할 집도 없는 유랑민들(stateless and homeless peoples)의 선교이다.

3) 사도적 선교의 DNA의 세 번째는 강력하고 부유한 로마제국에 박해 받는 힘없는 민족들(powerless peoples)이 펼치는 선교운동이다.

4) 사도적 선교의 DNA의 네 번째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 이동선교(itinerant mission)이다.

5) 사도적 선교의 DNA의 다섯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종말론적 선교(Eschatological Mission)이다.

6) 사도적 DNA의 여섯 번째 유전자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는 선교이다.

7) 사도적 선교의 DNA의 마지막 일곱 번째 유전자는 순교정신(Martyrdom Spirit)이다.

초기 한국 교회는 이 모든 사도적 선교의 DNA가 온전하게 배태되어 탄생되었다.

1) 한국 교회는 험난한 쇄국정책으로 나라 밖으로 흩어진 무리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함으로서 사도적 선교의 DNA가 배태되어 탄생되었음이 입증되었다.

2) 한국 교회는 청나라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나라 밖으로 쫓겨나 집도 나라도 없는 백성이 된 사람들이 강대국 중국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도적 선교의 DNA를 계속 생성시켰다.

3) `한국 교회는 가난하고 힘없는 피압박 민족으로서 주변의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도적 선교의 DNA를 발전시켰다.

4) 한국 교회의 선교는 계속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여 감으로써 사도적 이동순회선교의 DNA를 계승하였다.

5) 한국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성경을 믿는 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 위에 선 사도적 선교의 DNA를 이어받은 교회였다.

6) 한국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교회였다.

7) 한국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없이 옥에 갇히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낸 사도적 순교정신을 뿌리내린 교회였다.

B. 1912년 중국 산동선교의 역사적 배경과 사도적 선교의 DNA

1874년부터 나라 밖으로 흩어진 한국 민족들에게 복음을 심어준 John Ross는 그가 작성한 1890년한국 선교 보고서 끝머리에서 "한국은 동양 국가들 중에서 첫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Korea will be one of the Eastern nations to become a Christian nation)"이라고 결론지었다.

나라의 뿌리가 뽑혀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 1910년까지 중국 대륙 동북삼성(東北三省)에 200개가 넘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설립되었다. 이들 교회들은 모두가 평신도 자발적인 전도로 시작된 자생교회들이다.

1912년 9월 1일, 평양여자성경학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목사 52명, 장로 125명, 외국선교사 44명이 참석한 거대한 회의였다. 미국 북장로교 총회와 남장로교 총회, 그리고 일본기독교 총회의 축하사절을 모냈고, 중국기독교 총회는 화북대회 산동노회 대표가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제1회 총회는 전도국의 청원으로 중국 산동성 내양현(萊陽縣)에 선교사를 파송할 것을 결의함으로 타민족 선교를 시작하였다.

실제적으로 파송할 선교사를 선출한 것은 1913년 제2차 총회에서의였다. 선정된 선교사는 신학교 제5회 졸업생인 박태로 목사와 제6회 졸업생인 김영훈 목사, 사병순 목사 세 사람이었다.

중국 교회는 표면상으로는 한국이 자기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한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적인 입장이었을 뿐 중국 교회 지도자들의 속내, 즉 그 심정과 감정은 달랐을 것이 분명하다.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여 비록 속국인 조선을 일본에 내어주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라인 중국은 아시아의 종주국으로서의 자긍심이 대단하였다. 반면에, 조선은 1905년 일본의 러일전쟁 승리로 전 국토를 일본에게 빼앗기고, 1910년에는 조선 왕조가 완전히 무너져 망국 백성이 된 것이 한국 민족이라는 부끄러운 역사적 내력을 중국 교회 지도자들은 마음 속에 품고 있었다. 더욱이 불

과 25년의 역사 밖에 없는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1807년 영국인 Robert Morrison이 중국에서 선교를 시작한 후 115년의 역사를 가진 뿌리깊은 중국 교회에 조선이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이 마냥 기쁘고 환영할만한 일은 아니었다.

중국은 Robert Morrison의 영국 성공회 선교사로 중국 선교를 시작한 이후, 서구의 감리교와 장로교, 그리고 침례교와 독일의 루터교 등으로부터 온 선교사 수백 명의 선교사가 활동하는 나라였다. 저 유명한 허드슨 Hudson Taylor가 1853년 중국에 도착한 후 세계 최초의 신앙선교단체인 중국내지선교회(China Inland Mission)를 조직한지도 60년이나 되는 때에 나라 없는 민족인 한국인들이 보낸 선교사들을 선교 선진국인 중국에서 받는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나의 이러한 분석은 김재오의 "선교사 방효원가의 중국 산동성 선교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이미 중국에 선교하고 있는 미북장로교 선교부와 중국 교회 당국에 조회 상의한즉 표면상으로야 옳다고 칭찬하였지만 속으로는 어린 교회가 벌써 선교를 해보겠다는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러기에 산동성 북관 한 골 래양현 만을 해보라고 시험 삼아 추천하였던 것"이라는 기록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김영훈, 사병순 등이 부임한 지 3년도 안 되어 중도 이탈하여 한 명은 미국으로, 한 명은 본국으로 떠나버린 일과, 박태로 마저 중병으로 조국에 돌아오고만 초기 산동선교의 위기를 조사하기 위해 제4회 장로회 총회는 전도부 서기였던 방효원을 중국으로 보냈다. 방효원의 조사보고 역시 나의 분석과 다름이 없었다. 방효원 목사가 산동성 선교사직에서 은퇴하고 그의 아들 방지일 목사가 이를 계승할 무렵인 1937년 평양에서 발행된 「계자씨」에 게재된 방효원 목사의 "산동선교에 대하여"라는 회고록에서도 이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화북교회 회원 중 유력한 한 회원이 말하기를 중화는 고대 문명국이요 역사가 깊고 긴 대국이며 세계 4분의 1의 인구를 가진 국가라 교만과 자만심이 많아 자칭 대국이라 하여 소국을 멸시하는 오래 전부터의 습관이 있으니 중화와 조선은 자고로 관계되어 대소(大小)와 조만(早晚)의 차별을 두는 관계로 조선교회가 중화에 선교하는 일은 모든 면에

서 괴롭고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또한 피선교지의 일로 말하여도 중화는 130년이나 되고 조선은 25년이 되었다면서 모든 면에서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는 방효원 목사의 초기 산동성 선교를 회고하는 기록을 볼 때 나의 분석이 지나친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나라 없는 망국 민족, 나라 밖으로 흩어져 돌아다니는 유랑민족, 가난하고 천대받는 약한 민족인 한국 민족의 교회가 세계 최대 국가 중국선교부터 시작한 초기 선교운동은 사도적 DNA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탄생한 선교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사도적 선교의 DNA는 ① 박해 받는 백성들(oppressed people)이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선교운동이었고, ② 나라 잃은 민족들(stateless people)로서 떠돌아다니는 유랑민들의 선교운동이었다. 또한 ③ 강대국에 정복되고 압제 받는 힘없는 민족(powerless people)의 선교운동이었다. 뿐만 아니라 ④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다니는 순회 선교(itinerant mission)였다. ⑤ 사도적 선교 DNA의 중심은 다시 오실 예수를 예언하는 종말론적 선교(eschatological mission)였다. ⑥ 사도적 선교 DNA는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한 순교정신이다.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운동은 이러한 사도적 선교의 DNA를 그대로 이어받은 선교였음은 위에서 증거한 나의 모든 증언에서 입증되었다고 생각한다.

에필로그

1912년에 시작된 한국의 예수교장로회의 타문화권 선교는 이제 100년을 맞이하였다.

1910년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세계선교회를 가진 지 100년이 되는 지금 서구 기독교 열강들의 교회는 어떠한가? 2010년 5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에딘버러100주년 기념선교대회에 참석하여 유럽 교회를 대표해 발표한 스웨덴의 스테판 구스타프슨(Stefan Gustavsson)은 20세기 말 유럽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탕자(The Prodigal Son)'이라고

고백하면서, "the Christian church in Europe is rapidly diminishing"이라고 고백하고 "The Europe is still on the world map... Come to Europe without delay and help us"라고 호소했다.

중국 산동성 선교 100주년을 맞는 오늘, 한국 교회의 참모습은 어떠한가? 또한 앞으로 100년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인간화(Humanization)와 세속화(Secularization), 그리고 황금만능주의(Mammonism)로 고식화된 제도적 교회(institutionalized Church)로 몰락한 20세기 후반의 서구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한국 교회의 참모습을 들여다 보자.

Mega-Church만을 꿈꾸는 오늘의 한국 목회자들, 한국을 세계선교 대국이 되게 하겠다는 오늘의 한국 선교지도자들의 헛된 야망이 선교적 DNA를 이어받았던 초기 한국 교회의 모습에서 얼마나 빛나간 모습인지 스스로 진단하고 해부하여 소멸되어가는 사도적 선교의 DNA를 재생시키는 선교포럼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Grason, (J. H. 한국명 김정현), The Development of Christianity in Korea (한국의 첫 선교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2년 2월 20일.
- Gustavsson, Stefan. "Reaching Secular Europe,"Tokyo 2010 Global Consultation and Celebration, Tokyo, Japan, 2010.
- Ross, John. "The First Korean Congregation,"TMRW, 1890.
- Ross, John. "The Korean Dawn in Korea,"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4 (April, 1980).
- "Journey to the Corean Valley,"United Presbyterian Mission Report, October, 1885.The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 1868, China.
- "The Christian Dawn in Korea,"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4 (April, 1890)
-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Nov. 1883.
- United Presbyterian Missionary Record, 1880, pp. 150, 278-279.
- "Visit to the Corean Gate,"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5 (November-December, 1875)
- 김양선, "Ross version과 한국 Protestantism,"白山學報 제3호, Seoul, Korea, 1967. 11.
- 김재오, "선교사 방효원가의 산동성 선교에 관한 연구,"서울: 연세대학교, 1996.
- 방효원, "산동선교에 대하여," 「계자씨」 vol. 6 (1) 13-6, 평양: 계자씨사, 1937.
- 白山學報 제3호 유봉영 선생 고회기념 사학논총, 1967. 11.
- 朝鮮예수교長老會 史記 (上),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1927, p. 196.
-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 차기진의 논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사회봉사

[주제강연 III]

주예수교회 담임, KWMC 공동의장 **배현찬**



연세대 신학과 및 연합신학대학원 신학석사 후 도미, 듀북신학교, 보스턴대학을 나와 루이지애나 대학교에서 철학박사(기독교사회윤리) 학위를 했으며 원칙이 있는 분명한 목회 철학과,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균형잡힌 신앙지도로, 말씀 중심의 제자 훈련 및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회 선교 사역에 집중하는 목회관으로 주 예수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그는 이민교회의 지역 사회봉사에도 힘써 노숙자급식선교, Elder Homes, 다문화 음악축제, 커뮤니티 교회개방등 이민교회의 다문화권선교에도 힘쓰고 있다.

들어가는 말 / 이민교회의 근본문제 진단

1. 디아스포라의 기원과 특징

- 1) 성서적 기원
- 2) 사회적 특징

2.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3대 수난 사건

- 1) 1923: 일본의 동경 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 2) 1937: 소련의 스탈린 정책과 연해주 조선인들의 이주
- 3) 1992: 미국의 L.A. 4.29 폭동과 재미 한인들의 피해

3. 다인종 사회와 인종 갈등

- 1) 인종차별의 발전 단계: 편견 (Prejudice) => 구별 (Segregation) => 차별 (Discrimination) => 부당한 취급 (Unfair)
- 2) 인종차별의 사회 현상화: 개인적인 행동 (Individual Behavior) => 사회 구조 (Social Structure) => 문화 현상 (Culture)
- 3) 인종차별적인 개인 행동화: 편견의식 (Prejudice) => 좌절감 (Frustration) => 공격적 행동 (Aggression) => 속죄양 찾기 (Scapegoat)
- 4) 인종화합을 위한 관계적 실천: 현상분석 (Investigation) => 협상시도 (Negotiation) => 자기순수화 (Purification) => 개인 및 집단행동 (Action)

4. 다인종 사회와 지역사회 봉사

- 1) 지역사회에 대한 선교의식 (Community Mission)
- 2)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 (Missional Church)
- 3) 사회정의를 위한 복음 (Social Mission)

- 4) 다인종 사회에서의 문화 교류와 가교역할 (Cross-Cultural Bridge)
- 5) 미국 사회 속에서의 고립 현상과 소수의식 탈피 (Enclaveness & Marginal Minority)
- 6) 한인 이민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고취 (Korean American identity)
- 7) 더불어 함께 사는 기독교 공동체적 시민 의식 고취 (Beloved Community)
- 8) 자녀들에게 계승되는 긍정적 유산 (Next Generation)

5. 사랑과 정의를 위한 사회 선교 사례 / 주예수 교회

- 1) 인종화합 합창제 (Intercultural Music Festival)
- 2) 노숙자 섬김 (CARITAS & Monroe Park Soup Kitchen)
- 3) 독거노인 및 장애자 주택 보수 (Renew Crew)
- 4) 산골 지역 빈민 주택 수리 (ASP)
- 5) 무궁화 한국학교, 무궁화 시니어센터 (지역 한인 사회)
- 6) 교회 시설 개방 (체육관, 운동장: 백인, 흑인, 히스패닉)

* 위의 사역은 매년 전교회적으로 1, 2세가 함께 참여하는 섬김 봉사
* 1), 2), 3), 4) 는 지역 사회 봉사기관과 함께 타인종과 더불어 동역

나가는 말 / 다인종 사회의 선교전략
(참고: 다민족 선교전략 포럼)

비즈니스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주제강연 IV]

포유국제 NGO 재단 이사 **최웅섭**



바울선교회에서 2000년 파송받은 아제르바이잔의 최웅섭 선교사는 지난 2004년부터 아제르바이잔 주 정부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수익금을 개척교회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 차세대 목회자 양성 등을 위해 사용하고자 포유장학재단을 설립하였고 기업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에서 선교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해 온 결실을 장학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개혁) 목사로 포유국제 NGO 재단 이사장, 포유장학재단 이사장, 포유글로벌 테크 CEO다.

1. 비자(VIZA)-그것이 무엇인가?

- 이슬람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분에 대하여 거짓말하기 싫었다

2. 나의 비즈니스 선교의 원칙

- 사업을 팔기 위해 목숨을 걸지 않는다

3. 비즈니스 선교의 행복함

- 주변에 대화할 사람이 많다

4. 비즈니스 선교의 팀워크의 가치와 필요

- 팀원은 나의 위대한 파트너이다

5. 비즈니스 선교의 영향력

- 내가 하는 일이 선교다

6. 나의도달 사역

- 사회적 기업을 현지에 만드는 선교단체 설립 계획

7. 결론

- 사업가를 선교사로 보내면 선교가 행복해진다
- 사업가를 선교사로 보내면 현장이 행복해진다
- 사업가를 선교사로 보내면 선교의 폭이 넓어진다

급변하는 상황에서의 한국세계선교의 미래

[주제강연 V]

KWMA 회장 강승삼



10만에 육박하는 한국교회 및 각 교단, 선교단체들이 초교파적으로 연대한 막강한 선교운동네트워크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회장으로 한국교회의 대외역할을 하고 있는 강승삼 목사는 젊은 날에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헌신, 12년간을 교회개혁, 신학교 설립, 현지지도자 양성 등에 힘썼다. 총신대학원, 컬럼비아국제대학을 나와 트리니티신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선교분과위원, 아세아복음주의협의회 선교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I. 문제의 제기: 급변하는 상황에서의 한국교회와 한미디아스포라교회의 미래 세계선교전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급변하는 세상에서의 미 전도종족선교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전방개척선교란 무엇인가? 현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선교지의 건강한 토착교회 성장 (Proliferation)과 셀 교회제자양육프로세스는 어떤 관계인가? 세계선교 역사에서 분석되는 선교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선교모델이 전략적 선교모델인가? 한국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함께 펼치고 있는 Target2030선교운동이란 무엇인가?

II. 급변하는 세상에서의 미전도종족선교 어디까지 왔나?

전방개척 선교사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세상의 변화와 미전도종족(UPG/LPG) 선교운동의 변화를 읽고 있어야 한다. 세상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줌과 동시에 선교의 기회이다.

A. 급변하는 세상은 선교의 기회이다.

1.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세계화와 지역화 (Glocalization)로 변하여 가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economies), 문화의 세계화(cultural globalization), 정보의 세계화(informational globalization), 생물학적 세계화(physical globalization)로 변해가도 있는가 하면 한편 지역화 (Localization)로의 변화의 물살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민

족들이 지역문화의 정체성 (cultural identity)을 찾고 견지하기 위해 인간힘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부족주의 (Tribalism)나 민족주의 (nationalism) 복고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민족중심주의 (ethnocentrism)에 빠져 부족과 민족 간에 충돌이 더욱 잦아지고 있다. 거기에는 민족마다 종교적 정체성의 부활 (religious identity resurgence)이 거세지므로 종교 간의 갈등과 충돌은 심화되고 있다. 21세기는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Glocalization"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세계화와 지역화의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유사종족선교를 위하여 익숙하고 다양한 접근법 (variety of "customized" approaches)을 활용하여 현장의 필요성을 (felt-needs) 파악하여 선교전략에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급변하는 세상은 복음 선교의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미 전도종족 선교를 위해 선교의 기회를 찾으며 기도해야 한다.

2. 이 세상은 급속한 도시화 현상 (Urbanization)으로 변하고 있다.

이 세계가 현재 50%가 도시화로 급변하고 있다. 2050까지 66%의 도시화 현상이 예상된다는 보고이다. 이 같은 도시화 현상으로 인해 기독교인구의 분포도가 달라지고 있다. 세계 기독교인구가 33%인 반면, 도시 기독교 인구는 44%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도시화 현상에서의 미 전도종족선교는 다방면의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도시에서 미 전도종족선교(UPG/LPG) 전략으로서 고향접근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적절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3. 급변하는 인간 사회는 삼대 시대적 변천을 겪고 있다.

농업화 시대 (Agricultural Wave)를 거쳐 공업화 시대 (Industrial Wave), 그리고 곧 정보화 시대 (Information

Wave)와 문화의 시대 (cultural Wave)로 넘어가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선교현지는 이 모든 시대가 공존하고 있음을 경험한다. 이러한 변천시대의 중요 이슈는 다르다. 농업화 시대의 이슈는 부족주의 (Tribalism), 공업화 시대의 이슈는 민족주의 (Nationalism), 그리고 오늘날의 정보화 및 문화시대는 세계화와 지역화 (Globalization & Localization)의 이슈이다. 급변하는 변천사회에서의 선교전략은 무엇이었던가? 농업화 시대는 선교전략이 없었고, 공업화 시대는 선교전략이 조금 있었다. 정보화 시대는 다양한 선교전략이 필요하므로 전략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4. 변천하는 세상에서의 다양한 이주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치적 난민들 (political refugees), 환경적 이주자들 (ecological migrants), 경제적 이주자들 (economic migrants), 그리고 유목민 공동체들 (nomadic communities)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이주자들 가운데는 미 전도종족이 많다. 때문에 오늘날 탈북자들과 같은 정치적 난민들을 위한 사역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적 이주자들을 위한 "green" 환경사역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제적 이주자들과 이들의 학생들을 위한 전략이 약간 있긴 있으나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유목민 공동체들을 위한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집중선교전략을 펴는 데는 난관이 있다.

5. 급변하는 이 세상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절대가난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4억 명이나 된다, 13억이 식수의 난을 겪고 있다. 11억이 주택의 난을 겪고 있으며 15억이 변변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매일 5세 미만의 4만 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고통당하는 미 전도종족들을 향한 선교전략은 총체적인 접근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들과 선교사들이 이원론적 구원관으로 접근하였다. 영혼구원만을 중시하였다. 성(sacred)과 속(secular)의 분리 및 육(physical)과 영(spiritual)의 분리의 고통에서부터 총체적 구원관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 자체가 영원한 치유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스도의 총체적 선교접근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총체적인 선교전략은 선포 (Preaching), 제자양육 (teaching), 그리고 섬김 (Serving, Healing, Feeding, forgiving, Freeing) 이었다.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치

유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Christ-likeness)이다.

6. 세상이 급변하면서 전쟁과 테러와 질병으로 인해 위기의 세상이 되고 있다.

수많은 발생하는 부족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한다. 그 사상자들 중에 90%가 민간인이하는 것이 더욱 슬프게 한다. 그 뿐인가? 21세기 들어와서 테러가 격심해지면서 테러문화가 점점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테러문화로 인해 이 세상의 사회제도와 여행문화가 살벌해 지고 있다. 종교 간의 갈등과 불화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권문제는 어떤가?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탈북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신종 질병의 세계화로 인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은 복음접근기회이기도 하다. 위기에 노출된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로 노출되어 있다. 이들 중 개방된 사람들에게 복음의 총체적 접근을 갖자. NGO와 선교단체들의 상호협력과 네트워크가 절실하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도 복음 선교에 헌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8. 21세기는 핍박 (Persecution)과 선교사 추방의 수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세기에 순교자의 수가 지난 1-19세기(1900년 동안)의 순교자 수를 합친 수보다 많다는 통계이다. 지난 20세기에는 50개국에서 매년 160,000명의 순교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기준임을 인식하고 있다. 얼마나 고무적인 믿음인가! 우리의 선교사들 또한 그러한 지역에서 여러 모양의 신분으로 사역하다가 신분이 노출되어 추방당하고 있다. 한인 선교사의 경우 1년에 수십 수백 명씩 추방이나 입국거부를 당하고 있다. 21세기는 핍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B. 급변하는 세상에서의 전방개척선교는 어디까지 왔나?

1. 급변하는 이 세상도 기독교회 선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변화를 보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의 기독교선교의 영향을 받은 비율은 1800년대에 1%, 1900년대에 10%, 그리고 2005년도에는 77%의 영향을 받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이 세상의 변화는 교회의 변화만큼 변한다.

한국의 선교운동과 경제성장의 변화를 한 예로 들어보자. 한국선교사가 5천명이었을 때에 한국의 GNP가 5천불, 2000년도 한국선교사 1만 명이 되었을 때 GNP 1만 불이었다. 2005년 12월 180개국에 한인선교사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14,086명이었고 2006년 8월 현재 1만 6천여 명이 된 지금 한국의 GNP는 1만 6천 5백 불이 된 것은 우연일까? 2012년 1월 현재 23,331명의 선교사다. 이제 2만 불 시대가 넘어 3만 불 시대가 멀지않았다. 교회의 지상명령운동의 상승변화만큼 국가경제가 상승변화 한다는 상관관계를 어찌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2. 이러한 위기의 세상에서도 교회성장의 변화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이 세계는 매일 100,000명의 새 신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주 4,500개의 새로운 교회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다. 세계 기독교인의 현황은 전체 18억5천7백만이다. 북 미주에 2억2천7백만, 남미에 4억2천7백만, 유럽에 4억1천만, 아프리카에 3억5천만, 유라시아에 1억2천3백만, 동북아에 3억, 그리고 호주태평양지역에 2천만이다.

대한민국은 125년의 짧은 기독교역사에서 크게 성장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1885년에 서구선교사가 입국하여 1907년 독 노회가 결성됨과 동시에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축복을 받았다. 1907년에 1백만 성도를 목표로 하였는가 하면 1907-1937 사이에 30년간 15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2006년에는 기독교신자가 25%를 넘어섰다. 2006년 세계 선교대회와 전략회의에서 부터 Target2030운동 즉, 십만 선교정병 파송운동과 MT2030운동 즉, 1백만 자비량 사역

자 파송운동을 펼치고 있다. 2010년 6월 30일~7월 3일 까지 NCOWE V를 개최하면서 한국교회 125년 하나님의 행적 찾기"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족적을 찾아보았다.

혹 아프리카 선교현황은 어떤가? 1900년에 기독교인 3%, 2006년에 기독교인이 50%로 증가하였다. 매일 25,000명의 새 신자가 증가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2020년까지 5만 선교사 파송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남미 기독교 선교현황도 대단한 변화를 보인다. 1900년에 50,000명의 개신교 신자였는데 1980년에 2천만 신자로, 2000년에는 1억의 기독교신자로 증가하였다. 2006 현재 8천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으며 지금도 대거 선교사파송운동을 전개 중에 있다. 브라질의 경우 2012년 현재 3만 4천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보고이다. 필리핀은 2020년 까지 20만 자비량 선교사 파송운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1950년에 1백만 신도였는데 2010년에는 1억 이상의 신자로 증가하였다. 매일 35,000명의 새 신자가 생긴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신학적인 문제는 있음)은 벌써 오래전부터 필립 중에 있는 중국가정교회가 전개 중이라는 사실은 누구나에게 알려진 정보다.

지상교회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통계를 보자. 1900년, 세계기독교인의 14%가 선교에 동참했고, 2005년에는 세계기독교인의 32% 동참하였다. 한국교회는 2006년 현재 15%, 2010년에 약 25%의 교회가 세계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2030년 까지 한국교회 50%이상이 세계선교에 동역하게 될 것을 희망하며 교회선교활성화운동을 전개 중에 있다.

3.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세계교회 중력의 변화가 크게 생기고 있다.

2012년 현재 기독교의 비중이 서구에서부터 비 서구(62.5%)로 중력이 기울어지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인구의 60%이상이 있는 대륙이다. 기독교인의 수가 가장 많으면서도 미 전도종족이 가장 많은 대륙이기도 하다. 세계선교의 변화도 크게 일어나고 있다. 세계선교 추수군 동원의 대변화를 보자. 비서구 교회의 선교 운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현

재 서구 선교사 수 보다 비서구 교회 선교사가 더 많다. 비서구교회에 약 4,000개 이상의 선교 단체들이 출현하였다. 한국교회선교를 예를 들어 보자. 한국교회는 2012년 현재 170개국에 23,331명 (비공식 8천여 명을 합치면 3만여 2천여 명)으로서 세계선교사 파송대국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 동시에 이 축복은 책임과 함께 주어짐을 알아야 한다.

4. 선교단체들도 점차적으로 국제화와 현장중심의 선교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다국적 선교단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제CCC, YWAM, 국제SIM, OMF, 국제성경번역 선교회(SIL), AIM, 네비게이터 (Navigators), World-Concern, Food-For-Hungry 등 외에도 여러 국제선교단체들이 한국교회와 선교협정을 맺고 한국에 지부를 형성한지 이미 오래되었고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선교사의 10% 정도가 이중회원으로 사역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GMS를 비롯하여 교단 선교부들이 이중회원권을 선호하지 않던지 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사실상 문호는 좁아지고 있다. 이는 선교단체들의 지역전문성이나 사역전문성 개발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한편 교단 선교부들의 협력정신과 폭넓은 아량 또한 요구된다. 이렇게 양자 간에 조율을 하게 되면 서로가 윈윈(Win Win)하게 될 것이다.

한국인교회태생의 선교단체들도 점차적으로 국제화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GMF, SEED International, UBF, CMI, COM, GP, Inter-Corp, GMS 등 과 같은 단체들이 선교사 회원을 국제화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교회선교가 건강하게 발전되고 있다는 좋은 징조이다.

또한 현장중심의 선교행정을 펼치는 체제로 급진화하고 있다. 왜일까? 첫째, 사도행전에서 사도적 선교행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을 때 안디옥교회가 선교행정이나 정책, 전략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선교사 팀이 결정하였다. 물론 후에 선교보고를 하였고 선교사 팀은 언제나 안디옥교회를 파송교회로 여겼다. 둘째,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사도시대는 교통수단이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뒷받침 할 수 없었다. 21세기 급변하는 위기의 시대는 현장의 변화를 본부가

현지선교부에 많은 부분 위임을 해야 한다. 그러나 보고체제(Line of Authority)와 일정한 통제체지는 세워놓아야 한다. 셋째, 현장의 선교사 팀들도 선교행정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선교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본부의 목회자 이사들과 현장의 선교 팀들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되어야 한다.

5. 과거에는 서구일변도의 일방통행 선교였으나 이제는 쌍방통행 선교시대가 되었다.

과거에 서구에서는 선교사하면 서구인으로만 생각했고 혹은 간 아시아인이 선교사로 가면 이상하다는 눈으로 보았다. 이제는 쌍방 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6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면서도 미국 내에 타국에서 파송 받은 선교사수가 적지 않다. 한국태생선교단체인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는 9백여 명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제자양육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 흑인들을 비롯한 제2/3세계 민족들을 위한 다국적 선교사들이 많이 활약하고 있다. 한국에도 1백20만여 명의 이주근로자들을 위한 선교사들이 제2/3세계의 본국에서 파송 받던지 한국교회의 초청으로 와서 사역하고 있다. 이것은 선교 전략상이나 복음 커뮤니케이션 상 바람직한 전략이다. 한국정부의 전망에 의하면 머지않아 한국내 외국인들이 1천만 명이 될 것이라 한다.

6. 과거에 왕성하던 서구교회의 선교운동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비서구교회의 선교운동은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Target2030운동과 MT2030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2015년 까지 20만 자비량선교사 파송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나이지리아는 2015년 까지 5만 선교사파송운동을 발표하였다. 그 외 남미, 인도, 아프리카, 남아공, 중국, 싱가포르 등이 힘차게 선교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뿐인가? 아니다. 앞으로 10년~20년 내에 한국과 한인 디아스포라, 중국과 화교, 인도, 브라질 등이 선교파송운동이 대거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일본 또한 옛 도꾸가와 이에야스 시대의 교회부흥운동을 꿈꾸면서 세계선교 운동에 크게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7. 과거 선교회 중심의 선교에서 이제는 교회선교중심 선교

전략의 변화가 증가하고 있다. 다시 Sodality 선교모델이 활성화 되고 있다.

서구뿐만 아니라 많은 신생과속 국들도 선교단체 중심 선교에서 교회중심 선교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장, 단점이 있다.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선교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이 더 심각하다. 예를 들면 선교의 전문성과 선교정책과 전략성의 결여이다. 21세기 초를 지나면서 다시 Sodality 선교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8. 중복투자를 피하고 저비용 고효율 정책과 전략적 배치 지향선교정책을 펴고 있다.

서구의 후원자와 교회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자국 선교사 후원보다 현지 사역자들의 후원을 선호하는 방식을 택하고 또한 자비량사역의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비 서구교회들도 인력과 재정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저비용 고효율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전방개척 선교지향의 선교사의 전략적 배치, 재배치, 전진배치정책의 시행과 BAM 등 자비량선교의 모델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선교정책변화의 핵심은 미 전도종족 선교운동과 전방개척선교운동이 영향을 끼쳐왔다.

9. 선교전략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다양한 방향변화 모색을 하였다. 예를 들면 복음전파와 제자양육의 접근방법을 모색하는가 하면 대규모 미 전도종족지향 전략과 모든 미 전도종족 전략에로의 방향, 그리고 Unimax 종족전략으로 전환하는 변화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 여호수아 프로젝트가 세계선교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중요 종교권역별 전방개척선교의 연구와 함께 협력선교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선교한국, 시니어선교한국, Rise-Up Korea, 4/14 Window 운동 등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C. 급변하는 세상에서 진행되어 온 선교의 남은 과업은 얼마나 되는가?

아직도 세계인구의 28%가 복음접근이 전무하고 39.5% 인구 중에는 교회가 있긴 하지만 교회의 본질대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너무나 부족하다. 4,300개의 언어 군이 복음화 되지 못했고, 6,721개의 종족과 13,000 Unimax 종족이 아직도 미 전도종족으로 남아있다.

1. 현재 전방개척선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은 과업은 여전하다.

세계인구 72%가 복음화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나 2012년 현재 18억의 인구(28%)가 미 전도종족으로 남아있으며 아직도 세계 인구의 39.5%가 교회가 없는 미 전도종족이다. 1980년도에는 24%의 미 전도종족이, 1900년도에는 58%의 미 전도종족이 남아있었다. 감사한 것은 현재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 특히 중동의 무슬림들이 IT와 기독교 위성미디어를 통해서 대거 주님 앞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는 이사야 (19:23-25) 선지자의 예언 성취의 귀로에 있다고 믿는다. 앞으로 종교권역 별 미완성과업에 대한 연대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2. 국가별 전체 미 전도종족은 15,900여개 종족이며 외국선교사가 필요한 미 전도종족은 6,721개의 미 전도종족이다. 그 중에 기독교인 2% 미만의 미 전도종족과 기독교인 5% 미만의 미 전도종족들도 포함되어 있다.

3. 현재 13,000 unimax 미 전도종족들 가운데 교회가 있기는 하나 교회개척운동도 없고, 전도할 수 있는 토착교회가 없는 실정이다. 무슬림 5500 종족, 힌두교 3200종족, 부족종교 2000종족, 불교 1500종족, 동양종교 300종족, 유대교 200종족, 무종교 100종족, 기타 200종족이 남아 있다.

D. 전방개척선교전략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까지 미전도종족 선교전략변화의 실상을 살펴보면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두 가지가 엇갈린다. 먼저 부정적인 소식부터 알아보자.

1.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 전도종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선교의 책임의식이 빈약하다.

미 전도종족에 대한 인식이나 도전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또 어떤 이는 인식은 하나 선교의 책임 의식이 없고 다수는 미 전도종족 선교를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2. 많은 기독교인의 선교에 대한 물질동참이 대단히 빈약한 편이다.

서구교회의 보고에 의하면 기독교인 중 평균 1.8%만이 선교에 헌금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 기독교인의 헌금 중 5%만 (약150억 불)이 선교에 사용된다. 선교비보다 많은 액수인 약 160억 불의 헌금은 덜 중요한데 사용되고 있다. 선교재정 중에서도 0.1%~1.66%만이 미 전도종족 선교나 전방개척선교에 사용되고 있다는 통계이다.

3. 세계 95% (한국 75%)의 목회자들이 자국민들 사역에만 몰두하고 있다.

서구선교사의 80-90%가 복음화 된 종족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2.5%-4%의 선교사만이 세계인구의 28%인 미 전도종족에서 사역하고 있다. 한국선교사가 2004년도에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비율은 5.8인데 반해 2010년도에는 28%가 되었다는 것은 서교사의 전략적 배치운동 정책이 펼쳐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다음은 전방개척선교에 대한 좋은 소식을 알아보자.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미 전도종족중점사역 선교사가 250-400% 증가했고 비서구교회의 선교가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예를 들면 남미의 Comibam선교회는 14%의 선교사가 미 전도종족선교에 참여하고 있으

며 Singapore는 약 25%, 한국은 28%가 무슬림 사역하고, 57%는 개척사역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게다가 과거 절대 미 전도종족이었던 몽골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몽골의 경우 1991년도에 기독교인이 4명이었고 교회는 없었다. 2006년 현재는 몽골교회는 450여개이며 몽골복음주의 협의회가 결성되어 해외선교사 파송운동을 힘 있게 전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10년간의 선교사파송 증가율이 무려 492%였다.

2. 미 전도종족(UPG/LPG) 중심 선교의 전략적 네트워크와 기도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 Philippines, India, Argentina, Nigeria, Indonesia, Malaysia, Australia, 한국 등, 그리고 동남아와 아프리카대륙과 종교권역별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 MANI, Comibam, CAC, NAP, APP, SE-ANet, Vision 5:9, 그리고 한국의 KWMA/UPMA, TG2030 운동, MT2030운동과 같은 네트워크는 바람직한 전략이다.

3. 미전도종족지역의 복음운동이 구체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인도의 Bhojpuri 종족은 선교 10년 만에 30,000 교회, 중국의 Henan에는 1990년대에 기독교인 1백만에서 2005년 현재는 5백만으로, 아프리카의 Masai종족은 선교 10년 만에 기독교인 0%에서 무려 15%로 증가하였다. 서부 아프리카 Sierra Leone에서는 신교회 개척운동을 통해 2005년 3월 현재 매일 1교회가 개척되고 있으며 Nepal, 캄보디아, 남미 등에서 복음화 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유럽도 복음주의 교회부흥의 재기를 위해 힘을 쓰고 교회개척학교 설립운동 등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역사이다.

4. 전방개척선교를 위해 여러 전문인 사역자들의 전문성을 복음의 도구로 삼는다. 복음전파의 도구와 영역으로서 예술 (Arts), 사업 (Business), 교육 (Education), 법률 (Law), 의료 (Medicine), 과학 (Science), 스포츠 (Sports), IT 및 미디어 (Media), 경제 (Economics), 정부 (Government), 보건관계 (Health care), 종교 (Religion), 기술 (Technology) 등, 다양한 전문성을 살려 사용할 수 있다.

E. 전방개척선교의 정책과 전략적 변화가 있어야 남은 과업완수가 가능하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바른 정책과 전략을 세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현재의 선교전략 형태로는 남은 과업완수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만약 현재의 전략이 계속 된다면, 2025년에도 23-28%의 세계인구가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Albert Einstein의 말대로 "똑같은 광기는 반복될 것이고,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누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현재의 전략이 계속된다면, 2025년에도 23~28%의 세계인구가 미 전도종족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1.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행동하고 하나님 나라 관점과 종의 맘을 가져야 한다.

선교사역에 내 교단, 내 단체를 위한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섬기는 종의 태도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선교할 때 남은 전방개척선교과업이 가능해진다.

2. 우리는 함께 다양한 사역을 보다 더 전략적,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다양한 선교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교만의 에텐동산을 버리고 미 전도종족들을 위한 선교의 유일한 길(THE ONLY WAY)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려 오셨던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

3. 우리는 모든 자원이 추수현장에 있음을 명심하고 토착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워야 한다. 자원은 추수현장에 있다. 마28:18-20은 잃어버린 모든 종족들에게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명하셨다. 우리 교회는 전방개척 복음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의존성은 선교운동에 제일의 장애물이다. 목표는 자립, 자

치, 자전, 자신확화 하는 토착교회이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야 한다. 교회는 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의 제일의 도구이다.

4. 우리는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각 종교권역의 세계관을 연구하고 미 전도종족들을 연구해야한다. 성경은 확실히 선교가 완성될 것이라 했다. 우리의 변화는 성경말씀의 기초위에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주님의 지상명령 순종을 위하여 우리의 무엇이던, 생명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필요하다. 주님은 이러한 일꾼들을 찾으신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사용하소서!

우리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엡3:20-2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얼굴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1:5)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앞과 어린 양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7:9-10)

F. 한국교회의 새 전략의 변화, Target2030운동과 MT2030 운동이다.

한국교회는 2006년에 전략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그것이 바로 Target2030선교운동과 MT2030선교운동이다. Target2030운동은 2030년 까지 10만 선교정병 파송운동이다. MT2030운동은 2030년 까지 1백만의 자비량 사역자 파송운동이다. 한국교회는 전방개척 선교지향의 선교의 남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한국교회 전체가 동의하고 이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미주의 KWMC도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2006년~2030년 까지 25년 동안 5차 5개년 계획을 세워 2012년 현재 2차 5개년 계획의 2주년째를 맞이하였다.

III. 전방개척 선교지향의 성경적 선교전략

우리는 지금 까지 급변하는 시대의 전방개척선교지향의 세계선교현황과 그 운동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선교정책과 선교전략의 변화를 모색해야만 남은 과업의 완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인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전략의 새로운 변화를 소개하였다. 이제 우리는 전방개척지향의 성경적 선교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선교전략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선교전략의 원리를 알아야 현대에 맞는 성경적 선교전략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1.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전략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

1) 하나님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구심적 전략과 원심적 전략을 사용하셨다.

2)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전략: 창12:1-3, 마1:1

3) 하나님의 선교전략의 3가지 주제:

① Reconciliation(롬 5:1)을 위한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 (Incarnation 요1:1-4, 갈4:4) ② Justice and Righteousness (신16:20, 암5:24, 출22:21-23, 사51:4-5) ③ Discippling Process-- Proliferation (창1:28, 마28:18-20, 요 27:18-20, 딤후2:2):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 12제자-> 신자들 그리고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2. 예수님의 가서 제자삼음을 통한 세계복음화 전략: 눅 24:44-49, 마28:18-20, 막16:15-18, 요20:21, 행1:8

1) 예수님의 세계복음화 전략의 핵심내용은 복음과 제자양육(눅24:44-49, 마28:18-20)

2) 예수님의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의 핵심은

Making Disciples 이다. Making Disciples의 전략적 차원은 Going, Baptizing, Teaching.

3)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3단계는? ①예수님께 헌신된 자. ②성도의 교제를 가지는 자. ③성도의 책임을 충성스럽게 이행하는 자, 즉,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요8:31), 서로 사랑하고(요13:35, 요일3:17-18),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며(마28:18-20, 행1:8, 눅 24:24-28), 과실을 맺는 자 (요15:8, 갈5:22-23)이다.

4) W. Maxfield Garrott의 <How Jesus Trained Leaders에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훈련 방법

- ① 집중훈련: 완전히 훈련된 정예군
- ② 인격훈련: 성품훈련을 통한 Christ-likeness
- ③ 접촉훈련: 성품훈련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인격접촉을 통한 인격적 연합훈련
- ④ 실재성의 훈련: 삶의 상황 속에서의 성품훈련

5) P. T. Chandapilla의 <The Master Trainer> 예수님의 열두제자훈련의 8가지 방법

- ① 12제자 선택하심, 눅6:12-13
- ② 12제자를 예수님 자신의 관심의 대상, 눅22:15-16
- ③ 12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심, 마5:1-2
- ④ 12제자에게 점진적으로 자신을 알리심, 마16:13-15
- ⑤ 12제자에게 예수님 자신을 신뢰하고 리더십을 개발하도록 하심, 요1:41-42, 47-49
- ⑥ 2제자를 실제적인 문제들에 참여시킴, 마10:1, 5
- ⑦ 12제자를 징계 (Disciplining) 하심, 미16:17, 23
- ⑧ 12제자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 요13:1

3. 아가페 사랑의 사역인 세계복음화를 위한 동원전략 (Mobilization Strategy)

1) 교회는 선교의 근본이다. 교회개척과 선교개척은 세계복음화의 가장 위대한 전략이다.

2) 평신도 (The Laity)를 동원한다.

3) 타 문화권 교회개척자로서의 (Plan to a Pioneer missionary) 4가지 계획:

- ①New Places: The Unreached Area 선정한다. 교회/교인이 있는가?
- ②New People: The Unreached People인가? 도시빈민, 소

외계층, 불이익 계층?

- ③ New Methods: Cell Group/Discipling/Church 방법?
- ④ New Approaches: 창의적인 접근지역, 미 전도종족지역, 전략적 배치지역인가?

4) 세계선교 협력을 위한 선교전략: 교회 간, 단체 간, 선교사간, 현지인과의 관계, 국제 선교단체 간, 훈련원 간 등

4. 바울 선교사의 선교전략 (Paul's Mission Strategy)

1) 바울의 선교전략에 대한 은혜의 3대전제:

- ① 성령의 계시적인 은혜 (The Revealing Grace of the Holy Spirit)
- ② 성령의 능력주시는 은혜 (The Empowering Grace of the Holy Spirit)
- ③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 (The Guiding Grace of the Holy Spirit)

2) 바울은 선교본부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다. 안디옥교회(행13:1-3, 14:28), 예루살렘교회, 로마교회(롬15)

3) 바울은 4개 미 전도 종족 도시 지역에 집중전략을 폈다. 갈라디아,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등

4) 바울은 회당을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를 삼았다. cf. 오늘들의 한인디아스포라 동원선교

5) 바울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Open Evangelism과 교회를 개척하였다.

6) 바울은 신앙고백과 동시에 세례를 베풀었다. (행8:12, 36-38, 9:18)

7) 바울은 가정교회(셀 원리)를 설립 하고 제자육성/현지 지도자 육성하여 위임하고 다른 임지로 떠났으나 계속 지도하였다. 그것이 바울 서신이다.

8) 바울은 동역 자들과 팀 선교를 하였다. 바나바, 마가요한, 실라, 디모데, 누가 등

9) 바울은 성육신적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 선교방법을 채택했다. (고전9:19-23)

10) 바울은 두란노 서원(신학교)을 세워 사역자를 양성하고 자립, 자전, 자치, 자 신학화 정책을 폈다. (행19:9-10,

20:25-27)

5.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는 셀 교회의 원리였다. 예)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6. 선교전략의 필요성은 선교전략이 선택적이지 아니기 때문이다. (Mission Strategy is not optional)

1)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주권(LORDSHIP)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세계복음화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략을 세우고 충성(Faithful) 해야 한다.(고전4:1-2) 예컨대 달란트 비유에서 두 사람(5달란트, 2달란트)은 좋은 전략과 충성심 이 있었다. (마25:14-30

2) 선교전략은 한 목표 수행을 위해 공적으로 설정한 수단과 방법이다.

3) 최상의 선교전략은 성경적, 효율성, 적절성 (Biblical, Efficiency, Relevancy) 이어야 한다.

IV. 세계선교역사에서의 선교전략 모델들의 동향

지난 2010년 5월 10일-14일 동경에서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2010도쿄 글로벌 선교대회가 개최된 바가 있다. 1910년~2010년 백년 간의 서구 중심의 세계 선교역사를 성찰하였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127년의 역사와 복음을 타문화권에 전하기 시작한지 105년(1907년~2012년)의 한국교회의 세계선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물을 불러서 어떤 선교모델을 사용해 왔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선교역사에서 분석되는 대표적 서구형 선교전략 모델을 과거 2,000년 기독교 선교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선교전략의 모델들을 찾아보자.

첫째, 네스토리우스(Nestorius)의 동방교회 선교모델인 순회이동식 현지 토착화시도의 선교전략 모델이다. (Itinerant & Indigenizing Mission Model) 네스토리안 선교는 페르시아에서 크게 교세를 확장하여 중

양아시아를 거쳐 중국 대륙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경교(景教)라는 이름으로 크게 교세를 확장시켰고 바다 건너 지금의 한반도 동남쪽 신라의 서라벌까지 이르는 소위 실크로드 선교의 대장정을 이룬 역사상 가장 광대한 선교적 모델로 꼽힌다. 네스토리안이 당나라에까지 온 것은 AD 618년 이었고 신라 서라벌까지 온 것은 7세기 말인 AD 670년경이었다. 동방교회선교모델은 정착선교가 아닌 계속적인 순회이동(Itinerant)으로 전방개척지역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었으며, 기독교를 그 나라 민족의 종교로 토착화시키는 선교모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로마 카톨릭교회 제스윗파의 인재양성을 통한 선교전략 모델이다. (Leadership Development Model Through School Education and Theological Training of Jesuits Mission)

익나시우스 라올라의 제스윗 선교모델은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의 종교개혁으로 위기에 처한 로마 가톨릭교회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스윗 선교사들은 한번 떠난 후에는 결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셨을 뿐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제스윗의 선교사역은 유,초,중,고,대학과 신학교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를 통한 모든 민족의 사회와 국가를 가톨릭화한다는 것이었다. 제스윗 선교전략 모델의 대표적 선교지도자는 프랜시스 자비에르(Francis Xavier, 1555)와 마태오 리치(Matteo Ricci, 1606)이다.

셋째, 모라비안 선교전략모델 (Moravian Mission Model of Zinzendorf and Halle University) 이다.

독일의 할레대학(1691년 설립)은 모라비안 선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진젤돌프 백작(1700-1760)이 할레대학교에서 선교의 소명을 받은 후 자신의 영토와 재산을 헌납하여 만든 모라비안 형제단(Moravian Brethren)은 신앙공동체적 선교모델이 되었다.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y)는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의 경건주의운동과 선교운동의 본산지로 덴마크할레선교단(The Danish-Halle Mission)을 통하여1705년, 그러니까 윌리엄 케리가 인도로 떠나기

87년 전, 인도의 동남쪽 마드라스(Madras) 근처 코로만델(Coromandel)해안의 크랜퀴바 (Tranqueber)에 선교사를 정착시켰다.

진젤돌프의 선교모델은 모라비안 형제단 신도들을 모두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준비된 군사로 만들기 위하여 엄격한 신앙훈련을 시켰다. 그는 먼저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자기의 소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신앙과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했다. 진젤돌프는 복음전파를 위하여 가장 먼 곳까지 선교사를 보내 어둠의 세계의 미 전도종족들을 참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을 그의 선교의 목표로 삼았다.

넷째, 기독교 대각성운동과 D. L. 무디와 존 R. 모트의 세계선교 모델이다.(Great Awakening of Global North and Mission Model of D. L. Moody and John R. Mott)

영국의 요한 웨슬레(John Wesley)와 미국의 윌필드(George Whitfield)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19세기의 대각성운동(Great Awakening)은 1886년 7월 D. L. Moody가 이끈 매사추세츠 마운트 허먼(Mount Hermon)에서의 대학생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의 200여명의 대학생들이 세계선교에 헌신약약을 함으로 서구교회 전체에 세계선교의 불길을 일으킨다. 무디의 무릎 앞에 꿇어앉은 200여명의 선교 헌신 대학생들의 맨 앞에는 코넬대학교의 존 R. 모트(1865-1955)가 앉아 있었다. 그는 무디의 전도와 선교열정을 이어받아 20세기 서구교회 선교운동의 기수가 된다. 모트는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 준비를 위해서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세 번이나 세계 일주를 하면서 한국도 세 번이나 방문한 세계선교 연합운동의 창도자(advocate)이다.

존 R. 모트는 1907년 일어난 한국의 대부흥운동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는 그때 망국의 위기에 처한 한국인들의 대부흥운동을 목격하고 역사에 남을 위대한 예언을 하였다. 그것은 "20세기가 다 가기 전에 한국은 동양의 기독교 수도가 될 것이다 (Within this century, Korea will become the capital of Christianity in the Orient)"라는 유명한 예언이었다.

금세기 안에 한국 교회가 세계선교에서 동양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에딘버러 이후 1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앞에 뚜렷한 역사적 현실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구세계 중심의 Global North Mission Models은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고 한국을 위시하여 비서구세계 (Global East and South Mission Models)가 세계선교운동의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다섯째, Faith Mission 모델을 들 수 있다.

William Carey(1761-1834)가 "An Enquiry into the Obligation of Christians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1792)" 논문을 목회자들 앞에서 발표한 4개월이 지나도 교회의 응답이 냉소적이라 결국 "Baptist Missionary Society(BMS)"가 세워지고 그는 1793년 인도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다.

여기서 Carey의 "Means"는 선교의 도구 즉, 선교사 파송단체요 선교전략을 펼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 그이후로 교단/교회가 선교에 무관심하거나 선교순종이 약하거나 특수 선교전략이 필요할 때 마다 주님의 지상명령 순종의 믿음으로 선교단체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London Missionary Society(LMS), China Inland Mission(CIM)= 지금은 OMF), Sudan Interior Mission(SIM=후에 Serving in Mission), Africa Inland Mission(AIM), Wycliffe Bible Translators(WBT), 등이 세워졌다. 이러한 비 교단 선교단체들은 Sodalinity 라 하고 또한 거의 모든 단체들이 Faith Mission 모델이다.

이러한 Faith Mission 단체들은 한국에서도 많이 세워지고 있다. 예를 들면 미주의 KWMC와 KIMNET 산하에 수십 개의 선교단체들이 네트워크하고 있고, 한국의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160개 회원단체들 중 대다수가 "Sodalinity"에 해당된다. 2012년 현재 한인선교사 23,331명 중 58.4%(Sodalinity 단체소속), 41.6%(Modality 단체소속)의 분포를 보면 Sodalinity 선교구조 또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Modality(교단/교회) 선교모델과 Mo-Sodalinity 선교모델이다.

교단 선교구조는 또 두 가지 형태의 모델로 발전하고 있

다. 그 하나가 교단세계선교부(Modality)요 다른 하나는 교단소속이지만 독립적인 체제로 운용되는 Mo-Sodalinity이다. 예를 들면, 예장합동의 Global Mission Society(GMS), 예장 고신의 Koshin Mission Society(KMS), 예장 합신의 Pioneering Mission Society(PMS), 침례교단의 Korean Baptist Mission Society(KBMS)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두 선교구조 즉, Modality와 Sodalinity 선교모델을 사용하시므로 우리는 서로가 협력의 장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두 기구 내의 인물들을 사용하신다. 그 인물들이 Cairo의 시간에 선교운동에 헌신하게 하신다는 사실이다.

일곱째, 선교단체로서의 NGO와 BAM/BWM/BFM 모델들이다

선교단체로서의 NGO와 BAM/BWM/BFM 모델들은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NGO는 아프카니스탄 사태(2007)이후 무슬림지역에서는 더 이상 전략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비즈니스 선교모델이 창의적 접근지역의 훌륭한 선교전략 모델로 선호되고 있다. 이 모델은 모든 면에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구 선교역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일곱 가지 선교모델을 생각해 보았다. 서구선교모델은 쇠퇴일로에 있다. 1966년 서구 복음주의선교세력의 헛튼선언과 베를린 세계전도대회에 이어 1974년 로잔세계복음화국제대회가 세계교회협의회(WCC)의 복음화(evangelization) 대신 인간화 (humanization)와 세속화(secularization) 운동, 다른 성경관으로 인해 서구 기독교 선교세력의 부흥을 재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선교세력의 축은 Global South 즉, 2/3 세계교회로 기울어지고 있다.

여덟째, 한국형 선교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형 선교모델은 올바른 성경관에 기초한 성경공부, 사자 선교정책(자립, 자전, 자치, 자신학화), 리더십훈련과 위임과 이양의 과정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1910년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개최된 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한 한국 주재 미국선교사 사무

엘 마펫 (Rev. Samuel A. Moffett)은 한국인들의 특별한 선교모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어떤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 시키는 일은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 전도자들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오늘날 다른 어떤 나라에서보다도 오직 한국에서만 그러한 교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년 전 내가 처음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 도시나 주변 지역에 그리스도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평양에만 9개의 큰 교회가 있고 평양 15마일 반경 안에 50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현재 한국 전지역에 2,500개 이상의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만 살고 있는 마을도 수백 개에 달한다."

"이러한 교회성장의 비결은 무엇보다 첫째로 교회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까닭이다." 그 둘째는 교회가 자립, 자급하는 교회라는 사실이다."

"한국 교회는 그 어느 교회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선교사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이 없다. 자기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교회 설립은 그 어떤 교회도 자기 힘으로 자신들의 헌금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있다."

"우리 선교부 관할지역에 세워진 840개 교회 중에 교회 건축을 위해 선교사의 돈을 요구한 교회는 단 한 곳도 없다. 다만, 몇 큰 교회건축에 선교회가 자진해서 얼마를 지원했으나 그 금액은 전체 건축비의 3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돈이었다. 선교회 산하의 1,052 한국 교회 일꾼 가운데 94%는 한국 교회가 그 생활비를 전담하고 있고 선교부 직할에 있는 6% 전도의 직원들만이 선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세 번째로 선교사는 교회 지도자의 훈련과 교육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무엘 마펫은 에딘버러대회 토론시간에 "선교는 외국 돈을 쏟아 부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만일 외국 선교비의 원조로 그 나라가 복음화가 좀 더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다. 수백만 불씩이라도 쏟아 부어라. 그러나 한국에서 일하는 우리는 확실히 외국 돈이 한국 복음화 달

성을 위해 한국에 돈을 마구 쏟아부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초기 한국 주재 선교사 사무엘 마펫의 간증처럼 한국 교회의 선교모델은 결코 외국 돈을 쏟아 붓는 선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조동진 박사는 이렇게 제안한다. 우리가 개발해야 될 <한국형 선교모델>은 무엇인가? 제이차대전 이후 혼탁해진 물량주의 서구선교에 오염된 오늘의 형태는 한국 선교의 초기 원형이 아니다. 우리는 현대의 원형을 상실한 회미해지고 빛이 바래버린 한국적 선교의 원형패턴을 재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발'이란 무엇인가? 오래 전부터 내재해 있는 원래의 모습을 분명하게 다시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한국 선교의 미래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길이다.

V. Proliferation의 효과가 나타나는 셀 교회 전략을 타 문화권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선교전략의 4대전제는 바른 목표(The Right Goals and Objectives), 바른 장소와 적절한 시간선택(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s), 바른 방법의 사용(The Right Methods),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사람, 준비된 사람/추수꾼이 보내져야 한다. (The Right People) 선교사 자신의 품성교양, 현지 언어, 문화와 세계관, 인간관계, 사역기술연마 등은 필수적으로 따른다.

1. 셀 교회전략 선교사는 현지문화와 언어, 자신학화의 방법을 숙지해야한다.

1) 모든 문화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다. 고로 선교사는 현지 언어, 사회, 문화/세계관,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

2) 복음과 문화의 관계: 복음은 계시적, 초월적, 신적이다. 문화는 세상적, 부패적, 인간적이다.

① 선교사의 책임은 부패한 문화를 사용하여 복음전파/셀교회를 해야 한다.

② 선교사의 문화에 대한 태도는 Accept-Respect (존경적 수용) 이다. 이때 성경적 상황화가 가능하다.

- ③ 성경적/비판적 상황화는 성경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 ④ 셀 교회적용에 성경적 상황화신학이 필요하다.
- 3) 현지문화를 알고 Cell Church를 적용하면 건강한 토착 교회의 셀 교회가 어떤 문화권에 서라도 가능하다.
- 4) 셀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과 목적을 체험하며, 전도, 정착, 양육, 훈련, 번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세계복음화 비전을 이루는 예수생명의 가족 모임이다. (김성곤, 2003:71-76)

2. 예수생명 가족은 아가페 사랑으로 뭉쳐 있기에 모든 것을 함께한다.

- 1) 아가페 사랑의 3대 요소는 Understanding, Acceptance as it is, Sacrifice이다.
- 2) 서로(함께) 사랑한다. 함께 모인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 서로(함께)를 책임진다. 함께 기쁨, 희로애락 모든 것을 나눈다. cf. 모이지 않고 간섭이나 교제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암세포와 같다.

3. 선교지에서 셀 교회를 적용하여 건강한 토착교회를 Proliferation Processes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1) 현장리서치를 통해서 그 문화권의 언어, 역사, 전통, 관습, 종교, 세계관을 파악한다.
- 2) 셀 교회/그룹의 5대 법칙을 사용하여 사역하고 익힌다.
 - ① 다양한 전도활동이 이뤄진다.
 - ② 정착을 위한 사역이 이뤄진다.
 - ③ 양육과정이 있다.
 - ④ 다양한 훈련이 이어진다.
 - ⑤ 번식/재생산이 일어난다.
 - ⑥ 교제와 돌봄이 있다.
- 3) 자 신학화(Self-Theologizing)하는 방법을 현지지도자들에게 전수하여 적용한다.
- 4) 국내외 다른 신자들의 공동체와 교제를 가진다.
- 5) 계속하여 셀 교회개척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셀 교회의 열매는 새 가족이며, 또 다른 하나의 새 가족이 모이는 셀

을 만들어 낸다. (Proliferation 원리)

결론적으로 셀 교회 원리와 적용방법을 익히고, 현지상황을 잘 이해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잘 적용할 수 있다. 셀 교회의 성경적인 배경을 이해하자. 한국에서의 셀 교회 역사적인 배경을 연구하자. 셀 교회와 네비우스 선교방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자. 셀 교회를 나의 선교지에 적용할 때 가장 장애 요소는 무엇인가? 셀 교회원리 적용에 보완점은 무엇일까? 셀 교회운동이 요란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셀 교회 운동이 크게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셀 교회운동의 동기와 개념이 잘못되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셀 교회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역자의 셀 교회에 대한 가치관정립의 미숙과 연구 소홀, 또 하나의 교회성장프로그램을 받아들일듯이 세미나 등을 통해서 어떤 셀 교회의 모델을 받아들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셀 교회의 근본 원리와 이해, 셀 교회 방법론의 숙지, 그리고 셀 교회 뿌리를 내려야할 토양의 조사 분석, 그리고 셀 교회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 하나의 교회성장 프로그램으로 여겨 결과만을 바라보며 선점을 하고자하는 왜곡된 열심이 실패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VI. 전방개척 선교 지향 정책의 한국교회 Target 2030 선교운동

- 1. 한국교회는 전방개척 선교 지향적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1) 성장과 성숙이 동시에 추구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 2) 저비용 고효율 선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3) 현장에 걸맞는 한국적인 적합한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 4) 책무성이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① 선교신용평가 시스템 활용하여 선교신용평가기구와 기준표를 정하였다.
 - ② 선교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 ③ 선교 단체 없는 선교사들을 공식 선교 기구에 흡수 하도록 돕는다.
 - 5) 협력 시스템의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① 교회, 선교단체, 교단 선교부, 현지 교회간의 역할 분담
 - ② 중복투자 지양, 선교자원의 분산과 배치, 역할분담
 - ③ 세계교회 선교에 동참하는 한국 교회의 역할을 찾는다.
- 6) 선교지 중심(Field oriented)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 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교지 특화
 - ② 본부는 필드 지원의 전문성을 살림
 - ③ 선교지와 본부가 구분, 필드 자체 전략 개발, 자신학 개발, 상황화 된 전략 개발
- 7) 영적 전투부대와 지원부대(MK, 행정, 케어, 인프라구축)가 구분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 한국세계선교의 Target2030운동의 5차 5개년 개발 계획의 개요이다.

한국 선교 25년(2006년~2030년)을 5년씩 구분하여 5차 5개년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여 왔다.

- 1) 1차 5개년 개발계획(2006-2010) - 전방개척주력기. 한국 선교 폭발의 준비시기 : 전방개척선교와 한국교회의 선교 역량을 깨우는데 주력한다. 또한 다양한 선교의 영역을 개발하며 선교 단체의 전문화를 지향한다.
- 2) 2차 5개년 개발계획(2010-2015) - 선교도약기 : 한국 선교의 고도성장 시기로 선교 동원을 가속화하며 선교사 훈련 및 파송 능력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또한 선교 시스템의 확립과 인프라를 구축한다.
- 3) 3차 5개년 개발계획(2015-2020) - 한국교회선교 전력투구기 : 한국교회 선교 전 역량이 시너지화 되는 시기. 파송을 가속화하며 한국교회 전선교 역량을 결집한다.
- 4) 4차 5개년 개발계획(2021-2025) - 고도 성장기 : 한국교회 성숙과 국제리더십에서 코디역할을 하는 시기
- 5) 5차 5개년 개발계획(2026-2310) - 성숙 및 제3시대 준비기 : 한국선교의 국제 리더십이 열방국가 선교와 공유하며 2030년 이후의 한국 선교를 구상하는 시기이다.

한국 선교 제2시대(2006년 1월-2030년 12월) 5차 5개년 개

발을 위한 계획

3. Target2030선교운동의 선교사 수요 예측의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선교사 수요 산출 방식
 선교사 수요 = { (2030년 인구예측 - 2030년 기독교인(가중치 적용)) * (100-내국인 전도 비율) } / 100 / (G1~F3에 해당되는 값)
 - ① 2030년 인구예측: UN 인구예측(<http://esa.un.org/unpp>)에서 2006년 2월 현재 자료를 참조하였다. 그 중에서도 Medium variant를 참조하였다. 대만의 인구는 UN 통계에 나오지 않아 대만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cepd.gov.tw>)를 참조하였다.
 - ② 2030년 기독교인(가중치 적용): World Christian Trends에서 예측한 2025년 기독교인 비율을 근거로 하여 계산하였다. 2025년 기독교인 비율을 예측한 식을 구할 수 없어, 5년 동안 기독교인 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전제하에 2030년 기독교인 비율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가중치에 대해서는 아래 용어설명을 참조할 것). (2030년 인구 * 2025년 기독교인비율) * 가중치
 * 주: 예측자료에는 가톨릭과 정교회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할 값들이 없다. 따라서 World Christian Trends(2000년)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기독교인비율 중 각 종파의 비율을 산정하여 2030년 기독교인 인구에 적용하였다.
 - ③ 내국인 전도 비율: World Christian Trends 159번 항목 (evangelized by population from Christians), 복음을 들은 사람 중 내국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 비율이다. 이 자료는 내국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 대상자와 선교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 자료에도 가중치(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을 50%만 인정)를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 ④ 선교사 1인당 선교 대상자 수: 선교사 수를 산정함에 있어 전방개척지수에 따른 선교지 구분 후 이에 필요한 선교사 수 산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 G2: 선교대상인구 15,000명당 1명의 선교사가 필요함.
 - G1: 선교대상인구 13,000명당 1명의 선교사가 필요함.
 - F1: 선교대상인구 12,000명당 1명의 선교사가 필요함.
 - F2: 선교대상인구 11,000명당 1명의 선교사가 필요함.
 - F3: 선교대상인구 10,000명당 1명의 선교사가 필요함.

2) 개척선교지수별 선교사 수요 및 비율이다.

2030년까지 필요한 선교사 수요 예측 결과 총 필요한 선교사 수가 460,902명이 도출되었다. 이를 개척 지수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G2 - 19,124명 / 4.1%

G1 - 21,811명 / 4.7%

F1 - 102,840명 / 22.3%

F2 - 45,694명 / 9.9%

F3 - 271,433명 / 58.9%

2005년

* 인구별 비율: 현재 전 세계 인구 6,654,541,000명

G2 - 999,390,000명 / 15.0%

G1 - 1,251,463,000명 / 18.8%

F1 - 1,432,703,000명 / 21.5%

F2 - 669,500,000명 / 10.1%

F3 - 2,301,485,000명 / 34.6%

3) 한국교회와 한인디아스포라교회의 Target2030운동은 10만 선교사 파송 운동이다. 2030년까지 필요한 선교사 수요 예측 결과 약460,902명이 도출되었다. 이중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에서 16만 명, 한국을 제외한 2/3세계에서 20만 명을 분담한다. 현재 국외에서 활동하는 해외 선교사를 기준으로 전 세계 개신교 선교사의 약15%가 한국 선교사이다. 이런 맥락으로 2030년 선교사 수요 예측 수 총 50여만명의 선교사 중 1/5에 해당되는 10만 정도의 선교사 인원을 한국(미주 등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포함)에서 분담하여 전개하는 선교운동이다.

4. 한국교회선교단체들의 행정상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Target2030운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위하여 선교이론/연구, 훈련 파송, 선교행정, 전략, 동원의 5대 분야와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선교 지원 분야를 포함한 6대 핵심 분야로 구분하였고 또한 7개 영역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정하였다. 이 7개 영역의 모든 틀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주관으로 2년 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정하였다.

4-1. 선교정책과 전략

선교단체는 그 단체만이 갖고 있는 철학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그 단체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질 때, 구심점이 형성되고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사역이 성숙되고 조직도 발전하게 된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점검한다.

1) 선교신학(예수의 유일성/ 복음의 건전성/ 상황화): 선교단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기관들이다. 그래서 바른 신학은 매우 중요하다. 세상단체와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단체에 건전한 '선교 신학'이 존재하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기초로 흐르고 있는 선교신학이 어떤 노선인지도 점검한다.

2) 선교단체 운영이념(헌장)의 존재 여부: 건전한 신학 노선을 갖고 있다면 바른 신학 위에 그 단체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 세워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된 이념이 있는가를 본다. 그러한 이념이 명문화 되어 있어야 한다.

3) 설립목적 및 목표의 명확성: 목적이나 목표는 반드시 명문화 되어 있어야 한다.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야지 단체의 성격이 명확해지고, 그 목적이나 목표에 맞추어 사역의 방향을 일관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4) 이념에 대한 실천 정도: 성문화된 이념과 목적, 목표를 갖고 있다 해도, 실제로 그렇게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5) 비전과 리더십: 설정된 비전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리더십 자세는 주요한 평가 요소이다. 리더십이 비전에 맞추어 단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사적인 목표로 단체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6) 조직구성원 개인의 소명 의식 소유 정도: 단체를 실제로 이끌어 가는 원동력은 조직을 이루고 있는 실무 개개인들이다. 이들의 헌신도나 조직에 대한 충성도는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실무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개인의 소명 의식이 기초를 하고 있다. 기독교 단체에서 일한다고 해서 모두 소명 의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나라의 사역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확신이 강한 구성원들이 많은 그룹일수록 견고한 결속력을 갖게 한다.

7) 조직 구성원의 단체 비전에 대한 숙지도: 단체가 가고자

하는 이념이나 철학,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는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 리더만이 비전을 이해하고 있거나, 조직 구성원의 일부만이 그 비전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단체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결정권이 없는 구성원이라 해도 비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외부인이 조직 구성원의 어느 누구에게 물어도 단체의 비전, 목적 등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8) 공유되고 있는 단체 가치관 소유 여부: 단체의 가치관이 구성원 모두가 나누고 있어야 한다. 리더나, 일부 중간 리더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9) 비전이 업무 수행에 주는 영향력 정도: 좋은 비전은 건전한 자긍심을 갖게 한다. 또한 건전한 자긍심을 일에 대한 성취력과 활력을 가져다 준다. 단체가 갖고 있는 비전에 대한 자부심이 조직 구성원 안에 뿌리내려져 있고, 그러한 분위기가 그 단체에 흐르고 있다면 그 단체는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10) 정보 자원의 확보 및 공유 전략

4-2. 선교행정에서의 인사·사무

1) 조직과 운영의 합리성: 행정은 합리성을 요구한다. 기독교 단체의 맹점은 '사랑과 은혜와 합리적 사고'에 대한 선이 그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직은 조직이다. 그러므로 운영에 대한 일정한 룰(규칙)이 있어야 한다. 그 단체가 일정한 운영 규정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 인적 자원 전략적 배치/사역의 연속성: 소명과 헌신으로 사역에 임하는 것이 대부분 기독교 단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다. 구성원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한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들어오는데, 이들의 은사가 충분히 발휘되는 자리에 배치되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오래 사역하지 못한다. 사역자들의 평균 사역 연수가 적어도 3년 이상의 연속성을 갖고 있는지 본다. 사역자들이 자주 바뀌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단체가 스스로 점검한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를 살핀다.

3) 선발, 허입 방법의 적법성: 사역자들의 선발이 적절한

인터뷰와 기준에 의한 것인지, 단순한 인맥을 통한 선정인지 본다. 리더십의 한 개인의 추천이나 top down식의 인사 방법은 조직을 건전하게 하지 못한다.

4) 허입된 인적자원 배치의 적절성(은사, 업무량): 은사별로 배치되어 사역하고 있는지는, 그 부서에 배치된 구성원의 만족도에 따른다. 만족하지 않는 구성원이 많이 있다면, 그 단체는 건전하지 않게 된다. 또한 업무량이 한두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바쁜 사람만 바쁘고, 한가한 사람은 시간만 버리고 있는지 봐야한다. 또한, 단체의 규모나 예산에 비해 너무 많은 인원이 있어서, 사장되는 인적자원이 있는지가 평가대상이 된다.

5) 선교단체 지도자, 본부사역자 선임 방법: 선교단체의 지도자선발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또한 지도자를 뽑는 자격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본다. 본부 사역자도 이론만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현장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사역하고 있는지 본다. 이것은 선교현장을 이해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6) 개인발전 지원(교육, 훈련, 영성관리, 리더십 개발)의 만족도 및 효율성: 구성원들이 정체되지 않도록, 업무에 맞는 훈련이나 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잘하고 있는가? 교육을 위한 재정적, 시간적 지원이 규정화 되어 있는지, 발전을 위한 구성원끼리의 내부 세미나나 MT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지 평가한다.

7) 업무 능력의 전문성(숙련도, 학위, 경력, 현지 경험, 자격증, 언어 등): 조직 구성원들이 은사 이외에도 '자리나' 업무내용'에 맞는 경험과 경력을 갖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배치될 때,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8) 인사 배치 관계 Communication: 인사 정책이 리더의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평가한다.

9) 업무태도(책임감, 협조성)

10) 선교사 사역 관리 정도

선교행정에서의 일반 사무

효율적인 사무 시스템은 조직 내에서 비효율적으로 소모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조직구성원들에게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막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무기기의 비치와 점검하고, 다중 리더십으로 인한 불필요한 결재 체제가 되어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본부 사역자들의 업무가 선교사들과 어떻게 돕는 체제로 되어 있는지, 한 명의 본부 사역자가 몇 명의 선교사를 돕고 있는지 체크하여 본다.

이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평가한다.

- 1)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한 전략
- 2) 업무에 대한 평가 전략 수립과 반영 정도
- 3) 보고 체계의 효율성
- 4) 선교사간의 의사 소통이 원활한 정도
- 5) 선교사 대비 행정 사역자수(행정 사역자 1인당 선교사)
- 6) 행정 전산 능력 정도

4-3. 선교단체의 재정시스템

재정 사용은 한 단체의 건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재정의 투명성은 후원자와 후원교회에게 신뢰를 주는 요소가 되는 만큼, 회계시스템과 재정 관리 담당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재정 부분에 대한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다.

- 1) 재정 자원에 대한 전략과 융통성 : 본부 운영비 확보, 선교사들의 은퇴 후 재정 계획, 비상시를 위한 적립, 선교사들의 보험, 특별한 사항을 위한 재정 적립에 대한 계획과 전략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명문화 되어 있는지 체크한다. 후원 이사회 체제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점검한다.
- 2) 재정 관리 시스템의 합리성 : 재정 관리 시스템이 일반 회계원칙에도 맞아야 한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이라 해도 그것이 타당하고, 외부의 재정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3) 재정 담당자의 전문성 : 재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교단체의 경우 전문성 없는 자매들이 담당하고 있다. 재정 담당자는 최소한 그 분야에 대해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회계를 전공한 사람이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 담당자를 위한 정기적인 실무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4) 후원교회, 후원자 관리 정도 : 후원교회와 후원자 관리는 그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영수증을 보내고 있는지 확인한다. 관리를 위해 후원 교회나 후원자들과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는지, 또한 관리 차원에서 후원자들에게 정기적인 소식지나 감사의 표현(책자를 보낸다거나 등)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재정 계획 수립의 여부(모금, 송금, 운영, 적립 계획 등)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면 단체는 운영이 어렵게 된다. 재정 상태는 양호한가? 장기적인 재정 확립 계획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가? 선교사들을 위한 적절한 적립금 시스템이 수립되어(예를 들어 자녀교육비, 여행적립금, 본국사역 비용, 보험 등) 있으며, 그 시스템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선교사 후원금의 몇 %가 본부 재정과 적립금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시행 체제가 성문화 되어 있는지, 그러한 운영에 대한 이해가 단체 안에, 선교사들에게까지 잘 인지되어 있는지 본다.

6) 재정 사용의 투명성 : 모금되는 후원금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또 시의 적절하게 선교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숨겨져 있는 재정은 없는지, 단체의 재정 흐름에 대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누가 감사를 해도 걸림이 없어야 한다. 정기적인 감사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누가 감사를 하는지도 살펴본다. 감사단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또 감사단의 구성원이 내부인인지, 외부인인지, 그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점검한다.

7) 재정 관리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활용 정도 : 효과적인 재정 관리 프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 수기로 표기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선교단체에 맞는 재정 프로그램을 갖고 재정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8) 복식 부기 사용 여부 : 복식 부기는 단식 부기보다는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복식 시스템으로 재정을 정리하고 있는가? 담당자가 복식 부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9) 물적 자원 확충에 대한 전략 : 새로운 후원자 발굴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본다. 매월 새롭게 후원하는 신규 후원자들에 대한 파악과 관리하는 정도, 또한 후원이 중단된 후원교회나 후원자들에 대한 후속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10) 송금의 적시성과 융통성 정도 : 선교사들에게 송금하는 방법, 송금일, 은행 간의 관계가 효과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야 한다. 송금 후에는 정기적으로 후원내역서가 빠르게 보내지고 있는지도 살핀다.

11) 인건비 비중의 적절성 정도 : 본부 사역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받고 있는지, 또는 너무 적은 금액인지 살펴보고 본부 사역자들의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본부 사역자들의 퇴직금 확보를 위한 제도와, 그것이 잘 적립되고 있는지를 본다.

12) 선교사 복리 후생비 확보 및 활용 정도 : 선교사 각 개인의 후원비에서 몇 %가 복리 후생비로 지출되고 있는가? 그 비율은 적정한가? 후생비 사용에 대한 규칙이 세워져 있는지? 후생비를 지출함에 있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본다.

13) 송금 계좌 단일 창구 확보 : 일반 은행의 가상 계좌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통장이 너무 많아서, 필요 이상의 재정 업무가 쌓여 있는지 본다.

14) 환율 변동 대처 능력

4-4. 선교사 케어와 관리

선교사들의 중도 탈락 이유 가운데는 선교사 케어나 관리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선교사 케어는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선교 영역 중의 하나이다. 귀한 인재들이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관리와 케어를 받는다면,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이루어 갈 것이다. 따라서 케어나 관리 부분이 잘 되어 있다면 양질의 선교사들을 육성해 갈 수 있으며, 또한 선교사들도 안정된 가운데, 장기적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이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평가해 본다.

1) 선교사 케어 정책 유무 : 장기적인 정책이나 규칙들이 세워져 있으며,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가?

2) 선교사 케어를 위한 재정 및 담당자 확보 정도 : 선교사 케어를 담당하는 부서가 구성되어 있으며, 그 부분을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는가? 그 전담자는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경력의 사람인가? 또한 선교사 케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재정을 지출할 수 있도록 케어관리 재정 비축이 되어 있는가? 전담자에게 정기적인 교육이나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3) 선교사 케어에 대한 조사 및 통계 유무 : 선교사 케어 현황이나, 선교사 케어와 관련된 자료 수집과 보관이 잘 되어 있는가?

4) 선교사 케어 지침 유무 : 성문화된 케어 지침이 있는지? 또한 담당자와 선교사들이 이러한 부분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케어 부분에 대해 선교사들의 요구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가? 지침대로 활용된 건들이 기록으로 잘 남아 있는가? 선교사 케어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있는가?

5) 케어 인프라 구축 유무(인적, 시설, 건물 및 기타) : 그 단체의 선교사 케어 부분에 후원교회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가? 선교사 케어를 위한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가? 또 어느 정도의 주기로 위원회가 모이는지? 재정 이외에 케어에 필요한 안식관이나 시설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한 확보를 위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는가?

6) 선교사와 가정을 위한 보험, 연금 적립 현황 : 선교사가정을 위해 마련한 보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험 가입에 대한 강제성 여부, 그리고 선교사들의 호응도를 점검한다. 또한 선교사 퇴직금 형태의 적립금이 모든 선교사들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선교사 연금을 위한 별도의 재정 비축을 위해 파송 교회들과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가?

7) 케어 정책에 선교사의 호응 및 참여 정도 : 정책에 대한 이해가 선교사들에게나 지역교회에게 잘 숙지되어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호응하고 있는가?

8) 케어 정책의 현실성 및 실용성 정도 : 수립된 케어 정책이 몇 % 정도 적용되고 있는가? 현실과는 다른 이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있어서, 선교사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활용성 여부를 점검한다.

9) 선교사 자녀 케어 : 성인 선교사뿐만 아니라, 자녀들 케어에 대한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자녀들과 정기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는지?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비에 대한 정

책과 지원을 위해 지역교회와 연계된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지? 선교사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a. 선교사 자녀 현황 파악 정도 : 연령별로 정리된 현황 파악 자료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가?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있는가?
 b. 선교사 자녀 교육에 대한 선교사 스스로의 만족도 : 자녀들의 교육 지침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서, 선교사들이 그에 순응하고 있는지? 그러한 정책에 대해 선교사들이 만족하고 있는가? 선교사들 개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자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10) 선교사 현지 케어 : 현장과 본부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따라서 본부의 선교사 케어는 미처 현장 선교사들에게 미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 원활한 현지 케어를 위한 정책이나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선교사는 현장에서 힘든 전투를 하게 된다. 선교사 현지 케어에 대한 단체의 의지를 점검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평가한다.
 - 선교사 목회적 관리 정도
 - 선교사 가정 관리 정도
 - 현지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케어 정책 구비 정도
 - 선교사 위기 시의 대처 방안 수준
 - 현지 거주문제 해결 정도(비자, 주택, 자녀 교육 기관 등)

11) 위기 관리에 대한 대책 확보 능력 : 선교 현장에서 정치적 위기나 자연 재해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현장 선교사들은 대처하기가 어렵다. 위기상황 대처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세워져 있는지? 또한 그러한 지침이 선교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숙지되고 있는지? 위기 상황 시를 대비한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해 본다. 또한 신입 선교사들 오리엔테이션에 위기 관리에 대한 교육도 선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12) 선교사 본국사역(안식년) 케어 : 안식년(본국사역)은 선교사들에게 재충전의 시기이다. 6개월에서 1년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안식년을 효과적으로 보내도록 안식년 기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본국 사역과 관련된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점검한다.
 - 안식년 선교사의 국내 정착 정책 수립 여부
 - 안식관 확보 정도
 - 선교사 계속 교육 정책 수립 여부
 - 안식년 활동에 관한 선교사의 요구 반영 정도
 - 입출국 절차 및 행정 절차에 따른 안내 정도

4-5. 선교 R & D (정보, 연구, 개발)

이 분야는 각 단체의 미래 발전적 성향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면, 전략적인 정보 수집에 대한 안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교 사역의 전문성을 제고 시키는 것도 그 단체의 정보력이다. 미래적 R&D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는지, 전문 인력이 있는지 점검한다. 이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평가한다.

- 1) 정기적인 정보 수집 정도(인터넷, 영상매체, 문헌, 전문가 등) : 단체가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은 어느 정도인가? 또 이 분야에 전담자가 있는가?
- 2) 정보 수집 인력 확보 및 활용 정도 : 정보수집 전담자가 없다면, 외부인력(현장 통신원역할을 하는 선교사 활용정도)의 활용은 어느 정도인지, 또 현장 선교사들과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 정기적인 정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3) 정보의 유용성과 외부 기여도 :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외부 선교계에 유용한 정보로서 타 단체나 지역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 그 기여도를 본다.
- 4) 정보의 타단체와의 차별화 정도(전문성) :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인가?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인가? 정보는 계속 갱신되고 있는가?
- 5) 정보 처리 능력(요약, 편집, 정리, 배열) : 정보 수집력과 병행해서 수집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가공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 6) 정보의 문서화, 데이터 베이스화 정도 :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문서화나 데이터베이스화 정도는?
- 7) 정보제공 채널의 다양성(홈페이지, 전자 우편 등) : 보유한 정보들을 후원교회나 후원자, 또는 잠재적인 후원자들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그 빈도수는 어느 정도인가? 정보를 받는 사람으로부터의 feed back을 받고 있는가?
- 8) 데이터 백업 수행 정도
- 9) 정보 제공자(선교사, 헌신자, 학교, 연구단체 등)의 네트워크 정도 : 단체가 보유한 정보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해, 정보 수집 채널에 대한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로 구비되어 있는가? 정보원(Reference source)이 되는 사람, 또는 단체

와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정보제공자들에게 적절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가?

- 10) 전략 수집시 활용정도 : 수집, 가공된 정보가 단체의 미래 지향적 전략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정보가 사장되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한다.
- 11) 세미나, 대회 개최 실적 : 동원 영역으로
- 12) 출판물(영상물포함) 발행 실적 : 동원 영역으로
- 13) 연구 지원 및 투자 정도 : R&D 자금이 적립되어 있는가? 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가? 마련된 자금은 연구에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 14) 연구의 기여도 : 단체의 연구 실적이 내부 선교사들이나 후원 교회, 외부적으로는 타 단체나 다른 선교사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가? 연구 실적이 있는가?
- 15) 선교지역/사역 전문성 확보 및 개발 정도 : 차별화된 정보 확보에 대한 투자, 그리고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한 세웠다면 그 실천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 16) 연구, 개발 전담 자원 확보 및 운용 : R&D를 위한 인적, 재정 확보와 개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수립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전담자에 대한 교육이 계획되어 있는가?
- 17) 정보 관리 및 가공 능력 : R&D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관리하고 가공하는 인원과 그 인원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전문성을 키워가기 위한 투자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18) 사역의 집중화 전략
- 19) 지역 선정에 대한 전략 : 수집된 정보에 근거하여, 정보를 가공하고 그 분석에 의해 사역과 지역을 선정하는가? 그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러한 정보에 의해 사역의 전문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또한 정보에 근거해서 개척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는지와 그 활용 여부를 살핀다.
- 20) 업무 수행 시 활용 정도 : 인사/행정 사무 부분으로
- 21) 홈페이지 관리 및 활용 : 인사 행정 사무 부분으로
- 22) 해당 사역자의 컴퓨터 활용 능력 : 인사 행정 사무 부분으로 아니면 17번으로

23)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구축 및 활용 : 인사 행정 사무 부분으로

4-6. 선교동원/ 혼련

4-6-1 동원

동원분야는 단체에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통로가 된다. '동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잠재력 있는 인적 자원이 많이 보유하게 된다. 효과적인 동원을 위한 계획, 홍보 활동, 선교대회나 세미나, 기도회 등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본다. 이 영역을 전담하는 사역자가 있는가?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점검한다.

- 1) 인력 및 재정 확보 정도 / 6) 동원을 위한 인력 및 재정 확보 정도 : 전문 선교동원가가 있는가? 또한 '동원가'를 육성할 계획과 재정이 확보되어 있는가? 동원을 통해 미래의 자원들을 확보하는데, 재정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가? 또 그러한 재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지 점검한다.
- 2) 동원대상자에 따른 정책 수립 정도 / 4) 선교 관심자 동원 정책 수립 정도 *합쳐도? : 동원 대상자는 다양한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잠재지원자, 기도후원자, 단순 관심자, 적극 관심자 등, 이러한 단계에 맞춘 정책을 갖고 있는가?
- 3) 지역 교회 동향 파악 및 동원 정책 수립 정도 : 지역교회에 대해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지역교회를 선교에 동참시키기 위한 계획이나 정책이 있는가? 지역교회를 위해 세미나, 선교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가?
- 5) 동원홍보자료 구비 정도(홈페이지, 책자, 비디오 등) : 동원자료로 활용되는 것들이 리스트로 잘 정리되어 있는가? 그러한 동원자료들이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있는가? 얼마나 다양한 동원자료를 갖고 있는가? 홍보자료가 자주 활용되고 있는가?
- 7) 초기 관심자의 헌신 유지 정도 : 동원의 결과는 초기 관심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하는가에 있다. 초기 관심자를 위한 단계별 양육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이 단체를 통해 초기 관심자가 장기 헌신하게 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또한 노후자가 체계적으로 세워져 있는지, 초기 관심자를 위한 지속적인 follow up이 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4-6-2 훈련

단체가 자체적으로 훈련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은 단체 정책에 동의하는 양질의 선교사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통로가 된다. 자체적인 훈련 전담자가 있다면, 그 단체에 적합한 후보자들을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그러한 것이 없다면, 외부 단체와 네트워크해서 어떻게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있는지, 외부 훈련단체와의 연계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 훈련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평가한다.

- 1) 훈련 프로그램 및 목표, 커리큘럼, 훈련자, 조직 강사, 시설, 재정 확보 정도
- 2) 국내외 훈련의 프로그램 여부 및 내용
- 3) 관심자 대상 훈련 프로그램 및 활성화 정도
- 4) 본부 스텝 대상 훈련 프로그램 및 활성화 정도
- 5) 선교사 대상 훈련 프로그램 및 활성화 정도
- 6) 타 단체와의 프로그램 내용의 차별화 정도
- 7) 타 기관과 위탁 또는 연합훈련 프로그램 유무

4-7. 선교협력, 네트워크

남은 과업인 미전도종족 선교의 완성을 위해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분위기는 21세기 선교 흐름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선교 현장의 급변한 변화는 예상하지 못한 위기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한 단체가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일 경우가 많다. 선교 단체와의 연합을 통해 능률적으로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살펴본다.

- 1) 정치적 문제, 법률 변화에 따른 대처 능력 : 이 단체가 사역하는 지역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갖고 있으며, 그 지역에 대한 정치적 현안이나 변화에 대해 선교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가?
- 2) 현지 관련 법규 이해 정도 : 사역하는 지역의 법규, 특별히 외국인과 관련된 법규를 자료로 갖고 있는지?
- 3) 타교단/선교단체 동향 파악 및 협의 능력 : 타 단체와의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 연대하고 있는 단체와의 협약서가 있는지, 정책적으로 연합을 하고 있는 운영 규정이 있는가?

4) 해외단체 동향 파악 및 협의 능력 :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타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지? 협력하는 단체들의 성향은 어떤가?

5) 현지 교회의 동향 파악 및 협의 능력 : 선교지에 있는 교회나 현지 교단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6) 국내외 선교 관련 대회 참여도 : 연합 선교 대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7) 위탁 교육 실적 : 자체적으로도 훈련시설이 있지만, 전문 단체의 특수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위탁시켜서 소속 선교사들이나 스텝들의 질적 향상을 계획하고 있는가?

8) 본부 스텝 현장 방문 기회 제공 *다른 영역으로 옮기면? : 본부 사역자들은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현장은 이론으로만 진행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선교사들을 섬기는데, 큰 도움이 된다. 본부 사역자들의 선교지 방문이 연간 계획에 세워져 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교 현장 방문을 하고 있는지?

9) 단체의 현장 기여도에 대한 평가

10)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개발 여부 점검 : 타 단체나 타 단체 소속 사역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에서의 연합 사역을 개발하거나 그러한 계획들이 정책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11) 선교의 전문성을 상호 인정하는지 여부 : 외부 단체에 대한 개방성 정도?

12) seconding에 대한 확실한 이해 및 정책 : 선교사들의 이중 멤버십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하고 있는가? 이중 멤버십을 가진 선교사들에 대한 정책이 세워져 있으며,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세컨딩을 하는 단체에 대한 정보가 자료화되어 있는가?

13) 상이한 또는 유사한 단체들과의 협력 정도 : 같은 지역이나 기능적으로 유사한 단체들과의 협력과 협약을 이루고 있는가?

14) 협의 사항 수행 정도

5. 1차 5개년 계획분석평가와 2차 5개년 계획은 분과포럼에서 제시할 것이다.

VI. 결국 세계선교가 완성된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완전 통치와 할렐루야! 이다.

결론적으로 한국교회의 전방개척 지향적 선교정책은 성경을 근거로 한다. 바울의 "남의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족속", 즉 미 전도종족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를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Target2030 선교운동을 계획 시행하여 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2030년까지 선교사 10만명을 파송하는데 고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정책을 세우고 최선을 다할 따름이다. 그리고 양질의 선교단체, 양질의 선교사가 건강한 교회와 함께 전방개척 지향적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창3:15, 12:1-3),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지금도 성령 보내셔서 성령받은 교회와 신자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계시며 결국 하나님 자신이 완성하실 것이다. 계시록 7:9-10의 말씀은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선택된 백성들이 예수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믿어 의로운 흰옷을 입고 구속의 은총을 찬미하는 엄청난 광경을 보여 주신다. 승리한 교회(Church Triumphant)의 모습이다. 결국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언젠가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할 날이 올 것이다. (합2:14). 언젠가는 세상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앞에 꿇는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는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고백할 날이 올 것이다. (빌2:9-11)

그렇게도 선교하기에 어려웠던 무슬림들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사19:23-25) 하나님을 경배하며 중동이 하나님 경배의 중심지가 될 날이 올 것임을 확신하다. 그 곳에서도 물론 할렐루야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계시록 19:1-6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할렐루야!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에 대한 찬송이다. 영원한 영광의 연기 상승이다. 셋째 아멘 할렐루야! 와 함께 24장로들과 4생물의 예배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이 올라간다. 넷째 할렐루야! 와 함께 보좌의 음

성이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고 외친다. 다섯째 할렐루야!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할렐루야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와 한인디아스포라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성령님이며 우리 교회와 신자들은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사역을 보좌하는 주역임을 믿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세계교회와 함께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폴 허버트,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조이선교회 출판부, 2001, 45.
- 폴 허버트, "선교와 문화인류학", 조이선교회출판부, 2000, 41
- 성남용, unpublished, 2005, 12
- 이진숙, "후진타오시대의 정치 외교 및 정교 관계의 변화", 중국을 주제로, 중국어문선교회, 2004 겨울, 88).
- 데이비드 보쉬, "변화하는 선교",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309).
- 랄프 네이버, 셀 교회 지침서, 2000, 305.
- 랄프 네이버, 셀 교회 지침서, 2000, 306.
- Mark Halan, 탈서구화 정책과 선교에 적절한 신학의 개발, 제 5회 한국선교지도자 국제 포럼, 2005, 37.
-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IVP, 2002, 258-259.
- Kavin Higgins, "내부자 운동의 열쇠: 사도행전의 열심들" 전방개척 선교, KJFM, 창간호, 65-71.
- 김요한, "한국교회의 시급한 대안: 전방개척 선교", KJFM, 2005, 12.
- Ralph D. Winter, 제 5회 한국선교지도자국제포럼, 2005, 13.
- 천꾸완중, 도시 노동자로 변신한 중국 농민들, 중국을 주제로, 중국어문선교회, -2004, 여름호, 94.
-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2004. 외 다수.
- 강승삼, 21세기 선교길라잡이. 생명의 말씀사, 1998 외 다수.
- Barrett, David B., George T. Kurian, and Todd M. Johnson, World Christian Encycloped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 Cho, David J. "Kingdom Mission: DNA of Missionary Task." Plenary Paper to 2010 Tokyo Global Mission Consultation.
- Gairdner, W. H. T., ed. EDINBURGH 1910: An Account and Interpretation of 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 Edinburgh and London: Oliphant, Anderson & Ferrie, 1910.
- Hopkins, Howard, John R. Mott: 1865-1955, A bibliography.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ishing, 1979.
- Knight, Kelvin, ed. Catholic Encyclopedia <http://www.newadvent.org/cathen/>
- "Nestorius", Encyclopedia Britannica, Retrieved January 29, 2010.
- The Union Seminary Magazine, Vol. XXII, October-November, 1910.
- 김정현, 「한국의 첫 선교사」 서울: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2.
- 「韓國예수敎長老會史記」 서울: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 1924.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온두라스 선교사 **박명하**

1991년 대한 예수교 통합측에서 중미의 온두라스로 파송받아 섬기고 있는 박명하 선교사는 일찍 중학교 학생 때(1966년도) 선교소명을 받고 고교시절 미션스쿨에서 종교부장으로 섬기고, 대학시절에는 기독교학생회와 네비게이토에서 봉사와 영적훈련 받은 후 장신대 신대원을 나와 군목을 거쳐 일반 목회를 하다 소명을 따라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선교사로 온두라스로 파송받아 오늘에까지 사역하고 있다. 예장통합 중미선교사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중미카리브 회장으로, 예장통합 세계선교사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파라과이 선교사 **정금태**

1968년 부터 한국에서 1992년 초까지 목회를 하다가 1992년 GP선교단체로부터 파라과이로 파송받아 지금까지 사역해 오고 있는 정금태 선교사는 자신을 '지각생 선교사'라 표현한다. 교육선교를 중점으로 교회개혁, 기독교 예술 유치중고등학교 신학대학(협력), 기독교 영어학교, 기독교 음악학교를 운영하고 목회자 연장교육(목회대학원)을 실시, 목회자 기도학교를 실시하고 있다. 고신대학 졸업, 총신대학원 졸업, 경희대학원 (인사관리) 수료, Montessori 대학원 수료(어린이 교육), 한국 어린이 선교대학(1회 졸업), 미주 Midwest 신학대학 교육학 박사(2006)를 받았다. 설교집으로 <구원의 소리> 외 다수가 있으며 청소년 설교집 어린이 설교집 등이 있다. 논문으로 카톨릭권의 복음적 선교전략(학위논문) 외 다수가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멕시코 선교사 **이사라**



[저녁선교대회 선교사 격려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 이사장 **여성삼**

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 이사장인 여성삼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총동문회장,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군선교후원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극동방송 방송설교가, 지구촌 가정사역훈련원 이사장, 태국 스포츠선교회 이사장, 성화, 남해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현 천호동교회 담임목사다.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M.Div), Canada Providence(D.Min)를 나왔다. 저서로 번역서 천로역정(엔크리스토), 믿음의 로드맵(예영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나를 보내소서!

[저녁선교대회 설교]

YWAM 총재, 열방대학 총장 **로렌 커닝햄**

우리 세대를 대표하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인 로렌 커닝햄은 1960년부터 지난 반세기동안 예수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정예부대로 훈련시켜 선교단체로는 가장 많은 4,000명 이상의 장단기 선교사를 세계복음화 최전방에 배치시킨 막강한 YWAM(Youth With A Mission)을 창립했으며, 또한 하와이 코나와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두고 110개국의 250개 캠퍼스에 700명 이상의 전임교수를 보유한 『열방대학』(University of the Nations)을 세웠다.





새벽기도회

사회/ **윤정용 목사** KWMC 부의장
기도/ **송인규 목사** KWMC 부의장
선교도전/ **정택권 선교사** 이스라엘
특순/ **김정구** 오보에
설교/ **조예환 목사** 부천갈보리교회 담임

성경강해

강사/ **이여백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주제강연

주제강연I 강사/ **이승중 목사** 어깨동무사역원 대표

포케한이케닝

사회/ **고석희 목사 이동열 목사**
기도/ **윤덕근 목사(한) Joel Kim 목사(영)**
설교/ **장영춘 목사** 공동대회장 퀸즈장로교회
화답송/ **글로리아 선교 중창단**
성찬집례/ **방지일 목사** KWMC 명예대회장
선언문채택/ **KWMC / KWMF / GKYM 사무총장**
선교소명자파송집례/ **차현희 목사** KWMC 명예대회장
특순/ **GKYM DIM 지킴무용단**
축도/ **이원휘 선교사** 케냐

너는 생각하라

[새벽기도회 설교]

부천갈보리교회 담임 **조예환**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충신대신대원과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고 1988년 이래 갈보리교회를 섬기며 장로회(합동) 부흥사회 대표회장으로 수많은 집회를 통해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복음방송국(www.jesus119.net) 대표,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해외연수원장, 크리스찬연합신문 운영이사, 한국말알포럼대표 등의 주요사역들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무료숙박시설을 운영하고 6만평의 대지에 세계선교센터를 건립중이다.

[전도서 5:1]

전도서의 대 주제는 헛됨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배자의 바른자세」입니다. 예배는 2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1) 예배의 가치를 알고, 드리는 예배가 있고 2)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하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셨습니다. (요 4:22) 우매자의 제사라는 말은? 알지 못하고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오늘 은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예배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러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납하겠느냐?(말1:8)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에 대한,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일년의 가치를 알려면: 한달의 가치를 알려면: 일주일의 가치를 알려면: 하루의 가치를 알려면: 한시간의 가치를 알려면: 일분의 가치를 알려면: 일초의 가치를 알려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알 수만 있다면: 에게 물어보라! (찬송의, 기도의, 헌신의 가치를 알 수만 있다면?)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이스라엘 선교사 **정태권**



온누리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에서 파송받은 정태권 이스라엘 선교사는 8년간 유대학 및 유대인 대상 사역을 벌이며 영국에서 유대학, 러시아에서 유대인 알리아 사역, 이스라엘에서 현장사역을 펴왔다. KIBI IBS교재 개발 및 GPNK기도네트워크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이스라엘에서 절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IBS 등 다수의 세미나를 인도하였고 CGNTV '미라클 이스라엘', 뉴욕 CTS 'Christian in New York'에도 출연하였다. 중앙대 법대 법학과, 장로회신학대학원(M.Div)을 나왔다.

행복한 사람

[성경강해]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이여백**



KWMA 법인사이이며 예정합동중앙 부총회장인 이여백 목사는 선교 예찬론자다.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을 맞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마닐라포럼의 대회장을 맡으면서도 현장에서 이름도 없이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늘 배우고 섬겨야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이목사는 교사로의 길을 접고 대조동여의도신학, 백석대학원과,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 합동중앙편목을 거쳐 연세대와 충신선교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해왔다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Th. M)을 나왔으며 주사랑교회를 담임으로 섬기고 있다.

[사도행전 18:24-28]

- 1.하나님을 사랑함
 - 영향력 있는 삶
 - 이생의 사랑을 내려놓음
- 2.하나님께 쓰임받음
 - 정확히 아는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 각자의 역할 구별
- 3.하나님께 사랑받은 증거
 - 열매
 - 주님과 의 동행

사람 세우는 선교

[주제강연 I]

어깨동무사역원장, 샌디에고에수마을교회 담임 **이승중**

이민교회의 정체성을 선교적 시각으로 통찰, 5천년 민족사에 세계선교의 여울목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분복이라 믿는 그는 사역보다 먼저 사람이라는 고백을 품고 이민교회 차세대 인물양성을 위한「어깨동무사역원」을 설립, 7백만 한인디아스포라의 청년동원에 힘쓰며 몽골국제대학교(MIU) 대표이사, '아름다운 운동주', 노스필드파운데이션, GMIT & Pan Pacific Film Festival 대표, KCNK(북한을위한 한국교회연대) 이사장등으로 활약하며 목양심서, 선비크리스찬, 글로벌퍼펙티브등의 저서가 있다.



1. 한국 교회의 성장과 세계 선교의 회고

- 1) 한국 교회의 선교 열정과 다이내믹의 축복. 120년 역사, 5만 4천 교회, 13,000 명 선교사
- 2) Post Modernism 의 격랑과 씨름이라는 선교전략 필요.

2. KWMC의 정체성 확인과 세계선교 진단

- 1) 교회로 뿌리로 출발한 세계선교 운동의 견인차 역할.
- 2) 선교적 차원에서 교단을 초월한 교회 일치 운동에 기여.
- 3) 세계 선교 운동의 글로벌 네트워크 위한 여울목.

3. 차세대 선교 운동의 Agenda

- 1) 선교 1세대의 헌신과 희생을 감사.
- 2) 차세대 리더쉽의 정체성 회복과 양육 프로그램 수립.
- 3) 한국 교회의 선교사 Total Care System 계발 필요.

맺는말

- 1) 교회의 건강한 지도력 계승과 연속적 세계선교의 활성화.
- 2) 통일선교를 위한 7백만 한민족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 3) 한국과 북미주 차세대 선교자원 개발과 효율적인 동원

폐회설교

[폐회에배 설교]

퀸즈장로교회 담임, KWMC 공동의장 **장영춘**

1973년 뉴욕에서 퀸즈장로교회를 개척, 3,500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시켰으며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를 통해 수많은 주의 종을 배출했고 미주크리스천신문을 통해 활발한 문서선교사역을 펼치는 가운데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를 매년 개최하여 한인디아스포라목회자들의 자질향상과 협력관계를 증진하는일에 힘쓰다가 성역 50년을 마감하고 금년에 은퇴한 뒤에도 뉴욕, 토론토, 캄보디아에 있는 3개신학교와 미주크리스천신문등 왕성한 활동중이며 다수의 저서가있다.



오늘날 한인세계선교에 있어 함께 나누고 발제와 토론이 필요한 주제들로 대외기간 중 선교전략포럼이 열려 해당 주제 관심자들이 한데 모여 정보의 교류와 전략수립을 돕는다

TARGET2030 선교전략포럼

TARGET2030 선교전략포럼 ① 화 3:30-4:30 Armerding Lecture Hall
 진행 ▶ 한정국 / 발제 ▶ 강승삼 / 패널 ▶ 양승민 조명순 전호중

TARGET2030 선교전략포럼 ② 화 5:00-6:00 Armerding Lecture Hall
 진행 ▶ 한정국 / 발제 ▶ 강승삼 / 패널 ▶ 양승민 조명순 전호중

한국개신교 125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행적찾기 포럼

한국형선교 - 이론 진행 ▶ 양승민 / 발제 ▶ 한정국 / 패널토론 사회 ▶ 한정국 수 3:30-4:30 Armerding Lecture Hall
 한국형선교 - 실제 진행 ▶ 양승민 / 발제 ▶ 조명순 / 패널토론 사회 ▶ 한정국 수 5:00-6:00 Armerding Lecture Hall

미전도종족선교전략포럼

진행 ▶ 안강희 목 5:00-6:00 Blanchard 339

북한선교전략포럼

진행 ▶ 임현수 수 3:30-4:30 Phelps Room (Beamer)

한인디아스포라선교동원전략포럼

발제 ▶ 송민호 화 3:30-4:30 Edman 102 Rehearsal
 발제 ▶ 정현범 수 3:30-4:30 Edman 102 Rehearsal

여성선교사포럼

진행 ▶ 김정희 / 발제 ▶ 이미숙 정인순 송성자 화 3:30-4:30 Phelps Room (Beamer)

전문인선교전략포럼

진행 ▶ 호성기 정인수 목 3:30-4:30 Blanchard 339

북미주한인선교단체포럼

진행 ▶ 김정환 / 패널 ▶ 백운영 양태철 엄경섭 박영국 조종화 화 5:00-6:00 Phelps Room (Beamer)

평신도선교전략포럼

- ① 진행 ▶ 유효명 이상진 / 발제+패널 ▶ 유승원 양국주 격려사/패널 ▶ 임현수 수 3:30-4:30 Blanchard 339
- ② 진행 ▶ 유효명 이상진 / 발제+패널 ▶ 유승원 양국주 격려사/패널 ▶ 임현수 수 5:00-6:00 Blanchard 339

이슬람선교전략포럼

- ① 진행 ▶ 김만우 / 발제 ▶ 공요셉 현대 선교에서 무슬림에 대한 선교신학개발” 화 3:30-4:30 Fischer Crusader
- ② 진행 ▶ 김만우 / 발제 ▶ 이만석 “이슬람의 발생과정 및 알라의 정체” 화 5:00-6:00 Fischer Crusader

의료선교전략포럼

- 진행 ▶ 배성호 / 패널 ▶ 이승호 전희근 목 5:00-6:00 Amerding LH

북미주다인종선교전략

- 진행 ▶ 배현찬 최상진 / 패널 ▶ 이성자 조성도 이은주 송요셉 목 3:30-4:30 Edman 102RehearsalRm

단기선교전략포럼

- 진행 ▶ 김정환 / 패널 ▶ 김순태 김경일 백신종 여호수아 김동승 수 5:00-6:00 Phelps Room (Beamer)

구제 및 NGO 선교전략포럼

- 패널 ▶ 이종도 백신종 정승호 목 5:00-6:00 Edman 102RehearsalRm

비즈니스선교전략포럼

- 진행 ▶ 강태원 / 발제 ▶ 최웅섭 장도원 이지영 박성양 장금주 목 3:30-4:30 Armerding LH

실버선교전략포럼

- 진행 ▶ 정운길 / 발제 ▶ 최상득 정태전 윤익수 목 3:30-4:30 Fischer Crusader
- 진행 ▶ 정운길 / 발제 ▶ 최상득 정태전 윤익수 목 5:00-6:00 Fischer Crusader

중국선교전략포럼

- 목 3:30-4:30 Phelps Room (Beamer)
- 목 5:00-6:00 Phelps Room (Beamer)

인도선교전략포럼

- 발제 ▶ 김대균 이병구 수 5:00-6:00 Edman 102RehearsalRm



다양한 선교현안들과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위해 150여개의 다양한 주제들과 한인/외국인/선교사 강사들의 선택강좌가 대회장 화/수/목 오후 3:30과 5:00에 1시간씩 진행됩니다.

1. 선교일반/역사/동향

①-1	이주, 종교적인 디아스포라와 종교적 다양성	타드 존슨	수 3:30	Wilson Suite D - BGC
①-2	세계 종교들과 선교전략	타드 존슨	수 5:00	Wilson Suite D - BGC
①-3	세계선교동향과 미래선교전략	강승삼	목 3:30	Adams 301
①-4	세계선교의 방향	강대흥	수 3:30	SCI 133
①-5	선교의 절대적인 건강 (여호수아 14:6-12)	나광삼	목 5:00	Adams 301
①-6	1세기 선교 vs 21세기 선교	박신욱	화 3:30	Wilson Suite B - BGC
①-7	ACTS 의 신학과 선교	김영욱	화 3:30	Billy Graham Center 136
①-8	세계적 디아스포라 사역과 미래전망	백운영	수 3:30	Billy Graham Center 130
①-9	GMS의 역사와 정신 - 조선 초기 선교를 중심으로	정홍주	목 3:30	Blanchard 455
①-10	선교 - 마음의 장벽을 넘어 / 선교의 아름다운 동행	여성삼	화 5:00 / 수3:30	MSC 105
①-11	KWMC와 AMCF(세계기도군인연합회)의 협력	이필섭	화 3:30 / 수3:30	SCI 217
①-12	재물관 의식개혁을 통한, 21세기 세계선교 활성화	김경일	화 5:00	Blanchard 125
①-13	J.S. Gale: 한국의 마테오 리치	김재현	목 3:30 / 목 5:00	SCI 129
①-14	선교학 관점에서의 리더쉽	이광길	수 5:00	Billy Graham Center 132
①-15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해와 실천	김종성	화 5:00	MSC 103
①-16	세계선교동향과 이슬람선교	백신종	목 5:00	Billy Graham Center 011
①-17	21C 선교의 새방향: 이스라엘회복	송만석	화 5:00 / 수 5:00	Blanchard 139
①-18	유대인의 힘, 창조의 신학	성현경	수 5:00	Billy Graham Center 012
①-19	지상명령성취와 글로벌기도운동	김석원	수 3:30	SCI 143
①-20	성경적 예배회복과 세계선교	윤사무엘	목 5:00	Blanchard 272
①-21	호남선교 90년 - 남장로교회의 선교적 특성	양국주	화 3:30	Billy Graham Center 132
①-22	한국선교에 재조명되어야할 선교사 다섯 분	양국주	목 3:30	Billy Graham Center 132
①-23	미술과 하나님 그리고 역사적 고찰속의 크리스찬 미술	김동진	화 5:00	SCI 184

2. 세계를 품은 기독교인의 생활

②-01	영성이 살아야 한다	서삼정	화 3:30	Wilson Suite D - BGC
②-02	영성이 자라야 한다	서삼정	화 5:00	Wilson Suite D - BGC
②-03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서삼정	목 3:30	Wilson Suite D - BGC
②-04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야 한다	서삼정	목 5:00	Wilson Suite D - BGC
②-05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과 성령님의 역사	고기홍	화 3:30	Adams 301
②-06	일반은총과 특별한총	고기홍	수 3:30	Adams 301
②-07	관계치유	황성주	화 3:30 / 화 5:00	SCI 021
②-08	재정치유	황성주	수 3:30 / 수 5:00	SCI 021
②-09	감동받아 보셨습니까?	조예환	화 3:30	Blanchard 222
②-10	선교사의 언어	조예환	수 3:30	Blanchard 222
②-11	엘리아같이 기도하라!	조예환	목 3:30	Blanchard 222
②-12	아버지의 마음(롬8:32)	이여백	화 3:30	Billy Graham Center 138
②-13	예수님의 마음(빌2:5)	이여백	수 3:30	Billy Graham Center 138
②-14	왕 같은 제사장(벧전2:9)	이여백	목 5:00	Billy Graham Center 138
②-15	목회자나 선교사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타락하지 않는다	심화보	목 3:30	MSC 103
②-16	홍해는 지금도 갈라지고 여리고는 지금도 무너진다	심화보	목 5:00	MSC 103
②-17	말씀의 인격화를 위한 2대 특수훈련 - 성경통독	안성기	화 5:00	Blanchard 324
②-18	말씀의 인격화를 위한 2대 특수훈련 - 성경암송	안성기	수 3:30	Blanchard 324
②-19	성령시대에 성도와 사역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임석순	화 3:30	Blanchard 455
②-20	찬송의 삶을 통한 선교	정인숙	화 3:30 / 수 3:30	Billy Graham Center 010
②-21	여성사역자의 영성	전담양	수 3:30	Blanchard 323
②-22	길이 막히면 로마서를 쓰라	유승원	화 3:30 / 화 5:00	MSC 105
②-23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인도하심"	윤정용	목 5:00	Blanchard 322
②-24	리더쉽	장동일	목 3:30	Wilson Suite B - BGC
②-25	바보목회	장동일	목 5:00	Wilson Suite B - BGC
②-26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김성택	목 3:30	MSC 202
②-27	하나님은 능능하시다	김성택	목 5:00	MSC 202
②-28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	김호용	목 5:00	Billy Graham Center 010
②-29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김동윤	목 5:00	Blanchard 125
②-30	제2의 종교개혁운동	김동진	화 3:30	SCI 184
②-31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과 사역	박광재	화 5:00	Edman 102

②-32	신앙(목회)침체를 어떻게 극복하였나?	남궁전	목 3:30	Billy Graham Center 130
②-33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만 들어야 하는 말씀과 기도	명치호	화 5:00	MSC 202
②-34	부부갈등을 이렇게 하면 예방할 수 있다	박태동	화 3:30	Blanchard 324
②-35	예수 치유와 건강	배성호	목 3:30	Billy Graham Center 011
②-36	성경적 상담 - 내 마음을 읽는 여섯 개의 창	이응도	목 3:30	Billy Graham Center 012
②-37	바울서신에 나타난 중보기도	한복음	화 3:30	Blanchard 322
②-38	진짜 부자들을 가덕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이성수	목 5:00	Blanchard 324
②-39	한동대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안	이동영	수 5:00	Adams 301

3. 한인세계선교, 북한선교 및 한인디아스포라선교동력화

③-01	한국교회 선교의 반성과 전망	김만우	화 5:00	Billy Graham Center 138
③-02	요셉운동과 청소년선교 (창 29:1-6)	나광삼	화 5:00	Adams 301
③-03	차세대 지도력 개발 '어깨동무사역원'의 사역모델	이승중	수 3:30 / 수 5:00	Fischer Crusader
③-04	이민한인교회의 선교전략	김혜택	목 3:30	SCI 021
③-05	한국과 세계상황진단, 미래선교	김재규	수 5:00 / 목 3:30	Billy Graham Center 010
③-06	한국형선교개발	남후수	목 5:00	Billy Graham Center 130
③-07	신흥선교국가들의 모델이 된 한국선교	백운영	수 5:00	Billy Graham Center 130
③-08	한류문화사역을 통한 세계선교	조효성	화 5:00	SCI 143
③-09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와 디아스포라 사역	하광민	목 5:00	Blanchard 440
③-10	통일 코리아를 위한 전세계적인 중보기도 네트워크 구축	오성훈	목 5:00	MSC 105
③-11	평양과기대	고동훈	화 5:00	SCI 129
③-12	한국교회의 북한선교가 통일과 어떤 상관성이 있을 것인가?	김성태	목 3:30	SCI 143
③-13	김정은 이후의 북한 전망과 한국교회의 선교전략	김성태	목 5:00	SCI 143
③-14	복음의 서진과 북한선교	김성원	수 3:30 / 목 3:30	SCI 184
③-15	통일을 향한 선교정책	김진환	수 5:00	MSC 103
③-16	남북평화통일을 앞당기는 탈북자 선교보고	윤요한	수 5:00	Billy Graham Center 011
③-17	북한선교의 방향과 정책	이귀범	목 3:30	Blanchard 272
③-18	선교지(이민교회)에서의 제자훈련과 영성회복	이찬우	수 5:00	Blanchard 322
③-19	청년선교를 통한 교회부흥과 세계선교	김석수	화 5:00	Wilson Suite C - BGC
③-20	미운오리인가, 백조인가?: 차세대 제자훈련의 선교적 접근	허동현	목 3:30	Blanchard 322

4. 교회와 선교

4-01	건강한 교회 행복한 목회자(딤후1:3-8)	한기홍	화 3:30	Wilson Suite C - BGC
4-02	선교하는 교회로의 전환	김혜택	목 5:00	SCI 021
4-03	지역교회에 있어서의 선교적 부흥	정인수	수/목 3:30/5:00	Wilson Suite C - BGC
4-04	교회연합 - 마지막 시대 세계선교의 유일한 전략	박신욱	수 3:30/5:00	Wilson Suite B - BGC
4-05	왜 교회 개혁인가? (AD2017 & Beyond)	유효명	목 3:00/5:00	Blanchard 139
4-06	은혜한인교회 세계 선교현황과 선교전략	양태철	화 3:30	MSC 103
4-07	말씀의 부흥을 통한 선교 동원 (NYBC)	지용주	수 3:30	Billy Graham Center 136
4-08	지역교회의 미전도종족선교	장춘원	수 5:00	MSC 204
4-09	역동적 이민목회 부흥전략과 실제	윤덕곤	수 3:30	MSC 105
4-10	교회와 선교	서경재	화 3:30	Blanchard 272
4-11	선교적교회 세워나가기	명치호	수 3:30	MSC 202
4-12	“지역교회 선교교육 프로그램(SEED 선교학교)	방대식	화 3:30	Billy Graham Center 130
4-13	선교사/선교단체 모금의 영성과 전략”	방대식	화 5:00	Billy Graham Center 130
4-14	효과적 선교 보고 방법	임호선	화 5:00	Blanchard 440
4-15	교단간의 협력선교당위성과 그 사례연구	이교성	수 3:30	Blanchard 223

5. 타종교/타문화 선교

5-01	한국선교사들을 위한 타문화 커뮤니케이션	탐 스톨터	수 3:30	MSC 302
5-02	세계 중국인(교회) 협력선교	이상란	화 3:30	Blanchard 440
5-03	중국상류층선교전략	현종각	목 5:00	Billy Graham Center 012
5-04	중동선교전략의 역사적 고찰	김만우	수 5:00	Billy Graham Center 138
5-05	이슬람의 최근 동향과 선교 이슈	공요셉	수 5:00	SCI 129
5-06	꾸란과 “성령”과 성령	소윤정	화 3:30	MSC 204
5-07	이슬람의 여성관과 결혼관, “무슬림의 아내들”	소윤정	목 5:00	Blanchard 455
5-08	이슬람선교 전략으로서의 BAM -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장동건	수 3:30	Blanchard 124
5-09	중동 민주화와 이슬람선교접근전략	최바울	화 5:00	Blanchard 455
5-10	최근 중동의 변화와 팔레스타인 선교	강태윤	화 3:30	SCI 129
5-11	회교지역에서 능력사역을 통한 모슬렘 전도는 효과적인가?	이준재	수 5:00	Blanchard 223
5-12	유럽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이극범	수 5:00 / 목 3:30	Blanchard 324
5-13	중남미 선교현장과 전략	강성일	화 3:30	SCI 133

5-14	카톨릭권의 복음적 선교전략	정금태	수 5:00 / 목 3:30	Blanchard 440
5-15	중남미선교를 위한 공동 협력에 의한 신학교육	임한곤	화 5:00	Blanchard 124
5-16	복음으로 아마존 정복은 가능한가	신정남	수 5:00	SCI 217
5-17	중미에서의 선교전략과 단기선교	박명하	화 5:00	Billy Graham Center 136
5-18	인도네시아 한국선교사의 역사와 이 시대의 역할	김종국	목 5:00	Billy Graham Center 132
5-19	지구안 사람들에서의 다양한 교회개혁과 목회자 훈련	박종국	화 3:30	Blanchard 223
5-20	누가 이들의 이웃인가? (에티오피아의 여성과 어린이 사역)	장은혜	목 5:00	Blanchard 124
5-21	공산권 붕괴후 22년의 동 유럽 선교사역 실제	정흥기	목 3:30	SCI 217
5-22	유럽 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도전	정흥기	목 5:00	SCI 217
5-23	북미다민족네트워크사역과 다민족사역 모델들과 이슈들	임찬혁	화 5:00	Billy Graham Center 011
5-24	북미원주민선교 - 오전도종족선교운동	김동승	목 3:30	Blanchard 125

6. 선교사/선교헌신자

6-01	선교사와 책무	강대흥	수 5:00	SCI 133
6-02	선교사의 인격과 삶의 기본기	노록수	화 3:30	Blanchard 124
6-03	선교사와 크리스찬의 노후대책 비결	임석순	수 3:30	Blanchard 455
6-04	미주선교사자녀학교 설립을 위한 비전 - 여수룬 기독교학교	지용주	수 5:00	Billy Graham Center 136
6-05	MK교육의 현실과 방향 (차세대 선교사로서의 MK)	김승진	목 5:00	SCI 184
6-06	사역자 자녀들을 위한 미국 대학 준비 세미나	허그레이스	목 3:30 / 목 5:00	Blanchard 472
6-07	선교사의 자기주도학습	전병철	수 3:30	MSC 204
6-08	해외선교 헌신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준호	화 5:00	Blanchard 223
6-09	선교현장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맛보기	정훈채	화 5:00	Blanchard 323
6-10	선교와 돈 - 가난한 나라에서 사역하는 부자선교사의 도전	김진봉	화 5:00	SCI 217
6-11	선교사들이 알아야 할 정신건강 전반에 관한 교육 (선교사가족세미나)	이승호 이은희	목 3:30	Blanchard 124
6-12	소셜 미디어 시대의 선교사의 문서출판활용	김승태	화 5:00	Billy Graham Center 132

7. 선교사역/전략

7-01	Bringing the Gospel to Unengaged People Groups	폴 애실맨	화 3:30	Blanchard 339
7-02	First Steps in Adopting and Unengaged People Group	폴 애실맨	화 5:00	Blanchard 339
7-03	미전도종족선교전략과 GMI사례	양태철	수 3:30	MSC 103
7-04	미완성과업 성취를 위한 미전도종족선교전략	장춘원	목 5:00	MSC 204
7-05	미전도종족교회개척 / 단기선교실제 / 세계선교동향	엄경섭	수 5:00	MSC 304
7-06	선교지 현지화 전략	강성일	화 5:00	SCI 133
7-07	현지인지도력개발	조용중	목 3:30	SCI 133
7-08	현지인을 타문화권 선교사로 훈련하기	이승일	화 3:30	MSC 302
7-09	사역전문화를 통한 선교사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김정한	목 3:30 / 목 5:00	Billy Graham Center 136
7-10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선교 지식경영과 선교 정보네트워크	마민호	화 3:30	MSC 202
7-11	신학교 온라인 영상강의 시스템 구축의 실제	구자혁	수 3:30	Blanchard 125
7-12	21세기 선교사역의 혁명 - 네트워크 선교사역	김선근	수 5:00	SCI 143
7-13	언어와 문화의 선교적 소통	김해진	화 3:30	Blanchard 323
7-14	21세기 선교의 남은 과제: 선교단체간 협력문제	박시경	화 5:00	Billy Graham Center 010
7-15	현지인목회자재교육을 통한 활성화정책	송상천	수 3:30	Billy Graham Center 011
7-16	선교현장에서의 교육선교효과와 모델	정금태	수 5:00	Blanchard 440
7-17	카톨릭권의 복음적 선교전략	정금태	목 3:30	Blanchard 440
7-18	창의적 접근지역의 대학생 선교전략	송제임스	화 3:30	Billy Graham Center 012
7-19	선교지의 미래를 바꾸는 영육(0-6세) 유아교육	신소피아	화 5:00	Billy Graham Center 012
7-20	어린이, 청소년 신앙 성장이론과 실제	여병현	화 5:00 / 수 3:30	Blanchard 272
7-21	어린이 전도와 기독교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청각 자료교실	이옥희	목 3:30	Blanchard 223
7-22	내일이면 늦으리, 4/14 원도 선교!	최혜영	수 5:00	Blanchard 472
7-23	남아시아의 어린이전도사역 - Bridge of Hope	임승환	화 5:00	MSC 204
7-24	구전문화에서의 복음 전파와 지도자 훈련	이금주	수 5:00	Blanchard 124
7-25	고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교회의 절대적 관계사역	이상조	수 5:00	MSC 202
7-26	WEC의 선교전략은?	조혜선	화 5:00	Blanchard 472
7-27	미주 안의 다민족선교	홍디모데	화 3:30	Blanchard 472
7-28	이주민 선교	전철한	목 5:00	Blanchard 223

8. 단기/평신도/전문인선교

8-01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비즈니스 선교의 영향력	최웅섭	화/수 5:00 목 3:30	MSC 302
8-02	NGO를 통한 세계선교	조용중	목 5:00	SCI 133
8-03	NGO와 함께하는 선교	이명근	화 5:00 / 수 3:30	Blanchard 322
8-04	세계선교, 당신이 해야합니다! - 모든 평신도가 다 뛰어들어야 합니다	최순자	수 3:30	Billy Graham Center 132
8-05	마플레이스(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	이지영	수 5:00	Blanchard 272
8-06	Business As Mission 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박영국	화 3:30	Billy Graham Center 011
8-07	물과 함께 복음을	권종승	화 3:30	Blanchard 125
8-08	난민캠프사역을 통한 선교	조장연	목 5:00	Blanchard 323
8-09	난민사역을 통한 열방선교 - The Boaz Project	지수향	수 3:30	Blanchard 472
8-10	스포츠문화선교 이렇게하라.	김민섭	화 3:30	SCI 143
8-11	선교지 사역전문화그룹 형성과 전문인동원 단기선교 전략	김정한	목 5:00	Billy Graham Center 136
8-12	실크로드선상에서의 비즈니스(BAM)선교의 전략적 접근	김스데반	수 5:00	SCI 184
8-13	전문인선교 전략과 정책	최바울	수 5:00	Blanchard 455
8-14	전문인선교로서 효과적인 전인치유 선교전략	손영규	수 3:30	Billy Graham Center 012
8-15	방송선교를 통한 세계선교 완성	최은중	목 5:00	MSC 302
8-16	크리스천 영화, 영화제, 그리고 그의 선교효과	안켄	수 3:30	MSC 304
8-17	비의료인의 의료선교	전희근	목 3:30	Blanchard 323
8-18	"고지가 바로 저긴데..." 의료사역을 통하여 세계가 동원되는 이야기	이상천	목 3:30	Billy Graham Center 138
8-19	선교사와 선교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식이요법	한나	수 5:00	Blanchard 323
8-20	찬양의 능력	이종미	목 3:30	MSC 204
8-21	무의촌 선교사를 위한 한방응급처치 요령	김광오	수 5:00	Blanchard 125
8-22	침의술선교	이원휘	화 5:00	Wilson Suite B - BGC

1. 선교일반

①-1 이주, 종교적인 디아스포라와 종교적 다양성

타드 존슨 / Gordon-Conwell University



고든 컨웰 신학교에서 세계기독교학과 부교수로, 또 세계기독교센터(CSGC)의 디렉터로 있는 그는 데이빗 바렛 박사와 함께 「세계기독교대백과사전」을 편찬, 모든 전세계 모든 종족, 언어, 나라, 도시의 기독교와 타종교 현황의 전체 통계의 연구 권위자로 이 자료는 ABC, BBC, AP통신, 뉴욕타임즈 등에서 널리 활용 및 인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로잔운동에서 새로운 전략, 미전도종족선교, 세계종교에 대한 「글로벌 컨버세이션」을 통해 활발히 동참하고 있다.

This seminar provides an overview of religious diasporas which are created by the migration of people worldwide.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religious diasporas shows 859 million people (12.5% of the world's population) from 327 peoples in diasporas around the world. The continuing trend of religious migration around the world is both increasing and intensifying religious diversity, especially in the former Christian West. This seminar outlines some key issues relating to religious divers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d how the movement of peoples worldwide contributes to those issues.

①-2 세계 종교와 선교 전략

타드 존슨 / Gordon-Conwell University

In the contexts of religious transformation, religious diversity, and language, this seminar considers demographic trends both within global Christianity and outside of global Christianity. Christianity has shifted to the global South, and in the process has further fragmented into more denominations. Christian resources are unevenly distributed, and Christians are out of contact with members of other religions. These trends are viewed in light of mission strategy.

①-3 세계선교동향과 미래선교전략

강승삼 /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 대표회장, KWMA 회장



10만에 육박하는 한국교회 및 각 교단, 선교단체들이 초교파적으로 연대한 막강한 선교운동네트워크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회장으로 한국교회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강승삼 목사는 젊은 날에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헌신, 12년간을 교회개혁, 신학교 설립, 현지지도자 양성 등에 힘썼다. 총신대학원, 컬럼비아국제대학을 나와 트리니티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복음주의협의회 선교분과위원, 아세아복음주의협의회 선교위원장을 등을 역임했다.

세계선교는 누가 주도하시는가?

왜 성령께서 세계 선교의 중심국가와 그 중심역할을 시대마다 변화시키시는가?

1. World Mission Trends (세계 선교 흐름)

- 1) 지난 20세기 100년간의 양대 산맥,
- 2) 서구에서 개발도상국가로
- 3) 지역, 국가 중심 → 미전도종족 선교운동.
- 4) Sodality → Modality & Mega Church Mission Movement.
- 5) 자비량전문인선교(평신도) 운동.
- 6) 변혁운동(Transform Movement).
7. IT, 기술, Media, 문화, 예술, 기업선교

2. 미래 비전과 대안?

- 1) Back To the Bible(바른 성경관)
- 2) 제자화 선교,
3. 제자육성통한 셀 교회의 부흥운동,
4. 선교운동(Movement)의 활성화,
5. Sports 선교와 태권도 선교,
6. Diaspora 선교와 기업투자이민 선교,
7. 한국학의 세계화(세종학당),

8. 전문인 Faith Mission,
9. IT, 기술 선교,
10. Business 선교 (기독교인 기업선교),
11. NGO와 한국 선교,
12. 한국에 주신 축복 나눔운동,
13. 한류, 문화 예술 선교,
14. 한국의 다문화 사회

결론: 21세기 선교협력시대

- 1) 21세기 선교중심 국가: 한국, 중국, 인도(3국 협력),
- 2) 선교사의 리더십 성장, 연장교육 (TEE) 필요,
- 3) 한국적 선교이론과 전략 개발,

- 4) 한국형 선교모델 개발 필요,
- 5) 국제 선교단체와의 협력과 국제적인 리더십,
- 6) 통합적 협력 system 구축,
- 7) 통일 한국과 북한선교의 과제

결론: 가장 중요한 것

- 1) 사도적 성경관 회복,
- 2) 예수의 유일성 회복,
- 3) 성령의 주권인정 회복,
- 4) 거룩한 공 교회의 사도성 회복,
- 5) 개인회심의 절대성과 총체적 영성의 회복,
- 6) 셀교회를 통한 교회개척운동,
- 7) 세계선교의 긴급성/책임의식

①-4 세계선교의 방향

강대흥 / 태국선교사, KWMF공동회장



이 시대 마지막 선교주자 한국교회는 반드시 (선교의 건강성)이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는 1987년 태국선교사로 파송, 1989년 건강한 현장사역팀 모델을 세워 현재 20여가정이 팀사역을 하고 있으며, 2001년 아시아신학 연구소를, 2005년에는 방콕선교포럼을 시작하였다. 그 외 태국목회자훈련원설립, 방콕국제학교 협력설립 등을 이루어냈다. 국내사역 중 GMS 필드구조를 현장중심으로 세우는 일에 힘써왔다

세계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선교를 해야하나 모든 교인이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은 교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마음을 갖고 빛과 소금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강의는 세계선교가 방향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과 더불어, 복음을 듣지 못한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같은 컨셉을 갖는 전략적 선교 운동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선교사 파송 보다는 배치가 중요하고, 일부 지역에 집중적인 교회 개척보다는 민족이 복음화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히 마태복음 24:14과 연관하여 FTT운동을, 마태복음 28:19-20의 제자 삼는 일과 지킴(순종)에 가장 강력한 성경공부 중 하나인 DBS(Discovery Bible Study)가 세계 선교에 얼마나 효과적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①-5 선교의 절대적인 건강

나광삼 / 큰무리교회 담임



이민목회 30여년의 광야길에서 큰무리교회의 위대한 성장을 일궈낸 나광삼 목사는 한국과 북미주를 점철하는 연중 25회 이상의 부흥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또한 「21세기 요셉운동」을 창설, 청소년 신앙부흥운동을 10여년 넘게 전개하며 애굽의 이질문명 속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세상과 자신을 극복했던 요셉을 본받아 주 안에서 강한 자아각성과 신앙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이민사역을 펼치고 있다. 워싱턴개혁장로회 신학교 이사장으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선교와 믿음생활은 전쟁이다. 전쟁할 때는 건강한 육체와 용감한 정신력과 지력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승리와 선교에는 건강이 더욱 중요하다. 갈렙은 육신으로 85세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당에는 40세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에게도 갈렙의 건강비결이 필요하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때이기에...

①-6 1세기 선교 vs 21세기 선교

박신욱 / GBC 미주복음방송 사장



21년 전, 크리스천 방송국을 세운다는 것을 그 아무도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때에 복음방송의 꿈을 꾸었던 임중희 목사를 통해 세워진 미주복음방송은 이후 자체 스테이션을 구입하고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으며 시애틀을 비롯하여 전 미주에 지사를 세워나가고 있다. 현 GBC 미주복음방송 대표인 박신욱 목사는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파송받아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사역하였고 SEED International의 국제총무도 역임하였다. 탈북신학교, 달라스신학교를 졸업했다.

1세기의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미전도종족 선교"라고 본다면, 오늘 21세기의 선교 역시 "남은 과업"~미전도종족 선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은 과업인 미전도종족 선교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요한계시록 사이에 나타나는 1세기의 선교 패러다임으로 돌아갈 때가 장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1세기의 선교주체는 지역교회였고, 선교의 다이나믹은 성령의 사역, 준비된 선교사, 그리고 팀사역이었다. 교회, 선교사, 선교단체가 개별적으로 뛰고 있는 21세기 선교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21세기 선교의 남은 과업완수를 위한 1세기 선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해 본다.

①-7 ACTS 의 신학과 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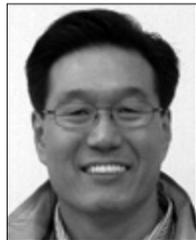
김영욱 /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ACTS



건국대학교 문리대 영어학과 졸 (B.A.), 대한 예수교 총회신학대학교 (합동) (M.Div.), Fresno Pacific University & Biblical Seminary, sno, California (M.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M.,)Pasadena, California, U.S.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r.Min) California, U.S.A.,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Dr.Min) Jackson, Miss, U.S.A., Christian Reformed Church of North America 목사안수 (1972), 가든 그로브 장로교회(당회장) (1975-92) Garden Grove, California, U.S.A., 국제항공선교회(MAF) 국제 총무 사역 (1982-88), 미주 한인 항공선교회 창립 대표(역임), 한국 항공선교회(MAFK) 창립대표(역임), ACTS 항공선교사훈련원 원장 (1989-), 아세, 연합신학대학교 부교수 (1992),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2003),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북한선교연구소장(1998),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처장(2004.9),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법인국장서리(2006.12),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총장직무대리(2010.2.28)

①-8 세계적 디아스포라 사역과 미래전망

백운영 / GP 선교회 미주 대표



GP 선교회 미주 대표인 백운영 선교사는 홀러 신학교 객원 교수이며 로잔 디아스포라 분과 위원으로 사역하고 있다.

백운영 선교사는 로잔 디아스포라 분과 위원으로 지난 6년간 섬기면서 특히 2010년 케이프타운 로잔 3차 대회에서 디아스포라 분야에서 발제한 내용 들을 다룬다. UN 에서는 Migration 인구를 3억으로 보고 있으나 로잔에서는 디아스포라 라는 성경적 단어와 의미를 포기하지 않고 그 숫자는 세계 인구의 10% dls 7억으로 본다. 디아스포라에는 농부가 씨를 뿌릴때 쓰는 이 단어는 생명을 뿌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 두종류의 디아스포라가 있으며 자발적으로 친척 아버지를 떠난 이들과 비자발적으로 떠나야만 했던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새로운 것에대한 열린 마음이다. 그렇기에 디아스포라에게는 복음의 수용성이 높고 또한 이렇게 복음을 접한 이민자들을 제대로 제자훈련을 시키면 엄청난 경쟁력을 갖춘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된다. 도시화 현상과 더불어 오는날 세계는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위에 많은 인종을 친히 데려다 놓으셨다.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할 자역적인 기회가 주어진 것을 바로 알고 이들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디아스포라들이 되어야 한다.

①-9 GMS의 역사와 정신 - 조선 초기 선교를 중심으로

정홍주 / GMS



학력: 1985년 2월 경북대학교 독일어 독문학과(BA), 1988년 2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M.Div), 1991년 2월 총신대학 대학원 교회사 전공(Th.M), 1994년 5월 미국 미시간주 칼빈신학교 교회사 전공(Th.M) 1994년 8월-1998년 6월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교 교회사 Ph.D 과정 1992년 1월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 한인교회 협동목사(담임: 정연규목사), 1994년 8월-1998년 6월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한인교회 공동사역목사, 1998년 9월-2003년 6월 필리핀 장로회 신학교 교수, 2003년 3월 구미상모교회 설립 100주년 파송선교사, 2003년 6월-2008. 11월 GMS 멕시코 선교사(치와와주), 2008년 9월-현재 GMS 본부 행정국장

한국에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조선초기를 중심으로 GMS(총회세계선교회)의 100년의 역사를 돌아본다.

①-10A 선교 - 마음의 장벽을 넘어

여성삼 / 기성 해외선교위원장, 천호동교회 담임



기성 해외선교위원장, 천호동교회 담임목사

- 1,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이 선교의 시작이다. (십자가의 복음 "다 이루었다")
- 2,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 명령) 모든 나라, 민족(All Nations Ethnic)/ 제자를 삼아 (Make Disciples)/ 방법 Go Baptize Teach
- 3, 예루살렘 공동체, 말씀 공동체/기도 공동체/사랑의 공동체/전도 공동체= 그러나 Comfort Zone(安住공동체에 머물)
- 4, Mind 장벽 그 훌러진 자들이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Only Jews)
- 5, 최초의 선교 (행13:1~3) 안디옥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행13:1~3)
- 6,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후에 일어난 일들-마음의 장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았을 것.
- 7, 바울의 2차 선교여행 (행16:13)
- 8, 제3차 선교행전에베소(행19장) (행19:9~10절)
- 9, 성령이 마인드를 바꾸어 주심.(행10:1013)
- 10, 선교의 장벽 마인드 장벽 - 로마 카톨릭 교회는 1500년~1700년 사이에 유럽에서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로 개종된 숫자보다 이방세계에서 더욱 많은 숫자의 개종자를 얻었다. 개신교는 Mind 장벽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은 지상명령이 오직 예수의 열두 사도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여 선교하지 않았다
- 11, 토마스목사를 파송한 영국의 하노버 교회(조선을 품고 기도) - Appenzeller, Underwood(1885년 4월 5일) (보지 않는 조선의 마음)

①-10B 선교의 아름다운 동행 (창 5:24)

여성삼 / 기성 해외선교위원장, 천호동교회 담임

1.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중요한 일.
2. 함께 가는 유익
3.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적인 큰 힘을 얻음.
4. 동행은 보조를 맞추는 것.

①-11 KWMC와 AMCF(세계기도군인연합회)의 협력

이필섭 / AMCF 회장



세계 기독교인들의 연합체로 1851년 영국에서 태동돼 한국에서는 1956년 시작된 세계기독교군인연합회(AMCF) 역사상 최초로 비서구권인으로서 회장이 된 이필섭 장로(대한민국 육군대장, 합참의장 역임) 전역 후, 한국을 넘어, 세계의 군복을 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AMCF 비전 - AMCF란? / AMCF 역사 / AMCF 사명, 목표, 모든 / 대륙별 MCF 현황 / MCF 미 설립국 - 조직 / AMCF 사역 - 기도 - 방문 - 모임 - 교통 - 교육 및 격려 - 협력 - 2011 MCF 설립현황 - 2012 계획 - 목표 - AMCF 비전
2. 협력가능분야 (KWMC - AMCF)
3. 결론 - 구속의 역사

①-12 재물관 의식개혁을 통한, 21세기 세계선교 활성화

김경일 / 뉴마게도니아월드미션 대표



중앙아시아 주재(우즈베키스탄 14년, 카자흐스탄 6년) 선교사 경력 20년인 김경일 박사는 현 세계한인선교사회(KWMF) 사무차장, 뉴마게도니아 월드미션(NMWM)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총신대학신학대학원(M. Div)을 나와 인디아나 그레 이스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박사(D. Miss) 학위를 수여하였다.

1. 한국교회 축복관과 사머니즘: 현재 한국 교회 안의 뿌리깊은 사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왜곡된 재물관 의식인 기복신앙 즉, 성경적 축복론과 기복론을 다루고자 한다.

2. 한국교회 재물관 청빈론과 청부론

1) 청빈론: "청빈(淸貧)의 국어 사전 의미는 "청백(淸白)하여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가난함" 이란 뜻을 가진다. 믿음의 삶 속에서 물질 만능의 생활 태도는 건전한 경제 윤리관의 확립을 위하여 반드시 배격되어야 한다.

2) 청부론: 청부(淸富)란 단어의 의미는 한자(漢子), 그대로 깨끗할 청(淸), 부할 부(富), 즉 "깨끗한 부자" 란 뜻이다. 즉 청부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에 대한 은혜(恩惠)와 상급(賞給)으로 주시는 축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끗한 부(富)라는 것이다.

3. 성경적 청지기론 청지기(廳職)는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의도에 따라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위해 일하는 자이다. 현대어(現代語)로 말하면 지배인 또는 관리자, 따라서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자라 할 수 있다.

1) 하나님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2) 청지기는 자신의 소유권 포기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①-13 J.S. 게일: 한국의 마테오 리치

김재현 / 한국고등신학연구원 원장



서울대와 대학원, 총신신학대학원, 하버드대학, 프린스턴(Ph.D.), 제네바대학 등에서 공부했습니다. 오랫동안 중세수도원과 영성을 공부했으며 호남신학대학 등에서 가르쳤습니다. 두레강학재단, 한중장학재단, 분당중앙교회 인재양성원을 섬기면서 차세대 기독교인물 양성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기독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80권이 넘는 책을 한글, 영어, 중국어로 편찬하는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고등신학연구원의 원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모여 기뻐함은 기뻐함을 환영함 / 우리주의 본을 받아 사랑마음 표하세 / 편히 다녀왔으니, 주의 은혜 감사하여 기뻐찬미 합시다."

천민출신으로 게일의 전도를 받고 참된 기독교지도자로 거듭난 고찬익, 그가 서울 연동교회의 초대장로가 되어 1907년 스위스에서 가족들과 함께 다시 돌아온 게일선교사를 환영하는 노래이다. Vanguard라는 책(게일 저)을 통해 알려진 고찬익의 삶과 신앙은 기독교가 구한말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생명의 종교로 다가갔는지를 잘 보여준다. 100여년전 암담한 조선말기 사회에 기독교는 한국민족의 희망으로 자리했고, 천민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내는 엄청난 힘을 지녔다. 그리고 그 격변과 변화와 한 가운데 외국선교사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열악한 한국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국왕을 지켰고, 교육과 서양의술을 한국에 소개했고, 한국사회의 근대화에 초석을 놓았다. 어쩌면 지난 100여년의 한국근현대사의 변화와 발전의 기폭제를 선교사들이 제공했는지 모른다.

수많은 제한 해외선교사들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선교사연구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같이 익히 우리에게 익숙한 몇몇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중요 선교사들을 선별하는데 1차적 복음의 전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했는가를 종중 기준으로 삼았다. 때문에 조선민족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관심을 선교사들의 중요도를 정하는데 강조점을 두지 못하기도 했다. 이것이 이후 선교사 배척운동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①-14 선교학 관점에서의 리더십

이광길 / 풀러선교대학원 한국학부 부원장



이광길 박사는 서울신학교(Diploma), 아세아연합신학대학(B.Th.), 합동신학원(M.div. equiv.), 풀러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Th.M. in Missiology & Ph.D in Leadership)을 졸업하였고 서울의 호산교회에서 10년 간, 산타바바라한인교회에서 1년 반을 담임 목사로 사역하였다. 2000년부터 풀러선교대학원 한국학부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리더십과 은사론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교회와 선교 기관,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멘토링과 컨설팅 사역을 실천하고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온전히 전파하는 사역은 선교사들의 숙명이며 동시에 큰 도전입니다. 이를 위해 선교사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과 본질을 파악하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안다는 것은 21세기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의미

하며, 동시에 10년 후 세계가 직면하게 될 미래적 상황에 대한 예측과 분별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학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의 내용과 수준, 속도와 변화의 분야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현실적으로 거론하는 학문입니다. 본 강의는 이러한 선교학적 관점에 기초하여 21세기에 적합한 선교 방식과 그에 적합한 리더십의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기초한 리더십을 개발하는 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 강의에서는 21 세기의 특징, 리더십의 요소들, 선교학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①-15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해와 실천

김중성 / 도미니카 선교사



김중성 박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에서 신학박사학위(Th.D)를 취득하였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PCK(예장통합)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선교사로서 도미니카공화국복음교단(I.E.D.) 총회신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리고 PCK(예장통합) 선교교육원장로 총회파송선교사훈련을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한국로잔중앙위원회(사회위원회분과장), PCK아이티재해구호 정책자문위원이며, 총회세계선교대학 교재, 한국선교 KMQ저널 집필위원이다. 저서로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마리아 중보사상", 스페인어로 "El Camino Para Llegar al Cielo 천국에 이르는 길" 등이 있으며, 다수의 논문이 있다. 2010년 1월 12일 아이티 지진으로 인해 사역지가 아이티까지 확장되어 재해구호사역 및 아이티재해 중장기 프로젝트사역을 병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선교사는 늘 2, 3차원의 선교적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그 염려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지 못한다. 창세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어오는 하나님의 뜻은 3차원을 뛰어넘는, 점과 점을 이은 선과 그리고 선과 선을 통해서 생성된 면, 더 나아가 면과 면을 통해서 형성된 공간의 차원 이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시, 공간을 초월한 우주적 개념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Finite human mind cannot fully comprehend infinite and eternal God.) 필자는 이것을 4차원의 선교, 혹은 그 이상을 말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제한된 마음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주적 개념 속에서 이해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적용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의 주체, 목적, 방향, 전략 등 선교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다.

①-16 세계선교동향과 이슬람선교

백신중 / KAFHI 선교훈련원장, SEED 무슬림전도연구소장



중앙대학교(B.A.)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했다. 1994년 필리핀 단기사역을 마친 뒤, 1994~1998년까지 예장 합동 총회선교훈련원(MTI)에서 평신도선교훈련과정(YMTC/LMTC)을 담당했다. 1998년 도미 후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석사(Th.M.) 과정을 공부하면서 한인교회의 단기선교에 관해서 연구했으며, Institute for Asian Mission의 총무와 연구원을 지냈다. 2004년부터는 아내 강은경 선교사, 자녀 2남2녀와 함께 Seed 선교회와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KAFHI)의 파송을 받아 캄보디아 주재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캄보디아 대학(CUS)에서 문화학 교수, 2006년부터는 로고스어학원과 캄보디아 씨앗교회를 설립해 선교사역을 했다. 현재는 본부선교사로 트리니티 복음주의신학교에서 수학하며, 폴리버트선교연구 프로젝트 디렉터와 트리니티 대학에서 문화인류학 외래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1. 세계선교의 동향 - 1) 지난 100년간의 기독교 선교 (1910-2010) - 대륙별 기독교 증감추세. 2) 무엇이 문제인가? - 선교의 구조적 문제점, - 주요문화권 인구 백만명당 선교사 수. 3) 세계선교의 남은 과제 - 무슬림 전도와 이슬람권 선교, - 아시아 기독교와 아시아의 선교신학 (관계신학)
2. 이슬람 선교의 과제/장애물 - 1) 비잔틴 제국을 기반으로 한 제국적 기독교. 2) 회람철학에 기초한 서방기독교와 신학의 발전. 3) 십자군 운동. 4) 17세기 이후 서구세계의 아랍식민지배. 5)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는 개인주의적 기독교
3. 이슬람 출현의 성경적 배경 - 1) 이스마엘의 복 - 네 후손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으리라, - 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창 16:10,11). 2) 아브라함의 장례식 (창 15:1-9)
4. 무슬림 선교의 간략한 역사 - 1) 레이먼 러, 2) 쿠사의 니콜라스, 3) 헨리 마틴, 4) 사무엘 썬뎀, 5) 데이빗 쉥크, 6) 케빈 그리슨, 7) 문화적 상황화
5. 복음과 이슬람 문화 - 1) 복음과 문화, 2) 이슬람의 다섯 기둥, 3) 살라(기도)의 상황화
6. 무슬림 전도와 성경 - 1) 압둘라 사이드, 2) 고든 니켈
7. 무슬림 전도의 새로운 방법 - 1) 아담은 나비(선지자)인가? 2) 꾸란에 등장하는 성경인물 24명. 3) 꾸란에 등장하는 아담의 담화분석. 4) 꾸란의 아담기사에 대한 초기 해설가들. 5) 아담은 선지자다!
8. 선지자와 예언 전도법 - 1) 아담이야기를 통한 전도. 2) 예수님의 메시아 계시. 3) 공동체 회심이론 vs. 개인전도

①-17 21C 선교의 새방향: 이스라엘회복

송만석 / KIBI(Korean Israel Bible Institute) 대표



온누리교회, KIBI 대표, 고려신학교 M.Div.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20년전, 한국창조과학회장. 저서: 지금은 예루살렘시대

20세기 중반에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다시 등장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되었다. 그 중에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이 21세기 선교의 방향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거기 간혀있던 유대인들이 1990년부터 200만 명 이상 흘러나와 15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유대인들이 떠난 이후 구소련에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수천 개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러시아어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제일 큰 교회들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은 에스겔서 36장 23~26절 말씀이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열방 중에서 모아 데리고 조상들의 땅에 들어가 맑은 물로 씻기시면서 이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열방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이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 뿐이다. 곧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에 큰 부흥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지난 70여 년 동안 구소련 공산치하에서는 교회도 없었고 성경도 보내기가 극히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곳에 큰 부흥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돌아온 유대인들을 맑은 물로 씻기시고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돌아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뜻인데 1967년 예루살렘 회복 때 150여명의

①-18 유대인의 힘, 창조의 신학

성현경 / 뉴저지 가스펠헬로우쉽교회



이스라엘 선교사 8년, 뉴저지 가스펠 헬로우쉽 교회 개척 8년, 신앙계 칼럼니스트 9년, KOSTA, DTS 강사 10년

세계의 비즈니스를 유대인들이 거의 다 움직인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가족을 잃고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애굽의 상권을 다루던 것처럼, 나라를 잃었던 유대인들은 현재 세계의 경제를 다스리고 있다. 유대인들이 세계의 금융, 경제, 과학 분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책은 많이 있지만, 이천 년동안 나라와 땅을 잃고 살아온 소수민족의 유대인이 어떻게 세계를 잡았는지를 말해주는 글은 볼 수 없었다. 유대인들은 도대체 언제 그렇게 조용히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일까?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교회의 목회적 한계를 보게 된다. 그동안 한국의 크리스찬은 교회 부흥에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며 기도에 힘쓰고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면 세상에 대한 것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간증을 쌓아왔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생활과 기도에 헌신된 평신도의 경제가 IMF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은 적극적인데 세상으로 나가면서 신앙이 소극적으로 결여되는 것이다. 세상으로 나갈 때에 지녀야 할 비즈니스에 대한 성령의 검을 교회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으로 나아갈때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 이외에 비즈니스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는 어디있는 것일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아를 유대인들은 죽였고 이스라엘은 그로 인해 나라와 땅을 잃고 이천 년을 떠돌았다. 나라와 땅을 잃은 고난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절기를 지켜왔고 지금껏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거절하고 신약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민족을 구약에 기록하신 대로 축복하셨다!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고전15:46)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사를 보는 눈으로서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한다. 하나님은 먼저 육적인 회복을 시키시고 다음에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 마틴 루터의 영적인 개혁이 있기 전에, 과학 안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먼저 준비된다는 질서이다.

이스라엘을 처음 갔을 때 랍비와의 대화를 통해 유대인들에겐 제사와 비즈니스가 동일하게 거룩한 부르심인 것을 보았다. 이제 세상에선 무기산업보다 식량산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랍비에게 들었다. 탱크 한 대를 팔면 얼마나 많은 식량을 장악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음식값이 약값이 된다는 말도 들었다. 그들은 회당이 될 일을 보기 전에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먼저 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곳이 이스라엘 남부의 네게브 사막에 있다. 초대 수상 벤구리온의 생가이다. 그는 수상을 지낸 후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네게브 사막에서 살았다. 그가 즐겨 말한 금언들이 그 사막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 "전세계의 유대 청년들아, 너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 이스라엘의 농업공동체 키부츠는 옥토인 캐나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비사막을 타고 몽골같은 재배가 불가

능하다는 땅에 뻗어 있다. 그들은 재배가 안된다는 곳에서 가능케 하려는 것이다. 랍비들의 책도 창조에 대한 주제가 정기적으로 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은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이다.

그들이 예배하는 신학은 비즈니스를 위한 신학과 분리되지 않은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신학의 힘으로 비즈니스를 이집트의 총리 요셉처럼 복종케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 교리적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구원주만을 강조하는 말씀을 가지면 경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검소하게 살며 구형세탁기를 아껴쓰고 현금하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기만 하면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까. 구형세탁기를 고쳐쓰는 것이 구원주의 마음이지만 신형세탁기를 개발하는 것이 창조주의 마음이다. 구원주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을 회복하시기 전에 창조주가 세상 안에서 육적인 일을 준비하신다.

교회의 경제는 구세주의 논리로 유지되지만 세상의 경제는 창조주의 질서로 움직여진다. 교회는 만물이 주께 복종케 되었다고 고백한다.(시8:6) 그러나 만물이 주에게 창조되었으나(골1:16) 아직 만물이 주께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히2:8) 교회가 그리스도의 표현과 몸인 것처럼 타락한 세상속에 창조주의 형상과 질서와 표현이다. 믿음은 타락한 교회 안에서도 주의 몸을 섬기는 것처럼, 타락한 세상 안에서 창조주의 비즈니스를 발견한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만물을 주께 복종케 하시는 때까지(고전15:28)

타락한 세상 안에서 창조주의 비즈니스를 일으키는 Re-creation의 삶을 살자. 그리고 교회에서는 창조주의 신학을 회복하자.

①-19 지상명령성취와 글로벌기도운동

김석원 / 올랜도충현장로교회 담임, CCC(CRU) 국제본부



부산 고신대와 충신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충현교회 부목사로 섬겼던 김석원 목사는 Heritage College(교육학석사 및 박사), Luther Rice Seminary(목회학박사)를 나와 현재 올랜도 충현 장로 교회 담임하고 있으며 CCC(CRU) 국제 본부 소속으로 The Orlando Institute 한국부 디렉터 및 교수이며 GPS 설립자이다.

글로벌 기도운동의 실천과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적 이해와 관점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은 지상 대명령 성취를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다. 유일한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 (골4:2-6) 글로벌 기도학교(GPS)는 바른 기도신학을 세우며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그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 GPS Ministry는 바른 기도신학(Theology of Christian Prayer)이 교회와 선교단체에 활성화 되도록 도우며, 믿음의 기도 응답을 통한 바른 간증사역이 활성화 되도록 도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한 축복을 나누며 섬기는 사역이 활성화 되도록 돕기 위함이며 한사람 이상이면 사이버 글로벌 기도학교가 시작 되도록 돕기 위함이다.(마태복음 18:19-20) 글로벌 기도학교 교장은 예수님 이시고 글로벌 기도학교 교재는 성경(주기도)이고 글로벌 기도학교 학생은 우리들이다. GPS는 글로벌 시대 사이버 기도학교를 세워가는 글로벌 운동(Great Commission Global Prayer Movement)이기도 하다. 지상 최대 명령(the great commission)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 바른 금식과 기도(Fasting & Prayer)로 헌신해야 할 것이다.

①-19 성경적 예배회복과 세계선교

윤사무엘 / 감람원세계선교회 대표, NYSKC 학회장



감람원세계선교회 대표, 중앙신학대학원 대학교 구약학 교수, 연세대 및 동대학원, 장로회신학대학원, Harvard Divinity School, Boston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Cohen University,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에서 고대근동학 및, 구약을 전공, 30년간 신학교 교수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제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순교라도 각오하는 것이다. 선교의 마지막 목표는 회복이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계 21:5)께서 세계 선교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다. 세계선교의 성경적인 기초를 창 1:28에서 찾는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받은 인간이 세상을 향해 부여 받은 사명은 세 가지이다. 1) 땅에 충만하라 (생명기업, 유월절) - 그리스도인으로 충만하라. 2) 땅을 정복하라 (토지기업, 칠칠절) - 하나님의 뜻이 이땅에 임하도록 3) 땅을 다스리라 (교제기업, 장막절)

①-20 호남선교 90년 - 남장로교회의 선교적 특성

양국주 / Serving the Nations 대표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조직행동 전공, 한국기독교학생회 총연맹 회장(kscf, 1970년), 세계기독교학생연맹(wscf) 아시아 지역대표, 이스라엘 문화원장(1976-1991), 청년기독실업인회(ycbmc) 창설(1976) 및 회장, 제3세계 긴급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Serving the Nations 대표(2003)

1. 남장로회의 강점과 약점 북장로회와 남장로회 선교전략의 차이점 남부 근본주의자들의 특성과 조선 선교 현장
2. 예양협정의 전략적 효용성
3. 남장로회 선교사들의 탁월성과 한계전도전략의 특징적 사례와 적용 네비우스 전략의 적용방식 훈련

이나 헌신인가

4. 통전적 선교 모델로서의 남장로회 텍스트보다는 상황화에 대한 원칙적 실천 인카네이션 모델로서의 남장로회 선교사들의 헌신 신사참배에 대한 원칙 교수/캐나다 장로교회의 수용/북장로회의 타협

①-21 한국선교에 재조명되어야 할 선교사 다섯 분

양국주 / Serving the Nations 대표

1. 윌리엄 레이놀즈 / 2. 엘리제 쉐핑 / 3. 윌리엄 포사이트 / 4. 후로렌스 룯 / 5. 클레멘트 오웬 / 6. 올리버 에비슨

①-22 미술과 하나님 그리고 역사적 고찰속의 크리스찬 미술

김동진 / 예술선교, IL



시카고 예술대학 (School of Art Institution of Chicago), 노던 침례신학대학원 (Nor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M.Div.), 맥코믹신학대학원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박사학위)을 졸업한 김동진 선교사는 할렐루야 미술 선교회 회장, 시카고 예술대학 대학생 선교사역, 레이 국제 School 미술과 교수, 할렐루야 영광 아카데미(교회) 원장 목사, C.B.F. Denomination Korean Dept. 부회장 등의 사역을 하고 있으며 다수의 단체, 개인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빌리그래함센터 전시관 외 국내외 장소)

'인생은 짧으나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은 미술 작품인 그림 한 점을 통해서도 그린 화가들은 세상을 떠나가도 주님의 영적 합격을 받은 예술 작품은 수백년, 수천년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에,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평신도들도 미술과 하나님의 관계성과 시각적 미술에 대한 현 시대의 상황에 대한 시급한 선교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화가 많이 미흡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속에 있다. 교회안에 음악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어 활발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으나, 미술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미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 교회안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이제는 앞으로 교회안에서도 시각적인 예술가들이 활동이 매우 필요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본인은 그동안 대학생선교활동을 했고 전 미주한인사회에서 처음으로 '할렐루야 미술 선교회'를 조직하여 해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회원들을 모아서 함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빌리그래함 뮤지엄'에서 개인 전시회를 가졌고, 올해 (2012년) 다시 전시회를 가지게 된다. (이번 선교대회기간과 겹쳐서 보실 수 있음).

2. 세계를 품은 기독교인의 생활

②-1 영성이 살아야 한다

서삼정 /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



「예수믿는 맛」 시리즈로 펴낸 「영성이 살아야 예수믿는 맛이 난다」 등 그의 저서에서 보듯 서삼정 목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깊은 영성목회를 통해 지난 36년간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를 섬기면서 미국 동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시켰고 능력 있는 설교가로 세계적인 부흥집회 및 영성세미나를 인도하였고 또한 영감넘치는 시편으로 엮은 시집 「조약돌」을 세상에 선보인 아름다운 감성의 사역자다. 미주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세계복음화협의회 미주총재 등을 역임했다.

1. 인간의 영혼 (영혼의 창조, 영혼의 죽음, 영혼의 재창조)
2. 산 영혼의 영성 (영혼의 인격성, 영혼의 성품)

②-2 영성이 자라야 한다

서삼정 /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

1. 성령을 따라 살 때 자람
2. 영혼의 성품을 따라 살 때 자람
3. 경건훈련을 통해 자람 - 내적 경건훈련, 외적 경건훈련

②-3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서삼정 /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

1. 성령이 말씀하는 방법 아홉가지
2. 성령의 음성듣는 방법 다섯가지

②-4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야 한다

서삼정 /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

1. 성령의 음성과 자기의 생각 분별
2. 성령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 분별

②-5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과 성령님의 역사

고기홍 / 평강교회 담임



서울평강교회 담임인 고기홍 목사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겸임교수, 기독교 선교재단 햇불회 이사, 학교법인 햇불학원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 1) 잉태 2) 공생애 준비 3) 그리스도로 증거 받으심 4) 복음사역 5) 귀신추방과 신유 6) 부활 7) 승천

②-7 관계치유

황성주 / 꿈이 있는 교회, 사랑의 봉사단 대표



의사, 교수, 경영자, 저술가, 사진작가, 목회자로 창조적 삶을 꽃피우는 대표적 멀티 플레이어인 황성주 박사는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독일 프리덴바일러 암전문병원을 거쳤으며 자연면역요법을 한국에 최초로 도입, 수만 명의 암환자치료를 시행하는 동시에 암환자 치료식으로 개발한 '황성주생식'은 한국인의 건강한 삶에 기여를 해 왔다. 사랑의클리닉 원장, 이룸 생명과학연구원장, 국제사랑의 봉사단, 꿈의 학교, 꿈이 있는 교회 등의 사역을 통해 열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이땅에 펼치는 일에 힘쓰고 있다.

②-8 재정치유

황성주 / 꿈이 있는 교회, 사랑의 봉사단 대표

②-9 감동받아 보셨습니까?

조예환 / 갈보리교회 담임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총신대신대원과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고 1988년 이래 갈보리교회를 섬기며 장로회(합동) 부흥사회 대표회장으로 수많은 집회를 통해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복음방송국(www.jesus119.net) 대표,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해외연수원장, 크리스찬연합신문 운영이사, 한국밀알포럼대표 등의 주요사역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무료숙박시설을 운영하고 6만평의 대지에 세계선교센터를 건립중이다.

"감동 주며 삽시다" 누군가를 감동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감동받아 보셨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으로 인해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정말 후회 없을 뿌듯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은 감동케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란? 참 묘해서 냉수 한 그릇으로도 감동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금덩어리로도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감동은 아무나 끼칠 수도 없고, 아무나 경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것이 어렵고 감동을 받는 것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②-10 선교사의 언어

조예환 / 갈보리교회 담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고하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동일하게,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지 마시고,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고치거나, 바꾸어 보아야 할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 있다고 하면? 고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실패한 요인들이,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던 잘못된 언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못된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바꾸면? 우리의 인생도 바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 (마 7:24-25)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길을 막는 장애물은? 하나님도, 사람도, 환경도 아니고,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은 최대의 적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 늘 사용하고 있는, 불평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부정적인 언어라는 것입니다.

②-11 엘리야같이 기도하라!

조예환 / 갈보리교회 담임



조예환목사는 4대째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다. 1988년 갈보리교회를 개척하여 현재까지 위임목사로 24년째 시무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한(무료숙소) Mission Center를 운영하고 있으며, 6만평의 땅을 매입하여 세계선교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총신대신학대학원졸업, 인터넷복음방송국대표 www.jesus119.net, 크리스찬연합신문 운영이사 www.cupress.com, 한국밀알포럼대표,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해외연수원장,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부흥사회 28대 대표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13절 너희중에 1)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2)병든 자가 있느냐?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답이 바로 다음구절에 나와있다.

1) 믿음의 기도하라(15절) 2) 서로 기도하라(16절) 3) 간절히 기도하라(17절) 4) 다시 기도하라(18절)

②-12 아버지의 마음

이여백 /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KWMA 법인이사이며 예장합동중앙 부총회장인 이여백 목사는 선교 예찬론자다.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을 맞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 마닐라포럼의 대회장을 맡으면서도 현장에서 이름도 없이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늘 배우고 섬겨야 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이목사는 교사로의 길을 접고 대조동여의도신학, 백석대학원과,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 합동중앙편목을 거쳐 연세대와 총신선교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해왔다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Th. M)을 나왔으며 주사랑교회를 담임으로 섬기고 있다.

[롬 8:32]

②-13 예수님의 마음

이여백 /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빌 2:5]

②-14 왕 같은 제사장

이여백 /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벧전 2:9]

②-15 목회자나 선교사는 초심을 잃지 않아야 타락하지 않는다 심화보 / 은평제일교회 담임



은평제일교회 담임 1981년 7월개척 - 현재까지31년시무, 한세대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전국 개척교회 목회자 세미나 11차 인도 (8500명수료), 전국 사모세미나 3차 인도 (3000명 수료), 유럽 선교사 연합회세미나 주강사 2회(스페인 아빌라, 이태리 로마), 극동방송 창사 40주년 기념 목회자 세미나 주강사, 2012 유럽코스다 강사 /*백석대학원 강사 역임/*33개국방문 목회자세미나인도

②-16 흥해는 지금도 갈라지고 여리고는 지금도 무너진다 심화보 / 은평제일교회 담임

②-17 성경통독과 성경암송:말씀의 인격화를 위한 2대 특수훈련 - 성경통독 안성기 / 요한선교단 미주대표



안성기 목사는 본 KWMC 공동의장과 시카고한인기독교방송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시카고남서부교회 원로목사와 요한선교단 미주대표로서 지난 20여년 동안 말씀의 인격화운동을 위하여 성경통독과 성경암송 특수훈련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 (1) 성경통독의 정의
- (2) 성경통독의 유익
- (3) 성경통독의 방법
- (4) 성경통독의 훈련
- (5) 성경통독의 일정

②-18 성경통독과 성경암송:말씀의 인격화를 위한 2대 특수훈련 - 성경암송 안성기 / 요한선교단 미주대표

- (1) 성경암송의 원리 / (2) 성경암송의 유익 / (3) 성경암송의 방법 / (4) 성경암송의 훈련 (5) 성경암송의 일정

②-19 성령시대에 성도와 사역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임석순 / 한국중앙교회 담임



영국 웨일즈 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현. 한국중앙교회 담임목사, 대신 총회 신학 학장

- 1. 성령에 대한 오해
- 2. 성령의 양극단 조심
- 3. 무엇이 성령시대에 혼란케 하나?
- 4. 성령이 누구신가?
- 5.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중요한 4가지
- 6. 성령은 무엇을 통해 오시고 역사하시나?

②-20 찬송의 삶을 통한 선교 정인숙 / 한누리선교회 대표



트리니티신학대학원 교회음악학 박사, 전 총회신학교 교수, 중국선교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셨니라. (사 43:21)

성경적 상징주의로 볼 때 예배의 3가지 요소: 말씀, 기도, 찬송

- 1. 구약의 의미
- 2. 신약의 의미
- 3. 찬송의 정의에 대한 역사적 과정
- 4. 찬송의 축복

②-21 여성사역자의 영성 전담양 / 임마누엘교회/기도원



총회신학 및 신대원 졸업, 한국 호스피스 교육원 선교이사, CBS TV 강단, GOOD-TV 강단, CBS 오늘을 생각하며, FEBC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출거운 라디오 전담양의 시한수, 월간 한국시 시인 등단, 현 고양시 기독교 연합회 자문위원, 현 베들레헴 선교회 (BMW) 부이사장, 현 흥해선교회 이사, 현 임마누엘교회 담임 및 임마누엘기도원 원장

세상 사람들은 여성을 가리켜, 연약하고, 감정적이고, 남자에 비해 추진력과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여성 선교사들이 세상의 편견 때문에 사역에 많은 장애를 느끼고 있다. 또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변 환경 때문에, 자녀 교육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여성선교사의 섬세함으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남성보다 잘 극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여성의 정의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여성 사역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시기를 발견함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여성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②-22 길이막히면 로마서를 쓰라-삶이 "미션"이었던 사람: 바울 들여다보기 유승원 / 디트로이트연합장로교회 담임



양력: 디트로이트 한인 연합장로교회 담임, 나사렛 신학 대학원 대학원장 대리, 나사렛 신학대학교 신학부 교수, Duke University, Ph.D. 신약학,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Th.M., 신약학 전공, Nazarene Theological Seminary, M.Div.,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B.A.) 저서: "뒤집어 읽는 신약성서", "성경에 이런 일이: 간추린 성서개설", "넓고 큰 교회, 높고 깊은 신학: 설교를 위한 에베소서 연구", "신약성서 개론: 한국인을 위한 최신 연구", "신학 연구 50년사"역서: "신약의 도전적 비전" (리처드 헤이스 저, 2002) -- 제20회 한국기독교 출판 문화상, 해외신학부문 최우수상 수상작, 그 외 20여편의 연구논문과 50여편의 에세이 등

- 1) 사역자 바울의 삶과 영성
- 2) 그의 섬김의 신학과 삶
- 3)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의 특성

②-23 남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인도하심”

윤정용 / 아리조나템피장로교회 담임



윤정용목사 아리조나 템피장로교회 담임, 싱가포르 Biblical Graduate School of Theology(M-Div.)와 필라델피아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Th M)에서 수학했고 알라바마에 위치한 몽고메리 늘푸른장로교회를 개척했으며 현재 아리조나 템피장로교회에서 시무하고 있다. 개척교회사역을 통하여 짧은 기간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주목할 만한 성장을 경험하였고 아리조나 템피장로교회 새성전 건축을 통하여서도 이민교회에서 쉽게 볼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다. 지역전도와 세계 선교사역을 위해 열정적으로 사역에 힘쓰고 있다. 현재 KWMC 공동 총무단으로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그들의 인생가운데 있다. 좋은 일이든 나쁜일이든,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일이든, 그 모든 가운데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보면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한지 알고나면 전율이 일어날 정도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창세기의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찾아보고자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에까지 계속 진행되어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식과 이성을 초월한다. 이러한 인도하심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때로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리고 사건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정말 가까이서 세밀하게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②-24 리더십

장동일 / 후러싱제일교회 담임



Illinois 주립대학(경제학),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MDiv), Drew University(목회학 박사), 중남미 선교이사, 웨슬리 신학대학 해외담당교수, KCTS 기독교방송 이사, 현 후러싱 제일교회 담임목사

21세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Illinois 주립대학을 졸업했고, 달라스에 있는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뉴저지에 있는 Drew University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순교자의 손자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사업을 하던 중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지금까지 1세와 2세와의 다리역할을 감당하며, 지역과 성도들을 섬기며, 영혼을 살리는 복음전파를 위해 “오직 예수”를 외치며 열방을 향해 힘 있게 달려가는, 지금은 미주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이며, 200년의 전통을 가진 후러싱 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이상적인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며 어떤 소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에 임해야 되는지를 숫자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와, 선교사와, 영적지도자들을 쓰러뜨리려고 매일 같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탄과의 영적전쟁에서 쉽게 좌절되고 탈진되다가 자칫 잘못하면 사역도 포기할 수 있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미 걷기 시작한 이 영광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감격하며 그 소명 하나를 붙잡고, 그러나 이왕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십에 대하여. 더 많은 영혼을 얻는 지도력에 대하여, 감사 자신은 어떤 신조를 갖고 목회를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정보와 함께 큰 도전적인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②-25 바보목회

장동일 / 후러싱제일교회 담임



Illinois 주립대학(경제학),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MDiv), Drew University(목회학 박사), 중남미 선교이사, 웨슬리 신학대학 해외담당교수, KCTS 기독교방송 이사, 현 후러싱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 땅에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애도하며 조문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바보가 아니라 인생을 정말 잘 산 지혜로운 분들이었음을 새삼 느낍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인생의 업적과 함께 인생의 방향까지 제시했다는 점이고,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함이 있었다는 것이며, 누구보다 더 고행과 고난의 여정을 지낸 분들인데 그들 안에는 뭘지는 모르지만 여유와 평화가 있었고, 높은 자리나 넓은 땅이나 많은 소유를 전혀 탐내지 않았으며, 그저 작은 것과 작은 자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살았고, 자연을 즐기며, 걱정근심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 뿐인 인생이고, 어차피 때가 되면 갈 인생인데 이왕이면 도와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마음을 비우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보의 자리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섬기는 머슴의 자리로 내려가자는 심정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땅에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증가한다면 이 세상은 점점 밝아질 것이고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은 희망을 노래할 것임을 알기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바보들의 행진에 동참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②-26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김성택 / 클리브랜드한인중앙장로교회 담임



고려대학교 식품공학, 동 대학원 미생물을 나와 석사 장교로 군복무, 제일 제당 연구소 연구원이었던 김성택 목사는 총신 대학원(합동) M.Div,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신약학 Th.M 수료하고 Boston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예배학 전공 / 신약을 부전공으로 박사과정 수료하였다. 뉴햄프셔 해노버의 레바논 한인 장로 교회를 개척하였고 LA 라성 빌라델비아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며 EM 사역과, 국제 기독교대학교 - 개혁 신학대학원에서 초대교회 예배와 신학 해석학 강의를 하였고 유타주 솔트레이크 유타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와 Salt Lake Police Department에서 경목으로 사역하였고 20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한인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②-27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김성택 / 클리브랜드한인중앙장로교회 담임

②-28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

김호용 /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



1.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감 (히4)
2. 하나님께 드림
3. 받음(Blessing)
4. 친교 (Fellowship) (요한 1서)
5. 세상으로 나아감

②-29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김동윤 / 공인회계사, 크리스천재정전문가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영스타운 주립 대학원에서 경영학 및 회계학 (MBA)을 전공했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신약신학을 공부하였다. “선한 청지기의 경제회복 이야기”, “성경적 부자 되기”, “부자를 꿈꾸는 청지기”,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등의 저서가 있으며 시카고에서 공인회계사, 크리스천 재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 1: 물량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면서 돈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분석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제원리가 신약과 구약에 어떻게 계시되었는지, 사도 바울의 물질관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 2: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지는 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동기와 목 적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하는지 알아본다.

- 3: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은 청지기의 중요한 직무이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선교와 구제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 4: 크리스천들 역시 돈에 대한 염려와 걱정, 돈으로 인한 갈등 등 돈 문제로 인한 어려움 이나 실패를 딛고 일어나 참 자유 함을 얻을 수 있는지 그 현실적 방법을 살펴본다.

②-30 제2의 종교개혁운동

김동진 / 수림교회 담임



학력: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졸업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수료 총회 목회대학원 졸업 Biblical Graduate School 목회학박사 Evangel Christian University 철학박사 생명의 전화 상담원(24년) 선교신학교 교수 요한선교단대표 우성재단 이사 수림교회 당회장

1. 스코틀랜드 존나스 기념교회에서 받은 감동과 사명
2. 현 시대 종교 개혁 운동의 방법과 가능성
3. 한눈으로 보는 성경

②-31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과 사역

박광재 / 성경의거룩한제비뽑기 사역원장



박광재목사는 대한신학교, 총신대학신학대학원, 미주총신대학대학원(D.D)을 졸업하고 44년 전 성경속에서 재발견한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과 선거제도를 개인의 삶과 목회사역과 교단정치와 선교사역의 현장에 적용하므로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왕권이 직접 행사되는 신본, 신주, 신정정치를 회복하고 세속화된 교회와 총회와 국가를 거룩한 교회와 총회와 국가로 개혁하는 '왕같은 제사장 사역과 평화의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원장.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연구소장.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과 선거제도 실천운동 본부장. 교회와 국가의 선거제도 개혁운동 본부장. 총회세계선교회(GMS) 이사. 기독교신문이사. 미합중국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된 The Holy Lot Mission, U.S.A (HLM)이사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제94회 총회 규칙부장 역임 현재 남평양노회 노회장 및 영광교회를 33년 간 담임목회 하고 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긴장과 갈등과 분쟁과 분열을 어떻게 종식시키며 화해와 일치와 연합을 이루며 평화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성부 하나님과 우리구주 예수그리스도의 소원은 인류가 하나되기를 원하신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한다고 하였고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성부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고 하나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 주셨고(롬3:25) 하나되기를 힘쓰라고 성령을 보내 주셨다.(엡4:3) 우리 구주 예수그리스도께서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드리셨는데 “우리가 하나됨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하여 달라”(요한17:11,21,22,23)고 4번씩이나 거듭하여 기도하셨다. 그러나 악한 마귀 사탄의 사명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비롯한 선교공동체로하여금 분쟁과 분열을 이르켜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갈기 갈기 찢어 놓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흉악한 궤계를 능히 파하고 마귀로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는 화해와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평화의 사역을 이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 "제비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잠 18:18)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삶과 사역속에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를 적용하면 가능하다.

②-32 신앙(목회)침체를 어떻게 극복하였나?

남궁전 / 아틀란타베다니교회 담임



아틀란타 베다니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하고 있는 남궁전 목사는 베다니교회(NY) 부교역자, 빌워키 한국인 제일 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였고 애틀란타 성경대학 학장, 애틀란타 비라카미 선교회 회장, 애틀란타 인터콕 지도 목사, 디딤돌 홈레스 선교 부이사장, 군선교회 애틀란타 지부 부지회장, 한국 순교자 선교회 중남미 선교회 총무를 역임하고 있다.

- 1)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
 - 2) 목회를 그만 두고만 싶다
 - 3) 성도들을 만나기가 두렵다
 - 4) 예배의 감격이 없다
 - 5) 기도가 겉돌고 지루하다
 - 6) 사고치고 병원에 입원하고 싶다
 - 7) 의욕이 없을 뿐더러 계속하다가 꼭 죽을 지경이다
 - 8) 목회의 변호와 교회의 성장이 없어 담담해 죽을 지경이다
 - 9) 다른 사람이 교회를 담당하면 나올텐데...
 - 10) 한밤중에 식은 땀을 흘리고 일어나 설교해야 한다고 걱정만 하고 있다
- * 위의 증상중 하나라도 있다면 목회 침체의 증후이다. 치료받고 극복해야 한다.

㉔-33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만 들어야 하는 말씀과 기도

명치호 / 달라스영락장로교회 담임



명치호 목사는 University of Maryland와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M.Div)를 나와 현재 달라스영락교회에서 담임목회자로 섬기고 있다.

강의를 들은 후에 보통 보면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이 질문한다. 왜냐하면 신앙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 부분이지만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강의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하신 목사님 사모님들도 와서 질문을 하는 것을 많이 본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삶에 적용하면 신앙인의 생활의 방향이 달라지고 밝아집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의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㉔-34 부부갈등을 이렇게 하면 예방할 수 있다

박태동 / 예수아대학 상담대학원 전문교수



예수아대학교 상담대학원 전문 교수인 박태동 교수는 필라 안디옥 교회에서 장로장립을 받고 상담사로서 사역하고 있다.

1. 부부란 - 1) 부부의 개념, 2) 부부의 조건, 3) 기독교인의 부부관
2. 갈등이란 - 1) 갈등의 개념, 2) 갈등의 요인, 3) 갈등을 유발시키는 불청객 권태기
3. 갈등의 예방책 - 1) 언어를 개선한다, 2) 대화를 개선한다, 3) 행동을 개선한다, 4)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 5) 권태기를 예방한다
4. 기타

㉔-35 예수 치유와 건강

배성호 / 한미의료선교회(KAMHC) 이사



197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74년 7월 도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인턴.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토마스 제퍼슨. 의과대학에서 Neurology 레지던트와 신경생리학(뇌파와 심근도) Fellowship. 1979-1980미신경과학 전문의와 신경생리Board 획득. 1980년- 현재: 델라웨어주 신경과 전문의. 필라델피아 토마스제퍼슨 의과대학 신경과학 임상교수. 1992-2000년 풀타임으로 신경과전문의의 일을 하면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Eastern Baptist Seminary에서 신학을 공부함. 미국 연합감리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재까지 델라웨어주 한인 감리교회의 부목사로 자원봉사하고 있음. 워싱턴 DC에 있는 웨슬리 신학대학의 파트터 외래 교수로, 세계 미션 지역(중국, 볼리비아, 도미니카, 아이티, 아마존 등)의 지역 지도자/교역자들에게 전인치유와 건강에 대해 교육 / 지도함. 특히 2010년 1월 아이티의 대지진 후, 올해 6월 현재로 3차례에 걸쳐 아이티 수도 포토프린스의 극빈민지역 '씨티솔레이'의 지역 지도자/교역자들을 교육하며, 우물 파는 것을 후원 협조함. 2009년 3월 부터 지금까지 JAMA (Jesus Awakening Movement of America/All Nations)의 치유사역의

national director로서 전국적으로 여러JAMA 컨퍼런스에서 세미나와 집회를 하고있음. 또한 .GLDI (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의 정규 강사로서 미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유력한 리더들을 배출하고 키우는 교육에 참가하고 있음. 미국 한미의료선교회(KAMHC: Korean American Mission Health Council)의 이사로 의료선교 정보 교환과 교육 보급을 도우고 있음.

이 때까지 항간에서 여러가지로 말해 온 치유와 건강 문제를 총 정리하고 성서적 견지에서 현대인이 알아 지켜야 할 치유의 내용과 건강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면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하나님께서 정녕 원하시는 치유와 건강이 무엇이며. 온전한 치유와 건강이 왜 '대 의사'이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를 설명한다.

하나님으로 부터 온전한 치유를 얻으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특히 실제 의료 임상 실례와 성서적 배경을 가지고 설명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실제적 방법을 보여준다. 바울의 '육체 가시' (고후 12:6,7) 로 표현되는 여러 고질적 질환과 만성적 고통을 지니고 있는 상태와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택하여 할 투병 태도와 각종 치유자들의 치료 자세를 실제 임상 실례를 들어가며 밝힌다.

하나님이 정녕 기뻐하시는 현대인의 건강 관리의 내용과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최신 신경과학의 데이터를 적용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두뇌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동할 것인가를 강의한다. 실제적인 건강 관리법인 '건강 칠도 健康七道'를 밝히 알려면서, 아울러 치매 발병이 날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즈음에 성서 신경학적인 면에서 치매를 살펴 보고, 치매를 방지하고 지연시킬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한다.

㉔-36 성경적 상담 - 내 마음을 읽는 여섯 개의 창

이응도 / 필라델피아초대교회 담임



가정 상담 연구원장, Philadelphia Korean Women's Center 상담 Director, 부산대학교 영문학과, 고려신학대학원,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기독교 상담학 석사,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목회상담학 박사 과정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들과 그 뿌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여섯개의 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 고자 합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인물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이야기를 Case Study하면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를 설명하거나 우리가 만든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㉔-37 바울서신에 나타난 중보기도

한복음 / M국 선교사

우주적인 교회관을 소유한 에베소교회를 상고함으로 영적전투에 부름받은 교회론을 살펴보고 바울서신에 근거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후서에 나타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접목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바울서신에 나타난 중보기도를 가지고 주님의 보좌앞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며 중국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중보기도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것 들을 목도함으로 진정한 중보기도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새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중보자된 우리가 그의 공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위해 보좌앞에 나아가도록 한다.

또한 목회서신을 통하여 각 사역 현장에서 목양하는주의 동역자들을 위한 사도바울의 기도의 요청들을 살피고.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중보기도로 통해 이 땅의 복음전파가 성령의 역사로 부흥되고, 수 많은 각 사역지에서 수고하는 중들을 중보기도로 함께 동역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중보기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자 한다.

㉔-38 진짜 부자들을 가덕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이성수 / 가덕교회 담임



고신대학교졸업. 고신대학원 신학과 졸업. 가덕교회 담임목사

교회의 크기를 알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선교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선교를 할수 있을만큼의 재정과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는 재정과 사람이 없어도 선교를 할수 있습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은 세계를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원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가덕교회는 선교사마을, 선교사타운, 전세계선교사마을네트워크를 꿈꾸고 있습니다. 재정이 되는냐고 묻지 마십시오. 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묻지 마십시오. 교회냐고 물어셔야 합니다. 가덕교회는 교회입니다.

이번 한인세계선교대회에서 저는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역할의 관점에서 선교를 말하려 합니다.

㉔-39 한동대학교 특성화 교육과정안

이동영 / 한동대학교



2003년 한동대학교 생명식품과학부 졸업
2012년 일리노이주립대학교 시카고 의공학 박사

3. 한인세계선교, 북한선교, 한인디아스포라선교 동력역화

㉔-1 한국교회 선교의 반성과 전망

김만우 / KWMC 공동의장



KWMC 공동의장이며 중동선교사협의, 미주중동선교후원회, 인터넷복음방송의 고문으로 있는 김만우 목사는 Christian Times 주필, 재미SFC 자문위원, SFC India director, 한국고신 순회선교사이다. 필라델피아 원로목사회 회장 및 Coram Deo Foundation 이사장으로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 원로 목사로 전세계를 순회하며 왕성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그 이전에도 여러 방면으로 외국 선교사들이 왕래했지만, 장감선교사가 한국인이 번역한 한글성경을 지참하고 함께 한국 땅을 밟은 1884년을 개신교 선교의 원년으로 잡는 것이 통설인 것 같다. 1907년 대부흥 운동, 장로교독노회 조직, 최초로 선교사파송을 결의한 때를 잡는다면, 한국교회 선교역사는 105년이 고, 6.25 후로 잡는다면 60년이요, 경제성장하면서 본격적인 선교사파송을 기준 삼는다면, 대개 50여년이 된다. 지난 60 년을 되돌아 보면, 한국교회가 파송한 해외선교사들이 10여명도 안되던 때부터, 1988년 KWMC 발족당시 3 천여명에서, 2만여명을 능가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발전해 왔다. 이제는 한국선교를 되돌아 보아 반성하고, 앞으로의 60여년을 전망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나 이 작업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선교학자들, 역사신학자들, 선교사파송을 담당하는 일선 교회 목회자들, 파송기관들, 선교일선에서 투신해 온 원로선교사들의 종합된 평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문제제기로서 시도함은, 세계 선교사 파송 2위국이라는 위상과, 앞으로 세계선교의 큰 책임성이 통일 후 한국교회에 주어짐을 믿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이 문제에 접근할 때는, 좁은 시야와 각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지식의 일관함과, 연구의 한계성으로, 극히 주관적인 것임을 말해 둔다.

선교의 이야기는 주님 재림해 오실 때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칠 수 없는 주제요,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영혼구원의 생명운동, 하나님나라 건설운동, 성경의 예언과 약속을 이뤄가는 진리파수운동, 성도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존재이유요, 영적 전투의 현실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뜻대로, 성경에 기초를 둔 선교의 전략수립과 시행은, 세계선교1위국을 꿈꾸는 한국교회가,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 주권역사와 섭리에 참여하며, 감사하면서 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동시에, 영광의 면류관이다. 한 작은 시도가, 이런 논의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㉔-2 요셉운동과 청소년선교 (창 29:1-6)

나광삼 / 큰무리교회 담임, 21세기 요셉운동 대표



이민목회 30여년의 광야길에서 큰무리교회의 위대한 성장을 일궈낸 나광삼 목사는 한국과 북미주를 점철하는 연중 25회 이상의 부흥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또한 「21세기 요셉운동」을 창설, 청소년 신앙부흥운동을 10여년 넘게 전개하며 애굽의 이질문명 속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세상과 자신을 극복했던 요셉을 본받아 주 안에서 강한 자아각성과 신앙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이민사역을 펼치고 있다. 워싱턴개혁장로회 신학교 이사장으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 일꾼들인 청소년들, 소중한 우리자녀들. 특히 이민생활하는 우리들의 청소년 자녀들은 한국식 가정교육과 미국식 학교교육과 다민족 친구들 속에서 혼란스럽고 흔들리기 쉬운 정체성, 부모세대와 말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과 가치관의 이질은.....나의 자녀라도 선교대상으로 규정해야한다. 열일곱살에 이민으로 출발하여 정상에 오른 요셉, 뚜렷한 꿈을 가지고 믿음도 혼란도 오해도 고난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형통한 우리의 요셉으로 키우는 선교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㉓-3 차세대 지도력 계발 '어깨동무사역원'의 사역모델

이승중 / 샌디에고예수마음교회 담임



이민교회의 정체성을 선교적 시각으로 통찰, 5천년 민족사에 세계선교의 여울목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분복이라 믿는 그는 사역보다 먼저 사람이라는 고백을 품고 이민교회 차세대 인물양성을 위한「어깨동무사역원」을 설립, 7백만 한인디아스포라의 청년동원에 힘쓰며 몽골국제대학교(MIU) 대표이사, '아름다운 운동주', 노스필드파운데이션, GMIT & Pan Pacific Film Festival 대표, KCNK(북한을위한 한국교회연대) 이사장등으로 활약하며 목양심서, 선비크리스찬, 글로벌퍼펙티브 등의 저서가 있다.

1. 한국교회 차세대의 정체성 확인과 양육내역
2. 민족학당과 예수학당의 콘텐츠 소개
3. 7백만 한인 디아스포라 차세대 네트워크 방안

㉓-4 이민한인교회의 선교전략

김혜택 / 뉴욕총신장로교회 담임, GKYM 대표



타문화권경험, 탁월한 언어능력, 개방된 세계화의식등 가장효율적인 선교자원으로 동원이 가능한 7백만 한민족디아스포라의 선교동력화를 목표로 GKYM운동을 주도하는 그는 미동부지역의 3천여 청년대학생이 동원된 GKYM Fest Rochester를 매년 연말에 개최하며 역사적인 SVM 대학생 해외선교자원운동의 부활을 열망하고 있다. 교회의 역량을 선교에 전력투구하는 총체적 선교목회의 불타는 열정으로 매년 5백명의 단기선교팀을 훈련시켜 중앙아시아등지에 파송, 수많은 교회개척활동도 펼치고 있다.

㉓-5 한국과 세계상황진단, 미래선교

성수교회 김재규



안양대학교신대원, Columbia International University, missiology(M.A과정), NeuYork Theological Seminary(D. Min). Fuller 선교학 특강 수학. 성수장로교회 정년후 (38년). 선교담당(현), 예장(대신) 중경총회장. (현) 월드비전 운영위원, 직전 서울시 연합회 회장. AFC선교회, TWR선교회, 중경이사장. KWMA 운영이사. (현)안양대학교 신대원 초빙교수. 뉴욕신대원 Visiting Professor.

I. 세계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의 현 상황과 그리고 그 진단을 통한 미래선교의 방향설정을 하고, 특히 한국교회를 통한 미래선교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코저 한다. 본 과제는 전문 선교 단체의 최근 선교역사의 평가는 물론, 글로벌트렌드, 유엔미래보고서, 10년후의 부의 미래, 동북아 미래의 진단 및 미래, 한국 경제의 선택, 이슬람 연구 서적, 세계경제와 중국, 현재의 트렌드 키워드를 비롯하여 신학

실증, 미래의 선교신학, 신의 미래, 일간지 매체의 전문 칼럼의 분석과 성경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진단을 통하여 그 주제들을 해설하고 예단하였다.

II. 세계의 상황

1. 세계의 정치, 경제, 종교 및 문화상황

1) 1908년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식 투자은행(I.B)의 몰락이 세계 금융 공황 출발점. 세계는 경제 불복화 NAFTA(북미 자유 무역 협정),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SEM(아시아, 유럽정상회담), G7(선진 7개국)에서 G2(미, 중)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신흥 경제 대국이 2027년에는 G7 합계 넘어 선다. 아시아는 1995년부터 서구, 북미 무역 총액을 넘었다. G20시대(G7의 확대)에 한국이 G20 의장국이 되었음은 아시아권 및 한국 경제, 지도에도 새 지평이다.

2) 미 소 양대 세력과 소련 붕괴 후 거대 미국 중심에서 이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슬람권의 대두, 특히 이란 핵 개발은 북한과 연관되고, 이란 핵개발은 이슬람 전체가 위협을 느끼는 이스라엘의 핵보유 240기와 미국의 대 이스라엘 협력, EU의 미국협력(핵 제재 동참)과 중, 소가 대립하는 복잡한 양상이다.

3) 중국은 AFRICA의 자원개발권을 다량확보했고, 동북아(한, 중, 일)의 중심권이며, 축이다. 무인 우주선 개발에서 유인 우주선으로, 우주 정거장 도킹과 세계의 공장화로 기술력이 높아졌다. 대만이 미국의 첨단 무기 수입에 초정밀 무기 개발을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동북 공정으로 역사왜곡, 통일 후 북한 흡수의 계획이 보인다. 한국의 무역상대와 협력은 제일 높은 긴밀 관계로 나갈 수 밖에 없다.

유라시아 철도의 꿈은 현실화 되어가고 미래학자 존나이스 비트의 말대로 21세기 메가 트렌드의 하나는 아시아 시대 도래와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서양에서 아시아로 이동된다 함이다. 남아선호 사상으로 중국은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중국은 최근 EU의 위기와 세계은행의 부실화와 질서에 450억\$을 내 놓았다. 중국이 2025년이 되면 인구 노령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4) 세계는 이미 글로벌화 되었다. 정보통신의 질주는 베리트(전자칩)내장으로 기계에 속화 내지 악으로 사용되면 걸잡을 수 없는 사탄의 전략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자매체의 조종은 경제 뿐 아니라 사회까지 나비효과(나비 날개 짓이 태풍으로)을 일으키는 카오스 이론이 사실화 되고 있다.(1961. 로렌츠 기상관측서 인용된 나비효과). 프리메이션의 악영향을 선교적 차원에서 깊이 검토해야 할 단계이다.

5) 새뮤얼 헌팅턴(교수...하바드, 작고)은 그의 책 "문명의 충돌"에서 이슬람과 기독교에 대한 분석에서 지구촌에서 기독교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그 자리를 이슬람이 차지하리라 확인했다. 이슬람은 영국과 유럽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개종으로 불어나고 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30년 동안 영국교회는 5천개가 문을 닫았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도 800만 이상의 무슬림이 산다. 한국도 2009년 기준 국내 무슬림 인구는 20만명으로 추산된다. 결혼, 스쿠크(이슬람 금융)의 법제화를 계속 노리고 있다. 풍부한 산유국 자원과, 모스크(사원) 설립을 꾸준히 하고 있다. 2020년까지 한국 공략에 최선을 다하고 공략 거점을 정하고 있다. 「예수만 구주」 등식을 훼손하는 세력이자, 선교 대상이다. 새뮤얼 교수의 기독교 소멸과 이슬람 발흥은(2020까지) 빚나갔다. 무슬림 증가 이상으로 기독교신자의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개종적 회심자가 폭발적 증가함을 간과 했다. 오순절 복음주의적 교회의 증가는 선교의 방향이 복음적 계시중심의 핵심을 놓치지 않음으로 기복, 신비주의, 혼합주의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을 일깨운다.

6) 튀니지 시민혁명으로 북아프리카와 아랍권 민주화로 이어지는 제스민 혁명은 특히 이슬람 국가들에서 맹위를 떨쳤고 그 결과는 진정한 민주화보다 이익 집단의 권력 쟁탈전으로 이어졌다. 시민의 승리가 된 곳에도 모슬렘 형제단이니 과격 이슬람 정권이 세워지는 악순환과 국제적 이해관계도 상존하는 형태로 남고 있다(시리아).

7) 지구촌의 문제점은 지구자원은 앞으로 40년이면 고갈된다는 입장이다. 포퓰리즘적 과다 복지 정책으로 촉발된 신용화폐 증발로 EU의 붕괴가 보이고 부분별한 개발로 탄소 대량 배출, 그로 인한 자연파괴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각종 재해의 발생, 열 역학적 생명성 붕괴, 과다 지하수 개발로 물부족 현상, 그 심각성 에이즈의 확산, 특히 아프리카 빈곤층, 소돔 고모라적 동성애, 동성 결혼의 확산과, 그것을 대중매체에서 보편적으로 취급하는 경향과 미국 대통령의 표심 얻기 위한 지지 발언과 동성애자를 교계 성직자까지 허용하는 교단이 있어 심히 두렵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재앙을 재촉하는 결과뿐이다. 카톨릭에서도 교황청, 신앙교리성(CDF)에서는 미국 수녀의 80%가 가입한 미국 성모 동정회 소속 예일 신대원 명예교수 마거릿 필라의 책; “오직 사랑, 기독교적 성윤리의 틀”에서 여성자위행위,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 안 일으키니 그들 행동 존중해야 한다는 핵심 내용은 카톨릭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 “못막고 전면 검거 지시를 한 바 있다. 자연재해나 지구촌 기상적 고난은 창1:28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명령을 어긴 죄 때문이다. 선교분야에서 이 부분의 사명을 수행 못 한 죄를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인간의 위탁받은 청지기적 실제적 과업을 전달 되어 할 교회적 사명이 있다.

2. 한국적 상황

- 1) 남북 분단 상황과 주한 이데올로기의 대립화이다. 핵위협 장거리미사일, 북의 고난받는 10만 성도와의 영적 연대(선교)가 될 수 있다.
- 2) 20-50가입, 곧 국민소득 2만불, 5천만 인구시대로 접어든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었으나 계층간 갈등과 세대간, 진보 보수간, 종교간, 지역 간 갈등요소가 많다.
- 3) 200만의 다민족이 한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곧 문화, 종족, 종교 및 경제생활 문제가 빈번하고 탈북자의 많은 수가 함께 공존하는 다민족, 다문화 체제가 되었다. 2020년에 외국인 5백만 시대가 온다.
- 4) 대표적 선교운동인 신사도 개혁주의 운동이다. 사도행전적 사도은사는 미완이었으므로 사도적 계승을 부르짖고 있다. 이는 산업화에 편승, 휴대폰, 태블릿, 피시 등과 같은 전자교회의 허용과 활용이며 기존 교회를 은사 중심으로, 성령의 상품화, 이분법적 대립(기독교, 타종교)화 하고, 사회복음보다 지나친 치유과 기적을 강조하고 계속 은사론을 이야기 함으로써 기복적, 혼합주의적 혼동이 일어나고 선교 현장에 접목될 때 우선 양적 팽창은 되나 기본적 혼합적 양식으로 되는 세속화와 정체성 없는 기독교회가 되는 것이다. 오직 복음이 생명이고 그 방법은 상황화(Contextualization)의 뜻이다.
- 5) 저출산과 결혼적령기 후퇴, 고령화 사회화로(인구의 14%-20%이상) 주일(교회)학교 붕괴와, 장차 수 많은 고교, 대학들이 문 닫고 급속도로 노인 중심의 서구 교회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계청 자료에는 60년대 출산율 6명 대상, 8,80년대 4.53-1.56명, 90년대 1.57-1.41명, 2000년 이후 1.47-1.24명, 현 1.08로 세계 최저이다.
- 6) 6만 전교조의 악 영향으로 역사관이 바로 못서고 학생들은 나라, 민족의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있다.
- 7) 기독교 악플의 영향으로 기독교신자(개신)감소, 불교 및 카톨릭 신자 증가, 및 극성 이단(예, 신천지)들의 적극 공세 가중, 혼란 부추김. 기독교는 보편적으로 별로다 라는 인식으로 선교(국내) 지장 초래.

III. 한국 선교의 대안

1. 한국의 선교와의 관련, 긍정적인 면

IMF 때 해외 선교의 위축과 대대적 선교사 귀국이 있는 것은 자국의 경제와 선교의 함수관계를 보여준다. KWMA의 한국선교의 세계비전 2020, 2030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른 설계이다. 외부적 요소와 섭리로 볼 때 88올림픽, 2002월드컵, G20의 리더, 20-50의 가입(세계 7번째), 2011년말 무역 1조 달러국, IT 세계강국, K-POP(한국문화알림),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가 우연인가? 세계 경제 연구소들의 전망으로 2030년도쯤에는 한국이 세계 경제 1, 2위국이 되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백만전문인, 10만 선교사 비전은 역사의 함께 펼쳐는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궤를 같이 한다.

2. 한국선교의 대안적 방향

- 1) 정의로운 경제가 되도록 기독교실업인의 리더자 세움과 리더 필요
- 2) 선교에 있어(창1:28) 문화명령의 수행자로서의 교육, 실천필요
- 3) 기독교의 생명운동(저출산, 고령화)의 적극참여와 제시
- 4) 외국인 이주민(특히 중국동포), 한국 거주민의 복음화와 선교사 훈련
- 5) 통일대비 선교자원 확보
- 6) 디아스포라 7백만 및 교회의 선교사적 역할점검 확대
- 7) 신학대, 교회의 선교학 강화와, 오직 선교(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동일체 의식의 강화(목회자 훈련)…교회론.
- 8) 중국의 1억5천만 성도가 2020년에 2억이 된다는 예단 하에, 중국의 교회지도자, 선교사 훈련의 관건…세계의 교계 리더가 중국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예견이다.(구체적 플랜이 절실하다) 전세계에 흩어진 중국계의 학적, 물적, 영적, 자원역시 거대하다.
- 9) 세계선교에 있어 순수 복음의 전달을 위한 context의 방법론의 강화와 교회론적 전방개혁의 지속성은 생명이며(교회론적 영혼구원) 동시에 NGO(예; 월드비전, 컨페션들과의 협력 모색으로 사회주의 및 이슬람권을 향한 인권, 생명보전, 환경개선, 실질적 물질도움, 의료, 교육 등을 통한 통전적 선교(Holistic)의 병행으로 하나님 나라 이름이 절실하고 필수이다.
- 10) 한국이 세계선교의 주도가 될 수밖에 없도록 선교한국을 통한 자원(청년, 대학, 중고생까지)화의 적극성이 중요하다.

㉓-6 한국형선교개발

남후수 / Evangelia University 선교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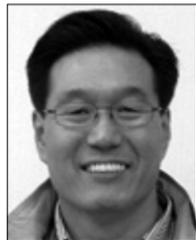
1987년 선교사로 파송받은 남후수 박사는 예장(고신) 미주선교사로(KPM-USA), Evangelia University 선교학 교수로 현재 사역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주님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부터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걸음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한국교회를 구하여 주님 재림때까지 살아남으면서 세계선교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자녀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수해야 한다. 오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면 내일 누가 이방선교사로 나갈 것인가? 자녀들을 제자로 삼아 말씀을 전수하는 수직선교를 먼저 해야 한다. 그래야 이웃민족을 위한 수평선교도 가능하다. 수직선교 없이는 수평선교도 없다.

자녀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수할 수 있는가? 자녀들을 말씀의 제자로 삼는 방법은 구약에 있다. 창 18:19과 신 6:49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다. 이 말씀은 구약의 지상명령이며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신약교회 2,000년 역사를 되풀이하다가 그들처럼 망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한국교회는 수직선교를 회복하여 수평선교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형 선교이다.

㉓-7 신흥선교국가들의 모델이 된 한국선교

백운영 / GP 선교회 미주 대표



GP 선교회 미주 대표인 백운영 선교사는 홀러 신학교 객원 교수이며 로잔 디아스포라 분과 위원으로 사역하고 있다.

오늘의 선교는 더이상 서구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서 선교사가 나오고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신흥 선교 국가들이 서구교회를 모델로 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사명이 크다. 서구 선교는 역사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귀한 것이 여전히 있지만 신흥 선교국가의 교회가 불태는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역사가 길며 선교단체의 시작된 환경과 문화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시아의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선교단체가 생겨나면서 한국선교에 선교 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선교가 가지고 있는 조직은 크지는 않지만

효율적으로 선교지에서 일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기도와 영성이 여전히 강한 "한국형 선교"는 신흥 선교 국가 교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자신들보다 5-6 걸음 앞서가는 한국 선교를 벤치마킹 하면서 장점 뿐 아니라 한국 선교가 가지고 있는 시행착오 조차도 그들에게는 좋은 배움의 장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에게 주신 겸손하게 나누라고 주신 기회요 책임이다. 향후 10년동안 겸손하게 타국가 교회들의 선교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㉓-8 한류문화사역을 통한 세계선교

조효성 / KWJM 대표



이제, 한류입니다. 전 세계는 한류라는 폭풍을 맞았습니다. 한류와 K-pop이라는 미션로드를 통해 전 세계의 청소년과 젊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한류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K-pop의 한류로드위에 한국의 크리스찬 음악 즉, K-ccm (Korean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것입니다. K-pop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K-ccm의 찬양사역자들을 통하여...그들의 노래와 춤, 그리고 퍼포먼스를 이용하여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는 문화적 복음 선교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 한류 문화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선교지와 함께 준비해 나갈지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㉓-9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와 디아스포라 사역

하광민 /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성균관대 (B. A.), 총신신대원(M. Div.), Gordon-Conwell 신학교 성경신학(Th. M.), Southern Baptist 신학교 선교학(Ph. D.), 전) NIM(북한내륙선교회) 대표, 현) 사랑의교회 북한사랑의선교부 담당, 현)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사무총장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2011년 3월 3일부터 31개 통일선교단체가 함께 연합하여 시작된 통일기도운동이다. 2012년 7월 현재 46개 통일단체로 참여단체가 늘어났고, 모체인 서울강남모임을 비롯하여 고양 파주, 춘천, 통영, 서울강북, 부산, 경인, 대구, 대전, 제주 이상 10개의 지역모임으로 확산되었다.

주빌리는 히브리어 'גבו' (요벨)을 음역한 것으로 우리말로는 '회년'이다. 일곱 번의 안식년(7년)이 지나고 50번째 해가 되면 요벨 나팔을 불며 회년을 선포한다. 물질의 세계인 땅에 심취하여 살아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년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시 맞추는(Reset) 시간인 것이다.

주빌리가 통일선교사역의 키워드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기독교인의 포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이든 북한이든 마찬가지다. 포기를 통해 통일을 성취하게 되면 오랜 세월 묵혀 있었던 민족적 차원의 문제들이 씻은 듯이 해결 될 것이다. 진정한 포기는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성경적 통일은 주빌리 정신으로 이루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에 한인 디아스포라가 함께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복음적 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 이념의 논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전 세계의 한인사회에 퍼져나갈 때, 우리부터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룰 것이며, 이것은 복음 통일을 이루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㉓-10 통일 코리아를 위한 전세계적인 중보기도 네트워크 구축 오성훈 /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Ph. D.), "북한선교를 위한 인식적·실천적 차원의 콘비벤츠에 관한 대안적 연구", 월간 큐티 진 <통일코리아> 발행인 겸 편집인,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네트 (PN4N) 대표, (주)포앤박스 대표이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사무처장

현재 한반도는 해방 이후 67년 동안 허리가 잘려진 채 전 세계 마지막 분단국으로 남겨져 있다. 이스라엘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세계선교를 완성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사 용하실 마지막 주자로 한민족을 사용하실 것이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분단코리아로 남겨질 것인가? 아니면 통일코리아로 나아갈 것인가? 지금 우리 조국은 바로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남북이 복음 통일을 이룬다면, 선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교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선교는 영적 전쟁의 최일선이다. 중보기도를 통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서 선교현장에서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다. 피선교지로서의 북한은 국가 전체가 개인승배 사상으로 가득 차있으며, 전통적인 선교사 파송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역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한중보기도는 모든 통일선교사역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사역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다. 특히 전 세계에 안가 있는 곳이 없다는 한인디아스포라를 영적으로 연결하는 전 세계적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파와 교단 그리고 단체를 뛰어넘는 연합을 하게 된다면 통일코리아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㉓-11 연변, 평양과기대의 현황과 미래

고동훈 / 고희희 연변/평양과기대



고동훈 평양과기대 교무처장, ALS 교수 (2010-현재); 연변과기대 생물화학 교수 (2007-2010); Southeastern, MDiv (2004-07); Florida A&M Univ Research Associate & Adjunct Professor (1995-2004), Florida State Univ, PhD (1997); 고려대 화학과 학사 및 석사 (1983, 1985).



고희희 남조선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학사 (1983),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 전산학과 석사 (1992),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컴퓨터학과 박사과정, 미국 플로리다 교육부 전산센터개발부 팀장, 미국 플로리다 A&M대학교 부교수,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컴퓨터학과 교수

㉓-12 한국교회의 북한선교가 통일과 어떤 상관성이 있을 것인가?

김성태 /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원장



장로교 목사,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선교신학 전공 Th.M, Ph.D, 공군 군목으로 전역,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처장 / 교무처장 역임, 총신대학교 선교학 / 목회신학 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총신대학교 기획실장 역임, 선교전문지 미션월드 편집 주간 역임. 저서: 1994 “북방선교의 실상” 생명의 말씀사, 1995 “세계선교전략사” 생명의 말씀사, 2000 “현대선교학 총론” 이레서원, 2001 “선교와 문화” 이레서원. 논문: “복음과 문화”, “선교의 성경신학적 연구 방법 고찰” 외 40여 편

북한선교의 신학적 개념이해가 중요하다. 세계 신학계가 양분 되었듯이 한국교회의 북한선교이해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기존의 북한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내외의 북한학계의 통일정책 이론과 한국교회의 선교입장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것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대립과 충돌형 이론으로 북한정부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며, 그 어떤 대화나 접근도 불필요 하다고 본다.

두 번째는 실용주의적, 전략적 사고의 연성 착륙모델이 있다. 세 번째는 남북한을 민족주의 시각에서 평등관계의 병행적 상대방으로 여기며, 상호 유익과 발전을 위한 통합접근 모델이다. 네 번째는 소위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체제를 남북통일의 기초로 보고, 이를 국가발전의 기반으로 삼자는 좌익유형이 있다. 다섯 번째는 연성복합통일론이 있다. 한국교회의 통일선교정책은 주로 두 번째와 다섯 번째의 유형에 속한다. 20세기에 일어난 국가통일 사례로서 베트남, 예멘, 독일의 경우가 있다.

㉓-13 김정은 이후의 북한 전망과 한국교회의 선교전략

김성태 /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원장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의 삼남인 김정은의 시대가 왔다.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총비서이며, 당 군사위원회의 제 일 부위원장의 명칭을 가지고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로서 등극하였다. 김정은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크게 세 개의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는 유혼통치의 연장선이다. 둘째는 점진적인 개방정책이다. 세 번째는 혁명적 변화를 통한 급속한 사회변혁이다. 각 시나리오에 따른 한국교회의 선교전략을 정립함이 시급하다. 이명박 정부의 북한정책과 국제정세 그리고 북한의 세 가지 주요 상황을 살펴보자. 이에 따라 한국교회의 선교현장의 모습은 어떠한가? 또한 어떤 상황에서든 변함이 없는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의 선교방법이 제시된다. 첫째는 외부에 나와 있는 북한 탈북자들에 대한 선교이다. 두 번째는 북한과 중국을 오고 가는 월경자들에 대한 선교활동이다. 세 번째는 북한 내지의 중국으로의 월경 및 친인척 방문 경험에 있는 수십 만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선교이다. 네 번째는 중국으로 친인척 방문을 나오는 북한 주민들과 선진외국으로 국제교류 및 교육 등의 명목으로 나오는 수 천 명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선교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해외근로자로 내 보낸 약 7만 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선교이다. 여섯 번째는 북한 내지에 있는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간접적인 선교사역이다. 일곱 번째는 북한 내지에 있는 일 세대가 기원이 되어 형성이 된 북한지하교회를 돕는 일에 선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여덟 번째는 신앙을 가지고 북한으로 귀환하여 신앙적 활동을 하는 탈북자 출신 교인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생존을 도와야 한다. 이렇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문들을 통하여 북한선교의 사명을 현존(Presence), 선포(Proclamation), 제자화(Persuasion)의 단계를 거쳐서 실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때에 북한선교의 문은 활짝 열려지게 될 것이다.

㉓-14 복음의 서진과 북한선교

김성원 / 영광장로교회 담임



1990년 9월 그리스도신대 중퇴, 1996년 5월 Covenant Bible Seminary 졸, 1997년 10월~2000년 11월중국 단둥에서 구호 물자 지원과 탈북청소년들을 보호 및 교육, 2001년 1월 태국 방콕에 탈북자 쉼터 설립, 2002년 1월~2003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탈북청소년을 위한 '갈릴리 학교' 설립 및 운영, 2004년 4월~현재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한꿈학교 설립' 및 운영, 2005년 3월~2007년 4월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 협의회 아동 청소년 분과 위원장, 2007년 5월 대통령상 표창(청소년 건전육성 분야), 2007년 12월 통일부장관 표창(북한이탈주민권익보호 분야), 2012년 현재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한꿈학교' 교장, 2012년 현재 마포 영광장로교회 담임목사, 2012년 현재 북한지역목회자연합회 회장.

㉓-15 통일을 향한 선교정책

김진환 / 산호세생명의강교회 담임



알라바마 주립대학교(전자공학석사), 미 남침례 신학교(선교신학 박사)를 나온 김진환 목사는 GE 정보센터에서 근무하였고 Regent University에서 D. Min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 산호세생명의강교회 담임이다.

대북정책은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린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입니다. 경제는 다시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한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대북정책의 열쇠는 성공적인 대북 선교정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대북 선교정책은 바로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북 선교정책이 교착상태에 빠져 올바른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한 것은 북한에 대하여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 저작 "통일을 향한 선교정책"에서 밝힌 "주체 사상은 무엇인가?", "왜 북한은 종교집단인가?", "기독교와 주체사상의 근본적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북한을 접근해야 하나" 등의 주제를 학술적이면서도 Practical한 측면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㉓-16 남북평화통일을 앞당기는 탈북자 선교보고

윤요한 / 탈북자 선교사



지금까지 200여 명의 탈북자를 망명시켜 국내외 정착시키고 1천여 명의 탈북자들을 후원하고 있는 윤요한 목사는 1992년 러시아 선교를 시작으로 1994년 중국 선교로 눈을 돌려 세계에서 난민으로 공식인정된 탈북자들의 인권 회복에 힘썼다. 이후 중국에서의 선교활동과 함께 탈북자들의 한국행 지원으로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감시를 받아오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도와준 혐의로 2005년 5월 9일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중국 연길 감옥에 1년 3개월 동안 수감됐다. 윤 목사는 수감 전 중국에서 탈북자들과 함께 태국으로 탈출에 성공해 중국당국의 추적을 받자 이름을 '필립 준 박'으로 개명한 후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지원해 인권단체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받았다. 윤 목사는 앞서 2007년에는 탈북자 지원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인권단체인 트레인재단이 수여하는 '용기 있는 시민상'을 받았다. 윤 목사는 중국 감옥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탈북자 망명과 정착 돕기를 이어가고 있다.

Assembly of God 미 하나님의 성회 한국총회 파송 선교사로 1992년 러시아 하바르브스크 도시와 브라디보스독 도시와 산 도시 북한이 한 눈에 보이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바르 브라디 두 도시에는 원주민 신학교를 개교하고 5개 군소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여 5년간 러시아 영혼들을 섬기고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으로 건너가 굶어 죽는 내 동족 살리겠다는 동족 사랑으로 오늘까지 15년간 탈북자 선교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㉓-17 북한선교의 방향과 정책

이귀범 / 북한 선교사



왕성교회 선교사이며 한마음 장로교회 파송선교사인 이귀범 선교사는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본부장, 탈북난민 인권위원회 운영회장, 국제외교전략 연구소장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홍신대학/신학대학원 88회 졸업, GMS 선교훈련원 29기로 워싱턴 신학대학과 워싱턴 신학대학원 수료하였다.

1. 북한의 실상과 참상
2. 북한의 구조적 문제와 체제
3. 주변국가의 북한에 대한 외교적 방향
4. 통일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
5. 통일준비에 대한 객관적 평가
6. 북한선교의 방법
7. 북한선교의 영향 및 결과
8. 탈북난민에 대한 보호정책
9. 탈북자에 대한 남한정책
10. 통일세에 대한 정책

㉓-18 선교지(이민교회)에서의 제자훈련과 영성회복

이찬우 / 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담임



장로회 신학대학원(목회학 석사, M.Div.), Louis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신학 석사, Th. M.),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목회학 박사, D.Min) 제1한국과 미국에서 섬긴 풀타임 사역. 한국 신일교회에서 전임 전도사 및 부목사로 5년간 섬겼습니다. 그 후, 교회의 후원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미국 장로교 총회본부가 있는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에서 협동목사로 1년 6개월을 섬겼고, 알라바마주의 "애니스톤 한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만 4년간 섬겼고,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제일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던 1년 7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이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선교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교지역(이민교회)에 있는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초신자들을 훈련하며, 이들을 어떻게 주님의 12제자 처럼 양육하는가 일 것입니다.

선교지역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의 짧은 지혜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교 지역에서의 제자 훈련과, 그 훈련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자 훈련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부분이 영성의 회복입니다. 무미 건조하게 흐를 수 있는 성경공부에 생수와 같은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한 영성의 회복입니다. 성경공부를 통한 은혜와 사랑을 현장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㉓-19 청년선교를 통한 교회부흥과 세계선교

김석수 / 빛세계선교회 대표



약력: Light World Mission(라이트월드미션)빛세계선교회 설립자, 국제대표 (1989-), IMTC 국제선교사 훈련원 원장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 한국, 중국, 미국) (1993-), RDM Church Network International/, 백만 자국민 선교사 운동본부장, KWMA 실행위원 역임 (2000-2005), 학원복음화 협의회(대구/경북) 공동대표 (2011-) 학력: 선교학박사 (D. Miss, Ca)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 (M.Div.) 탈북 신학대학원/바이올라 대학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 I. 21C 청년사회 문화의 특성
- II. 한국교회의 현주소
- III. 청년선교의 목표 (Vision)
- IV. 청년선교의 건강한 환경
- V. 세계선교; LWM 대륙별 백만 자국민 선교사 운동

㉓-20 미운오리인가, 백조인가?: 차세대 제자훈련의 선교적 접근

허동현 / 그레이스미션대학 GMU



그레이스미션대학 교수, 테메쿨라 갈보리교회 EM Pastor, 바이올라대학교 (Biola University, La Mirada, CA)에서 Intercultural Studies로 박사학위(Ph.D.)를 받았고, 폴리네시아인들(뉴질랜드)을 섬기며 예수전도단(YWAM) DTS 및 원주민 사역을 했다. 12년간의 EM사역과 8년간의 강의사역을 통해, 차세대 제자훈련의 선교적 접근을 연구중이다.

미주한인 2세를 포함한 차세대 한인들은 미운오리인가, 아니면 백조인가?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유전자를 지닌 백조다. 미주한인 1.5세, 2세, 3세의 선교적 동원이라는 구호가 있지만, 이들의 제자화에 관한 접근법 연구가 전혀 미흡하다. 필자는 지난 12년간의 미주한인 2세 사역을 통해 뼈저리게 배운 사역적 교훈을 선교적으로 분석, 통합하여 차세대 제자훈련의 선교적 접근을 제시한다.

4. 교회와 선교

4-1 건강한 교회 행복한 목회자 (딤후1:3-8)

한기홍 / 은혜한인교회 담임



59개국에 271명(81% 자체 파송) 선교사를 파송했고 백만여명의 원주민을 품은 8천여개의 현지교회를 개척해 내었으며 15개 신학교를 세운 G.M.I. 선교운동은 한기홍 목사가 섬기는 은혜한인교회를 모체로 하며 이는 초창기부터 세계선교를 최우선 목회과제로 세우고 교회 재정 50%를 선교에 투자한 아름다운 열매다. 새 성전의 이름을 '비전센터'라 명명하고 성도 1만명이 모여 지구촌의 3,500 미전도종족을 위한 세계복음화 중보기도운동의 불길을 일으키는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님의 영광스런 목회사역을 위하여 헌신하신 목회자는 분명 축복 받은 분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제자로 세우는 일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위기에 처한 목회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Vision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치열한 영적전투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역의 발목을 잡는 사탄의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목회자로 세워져야 치열한 영적전투에서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목회자로 회복되는 길은?

1. 청결한 양심을 가진 목회자입니다. (3절)
양심은 하나님의 재판소. 청결한 양심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이 감각되어 집니다.
(마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양심 - 1) 화인 맞은 양심: 죄를 범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름. 전혀 죄를 못 느낀.
2) 더러운 양심: 죄에 오염된 양심
3) 청결한 양심: 보혈로 깨끗케 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2. 눈물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4절)
감사, 사랑, 회개의 눈물.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는 것이 건강합니다.
(예) (눅19:41)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요11: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히5: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 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히스기야의 눈물, 다윗의 눈물 (시6:6)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 나이다
(마5: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 임이요

3.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목회자입니다. (5절)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맡기는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믿음, 순종 = 신실한 믿음
목회자는 삶으로 나타낸다. 진실 된 믿음의 역사. 신앙은 열매로 나타낸다.
(예) 건축하면서 믿어진다.

지금 디모데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1. 꺼져있는 상태, 식어있는 상태 (6절)
2. 두려워하는 마음 (7절)
3. 부끄러워 함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8절)
4. 고난을 피하려 함 (8절)

건강한 사역자로 회복할 수 있는 바울의 권면은?

1. 멘토와의 관계 (2절)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상의
2. 중보기도 동역자 (3절)
(예) 출17장
3. 재충전 (6절)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4-2 선교하는 교회로의 전환

김혜택 / 뉴욕총신장로교회 담임



타문화권경험, 탁월한 언어능력, 개방된 세계화의식등 가장효율적인 선교자원으로 동원이 가능한 7백만 한민족디아스포라의 선교동력화를 목표로 GKYM운동을 주도하는 그는 미동부지역의 3천여 청년대학생이 동원된 GKYM Fest Rochester를 매년 연말에 개최하며 역사적인 SVM 대학생 해외선교자원운동의 부활을 열망하고 있다. 교회의 역량을 선교에 전력투구하는 총체적 선교목회의 불타는 열정으로 매년 5백명의 단기선교팀을 훈련시켜 중앙아시아등지에 파송, 수많은 교회개척활동도 펼치고 있다.

4-3 지역교회에 있어서의 선교적 부흥

정인수 / 아틀란타연합교회 담임



연세대 정법대, 미시간주립대학원(커뮤니케이션전공), 프린스턴신학교 목회학전공, 예일대학 신학대학원 실천신학전공 등을 수학한 정인수 목사는 그의 저서 교회를 혁신하는 리더십, 영혼을 혁신하는 목회리더십등에서 보여주듯 교회개혁의 지도력개발에 혼신의 열정을 기울인 결과 진리의 반석위해 우목선 대형교회를 만들었으며, 미주차세대목회자 비전세미나를 개최하여 건강한교회 일꾼세우기, 혁신의 리더십, 팀사역과 네트워크, 가정공동체 사역과 셀목회, 예배의 갱신등을 강조, 차세대지도력 양성에 힘쓰고있다.

이민 목회를 해 오면서 선교의 중요성을 비교적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선교가 주는 엄청난 비전의 중력과 다이내믹을 실천적인 선교를 하면서 서서히 자각하게 되었다. 왜 이 선교를 보다 역동적으로 하지 않았던가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였다.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될 때 교회 내적인 갈등과 싸움들이 선교라는 거대한 물줄기 앞에 흡수되고 흘러가므로 교회의 영적 건강이 찾아온다. 특히 이민교회들은 교회마다 갈등과 분쟁을 경험하지 않는 교회가 없다. 그러나 교회가 선교할 때 교회의 거룩한 비전이 생겨나고 합일점이 생겨나므로 선교에 교회 자원의 에너지를 집중하므로 교회의 영적 건강이 찾아온다.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넘쳐 난다. 성령은 선교의 주체적인 원동력이 된다. 선교 현장은 온갖 영적전쟁이 발생하며 기도와 능력이 간절히 요구되는 곳이다. 교회가 자체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될 때 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붙는다. 교인들이 선교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은 그 중보 기도의 원력 지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선교의 현장에는 성령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대한 감격을 누리게 된다.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될 때 교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중심의 새로운 가치관으로 재편되게 된다. 장기 선교이건 단기 선교이건 선교지를 다녀오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청소년들도 선교지를 다녀오고는 저들의 행위와 삶에 파라다임 전환이 오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씀을 피우던 아이들이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고 부모의 헌신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격하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거듭난다.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청지기의 복을 누린다. 교회가 드리고 나누는 것을 배우고 학습함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는 교인들의 헌신이 그치지 않는다. 일반 재정과 선교의 재정 주머니는 구별되어야 한다.

선교지향적인 교회는 생각의 파라다임을 바꾸고 자원의 줄기를 바꾸는 혁신적인 교회로의 발돋움이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부흥과 성장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④-4 교회연합 - 마지막 시대 세계선교의 유일한 전략

박신욱 / GBC 미주복음방송 사장



21년 전, 크리스천 방송국을 세운다는 것을 그 아무도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때에 복음방송의 꿈을 꾸었던 임중희 목사를 통해 세워진 미주복음방송은 이후 자체 스테이션을 구입하고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으며 시애틀을 비롯하여 전 미주에 지사를 세워나가고 있다. 현 GBC 미주복음방송 대표인 박신욱 목사는 와싱턴중앙장로교회에서 파송받아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사역하였고 SEED Internation의 국제총무도 역임하였다. 탈봇신학교, 달라스신학교를 졸업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과업을 주셨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지구상에는 100% 미전도종족들이 살고 있었다. 초대교회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들은 미전도지역으로 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선교시대도 마찬가지이다. 아직도 남은 미전도종족을 위한 선교는 누가 하며 어떤 전략으로 할 것인가? '교회'가 해야 하며 '교회'라는 전략 밖에 없다. 예수님의 유일한 전략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1세기의 초대교회는 연합되어 있었다. 개교회주의가 없었다. 성령이 원하실 때 선교자원은 우선순위로 드러졌다. 혼자하는 선교도 없었다. 다름이 있었지만 성령이 가르쳐주신 팀사역의 틀은 깨지 않았다. 가장 위대했던 선교사는 한번도 자신의 사역이라 한 적이 없었다. 두 사람으로 시작되었던 그 선교팀은 10년이 지났을 때 팀 사역자의 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당연히 1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미전도종족이었던 당시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어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고 마침내 복음은 로마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흔들리게 되었다.

예수님의 선교전략은 '교회'이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시대의 남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교회는 연합해야 한다. 교회가 연합하여 선교했던 1세기의 페러다임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가 연합함으로 선교사들이 개인주의 사역을 하지 않고 오직 팀 사역으로 미전도지역을 우선순위로 공략하게 해야 한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팀사역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팀(교회)으로 사역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초대 선교사들을 팀으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연합할 수만 있다면 남은 과업완수는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시대 선교를 위해 교회는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④-5 왜 교회 개혁인가? (AD2017 & Beyond)

유효명 / KWMC평신도선교운동본부장



유효명장로는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을 졸업한정신과전문의(M.D., Diplomate, American Board of Psychiatry & Neurology)이며, Midwest University 를 졸업(M.Div)한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은퇴장로. "ECAMM" Michigan 대표, KWMC 증경의장, KWMC 평신도선교운동본부장으로북미주한인평신도선교활성화에참여하고있다.

1. "A.D.2017 & Beyond"운동; 21세기교회개혁운동
2. "ECAMM"(Every Christian A Minister/Missionary); 평신도도성직자다.
3. "LAMM"(Life As Ministry/Mission); 나의삶이사역이요선교다.
4. "WAMM"(Work As Ministry/Mission); 나의일이사역이요선교다.

5. 중보기도와세계선교
6. "양날개교회"
7. 세계복음화의원성을바라보면서

④-6 은혜한인교회 세계 선교현황과 선교전략

양태철 / GMI 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양태철 목사는 1957년 한국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1965년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의 주일학교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육군 제3사관학교 제 15기로 훈련(1976년) 및 임관(1978년)하였으며, 제대 후에는 관광을 공부(경희대, 스위스, 프랑스)를 하였다. 신학은 미국 CUU 신학대학원, 호주 WEC MTC, 호주 Victoria 신대원, 미국 Midwest 신대원에서 공부하였으며, 최종학위는 D. Min(선교학)이 되며, 20년 간 은혜한인교회의 사역자(선교사 9년, 선교팀장 11년, G.M.I. 미주 본부장)로 사역 중이다. 미국 GMU(은혜선교신학대학(원)) 및 GMI 선교지 신학대학(원)들의 선교학 교수와, KWMC 부의장과 KIMNET 실행총무로 섬기고 있다.

본 교회의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면서, 지난 30년 간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본 소고(小稿)를 통하여 '은혜한인교회의 세계 선교현황과 선교전략'이란 제목으로 나누길 원한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은혜로 20년 간(선교사 9년, 선교팀장 11년) 섬기고 있는, 본 교회의 선교전략은 21세기의 중요한 선교 전략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귀한 은혜와 도전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 원고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 부분은 '은혜한인교회 소개'가 되며, 둘째 부분은 '은혜한인교회 세계 선교현황'이 되고, 마지막 부분은 구체적인 '은혜한인교회 선교전략'이 된다. 이 부족한 원고가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의 작은 모델이 되어서,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잘 적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

④-7 말씀의 부흥을 통한 선교 동원 - New York Bible Conference (NYBC) 지용주 / 시리큐스한인교회 담임



University of Utah 기계공학박사,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전공, US Center for World Mission 동남부 코디네이터, InterVarsity Staff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KWMC 부의장 및 선교사자녀학 교설립협력기구 기구장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New York Bible Conference(NYBC)는 "Back to the Bible"을 목적으로 매년 1월 Upstate NY 지역에 있는 한인 및 유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말씀 사경회입니다.

NYBC의 목적은 New York State 지역에 흩어져있는 한인들의 영적 부흥과 지역교회의 연합을 도모하고 참 복음을 회복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씌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성경 전체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어져갑니다. 창세기의 시작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오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러한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며, 이 말씀 안에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NYBC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으로 개인 개인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삶이 변화된 개인들을 통해 각 지역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어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나아가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 부흥의 보발군, 기도의 중보자, 제사장이 되어 곳곳으로 퍼져나가 평신도 선교사로서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역입니다.

4-8 지역교회의 미전도종족선교

장춘원 / 뉴라이프교회 담임



현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담임, 갭(Gap) 미국 공동대표, 조이 장애 선교회 설립 및 정책이사, International Assembly of New Life Mission Church 교단 총회장, 경영학 박사(DBA)

미국 이민교회의 하나인 뉴라이프교회의 개척부터 지금까지 왜 교회가 설립 되었고 어떻게 미전도종족 선교를 시작하여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그 선교적, 목회적 열매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개한다.

4-9 역동적 이민목회 부흥전략과 실제

윤덕근 / 남가주얼바인브릿지교회 담임



총신대학신학과, 미국비브리칼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신약학석사, 리버티대학교 목회학석사, 교회성장학 박사 과정 등을 수학한 윤덕근 목사는 목회자 자녀로 자라 이민교회 개척과 차세대 사역 및 연결과 가정치유회복사명을 위한 징검다리 팀 사역을 하며 4개의 이민교회를 미주지역에 직접개척과 후원설립 하였고, 선교지에도 교회들을 후원개척했다. 아리조나 템피조로교회를 남서부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을 섬기는 사역중심의 교회로 성장시킨 그는 현재는 남가주 얼바인지역에 브릿지교회를 근래에 개척하여 섬기고 있다. 지금도 미주지역에 선교를 위한 교회 개척사역과 성장을 위한 바인미션을 설립하여 섬기며, 가정회복 사역을 위한 두란노아버지학교 사역과 차세대의 부흥운동을 위한 징검다리 사역을 펼치고 있다.

1. 역동적 이민목회 - A. 목회 리더십의 근거 B. 교회 부흥
2. 영성 사역 과 가정 사역 - A. 영성사역 B. 가정 사역
3. 예배사역과 2세 사역(교육 사역) - A. 예배 사역 B. 차세대 사역
4. 셀교회와 제자훈련 - A. 초대기독교 시대 셀 교회의 특징 B. 제자 훈련
5. 셀교회와 교회 부흥
6. 교회의 위기관리 와 교회부흥
7. 견학, 외부섬기(outreaching) 과 전도, 선교
8. 지역 사회 섬김 과 나눔 / 교회 부흥

4-10 교회와 선교

서경재 / 콜롬비아선교장로교회 담임



성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Reformed Theology Seminary 개혁 신학 연구원 M. Div. 졸업, Liberty Theology Seminary, Lynchburg, VA. MAR, Th. M. 졸업, 현 Liberty Theology Seminary, Lynchburg, VA. D. Min 과정, 현 Columbia Presbyterian Mission Church (콜롬비아 선교장로교회) 담임목사

1. 이민교회와 선교활성화 2. 목회자와 선교 3. 이민교회에 주신 선교의 비전
- 선교지향적인 교회 인가 선교적인 교회인가? / 지역교회에 주신 사명: 선교 이민교회에게 주신 축복: 선교현장과 같은 이민목회에서 주신 선교의 축복 이민교회와 선교 활성화 / 목회자와 선교 / 이민교회에게 주신 선교의 비전

4-11 선교적교회 세워나가기

명치호 / 달라스영락장로교회 담임



명치호 목사는 University of Maryland와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M.Div)를 나와 현재 달라스영락교회에서 담임목회자로 섬기고 있다.

선교에 전혀 관심없던 담임목사가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과 선교적 교회를 세워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선교적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매주 선교적 설교를 해 나가는 모습을 설명하는 강의다.

4-12 지역교회 선교교육 프로그램(SEED 선교학교)

방대식 / SEED USA 부대표



1997-2011년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교회개척, 신학교, NGO, 컴퓨터/언어 교육센터 사역을 해온 방대식 선교사는 현재 SEED International에서 중동/중앙아시아 지역장 및 SEED USA(교육,동원,계발-모금담당) 부대표로서 본부사역 중 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우즈베키스탄 에버그린 국제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SEED는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선교회는 교회를 돕습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교회가 바른 선교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선교를 제대로 알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이나 선교사들의 현장보고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4-13 선교사/선교단체 모금의 영성과 전략

방대식 / SEED USA 부대표

선교는 무엇으로 하는가? 우리들 중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하여 '돈'으로 선교한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교 수행에 있어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돈'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요즘 같은 세계경제의 불황여파로 인한 개인들의 수입 감소로 인한 교회헌금의 감소로 선교재정의 동결 또는 축소가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모금은 더욱 필드와 본국사역자들을 막론하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고민거리가 되고 말았다. 아무리 '믿음선교'(Faith Mission)을 부르짖어도 어느 순간에는 '모금'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선교사들에게는 이미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선교단체 뿐만 아니라 선교사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모금에 대한 바른 이해와 모금의 영성확립 그리고 선교비 모금 전략에 대하여 나누고자 한다. 모금에 대한 웬지 모를 부담감을 갖고 있는 여러 동역자들이 모금에 대한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기를 소망한다.

1. 선교사와 모금의 이해
2. 선교비 모금 전략

④-14 효과적 선교 보고 방법

임호선 / 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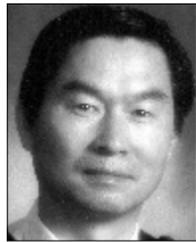


Mr. Hoson Samuel Rim is a Certified Consulting IT Architect of the IBM Corporation since 1982. He also serves as a ruling elder of the Korean United Church of Philadelphia (PCA). He blends his bicultural and bilingual skills to reach both first and second-generation Korean-Americans. He is passionate about world missions and he has been on many short term missions especially to China, Mexico and Kenya. He is an author of many IT related technical books and has translated a few Christian books from English to Korean. Hoson and his wife, YoungSil, have three boys and live outside of Philadelphia, PA.

This workshop will talk about how to make effective presentations to the sending congregation, friends and family from a mission. Many missionaries, including long term and short term, are very eager to share their testimonies from the mission trip to other people but do not know how to create and do presentations that has the same passion as the mission itself. This workshop will cover the importance of a mission report, how to create and present a mission report effectively, and how make a report that challenges the audience.

④-15 교단간의 협력선교당위성과 그 사례연구

이교성 / 필리핀 선교사



예장 통합 필리핀 선교사 23년차. KWMMF 필리핀지역회장, 예장통합 세계선교사회 대표회장(현), 필리핀 장로회성서신학교장, Fuller 목회학박사

1. 선교현장의 문제 노출. 2. 협력과 팀사역의 대안. 3. 필리핀 장로교단의 사례 소개.
4. 후대 평가를 예견하는 선교. 5. 건강하고 성공적인 협력선교를 위한 제안.
6. 질의 및 토론.

5. 타종교/타문화선교

⑤-1 한국선교사들을 위한 타문화 커뮤니케이션

탐스탈터 / Grace Theological Seminary



그레이스신학교 B.A. & M. Div., 달라스신학교 Th. M (선교학석사), 웨스턴신학교 D. Miss. (선교학박사), 아프리카차드 (불어권)에서 18년간사역, 그레이스신학교선교학주임교수, 그레이스신학교한국학부대표

본 세미나는 선교지의 모든 현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세지가 잘 전달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데 있어서 세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 자신이 메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이 타문화권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메세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자신들이 전한 그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차문화 의사소통은 선교사들을 준비시켜서 선교사 개인의 오류나 문화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선교지 현지인들의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적합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교차문화 의사소통 세미나는 선교사들이 타문화라는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그러한 상황에서 성경적인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세미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타문화권의 사역자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현지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만들어낸 그들의 인식체계, 즉 언어와 비언어 방식에 따라 저들의 말을 이해하는 방법과 메세지를 더 효율적으로 선명하게 하는 방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타문화권에서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더 정확하고 잘 이해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⑤-2 세계 중국인(화교) 협력선교

이상란 / 대만 선교사, A.M.P. 회장



A.M.P. 회장이며 2002년부터 중화기독교 우리 공회 수립 요한당 주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상란 선교사는 1988년 중화기독교 우리 공회 수립 위한당 주임전도사로 시작하여, 주임 목사, 중화기독교 우리 공회 평안당, 도원교회 주임목사를 역임하였다. 주중 한국선교사연합회 8대, 12대 회장으로 사역하였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세계선교사연합회 3대 회장을 지냈다.

지금 세계는 중국인의 세계가 되고 있다. 어디를 가나 made in China를 만나고 있다. 이제 물건 뿐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 중국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세계가 중국인으로 도처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중국의 힘도 아니다. 중국이 개방 정책과 더불어서 특히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화상(중국 화교 상인)들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 기회를 잡은 화상들의 힘으로 중국이 현재의 중국으로 일어 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세계 선교를 꿈꾸며 각처에 선교사와 선교기지를 구축한 한국의 선교는 중국 교회의 세계 선교의 인도자로 혹은 협력자로 동반의 관계를 가지게 될 적에 이 협력의 효과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선 중국에 대하여서 알아야 될 것이며, 중국을 변화시킨 화교에 대하여서 알아야 된다. 현재 중국의 변화와 더불어서 세계 화교 교회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세계 화교 교회의 절반인 교회가 대만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교회를 빼고는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와 교회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도 전세계의 화교교회의 음악 교육 출판 등을 인도하고 있다. 이 대만교회가 2012년을 들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선교이다. 아마도 이것은 교회의 성장에 따른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의 선교는 한 민족이 감당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세계 곳곳에 가장 한국 사람과 근접한 사람은 중국, 일본일 것이다. 가장 한국 교회와 비슷한 교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배우고 한국 교회의 영성, 목회, 신학을 배우고자 하는 교회가 바로 화교와 중국 교회다. 이 중국과 화교 교회와 협력을 한다면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교회의 지도력이 될 것이고, 세계교회의 지도자로서 세계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 할 것이다.

⑤-3 중국상류층선교전략

현종각 / 매릴랜드안디옥교회 담임



매릴랜드안디옥교회 담임인 현종각 목사는 매릴랜드 한인목사회 증경회장, 미주목회성장운동협의회 사무총장, Holy Spirit 21 부총재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서울침례신학교(B.A.), Canada Christian College(B.A.), 필라델피아침례신학교(M.Div.), Washington College & International Seminary(D.Min., D.Th.), California Henderson University(D. Ed)를 나왔다.

중국에는 언어 및 지역적인 기준에 따라 490여개 종족으로 구별되는 방대한 나라다. 따라서 중국 선교를 할 때에는? 사전에 선교 대상으로 삼으려는 종족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중국에서 상류사회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중국선교는 보다 전문화, 특성화된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중국인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중국의 역사·사상·현실에 맞는 선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94년 새로운 종교법을 제정하였다. 새로운 종교법에 의하면, 당과 종교는 분리된다는 원칙을 재천명하고 있고, 중국내의 다양한 종교활동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처하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아직까지 외국인에 의한 기독교선교활동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이 중국인에게 물질을 제공하는 것은, 애덕기금위원회를 통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중국에서 효율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현재 중국은 많은 수의 외국인 목회자, 선교사, 가정교회 지도자와 신자들을 체포하고, 조사를 하고,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서는 종교활동가들에 대해 각종 법률을 들어 추방하거나, 체포·구금하는 사례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오류를 범했다. 첫째,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충분한 준비 없이 선교활동에 뛰어들었다. 둘째, 선교과정에서 물질적인 지원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므로써, 선교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세속화시켰다. 셋째, 한국교회는 경제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현지 중국교회를 무시함으로써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중국 정부는 커다란 도시나 지방에 하나의 교회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신자들이 하염없이 주일 낮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고 저녁에는 구역별로 처소예배를 허용하고 있다. 가정교회는 부분적으로 통제와 규제를 받으며, 3자교회만이 인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3자교회는 중국정부가 인정하는 공인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중국교회는 삼자교회, 가정교회 또는 지하교회로 불리우는 처소교회로 구별된다. 중국선교는? 개인이나 단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인에 의한, 중국선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결론> 중국의 상류사회의 선교전략에 있어서, 제안?

첫째로, 정보기술 협력:

둘째로 효과적인 재정협력:

셋째로 선교전략 협력이다:

⑤-4 중동선교전략의 역사적 고찰

김만우 / KWMC공동의장



KWMC 공동의장이며 중동선교사협의, 미주중동선교후원회, 인터넷복음방송의 고문으로 있는 김만우 목사는 Christian Times 주필, 재미SFC 자문위원, SFC India director, 한국고신 순회선교사이다. 필라델피아 원로목사회 회장 및 Coram Deo Foundation 이사장으로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 원로 목사로 전세계를 순회하며 왕성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무슬림선교는 이슬람과 무슬림의 바른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슬람 이해는 단순치 않다. 무슬림에 대한 향후 선교는, 911사태나, 아랍민주화 열기에 영향을 받는다기 보다, 무슬림 중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의 가슴에 타오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는 열기가, 무슬림선교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 엠마오도상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만난 두 사람처럼, 무슬림들을 만나그들의 심장에 복음의 대화가 메아리치게 하실 줄 믿는다.

⑤-5 이슬람의 최근 동향과 선교 이슈

공요셉 / 요르단 선교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 대학원 졸업. 카르툼 국제아랍어 대학원 졸업. 옴두르만 이슬람 대학교 졸업

이슬람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 이슬람주의의 확산과 살라피의 득세 그리고 살라피로 인한 교회의 핍박이 있다. 한국에서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진 원인을 살펴보고 무엇이 이슬람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는지를 살펴본다. 이슬람의 최근 흐름 속에서 어떻게 선교에 접근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⑤-6 꾸란과 “성령”과 성령

소윤정 / 서울기독교대학교 선교학 겸임교수



『꾸란과 성령』(CLC, 2009)과 『무슬림의 아내들』(CLC, 2011)의 저자인 소윤정박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에서 M. Div.를 마치고 선교학 전공으로 Th. M. (2003년)과 Ph. D. (2008년)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기독교대학교 선교학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 외래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그리고 한세대학교와 백석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 강의한 바 있으며 이슬람전문가로서 국내외 교회와 단체에서 강의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2011년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총무이사로 활발한 학회활동을 하였으며, 2012년 현재 학회지 『복음과 선교』의 편집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SIM선교회 이슬람선교자문위원과 한국협력선교회(GSN) 홍보이사로 선교지를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꾸란과 성령』(CLC, 2009)과 『무슬림의 아내들』(CLC, 2011)이 있으며 이외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터키 수피즘의 영성에 관한 연구: 신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메블라나’ 영성을 중심으로” 등 7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하나님 말씀의 계시에 대한 진실성을 밝히는 일은 인간의 구원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말씀에 대치 하고 있는 성령과 가브리엘에 관한 꾸란의 개념들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비기독교인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전달을 위해서 중대한 일이다. 최근 한국에서 이슬람교가 전파되고 무슬림 인구가 성장 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개념이 크게 왜곡되고 혼란에 빠지지 시작하는 이 때에 소 박사의 저서 『꾸란과 성령』은 이슬람에 관하여 대답해야 할 기독교 교계 지도자들과 선교관계자들 그리고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이 필히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되어 독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⑤-7 이슬람의 여성관과 결혼관, “무슬림의 아내들”

소윤정 / 서울기독교대학교 선교학 겸임교수



『꾸란과 성령』(CLC, 2009)과 『무슬림의 아내들』(CLC, 2011)의 저자인 소윤정박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Acts)에서 M. Div.를 마치고 선교학 전공으로 Th. M. (2003년)과 Ph. D. (2008년)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기독교대학교 선교학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 외래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그리고 한세대학교와 백석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 강의한 바 있으며 이슬람전문가로서 국내외 교회와 단체에서 강의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2011년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총무이사로 활발한 학회활동을 하였으며, 2012년 현재 학회지 “복음과 선교”의 편집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SIM선교회 이슬람선교자문위원과 한국협력선교회(GSN) 홍보이사로 선교지를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꾸란과 성령』(CLC, 2009)과 『무슬림의 아내들』(CLC, 2011)이 있으며 이외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터키 수피즘의 영성에 관한 연구: 신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메블라나’ 영성을 중심으로” 등 7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에 있는 무슬림남성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시대에 이슬람의 참 모습을 모르고 결혼을 결정하는 예들이 많아 참으로 안타깝다. "무슬림의 아내들"은 이슬람의 교리를 잘못 적용하여 일부다처제와 여성할례를 주장하고 무슬림들에게 성경을 통해 비교해가며 잘못된 점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한국에도 여성인권의 차원에서 잘못된 교리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본서를 통하여 교회 안팎에서 바른 가르침이 있기를 바란다. 복음주의적 신학 전통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각도로 이슬람을 거듭 탐구하였다. 특히 여성에 관해 이슬람의 종교전통과 의식, 세계관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 본서가 전 세계 이슬람권 사역을 소망하는 자들과 이를 연구하려는 모든 자에게 알려지고 읽혀지기를 소망한다.

⑤-8 이슬람선교 전략으로서의 BAM-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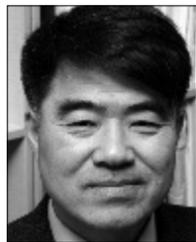
장동건 / 키르기스스탄 유니콤대학총장

예정합동측 목사로 키르기스스탄 유니콤대학 총장인 장금주 선교사는 서울장로회 신학대학(B.Th), 미국 캘리포니아 유니온대학(M.Div, D.Min)을 나와 서독에서 4년사역을 마치고 키르기스스탄에서 22년째 교회개척, 기독교 방송국 설립, 학교설립(유치원, 초, 중, 고교), 바이블 칼리지 설립, 간호보건대학 설립 등으로 사역중이다. 현재 GBN(Global BaM Network) 국제대표다.

1. 들어가는 말 / 2. 본론 (A. 중앙아시아 개관, B. 중앙아시아 경제현황, C. 중앙아시아 통상현황 및 정책, D. 대 중앙아시아 협력 및 진출전략, E. 중앙아시아 선교현황 및 전망) / 가. 중앙아시아의 종교현황과 기독교역사 (1) 현황 및 역사, 2) 1991-2000년까지 선교의 허와 실, 3) 2001-2010년까지 선교의 허와 실, 4) 2011-2020년까지 선교의 과제) 나. 킹덤비즈니스와 BAM으로의 전환필요성 / 다. BAM 네트워크의 도전과 방안 / 3. 나가는 말

⑤-9 중동 민주화와 이슬람선교접근전략

최바울 / 인터콤 본부장



중동아시아선교사,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KAT)회장, 서울대, 아시아연합신학교 강사, 한동대 교수, 인터콤 선교회 본부장. 저서: 시대의 표적, 왕의 나라, 이슬람의 실체, 이슬람문명과 글로벌 지하드, 전문인선교 세계선교운동, 하나님의 나라적그리스도 세계체제 등 70편 저술 및 논문

⑤-10 최근 중동의 변화와 팔레스타인 선교

강태윤 / 팔레스타인 선교사



베들레헴조이하우스원장, 베들레헴한국문화원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강태윤 선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세계선교회(GMS)에서 파송을 받아 1990년부터 사역해 오고 있다.

1. 중동변화의 원인.
2. 향후 중동지역의 변화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
3. 팔레스타인 선교의 중요성과 이해.
4. 팔레스타인 선교의 실제 (교육선교, 문화선교, -협력사역과 네트워크).
5. 베들레헴선교센터.
6. 한국교회의 사명

⑤-11 회교지역에서 능력사역을 통한 모슬렘 전도는 효과적인가?

이준재 / 파키스탄 선교사



장신대(M.Div)를 나와 서울, 명성교회에서 부교역자 사역하였고 2000년 예정통합 파송선교사로 파키스탄에서 사역중이다. Fuller 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선교학 석사 및 선교학 박사학위(Th. M. & D.Miss)를 취득하였고 파키스탄의 화이살라바드에서 교회, 신학교, 미션스쿨(초중고), 전도의 선교사역을 펼치고 있다.

회교지역에서는 단순히 복음 증거만으로 모슬렘들의 복음영접을 기대하기 어렵다. 어릴적부터 코란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시며 유일한 절대자로서 가족이 없다고 믿는 모슬렘들에게 가족의 개념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의 복음은 참 받아 들여지기 어렵다. 그러나 복음이 능력과 함께 증거될 때 모슬렘들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영접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회교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는 신유 등의 기적등이 일어날 경우다. 이교도의 가르침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선교지에서 복

음이 말로만 제시되지 않고 능력으로 함께 전해질 때 복음을 받아들인다. 파키스탄에서 병고침 혹은 꿈과 환상 중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을 받아 들인 모슬렘들과 그 이후 그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보아 왔다. 이런 실제 상황에서 성령의 도우심에 의하여 가능한 능력사역 (power ministry)에 대한 성경적 배경과 신학적 이론, 그리고 실제 현장에 대한 강이다.

⑤-12 유럽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이극범 / 프랑스선교사, KWMF 공동회장



장로회신학대학 임마누엘신학원(영국) 틴데일신학원(네델란드) 등에서 수확하고 파리고단을 26년간 섬겨오며 디아스포라교회를 기반으로 전교인선교비전일체화를 통한 불어권선교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급격히 이슬람화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불어권 27개 국가들을 향한 선교사역체인 MAFF27를 설립하고 전략연구, 교회협력, 선교사지원, 선교단체간네트워킹, 단기선교 등을 활발히 진행해 가고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비암 무니레-viam munire)- 유럽은 세계문화와 역사, 종교, 예술, 정치 등 모든 것의 출발이다. 그러므로 유럽을 모르면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럽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유럽은 이제 선교지가 되었다.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은 상호 어떤 관계인가? 1688년 영국의 무혈혁명과 계몽주의 볼테르의 인본 주위적 프랑스 혁명의 차이점, 독일의 루터와 프랑스의 장 칼방의 종교개혁,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프랑스 두 철학자의 주장, 종교개혁 정신과 르네상스의 대립, 계몽주의와 현대 철학의 만남, 볼테르와 데카르트, 파스칼의 현대사조와 기독교 사상을 분별한다. 그리고 유럽 재복음화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한류와 K-팝, 유럽교회 회복을 위한 디아스포라 한국 교회의 사역을 통해 현대 선교적 과제인 유럽 재복음화와 다시 들어야 할 복음, 오직 성경, 다시 성경, 영원한 성경만이 해결점을 살피본다.

⑤-13 중남미 선교현장과 전략

강성일 / KWMF 회장, 중남미 선교전략 연구소 소장



한국교회의 선교 초기 1983년에 장로교(통합) 선교사로 브라질에 파송되어 약 30여년간 현지교회가 감당키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이루며 모범적 현지 협력선교의 모델을 이루고 한국교회에 비전을 제시하였고 수많은 교회 개척과 현지 교단의 목회자, 전도자를 양성하면서 한편 그들을 중남미 전역과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현지 교회에 선교 의식 각성을 이루며 미래의 가장 성서적인 선교 방법과 모델을 제시하였다. 현재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회장으로 헌신하면서 특별히 30여년간 헌신해 온 중남미 지역의 선교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으로 개설한 “중남미 선교전략 연구소”를 통해 그간에 소외되고 허져 가는 중남미 지역의 새로운 이해와 관심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며 현지 선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사역을 이루고 있다. 브라질 북동성교 신학대학을 개척, 운영하며 수많은 교역자를 배출하고 직접 개인, 축호 전도로 교회를 개척하였고 현지인 지도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회에서는 처음으로 현지 교회와의 선교 협력 공식 조인이라는 모델을 제시하였고 선교사들과 교포들을 위해 양국어 병행 성경도 발간하였다. 이러한 30여년간의 사역을 기리 며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별히 금년 11월 6일부터 “중남미 선교전략 연구소”를 통한 “중남미 선교전략 포럼”을 준비하며 현장 선교사들과 사역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기도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⑤-14 카톨릭권의 복음적 선교전략

정금태 / 파라과이 선교사



한국에서 23년 목회하였고 1992년에 GP(GMS 교단소속)에서 파송받아 올해 파라과이에서 21년째 사역하고 있다. 교회 5곳 개척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기독교 예술 유치중고등학교 설립 운영, 파라과이 장로교 연합으로 운영하는 신학대학(중 합대학 문교부 인가 학사중 수여), 목회자 연장 교육(목회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1.5세 2세를 선교훈련 시키는 선교 남미를 GP에서 운영하고 있다.

중남미 하면 천주교 대국의 나라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점령으로 인한 IBERA 식민지 모습이 그려진다. 중 남미 복음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각 나라의 인구 분포적으로 볼 때 적게는 70% 많게는 95%를 증가하고 있는 천주교를 모르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중남미 23개국 유럽 아시아 등등 전 세계 48 개국(2006년 통계) 천주교 나라를 간혹 일부 목사나 신학자나 선교사 마저도 기독교 국가라고 보는 잘못된 견해를 속히 시정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이단보다 더 무서운 천주교의 우상숭배 나라에 어떻게 바른 복음을 전하여 하늘나라를 이루어야 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을 모르는 카톨릭권에서 선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일침을 더해 줄 기회이다. 결론은 카톨릭 국가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성경위에 세워진 선교가 이루어 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열매가 맺어질 것이 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슬로건 아래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⑤-15 중남미선교를 위한 공동 협력에 의한 신학교육

임한근 / 파라과이 선교사



임한근 선교사는 1989년 합동교단(GMS)과 국제선교단체인 SIM 소속 선교사로 남미 파라과이에 파송받아 지금까지 개 척사역과 신학교 사역을 해오고 있다. 총회신학대학원, 싸우스캐롤리나 콜롬비아 신학교 수료, 미드웨스트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3군데 시읍면에 현지인 개척교회를 세웠으며, 파라과이 신학대학 학장 및 교수사역을 하고 있다.

신대륙 발견과 함께 서구인들은 종교를 식민지 정책의 한 도구로 사용함으로 잘못된 신앙관과 신학을 답 습해 왔다. 현재의 남미는 이단과 신학이 바로 정립되지 않아 교회의 모습이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자못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여겨진다. 한인선교사들이 중남미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사역하 여 많은 개척교회들과 미션스쿨, 병원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다. 이제는 소명감있는 선 교지 인재들에게 신학교육을 잘 시켜서 현지인 목회자와 교회직분자들을 세워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동

역해야 하는 정점에 이른 것이다. 지구상에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가 28개국 약 5억에 이룸에 착안, 중남미지역에 서 활동하는 선교사들과 공동협력사역 용의하게 하며 미래의 리더십 이양을 위해 현지인 목회자와 교회 직분자와 교수 양 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서공저 등을 통해 신학교육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⑤-16 복음으로 아마존 정복은 가능한가

신정님 / 미주복음대학 교수, 아마존 30년 선교



1965년 브라질로 이민, 상파울 Notre Dame College에서 피아노 강사로 섬기며 고아원 사역 및 2개의 브라질 현지인 개척교 회 사역을 하였고 상파울 International Bible Theological Seminary(국제성서신학교)에서 교수로 봉사하고 있다. MEVA(브라질아마존복음선교부) 소속으로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에서 파송받았다. 고신대와 Fuller 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를 받았으며 저서로 '복음으로 아마존 정복은 가능한가?'가 있다.

지구촌 산소의 1/3을 내뿜고 있는 광대한 아마존 정글에는 아직도 베일에 싸여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수 많은 인디오 종족들이 살고 있다. 아마존은 9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2010년 통계로 340 인디오종 족 중 147 종족은 복음을 전혀 접해 보지 못한 종족들이다. 첫 30년 선교 역사에 겨우 20명이 세례를 받 게된 야노마미 종족도 있다. 25년이 넘는 세월을 아마존 인디오 종족들을 만나러 4-5인승 경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곳에서 선교하는 것은 돌아 올 계약이 없을 만큼 위험한 지역이다. 아마존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00명의 새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는 아마존 정글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⑤-17 중미에서의 선교전략과 단기선교

박명하 / 온두라스 선교사



1978년 장신대 신대원 졸업(71기), 1978년 10월 목사 안수, 1979년 - 1982년 군목(육군) 근무, 2007년 - 2011년 예 강 통합 중미 선교사회 회장, 2008년 - 현재 세계 한인 선교사회 중미 키리브 회장, 2010년 - 현재 예장 통합 세계 선교사 회 회장

⑤-18 인도네시아 한국선교사의 역사와 이 시대의 역할

김종국 / 인도네시아 선교사



1983년 인도네시아 파송 (고신), 인도네시아 복음장로 교단 설립 및 총회장을 역임하고 20년만에 현지인 리더십에 이양하 였다. 현재 인도네시아 장로교 신학교를 설립하여 학장으로 섬기면서 현지지도자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1. 회고 (년도별로 본 선교환경과 한국선교사의 사역)
- 1) 한국교회의 인도네시아 선교 터잡기 (태동기): 1971년-1980년 2) 선교터 다지기 (정착기) : 1981년-1990년
- 3) 선교터 넓히기 (확장기) : 1991년-2000년 4) 선교터 나누고, 내어주기 (분산과 이양기) : 2001년- 현재
2. 전망 (우리 한인 선교사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

- 1) 미전도 종족 및 지역에 개척 사역과 복음화 사역
- 2) 혼합적, 무기력해진 교회 지도자들을 깨우치고, 재충전 및 훈련, 영력있는 목회자를 양육 및 교육 사역
- 3) 부흥하는 교회들을 동력화하여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바꾸어, 작구의 전도와 세계선교에 비전을 나누는 사역
- 4) 이슬람권에 파송할 선교자원을 발굴하고, 훈련시켜, 교회로 하여금 파송케 하는 사역

⑤-19 지구안사람들(미전도부족)에서의 다양한 교회개척과 목회자 훈련 박종국 / 에티오피아 선교사



동아프리카의 입구인 Horn of Africa로 점점 무슬림화(50%)하는 에티오피아에서 1994년부터 교회개척과 목회자훈련을 주사역으로 선교적 전략을 세워 현지인 동역자들을 훈련 시켜 교회개척을 중심으로 훈련된 이들을 미전도 종족과 무슬림 지역에 파송해 전방 교회개척에 힘쓰고 있다.

아프리카로 떠나보자! - 최근 아디스 아바바에 새로운 Africa Union 건물 37층 짜리를 중국에서 무상으로 완성, 아프리카 40개국 대통령이 방문하고 후진타오도 방문했다. 중국은 China-Africa Win Win 프로젝트의 하나로 아프리카에 계속 진출하고 있어 기도와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선교사가 10인 이내지만 중국 건설 노동자가 30,000명 넘었다고 한다. 이슬람의 남하를 바라보는데 한계가 있다. 아프리카 땅을 밟아보고 한인 선교사가 가장 적고 인근 무슬림국가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몸으로 헌신할 수 있겠는가!

⑤-20 누가 이들의 이웃인가? (한국선교사로서의 에티오피아의 여성과 어린이 사역) 장은혜 / 에티오피아 선교사



Professor and Missionary to Ethiopia (since 1994-), Evangelical Theological College of Addis Ababa, Director, East Africa Research and Studies, 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 PHD candidate in Intercultural Studies, Birmingh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 UK), 이화여대와 대학원(BA, M. Ed.)

First story, "In order to advance the Gospel in Ethiopia..." Second Story, "Be strong in the grace of Christ Jesus..." "You then, my son, be strong in the grace that is in Christ Jesus. And the things you have heard me say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entrust to reliable men who will also be qualified to teach others"(2Timothy 2:1-2). 3. Despite the persecution... "This is my gospel, for which I am suffering even to the point of being chained like a criminal. But God's word is not chained"(2 Tim 2:9). (2 Tim 2:9). 4. Those who sow in tears... "Those who sow in tears will reap with songs of joy"(Psalm 126: 5).

⑤-21 공산권 붕괴후 22년의 동 유럽 선교사역 실제 정흥기 / 루마니아 선교사



AFC 선교회를 창립하고 1992년 이후 현재 루마니아 선교사로 교회개척 및 정치 지도자 사역을 해오고 있는 정흥기 선교사는 루마니아 장로교 협의회를 설립하였고 루마니아 "지도자 개발원" 대표이다. 웨스터 민스터 신학 대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영국 옥스포드에서 선교 연구원 석사(커뮤니케이션)를 받았다.

무신론적 공산주의가 빠져나간 빈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 줄 것인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한국교회는 동 유럽에 대한 선교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1990년 AFC 선교회에서 주관한 동 유럽 단기 선교를 참석 한 후 1992년 장기선교사로 파견되었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루마니아의 선교를 위해 부카레스트에서 20년 가까이 사역하고 있다. 동 유럽의 공산권선교가 이전에는 가능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를 동 유럽 선교 1세대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 KWMC 제 7차 한인 선교사대회에서 "공산권 붕괴 후 22년의 동 유럽 선교사역 실제"의 주제로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나는 큰 책임을 느끼며, 앞으로 동 유럽 선교 전략의 역사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지난 22년 동안 주로 선교가 가난한 계층에 진행되었는데, 동 유럽 국가들이 NATO 군사동맹과 EU 연합에 가입하면서 선교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 분야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온 동 유럽 국가들은 한국 교회의 동 유럽 선교에 새로운 Paradigm 을 요구하고 있다. 나는 이 발표를 통해 나의 선교가 동 유럽 선교의 새로운 Paradigm 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며, 이는 한국교회가 동 유럽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믿는다.

⑤-22 북미 다민족사역네트워크와 다민족사역모델들과 이슈들 임찬혁 / Billy Graham Center 북미 다민족 사역



Chandler H. Im 임 찬혁 Billy Graham Center 북미 다민족 사역 Director, Billy Graham Center 북미 다민족 사역 Director & Ethnic America Network (EAN) Director. 2010년 로잔대회 미국 자문위원. 북미 원주민 선교사역과 남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디아스포라 선교사역 (2001-2008). 15세에 미국에 이민옴. Boston 대학교(종교학 B.A.), Westminster in California 신학교 (M. Div.), Fuller 신학교 (선교학 Ph. D.) 졸업. Global Diasporas & Mission 책 (Regnum, 2013) 편집자.

2010년 인국조사국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인구의 12.9퍼센트가 해외출생 이주자이며, 2050년이 되기 전에 백인이 소수가 될 것이라고 한다. 북미에서는 정부 정책상 다문화, 다민족 주의를 권장한다. Melting Pot이 아닌 Salad Bowl 의 개념인 것이다. 이런 흐름속에 다문화, 다민족 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북미 교계에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한인 교계에서는 아직 많이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듯 하다.

북미 다민족 네트워크(www.EthnicAmerica.com)는 다민족 사역을 하는 70여개의 복음주의 교단들, 선교단체들, 그리고 교회들의 북미 지도자들(백인포함)과의 협력사역을 통해 북미(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 커뮤니티에 복음을 전파하고 다민족간의 화합을 추구하는 사역이다. 북미 한인교회에서는 보통 EM (영어사역)을 세계의 카테고리로 나눈다. Dependent (의존형), Interdependent (상호보완형), independent(독립형) 모델이다. 그렇지만 북미 다민족 사역에서는 십여개 이상의 사용모델이 존재한다. 셋방살이형, 한 부서형, 다중교회형, Outreach 형, 파트너쉽형, 입양형, 동화형, 다민족형, 짬뽕형, 다세대형, 셀그룹형, 통역형, 미디어형 등등이 있다. 북미라는 바다에 떠 있는 섬(islands) 들 같은 Korean diaspora 교회들은 Korean line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다민족 사역에 관심을 갖고 북미의 (재)복음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⑤-23 북미 원주민선교 - 오전도종족선교운동 김동승 / 원주민선교회 대표



북미주 원주민들을 오전도종족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향한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김동승 선교사는 경희대 법대, 서울장신(예장통합), Ontario Theological Seminary(Tyndale), National Native Bible College를 나와 1996년 토론토 뱀벨 교회에서 원주민 선교사로 파송받아 '원주민선교연합회', '사랑의 군병들(Agape Army)', 'Mountain Movers' Prayer Quest' 등의 운동등을 창설하여 북미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전도 종족이란, 정치적, 종교적으로 기독교 선교의 문이 닫힌 공산권, 회교권내의 종족들을 폐(閉)전도 종족, 또한 10/40장에 몰려 있는 힌두교, 불교, 샤머니즘권에 있는 종족들을 미(未)전도 종족, 바울의 선교에 의해, 이미 오래 전에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종족들을 기(既)전도 종족(영, 불, 독, 스페인등) 이라고 할 때, 이 기전도 종족들인 영, 불, 스페인 등의 식민 팽창주의가 기독교와 overlap 되어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오히려 집단적인 침략 범죄에 이용 당해, 원주민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본질을 잘못 이해케 되어서 선교가 지극히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는 종족을 가르킨다. 그들에게 있어 기독교란 외래 백인들의 종교로 자신들을 삼켜 왔던 도구로 비쳐지고 있으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원주민의 동질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기독교를 이용하여 원주민 의동질성을 파괴하던 과거가 있으므로) 원주민 전통주의자들에 의해 가르쳐 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2만여 종족들중 가장 자살율이 높고 알콜, 마약 중독률이 가장 높고, 가장 평생 실직률이 높은 종족들이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인 캐나다 내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600만 원주민들(캐나다; 160만, 미국; 450만)이 그들입니다 그들을 누가 주께로 인도할 것인가?

6. 선교사/선교현신자

⑥-1 선교와 책무

강대흥 / 태국선교사, KWMF 공동회장



이시대 마지막 선교주자 한국교회는 반드시 (선교의 건강성)이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는 1987년 태국선교사로 파송, 1989년 건강한 현장사역팀 모델을 세워 현재 20여가정이 팀사역을 하고 있으며, 2001년 아시아신학 연구소를, 2005년에는 방콕선교포럼을 시작하였다. 그 외 태국목회자훈련원설립, 방콕국제학교 협력설립 등을 이루어냈다. 국내사역 중 GMS 필드구조를 현장중심으로 세우는 일에 힘써왔다.

책무가 중요한 이유는 선교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방콕 포럼에서는 "한국선교의 출구전략"을 다루었는데, 선교사가 언젠가는 선교지를 이양하고 떠날 때에도 가장 중요한 이슈를 리더십 다음에 선교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선교사가 파송을 받아 선교지로 나가면, 파송교회와 후원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현지에 가면 선교사는 선교사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현장에 맞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는 책무개념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책무(Accountability) 개념은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서 유래되는데 이번 세미나에 참석자들은 선교 사역에 새로운 안목이 생겨지고, 우리가 건강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선교학적인 이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은 교회개척에 대한 이해, 일반적인 사역적인 책무와 선교비와 관련한 재정적인 책무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며, 한단계 발전적인 선교사역이 세워지게 되리라 생각한다.

⑥-2 선교사의 영성과 인격의 기본기

노록수 / 레소토, 고신, 95년 파송 선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총회선교부 파송선교사로 1995년 1월에 남아프리카 레소토에 파송받은 노록수 선교사는 교회 개척, 현지 목회자 재교육, 에이즈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다. 서울대와 고신대학원을 나왔으며 CBS '새롭게하소서'와 CTS '내가 매일 기쁘게'에 출연하여 선교 간증을 나누기도 했다

2만명이 넘는 한인 선교사들이 세계 각처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선교사의 기본 자질에 대해서 다 아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영성과 인격을 중심으로 다시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아프리카 현지 17년 사역 선교사의 자아성찰적 특강).

⑥-3 선교사와 크리스찬의 노후대책 비결

임석순 / 한국중앙교회 담임



영국 웨일즈 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현. 한국중앙교회 담임목사, 대신 총회 신학 학장

1. 노후의 멋진 고백 -

- 1) 솔로몬의 노후고백(전12:13-14), 2) 여호수아의 노후 고백(수24:14)
- 3) 모세의 노후 고백(신10:12), 4) 아브라함의 노후 고백(창22:12)

2.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나?

- 1) 일의 결국을 다 들어라(전12:13), 2) "그러므로 이제"의 삶을 결단하라(수24:11-13)

- 3) 여호와를 대면하여 알자(신34:10-12), 4)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고백하라(창18:15, 21:3)

3. 멋진 고백하는 노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이 있다(요21:15-18)

⑥-4 미주선교사자녀학교 설립을 위한 비전 - 여수론 기독교

지용주 / 시리큐스한인교회 담임



University of Utah 기계공학 박사,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전공, US Center for World Mission 동남부 코디네이터, InterVarsity Staff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KWMC 부의장 및 선교사자녀학교 설립협력기구 기구장

지난 2010년 연차총회 때 우리는 MK들을 위한 학교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기도제목이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는 MK들을 위한 기독교 학교가 없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기독교학교를 준비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잠재력있는 디아스포라는 바로 선교사 자녀들, MK(Missionary Kids)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MK는 차세대 선교사역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준비된 자원입니다. MK 학교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차세대 선교사역의 재원들을 양육하고,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선교사들의 고민을 덜어줌으로써 그들이 더욱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현지의 언어를 배우는 것도, 문화를 익히는 것도, 사역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사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은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밤낮으로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의 교육문제입니다" (마닐라 한국어아카데미 웹사이트 <http://www.mba.or.kr>)라는 한 선교사의 고백처럼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자녀교육입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싶어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 그러나 현재 미국에는 선교 자녀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거의 없다는 점은 바로 MK를 위한 기독교 학교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⑥-5 MK교육의 현실과 방향 (차세대 선교사로서의 MK)

김승진 / 영국 FIC 교장



강원 삼척 출생으로 학부에서 신학, 영어를 전공하였으며 총신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안수(예정합동) 후 2002년 4월 GMS 선교사로 중국 서부지역에 파송, 태권도 및 MK, 티벳장족 사역을 하다가 2011년 8월말 중국에서 철수하여 현재 영국 FIC(Felixstowe International College-초중고) 교장으로 섬기고 있다.

모든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건강하게 감당하는데 있어서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아마도 자녀교육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선교사들은 MK들의 교육과 진로에 있어서 별다른 전략이나 대안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MK들의 교육 현실을 진단해 보고 그 방향에 대해서 고찰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교육과 진로에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한다. 오늘날 이만사천여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는 가운데 현재 약 15,000여명의 한국선교사 자녀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MK로서 바람직한 정체성을 갖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글로벌 리더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역량으로서 1세대보다 더 훌륭한 차세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지도하고 교육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일에 있어서 모든 선교사들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지혜와 전략과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㉞-6 사역자 자녀들을 위한 미국 대학 준비 세미나

허그레이스 / C2 Education 수석부사장



1991 미국조기 유학 1세대, 1994 16세 조기 대학 입학, 1998 American University, B.A. in Public Communication, 2002 연세대 국제대학원 국제관계 석사, 2003 이화여대 동시통역대학원 특차 선발, 2005 to present C2 Education, 수석 부사장, Jacob's Dream Foundation 고문 이사

유수한 미국 대학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준비 하고 어떻게 지원해야 100% 등록금 지원을 받고 입학 할 수 있는가? 열악한 선교지에서도 미국 대학 입학 준비가 가능한가? 어떤 과목과 특별활동이 사역자 자녀의 진학에 도움이 될까? 미국의 어느 대학에 가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까? 미 전역에 110개 대학준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C2 Education에 부사장이며 UCLA인정 College Counselor로 지난 10년간 수천명의 학생을 지도해온 Grace Hur 선생님이 강의합니다.

㉞-7 선교사의 자기주도학습

전병철 /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ACTS 교수



현재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 교수, 홀러신학대학원 석사, 탈봇대학원 박사(Ph.d)

선교현장에서 체험하는 자기계발과 정체성유지 그리고 영성훈련의 학습 진행과정을 소개하는 학습매뉴얼 만들기를 중심한 강의.

㉞-8 해외선교 헌신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준호 / GMP 대표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졸업,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M.Div.) 졸업,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0년간 선교사역, 현재 GMP America 선교회대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소명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28-19-20의 지상명령과 행1:8에서 이미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람들만 나갈 수 있는데, 준비되었는지는 몇가지 중요한 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㉞-9 선교현장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맛보기

정훈채 / 호주 고신 선교사



고신총회 선교부 파송 선교사로서 2001년 호주 원주민(Aboriginaes) 선교를 위해 파송되어서 현재 3기 사역을 하고 있는 정훈채 목사는 파송 받은 이래 호주 유일의 원주민 신학교(AEF Bible College of WA)에서 강의 및 행정을 섬겨왔으며 2009년에 신학교 본관 건물을 완공하였다. 그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 명의 원주민 형제들과 교재하며 멘토링을 통하여 현지인 목회자를 세워가고 있다. 이와 같이 정 선교사는 현지 동족 복음화는 동족인의 손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건 강한 선교를 지향하고 있다.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과 고신대학교 선교목회대학원(Th. M)을 나왔다.

제 1 강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교의 도전-부르심-헌신, 신학교 건축, 선교현지의 경험)

제 2 강 "단기 선교의 두 얼굴 -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 1. 단기 선교 긍정적 평가 (1) 세계를 향한 하나님 마음 이해하게 된다. 2)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 비자의 성격이 여행비자이므로 환영의 대상이다. 4) 장기 선교사를 발굴하는 기회가 된다. 5) 현지 선교사들의 사역, 고충들을 경험하며,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 2. 단기 선교 부정적 요인 (사례-1 무책임 한 행동은 선교현지에 돌을 던지는 격이다. 사례-2 불도저 식 접근은 선교현장을 후퇴시킨다. 사례-3 기도와 훈련이 부족하면 조급해진다.) 3. 부정적 요소를 긍정화 하려면 (1) 현지 형편을 먼저 배워라. 2)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3)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㉞-10 선교와 돈 - 가난한 나라에서 사역하는 부자선교사의 도전

김진봉 / OMSC



김진봉 선교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프리카선교사로 헌신하였고 충신대학원과선교대학원을 졸업하고 1990년 서부아프리카 볼레권 코트디부아르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결혼 후 1994년GMS 볼레권 아프리카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영국 All Nations Christian College 졸업하고 1999 - 2006년 볼레권 아프리카 기니선교사로 사역하다 2006년 OMSC(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에 초청받아 안식년을 지내었고 현재 WEC International에서 파송받아 OMSC에서 International Church Relations Assistant to the Director로 있으면서 세계선교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OMSC에서 한국선교를 섬기고 있다. 작년 2011년에는 Korea Global Mission Leaders Forum을 준비해 섬겼으며 그 결과물로 "선교책무"라는 책이 한영으로 발간되었다. 내년 6월에 두번째 KGMLF도 준비하고있다.

"선교와 돈"의 저자인 조나단 봉크 박사가 1974년 이디오피아 선교사로 "생명의 말씀 교단"과 일할 때 있었던 사례는 외국선교사와 현지사역자의 극심한 경제적 차이를 잘 보여 준다. "생명의 말씀 교단에 속해 일하는 교사들의 한 달 급여는 대략 8달러 정도였고, 별다른 혜택은 없었다. 나의 매달 순수입은 1,200달러였는데, 여기에 의료보험, 가구가 절반 정도 마련된 집, 여행경비, 자녀교육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이 추가되어 있었다." 북미와 유럽에서(한국포함)의 안락한 생활을 뒤로 하고 떠난 선교사들이 흔히 자신들의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이 부자로 여겨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존 음비티(John Mbiti)는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에 새로 부임하는 외국 선교사를 바라보는 현지 기독교인들의 눈에는 그들이 "돈과 부에 있어선 '전능자'(omnipotent)"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조나단 봉크 박사의 저서 "선교와 돈"에서 말하고 있는 '외국 선교사의 부유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선교사가 자신들이 섬기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부자'(righteous rich)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

⑥-11 선교사들이 알아야 할 정신건강 전반에 관한 교육 (선교사가족세미나) 이승호, 이은희 / 에바다선교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79기), 뉴저지 주립의과대학 정신과 수료/Psychiatric residency/Chief Resident, 뉴저지 주립의과대학 소아, 청소년 정신과 Fellowship, 미국 정신과 협회 정회원, 미국 정신과 협회 Minority Fellowship 상 수상(종교와 정신의학 전공), 현 East Orange General Hospital CAPS Program Staff, 현 에바다 정신건강 클리닉 원장, 현 기독교 정신건강 연구소 소장, 현 뉴저지 푸른하늘교회 공동 담임, 현 에바다선교회 대표 (1985년 설립), 현 KAMHC (미주 한인 의료선교협회의) 이사, 안양 성린교회 개척 담임 1985-1988, 도미 12/28/1988, 메릴랜드 베다니교회 담임 1989-1991, 목회자, 선교사 정신건강과 영성 세미나 및 수련회 강사
이은희 목사: 찬양사, 라이프코치

정신건강 전반에 관한 내용 /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학습 장애 부진 (Learning Disorders) / 학교 생활 문제(반항적 태도, 폭력 사용 문제) / 충동조절기능 장애 / 각종 발달 장애 및 성격장애 / 자폐증 / 우울증 / 조울증(Bipolar Disorder) /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 강박 신경증 / 가족 별거 및 이별에 따른 불안 / 습관성 약물 및 알코올 중독 / 기타 여러 정신 질환 / 정신 진단 및 법적 소견서 / 정신건강과 영성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 부부문제, 인간관계, 어려운 사람들 다루기, 정신분열과 귀신들림, 성격과 성품들, 스트레스 대처하기 등등,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및 갈등

⑥-12 소셜 미디어 시대의 선교사의 문서출판활용 김승태 / 예영커뮤니케이션 대표



예영커뮤니케이션 대표, 거룩한빛광성교회 장로,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회장,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외협력위원장

미국과 한국에서 소셜 미디어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에서는 소셜 미디어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면 앞으로는 점점 더 후원자 관리 뿐만 아니라 선교사역의 동역자를 만나기도 어렵게 된다. 이 강좌에서는 디지털 혁명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문서출판사역의 변화의 동향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선교사의 관점에서의 미디어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7. 선교사역/전략

7-1 Bringing the Gospel to Unengaged People Groups 폴 애실맨 / CCC 부총재



1,000개의 언어로 번역, 236개국에서 6억번 이상 상영된 '예수영화'를 창안하고 지난 30여년간 디렉터로 섬겨온 폴 애실맨 박사는 1966년 C.C.C.에 헌신하여 현재 부총재로 사역하고 있다. 미전도종족에 관한 최고의 전략가 중 하나인 그는 「Finishing the Task Movement」를 통해 전세계 639개 미전도종족을 향한 최전방 개척선교를 펼치며 국제오랄네트워크를 통해 성경이 없는 3천여 언어를 위한 성경녹음사역을 추진중이며 로잔운동 탁구팀의 의장직을 맡기도 했다.

This session will focus on the people groups across the world that still have no missionary, no church, and no known Believers. A list of the remaining people groups without missionaries (over 40,000 in population) will be distributed. It will help every person interested in missions to know where the groups are throughout the world that have the greatest need.

7-2 First Steps in Adopting and Unengaged People Group 폴 애실맨 / CCC 부총재

This session will be filled with examples of laymen and pastors whose lives have been changed as they have begun to take the Gospel to Unreached People Groups.

7-3 미전도종족선교전략과 GMI사례 양태철 / GMI 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양태철 목사는 1957년 한국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1965년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의 주일학교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육군 제3사관학교 제 15기로 훈련(1976년) 및 임관(1978년)하였으며, 제대 후에는 관광을 공부(경희대, 스위스, 프랑스)를 하였다. 신학은 미국 CUU 신학대학원, 호주 WEC MTC, 호주 Victoria 신대원, 미국 Midwest 신대원에서 공부하였으며, 최종학위는 D. Min(선교학)이 되며, 20년 간 은혜한인교회의 사역자(선교사 9년, 선교팀장 11년, G.M.I. 미주 본부장)로 사역 중이다. 미국 GMU(은혜선교신학대학(원)) 및 GMI 선교지 신학대학(원)들의 선교학 교수와, KWMC 부의장과 KIMNET 실행총무로 섬기고 있다.

- (1) 미전도 종족 및 미전도 종족 선교의 개념(성경적, 역사적, 종합적 관점)
- (2) 미전도 종족 선교현황 및 선교전략
- (3) G.M.I. 미전도 종족 선교전략

7-4 미완성과업 성취를 위한 미전도종족선교전략 장춘원 / 뉴라이프교회 담임



현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담임, 갭(Gap) 미국 공동대표, 조이 장애 선교회 설립 및 정책이사, International Assembly of New Life Mission Church 교단 총회장 경영학 박사(DBA)

지역교회가 왜 미전도종족 선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할 수 있고, 그 전략과 방법은 무엇이며,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한 협력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선교단체와 기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지역교회의 미전도 종족 선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7-5 미전도종족교회개척

엄경섭 / SIM



엄경섭(Steve K Eom) 선교사, 구 이디오피아 주재 선교사(GMS, SIM), SIM 미주 아시아교회 동원 디렉터, 동서선교연구개발원(EWC/mrd), 아시아선교협의회(AMA)

7-6 선교지 현지화 전략

강성일 / 브라질 선교사



한국교회의 선교 초기 1983년 3월에 장로교(통합)의 선교사로 남미 브라질에 파송되어 약 30여년간 현지교회가 감당키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이루며 모범적인 현지 협력선교의 모델을 이루고 한국교회에 비전을 제시하였고 수많은 교회 개척과 현지 교단의 목회자, 전도자를 양성하면서 한편 그들 중 엄선하여 중남미 전역과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현지 교회에 선교 의식 각성을 이루며 미래의 가장 성서적인 선교 방법과 모델을 제시하였다. 현재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회장으로 헌신하면서 특별히 30여년간 헌신해 온 중남미 지역의 선교 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으로 개설한 “중남미 선교전략 연구소”를 통해 그간에 소외되고 잊혀져 가는 중남미 지역의 새로운 이해와 관심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며 현지 선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사역을 이루고 있다. 브라질 북동성교 신학대학을 개척, 운영하며 수많은 교역자를 배출하고 직접 개인, 축호 전도로 교회를 개척하였고 현지인 지도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회에서는 처음으로 현지 교회와의 선교 협력 공식 조인이라는 모델을 제시하였고 선교사들과 교포들을 위해 양국어 병행 성경도 발간하였다. 이러한 30

여년간의 사역을 기리며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별히 금년 11월 6일부터 “중남미 선교전략 연구소”를 통한 “중남미 선교전략 포럼”을 준비하며 현장 선교사들과 사역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기도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7-7 현지인지도력개발

조용중 / 글로벌호프 대표



조용중선교사는 미주한인교회 선교운동의 첫 열매이다. 그는 시카고지역에서 청소년운동 OIL을 시작하였고 선교사로서 필리핀에서 씨앗센터를 통한 현지지도력개발과 필리핀교회의 선교운동을 벌여 그가 양육한 사람들은 중동과 동남아전방개척 선교사로 나가 일한다. 2010년 앤디버러 100주년기념 동경세계선교전략회의의 준비위원장으로 섬겼으며 세계적 선교 전략가인 랄프윈터박사의 지명으로 선교단체 국제네트워크 대표로서 국제적인 선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회의 자생선교단체인 지피선교회의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는 사단법인 글로벌호프의 대표로 현지지도력개발을 통한 창의적 전략의 실현에 힘쓰고 있다.

7-8 현지인을 타문화권 선교사로 훈련하기

이승일 / 필리핀 선교사, 바울선교회



합동신학대학원(M.Div.)과 영국 웨일즈대학교에서(Ph.D.) 공부하였다. 바울선교회와 합신세계선교회(PMS) 소속 필리핀선교사로서 필리피노를 타문화권 선교사로 훈련하는 사역과 목회자의 패러다임을 선교목회적으로 전환하는 목회자 훈련사역, 그리고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강의하고 있다. 현재 안식년을 맞아 Fuller 신학교에서 방문교수로 지내면서 ‘21세기 선교동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본 강의의 목적은 1) 현지인(토착그리스도인)을 타문화권 선교사로 훈련하여 파송하는 것은 성경적, 선교역사적, 선교신학적으로 유효한 원리이며 2) 급변하는 선교현장속에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선교전략이라는 것을 바울선교회의 ‘현지인 선교사 훈련 전략’을 통해 밝히는데 있다. 본 강의는 1) 현지인을 타문화권 선교사로 훈련하여 파송하는 이론적 원리 2) 필리핀, 브라질, 남아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울선교회의 현지인 선교사 훈련의 사례발표 3) 참석자들과의 토의를 통한 더 나은 현지인 선교사 훈련방향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석자들은 바울선교회의 사례를 통해 현지인 선교동력화의 실제(실패와 기쁨)를 현장감 넘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7-9 사역전문화를 통한 선교사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김정환 / SON Ministry, GMAN 대표



김정환선교사는 SON Ministry와 GMAN 전문사역그룹네트워크 대표이며 86년도에 케냐선교사로 파송받아 선교를 했고 현재는 미주에서 단기선교전문가로 사역을 하고 있다.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 회장, KWMF 북미주지회장, KWMC 부회장 및 단기선교분과위원장, 전 KIMNET 총무를 역임했으며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World Mission. (M.A)를 졸업했다.

선교사들이 동종의 선교사역을 현장에서 할 때 선교사들이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선배 선교사님들 또는 동료선교사들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동종의 전문인 성도들이 선교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선교지와 연결하여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자료, 조언, 협력 등을 할 수 있다. 본 강의는 선교사들간에 동종의 종교권, 동종의 사역등에 대하여 서로 정보와 자료공유, 자원지원, 사역멘토링, 평신도전문인들과 연결하여 실제적으로 사역을 돕는 시스템에 대하여 강의한다.

7-10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선교 지식경영과 선교 정보네트워크

마민호 / 한동대학교 교수



한동대 국제지역연구소 소장,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선교사로서 선교현장에서 효과적인 선교를 감당하기 원하는 선교사에게 필수적인 강의로 선교정보의 생산, 관리, 공유와 활용을 통한 지식경영이 무엇이며 선교사가 어떻게 지식경영을 통해 선교정보네트워크 과정에 참여하여 효과적이고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강의한다.

7-9 사역전문화를 통한 선교사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김정한 / SON Ministry, GMAN 대표



김정한선교사는 SON Ministry 와 GMAN 전문사역그룹네트워크 대표이며 86년도에 케냐선교사로 파송받아 선교를 했고 현재는 미주에서 단기선교전문가로 사역을 하고 있다.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 회장, KWMF 북미주지회장, KWMC 부회장 및 단기선교분과위원장, 전 KIMNET 총무를 역임했으며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World Mission. (M.A)를 졸업했다.

선교사들이 동종의 선교사역을 현장에서 할때 선교사들이 교단, 교파를 초월하여 선배 선교사님들 또는 동료선교사들로부터 멘토링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동종의 전문인 성도들이 선교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선교지와 연결하여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자료, 조언, 협력 등을 할수 있다. 본 강의는 선교사들간에 동종의 종교권, 동종의 사역등에 대하여 서로 정보와 자료공유, 자원지원, 사역멘토링, 평신도전문인들과 연결하여 실제적으로 사역을 돕는 시스템에 대하여 강의한다.

7-10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선교 지식경영과 선교 정보네트워크 마민호 / 한동대학교 교수



한동대 국제지역연구소 소장,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선교사로서 선교현장에서 효과적인 선교를 감당하기 원하는 선교사에게 필수적인 강의로 선교정보의 생산, 관리, 공유와 활용을 통한 지식경영이 무엇이며 선교사가 어떻게 지식경영을 통해 선교정보네트워크 과정에 참여하여 효과적이고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강의한다.

7-11 신학교 온라인 영상강의 시스템 구축의 실제 구자혁 / Grace Mission University 행정처장



17년간 IT전문가로 미국과 한국에서 많은 기업, 대학, 교회 및 단체에 필요한 교육과 인터넷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였고 현재 Grace Mission University의 행정처장과 GMAN 네트워크 IT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는 구자혁 교수는 대학 및 기업체에서 경영학 및 정보통신관련 강의를 해오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 인터넷방송 따라하기, 인터넷 쇼핑몰 구축 및 운영, 웹 서버 구축 및 운영 등이 있다. 미주 크리스천 헤럴드 등을 통해 선교와 IT 라는 주제로 컬럼을 제공하고 있다. (E-mail: dr.jamekoo@yahoo.com) 고려대학교, 동국대 MBA를 수료하고 PSU 경영학박사과정중이다.

본 강좌는 신학교에서 학교 학사 일정과 동일하게 영상강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강좌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인터넷 용어 및 웹 서버 관련 기술적인 설명을 하며,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축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이론과 실무를 함께 설명한다. 특히, 실제 구축 예로 리눅스 서버 환경하에서 운영되는 Apache 웹 서버와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활용한 강의 관리 Application Program인 무들(Moodle) 프로그램과 Window Media 서버를 활용한 운영 시스템 구축을 설명 할 예정이다.

강의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의 등록, 강의 청취, 강의 요약, 개별 평가 등을 통해서 직접 학교에 출석하여 공부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는 노하우를 설명한다. 따라서 강좌를 수강하게 되면 온라인 강좌에 대한 이해와 온라인 영상강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적 사항과 인적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성공적인 온라인 영상강의 시스템을 위해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게 된다.

7-12 21세기 선교사역의 혁명 - 네트워크 선교사역 김선근 / 과테말라 선교사, 월드비전신학대학 학사부총장



GMS 파송 과테말라 선교사로 월드비전신학대학 학사부총장인 김선근 선교사는 충신대학교 (B.A, M.Div, Th.M)와 Shepherd University (D.D)를 나와 Grace Theological Seminary 에서 선교학 박사과정 중이다.

21세기 선교는 '각자가 '함께'하는 네트워크 선교입니다. 라틴아메리카는 과거에 선교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인교회와 성도님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라틴아메리카를 섬길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고찰해보며 네트워크 선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13 언어와 문화의 선교적 소통 김해진 / 멕시코 선교사



고신대학교(B.A.), 고려신학대학원(고신대학교신학대학원) (M.Div.), 미국 그레이스브레드르신학대학원(D.Miss.) 졸업한 김해진 선교사는 예장(고신) 총회 파송(1996년 2월) 푸에르토리코 및 멕시코 선교사로 푸에르토리코 개혁신학대학원 교수, 멕시코 올나이선신학교 교수, 고려신학대학원(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하였다.

오래 전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어린 아들과 목욕탕에 간 적이 있는데 아들이 "아빠 내 수영복은 어디 있어?" "한국에서는 그냥 다 벗고 들어가야 한단다" 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에서는 왜 목욕탕에서 수영복을 입지 않는 걸까?" 라고 아들이 생각했을 것이다. 선교지 언어/문화를 이해하지 않는 선교는 가능한가? 선교역사 속에서는 문화/언어가 어떻게 이해되었고 성경에서 메시지 전달과정에서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였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7-14 21세기 선교의 남은 과제: 선교단체간 협력문제 박시경 / 그레이스신학교 한국학부



전러시아선교사로 모스크바에서 13년 사역한 박시경 박사는 총회세계선교회(GMS) 선교훈련원장을 역임하였고 경북대 공대전자공학과(B.S.), 충신신대원(M. Div.), 풀러선교대학원(Th. M.), 그레이스신학교(D. Miss)를 나왔다. 그레이스신학교 선교학교수이며 현그레이스신학교한국학부 선교학박사학위 프로그램디렉터이다.

21세기 선교의 남은 과제를 논할 때, 1. 미전도종족, 2. 평신도선교사, 3. 모슬렘, 4. IT기술접속, 5. 선교단체간 협력 등이 될 것이다. 이 다섯 항목 중에서한국교회선교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은 선교단체간의 협력 특히 국제선교단체와의 협력이다. 현재 개교단선교부 중심, 혹은 선교단체 중심의 선교양태를 보이는 한국선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 서구선교의 패턴과 유사하게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백 년 동안 선교현장의 상황은 엄청나게 변했고 또 앞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한교단선교부, 한선교단체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국제선교단체간 협력은 21세기 선교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특별히 선교에서의 협력에 대해서 성경은 고전 12장의 지체론을 통해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선교상황적인 면에서도 기독교선교에 대한 적대적인 환경이 확산되어 가고있고, 21세기에는더 확장 될 것이다. 또한, NGO(비정부기구)를 통한 사역이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선교단체간협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더구나 선교자원(인력, 재정, 시간)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선교단체간 협력은 피할 수 없는과제이다.

7-15 현지인목회자재교육을 통한 활성화정책

송상천 / 러시아 선교사



1991년 부산영락교회 및 S.O.L.에서 러시아로 파송받은 송상천 선교사는 구소련(CIS)선교사협의회회장, 연해주선교사협의회회장, BAEKSEOK총회 선교사협의회 회장등을 역임하였고 현KWWMF임원으로 블라디보스톡(아르쎈)한-러교육문화원장, 러시아현지인목회자훈련원장, 블라디보스톡장로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다. 고려대, 충신, 백석대학원, 플로리다 비컨바이블칼리지를 나와 웨이스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박사를 받았다.

왜! 현지인 이어야 하는가? 목회사역인가? 선교사역인가? 사역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현지 사람을 발굴하여 현지인과 함께 하는 선교, 건전한 사역의 이양,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라.

7-16 선교현장에서의 교육선교효과와 모델

정금태 / 파라과이 선교사



한국에서 23년 목회하였고 1992년에 GP(GMS 교단소속)에서 파송받아 올해 파라과이에서 21년째 사역하고 있다. 교회 5곳 개척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기독교 예술 유치중고등학교 설립 운영, 파라과이 장로교 연합으로 운영하는 신학대학(중합대학 문교부인가 학사중 수여), 목회자 연장 교육(목회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1.5세 2세를 선교훈련 시키는 선교남미를 GP에서 운영하고 있다.

남미 파라과이는 90-95%의 천주교 어른들을 전도하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교육선교로 통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어서 전도하는데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손꼽힌다. 선교는 사실 교육과 동반되지 않으면 성장과 발전과 후세로 통한 제2의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세기 칼뱅 루터 멜랑톤 쾰링겐의 교육관을 비교하면서 현대 사회와 교육 고두로 달리는 한국교육과 세계 최저의 교육수준인 파라과이에서 어떻게 교육 선교를 할 것인가를 제시하며 지금까지 21년간 교육선교를 하여온 현장 교육 선교의 모습을 살펴보면 교육선교의 중대성과 필요성과 그 결과로 나타난 열매들을 현장감 있게 실감함으로써, 교육선교를 꿈꾸는 자들에게 큰 안내와 지표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측면에서 볼 때 어린이들의 하얀 마음 바탕에 그림을 그리는 대로 나타나듯 어린이 심령속에 십자가를 그리고 복음을 심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심을 개신교 대학을 설립하여 유아교육과와 교회음악과를 개설하여 파라과이 전 교회에 선교원을 세울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

7-17 카톨릭권의 복음적 선교전략

정금태 / 파라과이 선교사

중남미 하면 천주교 대국의 나라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점령으로 인한 IBERA 식민지 모습이 그려진다. 중남미 복음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각 나라의 인구 분포적으로 볼 때 적게는 70% 많게는 95%를 능가하고 있는 천주교를 모르고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중남미 23개국 유럽 아시아 등등 전 세계 48개국(2006년 통계) 천주교 나라를 간혹 일부 목사나 신학자나 선교사마저도 기독교 국가라고 보는 잘못된 견해를 속히 시정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이단보다 더 무서운 천주교의 우상숭배 나라에 어떻게 바른 복음을 전하여 하늘나라를 이루어야 할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을 모르고는 카톨릭권에서 선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일침을 더해 줄 기회이다. 결론은 카톨릭 국가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성경위에 세워진 선교가 이루어 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슬로건 아래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한 원주민선교를 원하고 있다. 이제 전 세계한인 원주민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어 원주민을 연구하고 원주민선교전략을 새롭게 모색할 때라 본다. 부족한 지극히 작은 원주민선교동력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전 강좌를 통하여 그동안 서로의 축적된 선교경험과 원주민선교의 정보들을 나누면서 지난날의 한인세계원주민선교를 돌아보고 새롭게 원주민선교 전략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많은 원주민선교사역자들과 이 선교에 관심을 가진 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7-18 창의적 접근지역의 대학생 선교전략

송제임스 / 창의적접근지역 25개 대학선교



창의적접근지역 25개대학 선교사역 22년, 선교목회학박사(Fuller Seminary), 세계선교를 향한 저술가, 교육가, 전략가

대학생은 이 사회의 물 근원과 같다. 물 근원이 청류인지 탁류인지에 따라 호수가 결정된다. 나라와 민족도 장차 지도자가 될 대학생들에게 달려있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복음화할 수 있는가? 특히 창문 지역의 대학생들을 어떻게 선교로 동원할 것인가? 3중 언어로 구사된 현란한 강의에 매혹될 것이다.

7-19 선교지의 미래를 바꾸는 영육(0-6세) 유아교육

신소피아 / Mission Globalization 공동디렉터



미국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North Orange County Community College District : Early Childhood Education Master Teacher Certificate 영, 유아 교사 및 원장 자격증 획득, 미국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기독교 교육학 석사 졸업, Golden Gate 미국 남 침례교 신학 대학원 목회학 석사 졸업, 미국 Fuller 신학 대학원 선교 목회학 박사 졸업, 미국 California에 있는 Plumfield School 유치원 교사 5년 근무, 현 한인교회 사역자, 교사 및 영, 유아 부모 교육 세미나 강사 (미국에서 Children 사역만 20년간 해옴), 현 Mission Globalization Co-Director 세계선교를 위한 교육사역, 현 유인대학교 교수, 미국 남침례교 CLD 신학교 교수, 로드랜드 대학교 교수, 현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Ph.D Candidate 연구 교수

21세기 주역이 될 사람을 키우기 원한다면 영, 유아기 때부터 시작할 수 있다. 태아 때부터 생후 첫 6년 간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방식에 따라 아이의 지능과 재능 발달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 때에는 아이의 두뇌개발, 집중력, 창의력과 상상력이 폭발적으로 형성되기에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어린아이도 영적 존재임을 인식하여 예배훈련과 성경을 통한 자녀교육으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한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있는 지도자로 세우는 교육이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 이 세미나를 통해 왜 6세 미만의 자녀교육이 중요한지, 또한 왜 부모가 알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7-20 어린이, 청소년 전도의 이론과 실제

여병현 / 미국어린이전도협회 한인지회 대표



여병현 목사는 180여 국가에서 사역하고 있는 국제적이며 초교파적인 어린이전도협회에서 32년동안 사역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사이다. 1990년 미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현재 미국 어린이 전도협회 한인지회를 맡고 있다. 해마다 미국과 전 세계를 순회하며 전도자 훈련과, 교사 교육, 학부모 세미나, 선교사 교육, Leadership Seminar, 가정세미나, 장년집회, 어린이, 청소년 부흥회 및 캠프를 인도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전문사역자이다.

교회와 선교지에서 알기 쉽게 전하는 다양한 복음제시 Tool과 영접방법, 확신방법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하나님 자녀된 확신, 사죄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입니다.

7-21 어린이 전도와 기독교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청각 자료교실 이옥희 / 미국어린이전도협회 한인지회 간사



이옥희 전도사는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에 헌신하고 미국어린이전도협회 간사로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서 교육부를 담당하며 오직 한길 어린이들만을 위해 오랫동안 사역해온 어린이 전문 사역자이다. 주일학교 교재 및 시청각 자료를 개발하고 미국과 해외를 순회하며 전도사 훈련, 교사교육, 어린이 부흥회 & VBS와 캠프를 인도해온 어린이 전문사역자이다.

새로운 찬송 울동, 재미있는 성경암송, 다양한 시청각설교, Craft, Special Program 등 사역 현장에 들어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청각 활용 방법들을 Workshop과 함께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7-22 내일이면 늦으리, 4/14 원도 선교! 최혜영 / 어린이전도협회 국제본부 선교사



서울예술 고등학교 미술과 졸업, 이화여자 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Art Trends Gallery 아트 디렉터 겸 작가,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신) 총회 세계선교부 협력선교사, 세인트루이스 거룩한 빛 교회 사모, 현 어린이 전도협회 국제본부 선교사

전 세계 인구 70 억 중에 삼분의 일이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다. 이들 중의 대다수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학대와 마약 알코올, 포르노그래피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군정집,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조지 바나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15세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의 일생에 그리스도인이 될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한다. 85퍼센트의 기독교인이 4세에서 14세 사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통계이다. 어린이 선교는 가장 결실이 높은 선교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였고 지금도 이 사역을 위해 섬기는 일군들은 턱 없이 모자란다. 한 해에 1억 명의 어린이들이 태어나며 또한 한 해에 2200만명의 어린이가 죽어 나간다. 지금 이 시간에도 1초에 4명의 어린이가 채 성인이 되기도 전에 죽어 나간다. 매일, 세계의 모든 나라의 모든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하고도 중요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호소하며!

7-23 남아시아의 어린이전도사역 - Bridge of Hope 임승환 / Gospel For Asia



1993년에 달라스 신학교에서 성경 강해학으로 신학 석사를 마친 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지난 2000년 제 4차 한인세계 선교대회에 K.P. 요한 박사와 함께 동행하였고 선교회에 동참하여 한국 교회 담당 및 번역 사역을 맡고 있다.

아시아 복음 선교회(GFA)는 1979년에 창립된 후 지금까지 인도를 중심으로 7개 국가에 133개가 넘는 선교 훈련 센터와 성경 대학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16,500명 이상의 자국민 선교사들을 파송, 후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8,000명의 선교사 지망생들이 2-3년간의 집중적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각오한 이들의 헌신과 그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해외의 많은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수천, 수만 명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 추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GFA의 비전은 아시아에서 복음이 가장 들어가지 않은 10/40창 지역에 수많은 자국민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지상명령(마 28:18-20)을 우리 세대에 성취하는 것입니다.

7-24 구전문화에서의 복음 전파와 지도자 훈련 이금주 / M국 선교사



1989년 침례교 해외 선교회 파송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다가 1997년부터 2년 반 동안 필리핀에서 아시아 선교사 훈련을 했다. 현재는 말레이시아 침례신학대학에서 7년째 선교학을 강의하고 있다. 침례신학대학에서 학부와 석사학위, New Orleans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iv.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선교학으로 Ph.D. 학위를 받았다.

구전 문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인지 방법 등을 소개하여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달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므로 대부분의 우리 사역자들이 섬기고 있는 구전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여 양육하도록 돕는다.

7-25 고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교회의 절대적 관계사역 이상조 / 고어헤드선교회 대표



고어헤드선교회대표(10년), 뉴저지인루터교회담임(21년), 상담학박사

이 세상에 고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고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시대부터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의 관심이며, 복음의 대상입니다. 구약시대의 고아의 의미는 부모를 잃은 아이를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고아의 의미는 부모가 있으나 부모의 역할을 해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아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고아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자녀를 삼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을 통하여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 주듯이 우리 육신적인 고아들에게는 가족과 같은 보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적인 고아들은 결국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 이단이나,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될 수 있듯이 육신적인 고아들도 잘 돌보아 주지 못하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고아들에 대하여 너무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얼마나 크고 또 클 것인가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대교회의 미래는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들 속에서도 고아들이 차지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고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변함이 없지만 한국 교회의 관심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그 대책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7-26 WEC의 선교전략은? 조혜선 / WEC 선교사



1913년에 설립된 WEC 국제 선교단체 미국 본부에서 아시아 동원국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본부는 필라 부근 작은 산속에서 60여명의 본부 선교사님들과 장기 선교사

이 세상의 복음을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 복음화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그리스도를 나타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하여 능력있는 신앙에 이르게 하고 교회와 친교 가운데 주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다. 복음을 받지 못한 지역에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준다 신약성경의 모본을 따라 지역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영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굳게 세우고 또 필요한 때에는 기존교회에서 사역한다. 선교를 위해 도전하고 선교사를 발굴해서 타문화권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파송한다 행 1:8의 말씀을 따라 복음 전파사역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파송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기지를 발전시키고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 지역교회와 협력한다.

7-27 미주 안의 다민족선교

홍디모데 / 중부개혁신학교 학장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강사; 미주 다민족 선교 20년, 중부 개혁신학교 학장

1. 미주 다민족 선교의 의의
2. 미주 다민족 선교 사역 소개
3. 미주 다민족 선교 전략

7-28 이주민 선교

전철한 / 한국외국인선교회 대표



서울신학대학교(1975)를 마치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1984)과 스텔란보쉬대학교(1990)에서 선교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플러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2001)를 취득하였다. 한국외향선교회(1975-2001), 국제 OM 선교선 - 로고스(1978), 돌로스(1985-6), 남아프리카 공화국(1987-97), 월드 컨선(1997-2000) 등에서 37년간 선교를 해 왔으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외국인선교회(FAN: Friends of All Nations) 대표로 일하면서 서울신대 겸임교수, OMS International 네팔과 필리핀 ECC(Every Community for Christ) Shepherd로 사역하고 있다.

국내 거주하고 있는 140만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지역교회가 어떻게 접근해서, 어떠한 전략으로 나아가는가를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모델을 제시한다.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현지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국내 외국인들도 동감하기 때문에 국내 이주자 선교모델은 해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현지에서 이주민 또는 다문화 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할 때에 적용하기 쉬운 선교모델이 될 것이다. 이 사역은 평신도선교, BAM, 전문인선교, 도시선교, 직장선교 등에서도 접근하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8. 단기/평신도/전문인선교

8-1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비즈니스 선교의 영향력

최웅섭 / 아제르바이잔 사업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목사 1998년- 바울선교회 아제르바이잔 파송선교사 2000년- 포유국제 NGO 재단 이사장 2008년- 포유장학재단 이사장 2012년- 포유글로벌 테크 CEO 2004년-

1. 비자(VIZA)-그것이 무엇이고? - 이슬람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분에 대하여 거짓말하기 싫었다
2. 나의 비즈니스 선교의 원칙 - 사업을 팔기 위해 목숨을 걸지 않는다
3. 비즈니스 선교의 행복함 - 주변에 대화할 사람이 많다
4. 비즈니스 선교의 팀워크의 가치와 필요 - 팀원은 나의 위대한 파트너이다
5. 비즈니스 선교의 영향력 - 내가 하는 일이 선교다
6. 나의 토탈 사역 - 사회적 기업을 현지에 만드는 선교단체 설립 계획
7. 결론 - 사업가를 선교사로 보내면 선교가 행복해진다. 사업가를 선교사로 보내면 선교의 폭이 넓어진다

8-2 NGO를 통한 세계선교

조용중 / 글로벌호프 대표



조용중선교사는 미주한인교회 선교운동의 첫열매이다. 그는 시카고지역에서 청소년운동 OIL 을 시작하였고 선교사로서 필리핀에서 씨앗센터를 통한 현지지도력개발과 필리핀교회의 선교운동을 벌여 그가 양육한 사람들은 중동과 동남아전방 개척 선교사로 나가 일한다. 2010년 엔딘버러 100주년기념 동경세계선교전략회의의 준비위원장으로 섬겼으며 세계적 선교전략가인 랄프윈터박사의 지명으로 선교단체 국제네트워크 대표로서 국제적인 선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한국 교회의 자생선교단체인 지파선교회의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는 사단법인 글로벌호프의 대표로 현지지도력개발을 통한 창의적전략의 실현에 힘쓰고 있다.

8-3 NGO와 함께하는 선교

이명근 / 연세대학교 교수



국제 보건학을 전공한 의사로서, 연세대학교, Johns Hopkins 대학에서 근무하였고, 국제 NGO인 Mercy Corps에서 지난 10년간 북한, 중국, 동남 아시아지역을 담당하였다. GMTC, GP, LMTC 등 선교 후원원이거나, 선교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다시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며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발 도상국의 보건문제, 구제 및 개발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작년 'NGO와 함께하는 선교'를 출간한 후에 전세계의 여러 선교사들을 위한 조언과 협력을 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선교나 전도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이다. 따라서 선교사들이 직접적인 성경 강이나, 전도가 어려워 빈민 구제나, 청소년 교육 사업 등 인도적 지원사업 (humanitarian aid)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고 있다. 실제로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 라는 말씀대로, 파송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들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 시키고 있다.

냉전이 종식 된 후에도 지역별로, 종족간의 갈등, 종교적인 갈등, 영토 분쟁 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거의 매년 쓰나미, 홍수, 태풍, 화산 폭발 등의 자연재해도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어 UN기구를 포함한 국제, 국내 NGO 들의 활동도 활발 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OECD 에 가입하게 되고, 불과 50년 전에 최빈국의 하나였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어 KOICA 등을 통해 전세계 개발 도상국들에 1조 2천억원 (2011년 기준) 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비율의 지원을 하고 있어 향후 몇 년이 이 지원금액을 몇 배 증가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도적 지원사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환경에,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과의 협력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국제, 국내 기구들의 인도적 지원현황과 전망을 소개 하고, 선교사들의 참여를 위한 조인과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한다. 특히 UN 을 포함한 국제 기구들의 이러한 지원사업과 관련된 표준화 (standardization) 를 이해하고, 협력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특히 예비 선교사나, 국제사회진출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조인과 세부적인 방법도 논의 한다.

㉔-4 세계선교, 당신이 해야합니다!- 모든 평신도가 다 뛰어들어야 합니다 최순자 / M.O.M. 대표



Messengers of Mercy 대표, 소아과 전문의, JAMA, GLDI, YWAM 등 여러 세미나/집회 강사, 전국적으로 교회방문하여 선교간증/세미나강의수십 회, 단기선교 100회 이상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야 하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다. 선교사에 의해서 영적인 복음만을 전달하는 선교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는 각자 다른 재능/기술/지식/경험을 가진 주님의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총체적으로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하여야 선교지와 현지인들에게도 총체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복음을 영적으로만 전해 들을 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어 현지인들에게 체험된 복음이 자발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자립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속한 시일 내에 한 마을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전인적이며(wholistic) 총체적인 선교(holistic mission)에 우리 모두 한 몫을 담당해야 한다.

㉔-5 마켓플레이스(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 (Business As Mission) 이지영 / MOM선교회 이사장



UC 버클리 전산과 졸업, 웨스턴 신학교 석사, M.O.M 이사장, 북가주 지부장, E3empower 창립자, 자마, YWAM, 크리스찬 최고 경영자 과정 총체적/사업 선교 강사, CBMC 컬럼니스트, 성경일독 강사, Lockheed Martin software configuration specialist (30년). 18개 나라, 단기 선교, 세미나로 지원, 지역 교회 선교 동원, 전략가. 총체적 선교, BAM, 마이크로 용자와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훈련: 학교, 프리스쿨, 자원 개발, 자연농업, 의료, 가정 사역 훈련하고 있다.

주님께서 삶의 현장인 마켓플레이스의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문화를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선교지에 적절한 청지기 제자훈련을 통해 자신의 작은 사업을 창업, 운영하게 도와줍니다. 검증된 기독교 마이크로 용자 운영기관과 파트너를 통해, 착한 상품과 서비스를 성경적으로 운영하는 것, 선교사님이 지 직접 일을 하면서 믿음의 실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례와 프로세스를 소개합니다.

㉔-6 Business As Mission 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박영국 / 인터서브 선교동원가



미국 인터서브 소속 선교 동원가인 박영국 선교사는 바이블 동서남북 강사, 남가주 선교단체 협의회 임원이며 Fuller Seminary (M.Div.)를 나왔다.

선교지에서 교회개혁이나 제자훈련을 통한 전도사역을 하는 일이 전통적인 선교전략(방향)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 방향으로 선교의 길이 열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를 통해 선교하는 것이다. 선교사들이 비즈니스를 통해 선교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선교지에서 꼭 필요한 사역이다. 그러나 선교지에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BAM을 할 수가 있을까?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BAM을 통해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번 BAM 강의를 통해 어떻게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지 같이 고민하며 은혜나누기를 기대한다.

㉔-7 물과 함께 복음을 권중승 / 물한그릇선교회 대표



물 한 그릇 선교회 대표인 권중승 선교사는 식수를 통해 오지의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성균관 대학교 토목공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사),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2 MA, Th.M)를 나왔다.

정수 장치, 우물 파기, 손 펌프 수리, 변소 설치 등의 사역을 통한 복음 전파

㉔-8 난민캠프사역을 통한 선교 조장연 / 세계모든종족선교회 대표



조장연목사 (Rev. Dr. Jang Yun Cho, Ph.d),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North Park Theological Seminary in Chicago, M.Div, M.A.C.E.,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in Louisville, Ph.D in Christian Missions. 서부아프리카 카메룬선교사 역임, 아시아복음선교회 한국대표역임, 서울신학대학 겸임교수 역임, 호서대학교 선교학강사 역임, 나사렛대학교 신학대학원 선교학 강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학강사, 그리스도대학교 선교학 강사,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강사, 세계모든종족선교회 설립자및 대표

그동안 한국교회와 한국인들은 직접선교에 상당부분 의존해 왔다. 반면에 우리보다 앞선 서구교회는 선교적 열정이 식어져가는 상황에도 국제사회에서 난민들을 돌보며 인도주의적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추가하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한국교회 및 한인교회 리더십의 성장, 그리고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한국 크리스천들의 역할을 돌이켜 볼 때 이제 직접선교 뿐만 아니라 간접선교사역으로 보이는 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Meeting the felt needs of the refugees)줌으로 인도주의적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역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이에 필자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난민캠프(Refugee Camps)에 있는 사람들을 도움(helping and caring the needy people)으로 선교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㉓-9 난민사역을 통한 열방선교 - The Boaz Project

지수향 / 시라큐스한인교회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상담학 전공, Trans World Radio 중보기도사역, US Center for World Mission 동남부 코디네이터, InterVarsity Staff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미국은 열방이 들어와 있는 선교지입니다. 특별히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로부터 많은 난민들이 미국에 와 있으며, 시라큐스는 난민들이 미국에 들어와 정착하는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보아즈 프로젝트(Boaz Project)는 모압 여인 롯이 난민으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그녀를 영접하고 먹이고 돌보았던 보아스처럼 미국으로 들어와 또다른 소외된 계층으로 살아가는 난민들에게 컴퓨터와 Tutoring, 그리고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Vision Summer Camp를 도구로 하여 복음을 전하는 시라큐스 한인교회의 난민사역입니다. 우리 주위에 와 있는 열방에게,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나라에서 온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선교 전략입니다. 이 보아즈 사역의 열매로 미국에 나와있는 17개 나라(북한, 부탄, 네팔, 미얀마, 중국, 콩고,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필리핀, 베트남, 시에라리온, 부룬디, 태국, 온두라스, 탄자니아, 인도네시아)에서 온 300여명의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선교지임을 생각해볼 때 한인 디아스포라로서의 미주 한인교회가 어떻게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선교를 미국 내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난민 사역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아즈 프로젝트 난민 사역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열매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미주의 한인교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㉓-10 스포츠문화선교 이렇게하라.

김민섭 / 국제문화예술기구(TCI) 대표회장



성결대학교, 한세대학교 외래교수, Ph.D. cand.(선교학), IC슈퍼바이저, (사)KWMA-국제문화예술기구(TCI)대표회장, 한국세계유학생선교협의회(KOWSMA)대표회장, 한국기독교스포츠총연합회(CCSK)상임회장, 한국청소년동아리경기연맹(KYCA)총재, 국제스포츠선교연구원(ISMI)원장, 경기도생활체육회 발전위원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IC자격관 위원회사무처장역임, 세계박물관문화박람회 기독교세계관관광역임, 대한민국문화예술선교대회 준비위원장역임, 한기총 20주년기념전국교단축구대회 수석준비위원장역임, 러브안양온더무브미션컨퍼런스 준비위원장역임

1. 선교의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스포츠문화 선교의 이해
2. 스포츠 문화의 선교신학적 이해와 성격적 고찰
3. 한국교회의 스포츠선교 역사와 실제 4. 스포츠문화의 선교적 실제와 전략

㉓-11 선교지 사역전문화그룹 형성과 전문인동원 단기선교 전략

김정한 / Son Ministry, GMAN 대표



김정한선교사는 SON Ministry 와 GMAN 전문사역그룹네트워크 대표이며 86년도에 케냐선교사로 파송받아 선교를 했고 현재는 미주에서 단기선교전문가로 사역을 하고 있다.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 회장, KWMF 북미주지회장, KWMC 부회장 및 단기선교분과위원장, 전 KIMNET 총무를 역임했으며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World Mission. (M.A)를 졸업했다.

21세기 선교지 사역은 전문화된 사역들을 하고 있다. 현재 2만 4천명의 한인선교사들이 169개국에서 154개 종류의 다양한 선교사역을 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단기선교는 이제 전문화된 단기선교를 선교지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다. 선교지의 전문적인 현장사역을 돕기 위하여는 단기선교팀도 선교지 사역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팀이 가서 효과적인 사역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인터넷과 정보망의 발달로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전문인들이 같은 동종의 사역에 그룹을 만들고 연대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사역을 할수 있다. 특히 평신도들이 이제는 본인의 사회경력, 지식, 은사, 기술로 현장선교사와 동역할수 있는 단기선교전략에 대하여 강의를 한다.

㉓-12 실크로드선상에서의 비즈니스(BAM)선교의 전략적 접근

김스데반 / C국 선교사



김스데반 박사는 총신대학(음악과) 및 동대학원(M.A국제사역)을 졸업하고 Midwest대학에서 석사(M.Div선교학) 및 박사(D.Miss문화인류학) 학위를 수여받았다. 20년째 C국에서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실크로드선상에서의 비즈니스 선교의 전략적 접근을 위해 sinoX-road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문적 이론을 토대로 수차례의 필드사역을 실제로 진행하여 효과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왔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웃들을 보면 대부분 미복음화 된 부족과 국가들이 몰려있다. 10/40창인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 되지 않았다. 이 지역에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역이 남겨져 있다. 또한 이곳에 가장 강력한 이슬람 세력과 불교, 힌두, 공산권이 있다. 이 지역을 어떻게 복음화로 공략할 것인가?

1. 창의적 접근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사역개발
2. 지역개발의 선교적 효과의 극대화 방안
3. 이슬람, 불교, 힌두, 공산권에서의 B.A.M(Business As Mission)의 접근
4. 실크로드선상에서의 B.A.M의 실제(아시아에서의 현지선교사훈련과 파송, 정착)

㉓-13 전문인선교 전략과 정책

최바울 / 인터콥 본부장



중동아시아선교사,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KAT)회장, 서울대, 아시아연합신학교 강사, 한동대 교수, 인터콥 선교회 본부장. 저서: 시대의 표적, 왕의 나라, 이슬람의 실체, 이슬람문명과 글로벌 지하드, 전문인선교 세계선교운동, 하나님의 나라적그리스도 세계체제 등 70편 저술 및 논문

㉓-14 전문인선교로서 효과적인 전인치유 선교전략

손영규 / GAMA 대표



경희대 의대 졸업/이비인후과 전문의/의학박사(예방의학), Samra Univ. 졸업, 동양의학 석사(USA)/캘리포니아주 한의사,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M.Div., Th.M. & D.Min. (USA), 총신대 신대원 졸업/GMS선교사/GAMA 대표

21세기 급변하는 선교 환경 속에서 전문인 선교에 대한 요구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문인 선교에 있어서 서양의학을 활용한 의료선교가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선교지 환경에서 볼 때에, 보다 효과적이고도 전략적인 치유선교는 서양의학, 한의학, 보완대체의학 등을 포괄하는 통합의료선교가 절실히 요구 된다. 따라서 한의학과 보완대체의학 및 선교지 전통의학을 치유선교에 활용하는 방안은 매우 효과적인 치유선교 전략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의료인들 뿐만 아니라 비의료 전문인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전인치유선교'는 전문인 선교사역에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 생각되며,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㉓-15 방송선교를 통한 세계선교 완성

최은중 / SBN 복음방송 사장



현재 SBN복음방송 사장, 현 만하탄소명장로교회 설교목사, 현 KWMC 부의장

한국인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하여 택한 민족이다.

- A. 방송환경의 변화
- B. 방송의 위력
- C. 방송선교를 통한 교회발전과 선교지원

㉓-16 크리스천 영화, 영화제, 그리고 그의 선교효과

안켄 / GMIT선교회 대표



GMIT 선교회 대표, PPF 크리스찬영화제 대표

21세기를 미디어의 시대라 합니다. 그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 세대들은 시각적인 영상물들로부터 대부분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 영상물들은 대단히 중요한 선교 도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슬람권에서 크리스천 영상물을 방송으로 전파하면 그 파급효과는 대단합니다. 미주 지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크리스천 영화제를 소개하고 미국 및 다른 나라에서의 개최되는 영화제와의 연계, 다양한 각종의 영상물들, 영화, 도큐, 교육용 DVD, 성경 애니메이션등등의 귀중한 자료들을 소개하고 번역, 보급에 대하여 선교 전략적 차원으로 접근합니다.

㉓-17 비의료인의 의료선교

전희근 / 필라한인연합교회 장로



서울대학교의과대학졸업, 펜실바니아의과대학조교수역임, Fuller 신학교의료선교학외래조교수, ACTS 아세아연합신학대학외래교수역임. 1984년부터 30여차례단기선교. 저서: Health in Mission, 단기선교에서배우는하나님, 하나님이너구세요등

의료선교의 목표는 총선교의 25%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약 25% 정도를 치유에 쓰셨다. 따라서 우리도 선교의 25%는 의료선교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세계 총 선교사 중 약 4% 만이 의료선교다. 한국의료선교사는 2% 미만이다. 의사와 간호사들만으로는 25% 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비의료인이 함께 사역을 해야 할 것이다. 비의료인이 어떻게 의료선교를 할 수 있는가.이 workshop에서는 그 방법을 여러가지로 제시한다.

㉓-18 “고지가바로 저긴데...” 의료사역을 통하여 세계가 동원되는 이야기 이상천 /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장로



서울 의대 졸업, 미주 산부인과 전문의, Specialized in Minimally Invasive Surgery & Pelvic Support Surgery, Faculty of Wayne State University, Medical School, Boston Scientific and Covidien Surgical Instructor, Involved in Direct Medical Mission since 1994; Kenya, Bangladesh, Mongolia,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장로

저는 하나님께서 일찌기 당신의 계획 안에서 심어주신 삶(vocation)의 밭에 심겨져, 풍성한 자람의 은혜 속에서, 동기부여를 받고 선교의 전선(frontline)에 갔다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아직도 후방 삶에 더 열심을 쏟고, 선교의 전선에 대하여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지만, 선교가 너무 재미 있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또한 너무 기쁩니다. 적어도 선교에 현장에서는 선교사들의 마음을 읽고, 현지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현지 의료인으로서, 선교를 향해 항상 방향조준을 하는 이로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역할은 제가 보기에 특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고, 일깨워주시고, 이를 통해 이루어주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제가 가르칠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는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저는 하나님 만나고 보여주신 일과,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손수 이루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일선에 계신 분들과, 생활의 밭에 심겨진 후방인들, 모두에게 말입니다."

㉓-19 무의촌 선교사를 위한 한방응급처치 요령

김광오 / 몬트리올외향선교회 의료선교사



1967년 한국 농촌진흥청 국가공무원 시절, Columbo 장학금 시험에 응시, 캐나다 Guelph대학 가축인공수정 연수생으로 시작하여, Saskatchewan대학 재활의학 인턴, 서울 경희한의대 침구과, 국제중의약대 한의학박사, McGill대 신학사 및 목회학석사 과정 등을 수료한 후 캐나다 한인1호한의사 (퀘벡주 의사회 및 자연의사회 면허)와 KPCA전도목사 겸 총회 파송 선교사가 되었다. 선원선교의 동기는 1976-79년 Halifax항구도시 병원 실습 중, 당시 한국 및 조선족 선원환자들의 통역을 맡았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82년 한의업을 개업한 그는 1997년부터는 정부에 '외향선교회' 등록을 필하고 몬트리올 선원센터에서 8-9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세계선원들을 상대로 협력목회와 의료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몬트리올 연합성서대학 초대 및 2대 학장을 역임 했다.

무의촌 선교지에서 누구나 약간의 한방상식만 익히면 위급시에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한의학의 범주에 속하는 침, 뜸, 부항, 사혈, 추나요법, 카이로푸라틱 등, 좋은 대체의학이 많지만 이론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번 강좌에는 침술 또는 지압을 통한 응급처치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혹 아픈 선교사가 있다면 임상과 건강상담도 상황에 따라 병행하고자 한다.

㉓-20 선교사와 선교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식이요법

한나 / 간호사(시카고)



현 Ambria College of Nursing 영양학 교수, 간호사, 영양사, 현 박사과정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임신당당뇨 초점. 영양학: 학사 & 석사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저자: 숨겨진 병 저혈당과 인슐린 과다증

한인 세계선교 대회 때마다 매년 의료 봉사 하면서 혈당 검사 식이요법을 담당하였기에 한인 선교 대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선교사님들이 몸을 돌보지 않고 선교하다 병이 나서 선교사역을 잘 할수 없거나 일찍 돌아가시는것을 보았기에 선교지에서 어떤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을 하면 건강하게 선교 할수 있나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선교지역에서 선교주민들에게 가르쳐줄수 있는 식이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교사가 알아두면 주민들에게 건강을 지키는 법, 병을 낮게 하는 식이요법 원칙을 알려줄수 있는 유익한 내용입니다.

㉘-21 찬양의 능력

이종미 / Maryel 치유선교



마리엘 치유센터 대표, 성신 신학대학 교수, 육군교도소 종교위원, 국제 위디 선교단체 이사

1. 찬양 입문
2. 찬양 의 능력
3.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㉘-22 침의술선교

이원휘 / 한의사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참가선교사

● 아시아

대만

이상란 1988/08/25 기독교대한감리회

라오스

강석균/ 오정옥 2004 기독교대한감리회

방글라데시

김성숙 2002/04/21 고신세계선교회
 노재인 1990/10/23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박영환/윤막래 2000/05 두란노해리선교회
 송한민 2011 안디옥해외선교회
 이계혁/우영옥 1989/12/10
 장순호/장은주 2012/05/28 기독교대한감리회

베트남

김남균/오미경 1995/02/12 여의도순복음세계선교회
 김영관 1990/ 10/ 21 기독교대한감리회
 설현도 2009 안디옥해외선교회
 심치형 1997/02/23 GMS
 최병영 2012/02/12

부탄

김혜영 1990/02 그루터기선교부

사이판

장동익/곽에스터 2008/09/08

스리랑카

김선태
 김제용 2000/04
 도육환 1996 TIM
 정은범 1996/10/13 기독교대한감리회
 정진삼 기독교대한감리회

인도

김광배/장수연 2002/02
 김대균 1992/04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성준 2008/11/18 여의도순복음교회
 김태숙 1993/02/28 GMS
 이명화 2010/09/10 국제기아대책
 이병구
 이병성 2004/04/27 기성
 이윤식/이춘경 2004/03/15 GMS
 이재구 세계태권도 선교회
 정장환/이혜경 2001/03/01 한나선교회
 정효신 2001/12/04 예성총회
 최은영 2001/12/04 예성총회

인도네시아

김외현 1999/09
 김종국/최춘영 1983/10/20 고신
 김혜미
 박성오 1991/05 합신개혁교단
 백운영/박영은 1990/02/25 GP
 안성원 1984/02/27 GP
 임재영 2007/07 한국기독교 침례회
 한치완/김애경 여의도교회
 김(Pan)

일본

이병구 1972/03/01 예장통합총회
 조남수 1988

캄보디아

김정룡/성정숙 2000 GMS
 노진태 2002 예장고려총회선교
 이시은 2002/09 대신세계선교회
 장완익/변옥선 1993/10/31
 정순영 1999/03/28

태국

김미숙	2005/04/23	GMS, CP-Mission
김완주/백승정	2005/06/20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철수	2005/08/21	GMS
배종원/이은순	1992/05/07	GMS
오세관	1990/12/21	기독교대한감리회
정석천/신병연	1988/01/18	한국기아대책기구
최승근	1999/02/10	
최유미	2009/07	기독교대한감리회
황금례	2005/08/21	
황진호	2001/12/30	

필리핀

강정일/김현아	2008/10/14	합신 경기 중노회
김선숙	1986	
김영자	2005/01/25	
김재성		
박병준	2007/09	합동
박익순	1996/05/01	전주반석교회
방창원	2003/08/05	총회세계선교회
백현순	1990	기독교대한감리회
백영모	2001/01/18	기독교대한성결교
우재형	2011/02/15	울산남노회(고신)
이광섭	2005/01/25	
이교성		통합
이승일/김혜원	2006/10	바울선교회
이점주	2000/03/30	
장순현/신선희	2002/02/25	통합
정대섭	2003/03/21	기침
최윤수	1996/04/01	기독교대한감리회
최희진	2007/09	합동
홍승목/김성미	1991	대석교회/한길교회

한국

강병권	1992/01/19	GMS / AIM
김규태	2009/02/01	통합
김병선	1984/02	GP 국제본부
김태완/김창욱	1996	TIM
김현곤	2000/6	통합

김호동	1992/07/19	GMS
류선정		빛세계선교회
마민호	1999	국제지역연구소
배점선	1992/07/19	GMS
소윤정	2012/03/01	안산지역이주민사역
이몽식	1992/06	불어선교회
정홍주	2001/03/13	GMS
조용중/최경련	1987/05/14	지피선교회
최문종	2004/8/24	통합
최병국	2005/06/09	GMS
최혜영	2009/12/07	어린이전도협회
한미령	2002/06/01	기독교대한감리회
홍혁		한국피스메이커
황태연/이춘선	1994/03/16	GMS

전략지역

강0애	2000	알타이 선교회
강0윤	1994/10	예장합동
강0식	2010/08/15	
고0라		
고0몽		
고0훈/고0희	2007	YUST PUST
권0덕	1992/06	예장통합
권0운	2/18/1995	여의도순복음교회
김0기		올네이션스 교회
김0희	2000	알타이 선교회
김0린	2005	북경한인21C
김0삼	2001/08	인터서브
김0선	1996/11	
김0선	1998/08/01	대신세계선교회
김0선	2000/09/04	
김0섭	1991	바울선교회
김0수	1994/04	
김0수		장로교
김0숙		
김0숙		장로교
김0순	1998/03/04	
김0순	2001/04/01	
김0스	1997/04	대신세계선교회

김0애	2001/06	예장통합
김0연	2004/10	자비량
김0옥	1985/02/03	통합, 예장(통합)
김0옥	2007/08/01	침례교국내선교회
김0울	1999/02	Gospel Recordings
김0자	2003/10/16	KPCA
김0조	1992/09/01	현도교회
김0주	2010	사랑의교회, 소망교회
김0호	1998/08/01	대신세계선교회
김0환	1995	
노0숙	1991/03/01	기독교대한감리회
무0박	2003/01/03	미주오 엠국제선교회
박0자	1992/06	예장통합
박0득	2008/10/24	인터서브코리아
박0길	2001/06	예장통합
박0복	2004	
박0숙	2010/04	인터콕선교회
박0우	1992/03/14	예수교대한성결교
박0자	1992/06	통합, 예장통합
박0한	2000/07	
박0혁	2000/01/26	
박0희	1996/11/04	알타이선교회
배0수	1996/01/19	중동선교회
서0환	2013	감리교
성0수		
성0호	1995/06	
손0규		GMS
송0수	1996/07/28	중국대학선교회
송0애	1990/05/30	합신세계선교회
신0철	2005	북경한인21C
신0혁	2000/09/04	
양0민	1991/10/04	바울선교회
오0임	1994/10	예장합동
유0난	1992/09/01	현도교회
육0준	2008/03/30	대신세계선교회
윤0권	1990/05/30	합신세계선교회
윤0형	2001/08	인터서브
이0귀	1985/02/03	통합
이0더	2003/01/03	미주오 엠국제선교회
이0덕	2003/01/26	기독교대한감리회
이0쁨	1997/04	대신세계선교회

이0숙	1992/02	기독교대한감리회
이0숙		올네이션스 교회
이0열	1996/08/25	대신세계선교회
이0영	2000/11	통합
이0영	2013	감리교
이0재	2000/11	통합
이0주	2007/08/01	침례교국내선교회
이0주	1989/11/02	침례교해외선교회
임0진	1993/02	기독교대한감리회
임0환	1998/03/04	
장0윤	2003/10/16	KPCA
전0재	2004/01/10	침례교해외선교회
정0균	2010	사랑의교회, 소망교회
정0길	2001/04/01	
정0순	2002/12/12	베다니연합감리교
정0진	1998/12/03	
정0희	1990/03	은혜한인교회
조0표	2010/10/13	
조0한	1995/01/06	통합, 예장통합
지0미		
최0라	1999/11/16	
최0연	2002/12/12	베다니연합감리교
최0영	2008/10/24	인터서브코리아
최0호	2001	
최0호	1997/03/12	기독교대한감리회
하0렙	1999/11/16	
한0구	2003	WEC International
한0금	2005	북경한인21C
한0망	1994/04	
한0희	2003	WEC International
함0현		
혜0진	10/13/2010	
홍0실	2006/03	기독교대한감리회
황0숙	GMS	

● 아프리카

가나

이명석/최미애	2002/12/15	
이태현/김용희	1997/07/20	GMS
최용순/김영화	2006/07/20	GMS

남아공

김영무	1999/02/24	고신
노록수	1995/03/01	고신

세네갈

김명수/박경희	2003/07	총회선교회
---------	---------	-------

수단

김미경	1991/06	한국외향선교회
-----	---------	---------

스와질랜드

김윤경	2004/01/20	대조제일교회
-----	------------	--------

우간다

유건중	1996/06/06	예장통합
송인진	1995/07/07	한국외향선교

케냐

강인중	1987/09/02	GMS
김순태/권오애	1985	AIM/GMS
김정오/김영미	2006/06/11	여의도순복음교회
박찬섭		
윤기철/윤춘자	2011/01/16	임마누엘
이경자	1999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상석	1995/12/04	
전상훈/전경숙	2007/07/11	GMP America

전선환	1987/09/02	
조규보	1997/02/02	대신
최명온	1987/07/15	GMS

탄자니아

강인식/김미숙	2007/05/18	백석총회
김정림	1988/03/09	기독교대한감리회
마문구	1991/03	기독교대한감리회
박영금	1991/09/01	바울선교회
차영미	2002	자비량
홍난윤		기독교대한감리회

튀니지

최철	1992/2004	바울선교회
----	-----------	-------

기타 아프리카

권종승/최미경	2006/07/01	물한그릇 선교회
---------	------------	----------

● 중동 / 중앙아시아

레바논

김성국/오명숙	2000/02/15	여의도순복음교회
---------	------------	----------

이스라엘

최경숙	2007/11/07	KIBI
-----	------------	------

이집트

김교만	2003/04	순복음세계선교회
-----	---------	----------

우즈베키스탄

방대식	1997/08/03	GMS/SEED
-----	------------	----------

● 유럽

그루지아

심호섭/박정신	2011/01/01	알타이 선교회
정정옥	1995	GMS

러시아

강성규	1998	소련선교회, 기침
고준기	1995	미주총회
권한공	2000/04/30	
김정규	2002/02/18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정희	1993/07/07	통합
박형서/박신욱	1991/12/12	캐나다성결선교회
배봉연	2004/09/07	예장 총회
송순동	2005	TIM
송상천	1991/12/17	예장(백석)
양태철	1993/01/18	G.M.I
원수연	2001/05/06	북방선교회
유인자	1999/06	러시아선교회
이준	2005	TIM
이청희	2001/05/06	북방선교회
전희천	1993/07/07	통합
장승열	1992/06/21	
전호중	1996/03	
정운	1995/12/06	사랑누리세계선교회
최신출	1992/08/01	침례교해외선교부
한도화	1992/06/21	GMS

루마니아

박천규	1991/07/25	
정흥기	1992/07	AFC

우크라이나

김대오/박미아	2005/02/02	통합
장종일/강정애	1990	기독교대한감리회

카자흐스탄

김정일/이옥희	1991/09/07	GMS
김택주	1993/12	
김현두	1996/10/28	통합
김형욱/장홍순	2002/09/10	한국외향선교회
송재호/임정옥	1996/06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베라	1991/09/15	고신총회

키르기즈스탄

강형민/김숙진	1992/04/26	
김학중/전정숙	2002/02/15	대신세계선교회
김휘경		
박정희		
서창주/김기복	2006/03/09	국제기아대책기구
오선택/최안나	1991/08/30	침례교해외선교회
이정일/이순이	2008/11/30	미남침례교회
이주환	1996/09	기독교 한국침례회
정구현/박희복	1993/09	백석교단
최근봉		GMS
최진희	2010/03/08	국제사랑의봉사단
서창주	2006/03/09	국제기아대책기구

타지키스탄

박상태(스테반)	2005/06	인터콥
----------	---------	-----

중동/중앙아시아 전략지역

김0삼/윤0형	2001/08	인터서브
이0석/윤0점	1986/04/15	예장통합
이0열	1996/08/25	대신세계선교회
장0창/이0주	2004/09/29	

벨기에

최규환 2012/04/27 GMS

알바니아

이향모/윤경숙 1985/10/25 통합

영국

박영은 차병준 2001/01/03 Mennonite USA

체코공화국

유정남 1991/10/01 독일오엠

코소보

이성민 1998 GMP
한태진 2002/02/17

폴란드

김현중/임진 1991/09/20 대신총회

프랑스

이극범/김숙희 1988/04 통합
한상원 1988/04 통합
허영희 1991/05/24 기독교대한감리회

● 북아메리카

미국

강경화 2002/05/31 기하성총회선교국
강성근 2011 TIM
강영창 맘선교회
강태원 맘선교회

김석원 1992 CCCI
김성원 1997 TIM
김영미 2012/01/01
김우신/김창원 2001/07/18 가좌제일교회
김진봉 1994/02/13
김정환 1985/10 상동교회
김진식 1981
김충직/김영숙 생명수세계선교회
김태영 맘선교회
김향숙 1992 CCCI
김해인 맘선교회
남후수 1987/08/26 예장고신
노승희 GMP America 선교회
손정래 2010 TIM
송요셉/송혜영 2007/12/01 Mennonite USA
스테판 SIM
신계옥
신동국/신선자 2012/01 SON Ministry
신종철 2011/03/01
안켄/안셀리 2009/11/28 GMIT
양강원 맘선교회
엄경섭 2004/02
윤도희 2011/01/23 대한예장총회(백석)
이(Irene) 2001/01/25 솔트
이성희 1987/08/26 예장고신
이종선/이덕미 2000/07/01 Mennonite USA
이지영 맘선교회
이폴 1/25/2011 솔트
이협승 맘선교회
임찬혁 2008 빌리그래함센터북미다민족사역
장인관 1990/04
지무기 맘선교회
조미자 2000/01/03 Mennonite USA
조성도 1999/01/03 New Hope Mission
최상진 1998/11/31 Mennonite USA
최혜영 2009/12/07 어린이전도국제본부
탁명호/탁정민 2006/04/01 KIBI
한상경 2002/05/31 기하성총회선교국
허정분 2000
홍성계 2011/01/23 대한예장총회(백석)

캐나다

강경신/강사라 2000/12/01 기독교대한감리회
김광오 미주한인장로회
박용희 1995/02/16 대한예수교장로회
최승일/서성미 2012/01/03 캐나다장로교단

● 라틴아메리카

과테말라

김선근/이정옥 2007/01/11
유광수/윤영숙 1996/02/28 기독교대한감리회
최남용 2012/02/19 GP International
최상현 2006/04 실버미션
하덕신/하연호 2007/01/12 세계등대교회

도미니카공화국

김성자/보바디자 호세 1998/05/30 기독교대한감리회
최광규/최선자 1988/08/25

멕시코

김광철 2008/05/21 대신세계선교회
김영락 2009/05/24 GMS
김해진 1996/02/09 예장고신
이사라 1991
임정현/명정심 1998/02/24
정득수/이세련 1991/05/05 통합

볼리비아

이건화/김성재 GMS

브라질

강경찬/김민경 2009/01/11 브라질장로교회
강성일/현봉희 1983/03/28 예장통합
김지훈 1991/03 예장세계선교부통합측
김철기 1991/03 예장세계선교부통합측
박영호 1995/08/12 C&MA of Canada
신재춘/신정님 1997/01/13 재미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성전 1990/10/20 기독교대한감리회
한도수/석인숙 1986/09/16 바울선교회

아르헨티나

윤춘식 1990 고신총회

에콰도르

박용정/오지영 2008/08/20 GMP America

온두라스

박명하 1991/10 통합

파라과이

곽성건/남춘금 2002/01 예장총회
박상하 1995/06/25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정건/박은주 1989/03/30 예장 고신
정금태 1992 GP선교회/GMS

페루

김명수/오주엽 1990/06/15 예장 통합
박맹춘/김선옥 1992/1/25 PCK

기타

조경진 1997

●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우신득

팔라우

정상진 2000/03/14 통합총회

호주

류현석/김효영 2001 기하성
정훈채 2001/01 고신총회

● 전라북도지역

북방선교

김0일 2008/06/08 기독교대한감리회
김0진 2002/04/19 기독교대한감리회
박0회 2008/12/28
이0자 2011/8/10 Bethel Korean Church
이0청 2011/8/10 Bethel Korean Church
이0범 1999/09/0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0문 1999/09/0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조0회 2008/06/08 기독교대한감리회

비거주

박0신 2011/01/01 알타이 선교회
심0섭 2011/01/01 알타이 선교회

특수지역

박0철 2001/06/11 WMTC
손0란 1989/06/06 GMS
송0길 1994 천국가족선교교회
조0화 2001/06/11 WMTC
허0연 2000/11/04 MK Connection

그외 전지역

강경녀 강석심 강지연 고인섭 권진경 권태주 김건수
김만우 김명옥 김명택 김미현 김석수 김선웅 김성광
김성태 김수련 김스데반 김승진 김애자 김여주 김영옥
김영주 김요한 김은혜 김정은 김정자 김호용 남궁태준
명영희 목미향 문미경 박성신 박성자 박세록 박시경
박영완 박은희 박채민 박현희 서동민 서문호 서정희
손잔디 송혜신 신미경 신태훈 심만수 심명자 심재근
안진찬 양성모 윤기태 윤순중 윤요한 윤희숙 이규종
이동백 이미정 이민재 이빌리 이양화 이은주 이정원
이정일 이종미 이준교 이준호 이 철 이희재 임성익
임종표 임현철 장금주 장은희 장재필 장주영 전수은
정봉수 정영숙 정인순 정종숙 정혜원 조명순 조선영
조성문 조영아 조용완 조효성 차기승 최도진 최상영
최영주 최인경 최종일 한정원 홍진호 황희연